

# 리아호나

연차 대회 말씀





“이 세대에 속한 우리는 전에 있었던 모든 추수의 마지막 결과입니다. 그저 이 교회의 회원으로 알려지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엄숙한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책임을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완수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는 악을 선으로 보답하며, 주님의 길을 모범으로 가르치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개요를 말씀해 주신 크나큰 봉사를 성취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대한 사랑을 품고,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사람으로 생활해야 합니다.”라고 2004년 4월 3~4일에 열렸던 제174차 연차 대회에서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은 말씀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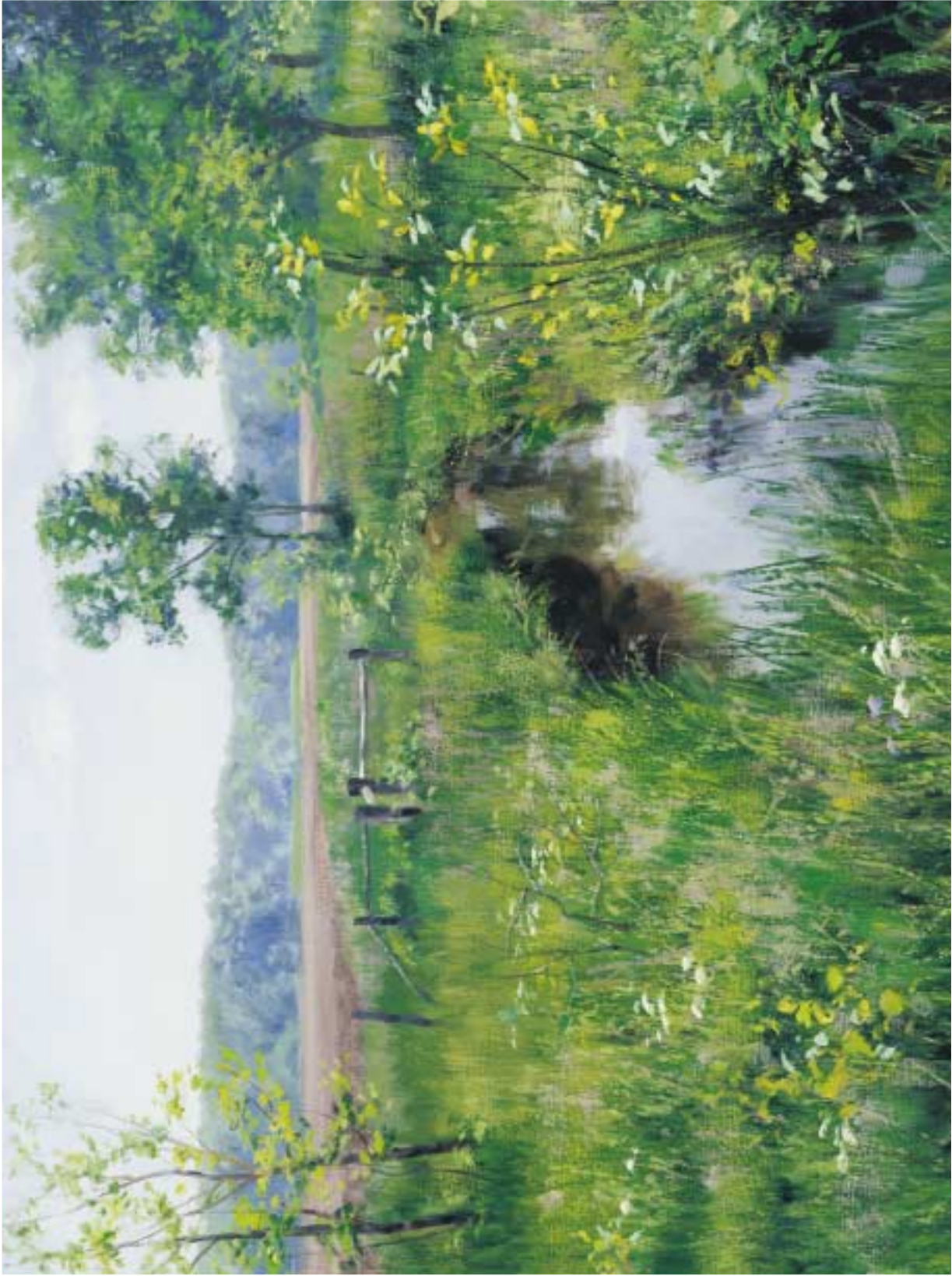




복제 금지

**제프리 하인, 아이로의 딸을 일으키심**

구세주는 아이로의 딸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니] ...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딸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마가복음 5:39, 41~42)



원 배스 및 류실 올슨 제공, 복제 금지

**벨로이 이튼, 스프링 힐 허류-이담 온다이 아만**

이담은 자신의 의로운 자손들을 이담 온다이 아만으로 불러 "마지막 축복을 저들에게 주었"다. (교리와 성약 107:53~57 참조)  
다니엘은 이담이 제림 전에 이 곳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했다. (다니엘 7:9~14)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미주리주 데이비스군에 있는 스프링 힐이 주님의 말씀으로 이담 온다이 아만이라 명명한다는 계시를 받았다. (교리와 성약 116편 참조)

# 리아호나

2 제174차 연차 대회 요약

**토요일 오전 모임**

- 4 교회는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 6 하나님 지혜와 사랑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 7 재림을 위한 준비  
달린 에이치 옥스 장로
- 11 너는 돌아킨 후에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 14 마무리된 이야기  
게일 엠 클레그
- 16 주의 힘을 의지하여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 20 개인적인 영향력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토요일 오후 모임**

- 24 교회 역원 지지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 25 2003년도 교회 감사부 보고서  
웨즐리 엘 존스
- 26 2003년도 통계 보고서  
에프 마이클 왓슨
- 27 뿌리와 가지  
러셀 엠 넬슨 장로
- 30 “내 안에 거하라”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 33 예수님 생각하오니  
키스 비 맥멀린 감독
- 36 그리스도의 말씀-우리의 영적인 리아호나  
더블류 로프 카 장로
- 38 가정에서 간단하고 단순한 복음 원리들을  
적용함  
프란시스코 제이 비냐스 장로
- 40 세상의 부채, 하늘의 부채  
조셉 비 워스린 장로

**신권 모임**

- 44 “주가 베푸신 자비를 기억하여”  
닐 에이 맥스웰 장로
- 46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머빈 비 아놀드 장로
- 49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얼 시 텅기 장로

- 51 선택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 54 용기를 구하는 외침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 58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일요일 오전 모임**

- 61 여러분은 올바른 메시지를 받았습니까?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 69 아버지, 영원한 부름  
엘 톰 페리 장로
- 73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  
데니스 이 시먼즈 장로
- 75 모성  
줄리 비 벡
- 77 “두려워 말라”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 81 찬란한 아침이 밝아옴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일요일 오후 모임**

- 84 속죄와 한 영혼의 가치  
엠 러셀 벨라드 장로
- 88 부모의 지극한 정성을 모아: 가족들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 92 주님 앞에 흠 없이 섬  
클레이트 더블류 마스크 이세 장로
- 94 결혼과 가족: 우리의 성스러운 책임  
더블류 더글라스 섬웨이 장로
- 97 속죄: 모두를 위한 모든 것  
브루스 시 하펜 장로
- 100 점점 증가하는 악 속에서 잘 사는 방법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
- 103 폐회 말씀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청년 총회**

- 104 모든 것이 연합하여 만사 형통하리라  
수잔 더블류 태너
- 107 “경전과 더불어 나의 심령이 기뻐워하며”  
줄리 비 벡
- 110 믿으십시오!  
일레인 에스 돌튼
- 112 의로운 길에 머무십시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 64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총관리 역원
- 116 어린이들에 관한 총관리 역원들의 말씀: 연차  
대회를 삶의 일부로 삼음
- 118 참고 지도서
- 122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
- 123 교회 소식



## 제174차 연차 대회 요약

### 2004년 4월 3일 토요일 오전 모임

감리: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사회: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개회 기도: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장로. 폐회 기도: 웨인 에스 피터슨 장로. 음악 제공: 몰몬 태버나클 합창단. 지휘: 크레이크 제섭, 맥 윌버그. 오르간 반주: 클레이 크리스티슨. 찬송가 55장 “진진하게 주 예수 믿으니”, 찬송가 45장 “아름다운 세상”, 어린이 노래책 16~17장 “주는 이 몸을 사랑해요”, 찬송가 32장 “우리 구원의 날을 함께 다 즐기세”, 찬송가 180장 “아침 저녁 매일같이”, 찬송가 16장 “성도들이 두려울 것 없다”.

### 2004년 4월 3일 토요일 오후 모임

감리: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사회: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개회 기도: 엘 휘트니 클레이튼 장로. 폐회 기도: 스티븐 이 스노우 장로. 음악 제공: 솔트레이크시티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합창단. 지휘: 바나 와이 왓킨스. 오르간 반주: 보니 굿리프. 찬송가 40장 “사랑하는 자녀들아”, 찬송가 99장 “주님은 내 목자니”, 찬송가 149장 “하나님의 일 부지런히 하세”, 찬송가 13장 “오라 주의 자녀들”, 찬송가 157장 “신앙으로 나아가”.

### 2004년 4월 3일 토요일 저녁 신권 모임

감리: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사회: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개회 기도: 크리스토퍼 콜든 이세 장로. 폐회 기도: 크레이그 시 크리스티슨. 음악 제공: 오렘 및 솔트레이크 종교 교육원 신권 합창단. 지휘: 더글러스 브렌츨리, 던 키튼,

라이언 에جت. 오르간 반주: 존 롱허스트, 클레이 크리스티슨. 찬송가 47장 “소리 높여 찬양해”, 어린이 노래책 62~63장(영문) “Beautiful Savior”, 찬송가 18장 “찬양해 여호와와 대화한 사람”, 찬송가 27장 “이스라엘의 구주”.

### 2004년 4월 4일 일요일 오전 모임

감리: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사회: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개회 기도: 윌터 에프 곤잘레스 장로. 폐회 기도: 제임스 엠 던 장로. 음악 제공: 몰몬 태버나클 합창단. 지휘: 크레이크 제섭, 맥 윌버그. 오르간 반주: 리처드 엘리엇. 찬송가 35장 “굳도다 그 기초”, 찬송가 153장 “내 영혼이 햇빛을 받아”, 멘델스존 곡 “How Lovely Are the Messengers”, 찬송가 43장 “위대하신 여호와여”, 찬송가 68장 “내 구주 살아 계시다”(독창: 리리엘 도미치에노), 데일리 곡 “Faith in Every Footstep”.

### 2004년 4월 4일 일요일 오후 모임

감리: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사회: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개회 기도: 로버트 에프 오톤 장로. 폐회 기도: 대릴 에이치 간 장로. 음악 제공: 몰몬 태버나클 합창단. 지휘: 크레이크 제섭, 맥 윌버그. 오르간 반주: 린다 마기츠, 보니 굿리프. 찬송가 41장(영문) “Let Zion in Her Beauty Rise”, 찬송가 286장(영문) “Oh, What Songs of the Heart”, (플루트 주자: 지닌 고커리츠, 티파니 맥클리어리, 제니퍼 그레밀리언, 리사 스미스, 하프 연주자: 티마러 오즈워드), 찬송가 6장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 찬송가 220장(영문) “Lord, I Would Follow Thee”, 찬송가 74장 “우리 다시 만나 볼 동안”.

### 2004년 3월 27일 토요일 저녁 청년 총회

감리: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사회: 수잔 더블류 태너. 개회 기도: 세루 포투. 폐회 기도: 칼리 루니아. 음악 제공: 유타 샌디 스테이크 청년 합창단. 지휘: 마리 몬슨. 반주: 보니 굿리프. 찬송가 195장 “거룩하신 주님의 빛”, 어린이 노래책 6~7장 “어린이의 기도”, 찬송가 24장 “요셉 스미스의 첫번째 기도”, 찬송가 141장 “의와 진리 지키기”.

### 연차 대회 녹화 기록 구입

여러 언어로 된 연차 대회 모임 녹화 기록은 일반적으로 대회 후 2개월 내에 배부 센터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 연차 대회 말씀 인터넷 개재

여러 나라의 언어로 통역되어 있는 대회 말씀을 찾아보시려면, [www.lds.org](http://www.lds.org)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의 오른쪽 상단 구석에 있는 세계 지도를 클릭한 후 해당 언어를 선택하면 됩니다.

### 가정 복음 교육과 방문 교육 메시지

가정 복음 교육과 방문 교육 메시지는 여러분이 방문하는 사람들의 필요 사항을 가장 잘 충족시켜 주는 대회 말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표지

전면: 사이먼 듀이, 최후의 만찬, 유타 주 아메리칸 포크 앨터스 파인 아트 제공, 복사 금지.

### 대회 사진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연차 대회 장면들은 크레이크 다이몬드, 웰든 시 앤더슨, 존 록, 매튜 레이어, 켈리 라슨, 크리스티나 스미스, 탐러 에이치 라티에타, 티마러 레이먼티아, 레스 닐슨, 마크 헤이던그렌, 로런스 포터, 로이스 베이, 러시아의 블래드미어 이고로프, 일본의 타쿠지 오카다와 오사무 세키구치, 가나의 마이클과 마지드 키크패드릭, 독일의 마크 머켄지가 촬영했다.



# 리아호나 2004년 5월 호, 제5호

24985 320

리아호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잡지임

대관장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즈 이 파우스트

심이사도 위원회: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말린 에이치 옥스, 앨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런, 리처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헨리 비 아이어링

편집인: 데니스 비 노인슈인더  
 고문: 이 레이 베이트먼, 몬티 제이 브러프, 제이 이 젠슨, 스티븐 에이 웨스트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프리스네흐트  
 기획 및 편집 책임자: 빅터 디 케이브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잡지 편집 책임자: 리처드 엠 롬니  
 관리 편집인: 마빈 케이 가드너  
 편집 스태프: 콜리트 네베커 오온, 수잔 브렛, 라이언 카, 린다 스탈 쿠퍼, 라렌 포터 곤트, 사나 가즈나비, 제니퍼 엘 그린우드, 리사 앤 잭슨, 캐리 카스텐, 앨빈 레빗, 샬리 제이 오데커크, 애덤 시 울슨, 주디스 엠 팔러, 레베카 엠 테일러, 로저 테리, 제넷 토마스, 폴 벤덴버그, 줄리 와델, 캄벌리 엘, 모니카 엑스

관리 미술 책임자: 엠 엠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코트 밴 캠펜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디자인 및 제작 스태프: 켈리 알렌 프랫, 페이 피 앤드러스, 시 킴볼 보트, 하워드 지 브라운, 토마스 에스 차일드,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슨, 브렌트 크리스티슨, 캐리 린 시 헤린, 캐서린 하워드, 데니스 커비, 타드 알 피터슨, 랜달 제이 픽스톤, 마크 더블류 로비슨, 브래드 키어, 캐리 에이 토드, 클라우디아 이 워너

마케팅 부장: 래리 힐러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셰지워크  
 배부 책임자: 크리스 티 크리스티슨

통 권: 제 458호, 제 41권, 제 5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4년 5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윤환  
 편집인: 홍우광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경선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7,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30,6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6,0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54,000원이며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ward/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과 ☎ 02-2232-1441, 교환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E-mail, cur-liahona-imag@ldschurch.org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국제판 잡지인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알바니아어, 아르메니아어, 불가리아어, 캄보디아어, 세부어, 중국어, 크로아티아어, 체코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에스토니아어, 피지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히타이어, 헝가리어, 아이슬란드어, 인도네시아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키리바시어, 라트비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살어, 몽골어, 노르웨이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러시아어, 사모아어, 슬로베니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타밀어, 텔루구어, 타이어, 통가어, 우크라이나어, 베트남어 (언어에 따라 발행 횟수는 다양함)  
 © 2004 by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http://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May 2004 No. 5.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5.5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 (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 연사들(가나다 순)

게일 엠 클레그, 14  
 고든 비 힝클리, 4, 58, 81, 103, 112  
 닐 에이 맥스웰, 44  
 말린 에이치 옥스, 7  
 더블류 더글라스 셉웨이, 94  
 더블류 롬프 카, 36  
 데니스 이 시먼즈, 73  
 데이비드 비 헤이트, 6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11  
 러셀 엠 넬슨, 27  
 로버트 디 헤일즈, 88  
 리처드 지 스코트, 100  
 머빈 비 아놀드, 46  
 보이드 케이 패커, 77  
 브루스 시 하펜, 97  
 수잔 더블류 태너, 104  
 얼 시 링기, 49  
 엘 톰 페리, 69  
 앨 러셀 벨라드, 84  
 일레인 에스 돌튼, 110  
 제임즈 이 파우스트, 51, 61  
 제프리 알 홀런드, 30  
 조셉 비 워스런, 40  
 줄리 비 벡, 75, 107  
 클레이트 더블류 매스크, 92  
 키스 비 맥멀린, 33  
 토마스 에스 몬슨, 20, 24, 54  
 프란시스코 제이 비냐스, 38  
 헨리 비 아이어링, 16

## 주제별 색인

가르침, 88  
 가정, 20, 38, 103  
 가정의 밤, 94  
 가족, 27, 38, 69, 77, 88, 94  
 간증, 6, 33, 75  
 개인의 가치, 84  
 개종, 11, 27, 30  
 개종자 보육, 30  
 결혼, 69, 94  
 경전 공부, 11, 16, 33, 36, 88, 107, 110  
 교육, 4  
 교회의 성장, 4  
 기도, 6, 11, 16, 33, 38, 51, 103, 110, 112  
 끈기, 44  
 도덕성, 4, 112  
 몸문경, 36  
 믿음, 73  
 복지, 58  
 봉사, 4, 16, 44, 46, 100, 104  
 부모의 자격, 88, 94  
 부부 선교사, 30, 58  
 부활, 84  
 빛(부채), 40  
 사랑, 46, 92, 94, 104  
 선교 사업, 30  
 선택의지, 51, 73, 100  
 성신, 61, 77  
 성약, 7, 75  
 성전, 61  
 속죄, 33, 38, 84, 92, 97  
 순종, 44  
 신권, 46  
 신뢰, 73, 104, 110  
 신앙, 6, 33, 38, 73, 77, 88, 104

신앙 개조, 27  
 십일조, 40  
 아버지의 자격, 44, 69  
 어린이, 75, 77, 88  
 어머니의 자격, 75  
 여성, 75  
 역경, 16, 54, 97  
 영감, 61  
 영구 교육 기금, 58  
 영향력, 20  
 예수 그리스도, 6, 20, 33, 36, 84, 92  
 예언자, 36, 61  
 용기, 54, 104  
 용서, 112  
 유산, 27  
 유희, 100, 112  
 의무, 54  
 인내, 14, 16, 27, 30, 49, 104, 110  
 인도주의적 지원, 58  
 자비, 44  
 재림, 7  
 재정, 40, 61  
 준비, 7  
 지도력, 69  
 지식, 107, 112  
 참을성, 14, 44  
 책임, 20, 46, 51, 81  
 청소년, 4, 49  
 친절, 81  
 표준, 49  
 활동화, 20, 46  
 회개, 7, 11, 38, 51, 92, 97, 100, 103, 112  
 회복, 81, 84  
 희망, 81  
 희생, 30, 97

# 교회는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아주 많지만, 지금까지 이룬 일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또다시 범세계적인 대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는 수많은 국가에 살면서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거대한 국제적 가족입니다. 여러분이 세계 각지에서 저희가 말씀하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제겐 놀라운 기적입니다.

저는 총관리 역원으로 봉사해 오면서 우리가 솔트레이크 테버내클에서 말씀하고 우리의 말이 라디오를 통해 유타 주 전역에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던 시기를 거쳐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거대하고 웅장한 컨퍼런스 센터에 모여 있으며, 우리의 모습과 말씀은 교회 회원 수의 95%나 되는 성도들에게 전해집니다.

교회는 점점 확장되고 강해지면서 새로운 기술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회원 수는 천 이백만 명에 이르렀으며, 북미 지역 이외에 있는 회원 수가 이 지역 안에 있는 수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우리는 한때 유타 교회로 알려져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거대하고 세계적인 단체가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오랫동안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아주 많지만, 지금까지 이룬 일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회원을 잃은 것도 사실입니다. 어느 조직이나 다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한, 다른 어느 교회보다도 높은 비율의 활동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느 곳이나 훌륭한 활동과 위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세계 전역에서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간과 재물을 바치는 강하고 유능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신앙과 충실함을 보는 것은 참으로 신나는 일입니다. 그들은 거대한 악의 물결이 세상을 뒤엎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옛 표준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덕성과 고결성이 내던져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수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복음의 표준을 고수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같은 부류의 젊은이들과 함께 행복하고 고무적인 교



류를 합니다. 그들은 교육으로 생각을 함양하고, 훈련으로 기술을 향상시키며, 자신들의 선한 영향력을 더욱 널리 퍼뜨립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교회의 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을 보고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전을 짓고, 예배당을 세우며, 많은 건축과 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회원들의 신앙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과 자연 재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위대한 인도주의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년 4월 1일, 일리노이 하원이 1846년 성도들을 나부에서 강제로 추방한 것에 대해 사과하기로 한 결의안을 만장 일치로 통과시켰다는 소식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관대한 의사 표시는 1838년 릴번 더블류 보그스 주지사가 성도들에 대해 내린 잔인하고 불법적인 근절령을 1976년 미주리 주지사 크리스토퍼 에스 본드가 폐지시킨 것과 관련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과 다른 일련의 사태의 진전은 말일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에 참으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저는 여러분 개개인이 보여주시는 헌신적이고 거룩한 봉사에 대해 얼마나 깊은 감사를 느끼는지 모릅니다. 어느 곳으로 가든지 제게 보여주시는 친절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한 봉사자로서 능력이 닿는 데까지 기꺼이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하늘이 여러분을 보고 미소 짓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조화, 평안과 선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해로움과 악으로부터 보호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행복의 계획”(앨마서 42:8)이 여러분의 생활의 표준이 되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사랑하는 동료이신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님의 말씀을 들겠습니다. 그 분은 97세이십니다. 헤이트 장로님, 앞으로 나오셔서 수많은 친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하나님 지혜와 사랑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복음은 참됩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으며, 그것에 대한 증인입니다.*



**저**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곳에서 있으며, 이곳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경청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이 사업에 대한 사랑으로 마음이 충만합니다. 6개월 전 지난 대회에서 고든 비 헝클리 대관장님 바로 옆에 섰을 때, 그분의 권유로 여러분에게 손을 흔들었는데, 그때 제게 남아있는 온 힘을 다해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때 제가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괜찮다는 것을 알리고 말씀 드리기 위해 이곳에 다시 섰습니다. 또한 저는 다른 사람들의 부축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기도, 신앙, 그리고 헌신의 권세를 이해하며 하늘에서 온 중요한 증거들이 사실이었음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렇게 서서 여러분에게 저의 간증을 전하고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대회에서는 완쾌되어 제가 지명 받은 일

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즉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유명한 음악, 특히 몇 곡의 성찬 찬송을 작사 했던 엘리자 알 스노우는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사랑  
크고 넓으셔서*

잠시 동안 그것을 마음속에서 음미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도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지혜와 사랑*



*크고 넓으셔서  
구세주 보내시어  
수난케 하셨네  
("하나님 지혜와 사랑", 찬송가 107장)*

우리는 이 곳에 오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커다란 건물에 모여 서로에게 말 씀하고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새로운 결심을 하려고 할 때 그러리라 믿는데, 저는 때때로 잠 못 이루던 밤에 우리를 고양시켜 주는 신성한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와 같이 우리도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독생자를 선택하시어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교회는 아들의 이름에 따라 불리우며, 우리는 그분에 대해 간증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이 교회의 기초에 대해,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인도하시는 헝클리 대관장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 간증할 수 있음을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복음은 참됩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으며, 그것에 대한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

# 재림을 위한 준비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는 재림의 때에 일어날 것으로 예언되어 있는 사건들에 대비해 ... 영적인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현** 대 계시에는 준비가 갖추어져 있으면 무서워하지 않게 되리라는 약속이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38:30 참조) 저는 60년 전 여름 보이 스카우트가 되어 “준비하라”는 스카우트의 모토를 알게 되었을 때, 그 원리에 대해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모두에게 지대한 중요성을 갖고 있는 미래의 사건, 즉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 말씀해야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경전에는 의로운 자들은 학수고대하고 악한 자들은 두려워하거나 거부하는 재림에 관한 참조 성구들이 많습니다. 모든 시대의 충실한 자들은 이 중요한 역사적 시점을 전후하여 예언된 많은 사건들의 결과와 의미에 대해 깊이 생

각해 왔습니다.

말일성도들에게 다음의 네 가지 사실은 논의할 여지가 없습니다. (1) 구세주께서는 권세와 큰 영광으로 지상에 돌아오셔서 의로움과 평화의 복천년 기간 동안 친히 통치하실 것입니다. (2) 그분이 오실 때 악한 자들은 멸망당하고 의로운 자들은 부활할 것입니다. (3) 아무도 재림의 시기를 아는 사람이 없으나 (4) 충실한 자들은 징조를 연구하고 그에 대비하라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저는 이것들 가운데 네 번째, 즉 재림의 징조와 그에 대한 준비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나를 두려워 하는 자는 주께서 오시는 큰 날 곧 인자가 오는 징조를 바라며 기다리고 있으리니, 저들은 징조와 기이한 일을 보리라. 이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저들에게 징조가 나타나 보일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45:39~40)

구세주께서는 무화과 나무가 연한 새 가지 를 내면 여름이 오는 징조라는 비유를 통해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택한 자들은 그의 재림의 징조를 보게 되면, “이와 같이 ... 인자가 이미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 것입니다.(요셉 스미스서 1:38~39; 또한 마태복음 24:32~33; 교리와 성약 45:37~38 참조)

성경과 현대의 예언에는 재림에 관한 많은

징조들이 있습니다. 그것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1. 충만한 복음이 회복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됨
2.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함
3. 난리와 난리의 소문과,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임
4. 곳곳에 지진이 있을 것임
5. 기근과 역병
6. 휩쓸어 가는 징벌, 황폐케 하는 질병이 땅을 뒤덮을 것임
7. 불법[죄악]이 성함
8. 온 세계가 동요할 것임
9.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워 떨게 됨  
(마태복음 24:5~15; 요셉 스미스서 1:22, 28~32; 교리와 성약 45:26~33 참조)

다른 계시에서 주님은 이러한 징조의 일부가 그분의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치는 그분의 음성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의 국민들아, 귀를 기울여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내가 나의 종의 입으로, 천사들의 성역으로, 내 자신의 음성으로, 천둥 소리로, 번개 소리로, 폭풍우 소리로, 지진과 큰 우박 소리로, 기근과 각종 질병의 소리로, ... 너희를 구원하려 하였으나 너희는 응하지 아니하였도다.(교리와 성약 43:23, 25)

이러한 재림의 징조들은 모두 우리 주변에 있으며 빈도와 강도가 더해 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세계 연감*과 *사건 기록, 2004*에 나타난 주요 지진 목록을 보면 1980년대와 1990년대 동안 일어난 지진이 그 이전의 몇 십 년 전 때보다 두 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189~190쪽 참조) 그것은 또한 금세기 들어 첫 몇 년 동안에만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홍수와 해일과 세계적인 허리케인, 태풍, 폭설도 최근 몇 년 동안 이와 비슷한 추세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188~189쪽) 50년 전과 비교하여 증가한 것은 보고 기준에 따라 무시될 수 있으나, 지난 몇 십 년간 자연 재해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면 가공할 만한 것입니다.

## II.

시대의 또다른 징조는 충실한 사람들의 집합입니다. 말일의 경륜의 시대의 초기에 시온으로 집합하는 일에는 미국의 여러 지역, 즉 커틀랜드, 미주리, 나부 및 산꼭대기 등이 포함됩니다.(교리와 성약 133:4 참조) 이 장소들은 늘 성전을 지을 집합 장소였습니다. 스테이크의 조직과 더불어 대부분의 국가에 충실한 자들의 수에 맞는 성전이 건립되면서, 현대의 계명은 한 곳에 집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에 있는 스테이크에 집합하는 것입니다. 그 곳에서 충실한 자들은 주님의 집에 들어가 충만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조국에서 주님의 백성들의 경계를 넓히고 스테이크를 강화하라는 주님의 명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101:21, 133:9, 14 참조) 이러한 방법으로 시온의 스테이크는 “폭풍우가 내리치고 분노가 뒤섞임이 없이 그대로 온 땅 위에 쏟아져 내려올 때에 방어진이 되며 분노를 피하는 대피소가” 됩니다.(교리와 성약 115:6)

## III.

우리의 힘으로는 재림의 사실을 변경시킬 수도 없고, 정확한 시기도 알 수 없지만, 자신의 준비를 강화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준비하도록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중요한 가르침이 담겨 있는 비유는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 대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영광 가운데 오는 그 날에 내가 열 처녀에 관하여 이야기한 비유가 성취되리라.”(교리와 성약 45:56)

마태복음 25장에 주어진 이 비유는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상황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열 처녀 모두 혼인 잔치에 초대받았으나, 그들 중 다섯만이 신랑이 올 때를 대비하여 등에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준비된 다섯은 혼인 잔치에 들어갔으며, 문은 닫혔습니다. 준비를 게을리 한 다섯은 늦게 왔습



니다. 문은 이미 닫혔고 주님은 그들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치 않으시며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12절)고 하셨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13절)

이 비유의 메시지는 두려운 것입니다. 열 처녀는 혼인 잔치에 초대 받았으며 신랑이 올 때 받아들여지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분명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들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신랑이 왔을 때는 오직 반만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현대 계시에는 주님이 교회의 초기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가르침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간증 뒤에 진노와 분노가 백성 위에 임하느니라.

너희 간증 뒤에 지진의 간증이 있어 ...

또한 뇌성의 음성과 번개의 음성과 폭풍우의 음성과 그 경계를 넘어 밀어 닥치는 파도 소리의 간증이 있도다.

그러하여 만물이 요동할 것이요 반드시 모든 사람의 마음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므로 사람들은 분명히 기절하리라.

또 천사는 공중에 날면서 하나님의 나팔을 불 때 큰 소리로 외쳐 이르기를, 준비하라. 준비하라. 땅의 주민이여,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음이라. 보라, 신랑

이 오시나니, 가서 저를 맞으라.(교리와 성약 88:88~92)

## IV.

형제 자매 여러분, 몰몬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보라 이 생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준비하는 시간이고, 이 생애의 나날은 사람들의 일을 수행할 날들이라.”(앨마서 34:32)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현대 계시의 서문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준비하여 장차 임할 일에 대비하라. 이는 주께서 가까우심이라.”(교리와 성약 1:12) 또한 주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참으로 이 외침을 모든 백성 가운데 나아가게 하라. 깨어 일어나 신랑을 맞이하라. 보라, 또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너희는 나아가 그를 맞이하라. 주의 크신 날을 위하여 예비하라.”(교리와 성약 133:10; 또한 교리와 성약 34:6 참조)

우리는 늘 재림의 날이나 시간을 알 수 없다는 주의를 듣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나 이를 알지니, 집 주인이 적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준비하였으리라.(마태복음 24:42~44; 요셉 스미스서 1:47)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교리와 성약 51:20 참조)

재림이 내일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때 아닌 죽음을 통해 혹은 예기치 않던 재림을 통해 우리가 내일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하겠습니까? 어떤 고백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행동들을 중단하겠습니까?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용서를 더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간증을 하게 될까요?

그 때에 우리가 그런 일을 할 것이라면, 왜 지금 하지 않는 것입니까? 평화를 구할 수 있을 때 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준비를 위한



우리의 등이 비어 가고 있다면, 즉시 그것을 채울 만큼 현명해집시다.

우리는 재림의 때에 일어날 것으로 예언되어 있는 사건들에 대비해 세상적인 준비와 영적인 준비를 모두 해야 합니다. 소홀히 하기 쉬운 것은 잘 보이지 않고 좀더 힘든 영적인 준비입니다. 72시간 비상 키트는 세상적인 문제에 대비하여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지만, 어리석은 처녀들이 알게 된 것과 같은 영적인 24시간 준비 키트는 더 중요하고 영원한 가치를 갖는 것입니다.

## V.

우리는 “지상에서 평화가 박탈당하”(교리와 성약 1:35)고 “만물이 요동하고 사람들은 분명히 기절하”(교리와 성약 88:91)리라고 예언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쟁과 자연 재해를 포함하여 세상적인 많은 동요의 원인들이 있지만, 현재의 “동요”의 더 큰 원인은 영적인 것입니다.

신앙의 렌즈와 영원한 관점으로 주변을 볼

때, 우리는 주변에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악마가 자기의 영토를 지배할 권세를 갖게 될”(교리와 성약 1:35)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찬송가는 “죄의 줄에 대열 지은 무수한 저 적 보라”(“이스라엘 시온 군대”, 찬송가, 156장 2절)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특정 지역에서나 사용되고 부스럼처럼 감추어지던 악이 지금은 합법화되고 깃발처럼 드높여지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명의 뿌리와 방어선이 위태롭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들은 종교적인 유산을 거부합니다. 결혼 생활과 가족의 책임은 개인적인 만족을 방해하는 장애물인 것처럼 버림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를 형성해 주는 영화와 잡지 그리고 텔레비전은 하나님의 자녀를 약탈하는 짐승으로 묘사하거나 기껏해야 개인적인 쾌락보다 좀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이색적인 창조물로 묘사하는 이야기나 영상으로 가득합니다.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흥미거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과거에 악한 정부를 대항하여 싸우기 위해 영웅적인 희생을 한 남자와 여자는 우리의 공교육에서 사라지는 가치관으로 그려집니다. 훌륭하고, 참되고, 아름다운 것들은 무엇이든 “훌륭하지 않은 것”과 개인적인 기분에 좌우되는 가치 없는 물건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우리의 청소년과 성인들이 외설물과, 신체에 구멍을 뚫는 일과, 이기적인 쾌락의 추구와, 부정직한 행동과, 단정하지 않은 복장과, 저속한 언어 및 퇴폐적인 성적 탐닉에 빠져 있습니다.

대중의 의견을 통제하는 지도층과 추종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이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으며, 오직 세상적인 신에게만 경의를 표합니다.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정의된 옳고 그름의 가치를 부인합니다. 옳고 그름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이사야 5:20; 니파이이사서 15:20) 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많



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책임을 거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며, 미련한 처녀들처럼 빌려 온 물건이나 빌려 온 빛으로 살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모든 자녀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면전으로 돌아가게 하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행동을 금하신 일, 즉 그분이 보시기에 슬픈 일입니다.

영생을 위한 우리의 개인적인 준비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늘 성약의 백성이었습니다. 침례의 물가에서, 성신권을 받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맺은 거룩한 약속들을 포함하여, 우리는 성약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키지 않을 약속만 하는 사람들이며 실천하지 않는 성도들입니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주님의 명에 따릅니까? “주님의 날이 이르기까지 거룩한 곳에 서서 움직이지 말라. 보라, 그 날이 속히 임할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87:8) “거룩한 곳”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에는 성전과 충실하게 지켜지는 성약이 포함됩니다. 자녀들이 소중한 여겨지

고 부모가 존경 받는 가정이 포함됩니다. 분명 거룩한 곳에는 선교 사업과 지부, 와드 및 스테이크에서 충실하게 수행하는 부름을 위시하여 신권의 권능에 의해 지명된 의무가 포함됩니다.

구세주께서 재림에 관한 예언에서 가르치셨듯이, 주님이 오실 때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복될 것입니다.(마태복음 24:45~46) 예언자 니파이에는 그 날에 관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의로운 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느니라.”(니파이일서 22:17; 또한 니파이일서 14:14; 교리와 성약 133:44 참조) 현대 계시는 “주는 그의 성도를 다스릴 권세를 가지”(교리와 성약 1:36)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로 둘러싸여 있습니다.(고린도후서 4:8~9 참조)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분의 축복을 믿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으며, 미래를 위해 준비하

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운동 경기에 비유하자면, 우리는 이 경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최종 점수도 예측할 수 없지만, 경기가 끝나고 나면 우리 팀이 승리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고,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일을 마쳤다고 하실 때까지”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History of the Church, 4:540).

“그러므로 충실하여 항상 기도하라. 너희 등을 손질하고 기름을 준비하여 타게 하라. 그리하여 신랑이 오심을 맞이할지어다. 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속히 오리라. 참으로 그러하다. 아멘.”(교리와 성약 33:17~18)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드리며,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오시리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 너는 돌이킨 후에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칠십인 회장단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각에 복음을 새기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좋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복음을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저**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 되기를 바라지만, 이것은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년 전, 스테이크장으로 봉사하던 때에 한 형제가 죄를 고백하러 제게 찾아와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 형제는 수년 간 교회에서 활동적인 회원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죄를 지을 수 있을까 하고 저는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한동안 생각한 끝에, 이 형제는 진정으로 개종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그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단지 외적인 행위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었습니다. 건전한 환경 가운데 있을 때, 그는 계

명을 잘 지켰으나,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는 다른 영향력이 그의 행동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개종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의 중심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고대의 예언자 예레미야는 우리의 마음에 쓰여진 하나님의 법, 즉 복음에 관해 말씀했습니다. 그는 주님이 우리, 즉 말일의 그분의 백성들에 대해 말씀하신 바를 인용했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sup>1</sup>

이러한 일이 여러분 자신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자신이 그것을 원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면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될 수 없습니다. 진실한 소망 없이도 성찬식이나 공과반 또는 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을 행할 수 있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열려 있고 기꺼이 하고자 한다면,<sup>2</sup> 개종되기 위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단계로 여러분은 오늘날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이 말이 뜻하는 바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배척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태

도는 주님께서 요셉 스미스에게 주신 말씀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주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주를 찾지 아니하고 도리어 모든 사람은 제 마음대로 생활하며 자신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구하였느니라.”<sup>3</sup> 여러분은 오늘날 “무엇이든 마음 내키는 대로 해라.” 또는 “옳고 그름은 내가 옳다고 느끼는 것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태도는 전세에서 루시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모반하는 태도입니다. 그는 진리를 선언하고 법을 세우는 하나님의 권리를 부인했습니다.<sup>4</sup> 사탄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마음 내키는 대로 선언할 수 있는 권세를 원했고 지금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창조주는 우리에게 그분의 권능을 억지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하시지 않지만 기꺼이 그분의 권능에 순종하는 것이 개종의 첫 단계입니다.

다음으로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며, 좀더 완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경전을 연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sup>5</sup> 제가 “연구”란 말을 사용한 것은 그것이 읽는 것 이상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복음 메시지의 전반적인 의미를 파악하려면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경전을 읽는 것이 좋지만, 개종을 하려면 일정한 시간 내에 읽은 분량보다는 경전을 읽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는가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때로 여러분이 경전 몇 절을 읽고 나서 잠시 멈추어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다시 그 구절을 읽고, 이해하기 위해 기도하고, 마음속으로 질문하고, 영감을 기다리며, 여러분에게 오게 된 영감과 통찰력을 기억하고, 더 많이 배우기 위해 기록하면서, 그 구절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는 모습을 저는 봅니다. 이와 같이 공부하면 여러분은 단시간에 많은 분량을 읽어 나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제 이 씨앗이 나의 영혼을 키우며 나의 이해를 밝혀주며, 참으로 내게 감사함을 주기 시작했



으니<sup>6</sup> 과거와 현재의 예언자들이 전하는 그분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심령에 더욱 더 달콤하게 느껴질 때,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쓰여지며, 개종이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전을 이해하기 위해 공부할 때 기도하는 것에 대해 제가 언급했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그것에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경에서 앰올레크는 삶의 모든 것에 관해 기도해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의 골방이나, 은밀한 장소나 광야에서 진심으로 기도하라.”<sup>7</sup>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자신의 소망이나 두려움, 친구나 가족, 학교나 직장, 또는 주위 사람들의 필요 사항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마음을 채우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랑은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께 그것을 간구하는 참된 제자들에게 주어집니다.<sup>8</sup> 이 사랑은 생명 나무의 열매입니다.<sup>9</sup> 그리고 이것을 맛보는 것은 여러분의 개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신에 대한 구세주의 사랑을 느끼기만 한다면, 지극히 작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안전함을 느낄 것이며 그분과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자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마

음속으로 거룩하신 분들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행하고 싶어할 것입니다. 자주 골방이나, 은밀한 장소나 광야로 가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이 받은 축복에 대해 감사드리고 그분의 도움을 간구하고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여러분께 부어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때때로 금식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 말한 후, 앰올레크는 개종에 있어서의 중요한 요소인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에 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기도는 헛된 것이다. 너희에게 유익을 가져오지 아니할 것이요.”<sup>10</sup> 바꾸어 말하면 개종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마음을 열고 복음의 지식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할 뿐 아니라 복음의 법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자신의 생활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섬기기 위해 온 것이지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sup>11</sup>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밖으로 눈을 돌려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동정심을 가지며, 친구가 되며, 서로 나누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남을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러분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대에는 사람들이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분의 축복을 구하려고 할 때, 종종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면, 성전에 갈 때는 희생 제물을 가져가 제단에 놓았습니다. 주님의 속죄와 부활이 있는 후, 구세주께서는 더 이상 동물의 번제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주님이 받아들이시는 선물 곧 제물은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입니다.<sup>12</sup> 여러분이 개종의 축복을 구할 때는 주님께 낙담과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을 선물로 드려야 합니다. 사실상, 이것은 여러분 자신, 즉 현재의 여러분과 앞으로의 여러분 자신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나 여러분의 삶에서 불결하거나, 합당치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면, 구세주에 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필요로 하는 좋은 버릇이나 자질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택하여 자신의 성품의 일부가 되게 한다면 주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입니다.<sup>13</sup> 때때로 이것은 행하기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희생과 순종의 선물이 대가가 없는 것이라면 그것이 합당한 선물일까요?<sup>14</sup> 해야 할 노력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홀로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자신을 합당한 선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여러분은 깨끗하고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은 그분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sup>15</sup> 될 것입니다.

개종을 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을 보호해 주는 감주, 즉 “하나님의 전신 감주”<sup>16</sup>를 입게 될 것이며, 성령에 의해 오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이 행해야 할 바를 전해 줄 것입니다.<sup>17</sup>

1992년에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두 명의 자매 선교사가 어느 날 저녁 숙소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약속 장소는 멀리 떨어져 있었고 날은 어두웠습니다. 트롤리 전차에 탄 몇몇 남자들이 거친 말과 협박적인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위협을 느낀 두 자매는 다음 정거장에서 내렸고 전차의 문은 닫혔습니



다 그들을 따라 내린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곤경을 피하고 난 후, 그들은 전혀 생소한 장소에 자신들이 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도움을 청하려 몸을 돌렸을 때,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선교사들은 그 여자에게 길을 잃었다고 말하고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선교사들이 집으로 가기 위해 어디에서 전차를 타야 하는지 알고 있었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가는 길에 그들은 어두운 보도에 손님이 앉아 있는 술집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이 남자들 또한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자매 선교사는 그 남자들이 그들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분명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해칠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자들의 눈에 띄지 않게 걸어서 지나갔습니다. 자매들과 안내자가 정류장에 도착하자 그들이 타야 할 전차가 막 도착했습니다. 자매 선교사들이 그 여자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려고 돌아보았을 때, 그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sup>18</sup>

이 선교사들에게는 그들을 실제로 보호할 어떤 안내자와 다른 축복들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이 개종하게 된다면,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악으로부터 구조될 것입니다.<sup>19</sup> 때때로 악은 여러분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악을 보지 못할 때에도 여러분은 보호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악과 직접 대적할 때에도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으로 그것을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소망, 하나님께 대한 순종, 연 구, 기도, 봉사, 회개 그리고 순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내에서의 예배와 활동이 어우러져 이러한 것들이 간증이 되어 여러분을 개종으로 이끌 것입니다. 복음은 단지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 아니라 현재 여러분의 삶에서 중심이 될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각에 복음을 새기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좋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복음을 새기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sup>20</sup> 이 축복을 부지런히 인내로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 인애가 크시”<sup>21</sup>기 때



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예레미야 31:33-에스겔은 개종이란 주님이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에게 그분과 그분의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에스겔 11:19~20 참조) 분명 이것이 베냐민 왕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생겨 더 이상 악을 원하지 않고 “계속하여 선을 행하겠다”(모사야서 5:2)고 말했을 때 일어난 일이다.
2. 마태복음 18:3~4 참조
3. 교리와 성약 1:16 및 히라맨서 12:6 참조
4. 교리와 성약 76:25~29 참조
5.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많은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특별한 축복이다. 선사 시대에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경전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들은 설교에서 경전의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될 수 있는 한 많이 기억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 원할 때 언제든지 읽을 수 있는 자신의 경전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여러분은 아담의 시대로부터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개종한 사람들의 삶에서 경전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
6. 앨마서 32:28
7. 앨마서 34:26

8. 모로나이서 7:47~48
9. 니파이일서 11:21~23 참조
10. 앨마서 34:28
11. 마기복음 10:45 참조. 그리스도는 베드로에게 그가 개종했을 때 그의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말씀했다.
12. 니파이일서 9:20
13. 경전과 더불어 소책자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2001)가 여러분의 지침이 될 수 있다.
14. 다윗 왕이 주님께 제사 드릴 준비를 했을 때, 충실한 신하가 왕에게 제사를 위한 장소와 짐승, 그리고 딸감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윗은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사리라 값 없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고 말하면서 거절했다.
15. 모로나이서 10:32~33
16. 에베소서 6:13~17 참조
17. 니파이일서 32:3
18. 니콜 크리스트퍼슨 밀러 자매와 관련이 있기 때문.
19. 마태복음 6:13 참조
20. 히브리서 8:10, 10:16
21. 요엘 2:13. “내게 가까이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곁에 가까이 가리라. 나를 부지런히 찾으라. 그리하면 찾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교리와 성약 88:63)

# 마무리된 이야기

게일 엠 클레그

본부 초등학교 회장단 제2보좌

우리는 자신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쓰고, 계속해서 걷고, 계속해서 봉사하며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일**마 전에 제 우편함에 커다란 흰 색 봉투가 들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 전에 제가 가르쳤던 지미라는 한 소년이 쓴 이야기가 들어 있었는데, 그 당시 그 아이는 6학년이었습니다. 문득 그 학생과 그 반 학생들이 여러 달 동안 하던 과제가 생각났습니다. 그 학생은 글 쓰기를 좋아해서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며 앉아 있곤 했습니다. 때로는 한두 단어 밖에 적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종종 휴식 시간에도 글을 썼지만 마감일이 되었을 때는 분량이 모자랐습니다. 저는 그에게 그냥 제출 하라고 말했지만, 지미는 이야기가 마무리되면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수업 시간에 그 아이는 여름 방학 동안에 과제를 마무리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시 한번 그냥 내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좀더 시간

을 달라고 간청했고, 저는 결국 그 아이의 의지를 칭찬하고, 훌륭한 이야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그를 격려하며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구겨지고 얼룩덜룩한 종이 문치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해 여름 저는 그 아이에 대해 생각했지만, 그 과제에 대해서는 여러 해 동안 잊고 있다가 뜻하지 않게 우편함에서 완성된 작품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으며 어떻게 해서 지미가 자신의 이야기를 마무리짓게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이 일에 어떤 비전과 의지와 노력이 필요했을까요? 또한 아무도 끝내라는 요구를 하지 않는데도 왜 우리는 힘든 일을 끝내려 하는 것일까요?

남편의 증조부이신 헨리 클레그 이세는 무엇든 마무리를 잘하는 분이셨습니다. 그 분은 최초의 말일성도 선교사들이 영국의 프레스턴에 왔을 때 가족과 함께 교회에 들어오셨습니다. 헨리는 아내 한나와 두 어린 아들과 함께 유타로 이주할 때 자신의 목적지에 관한 비전을 마음속에 갖고 있었습니다. 헨리는 길고 고단한 여행을 하기에는 너무 힘이 부족하고 연로한 부모님을 다시는 뵙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분들을 뒤로하고 떠났습니다.

평원을 지날 때 한나가 콜레라에 걸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표시도 없는 무덤에 묻혔습니다. 일행은 계속해서 여행을 했고 그 날 저녁 6시에 헨리의 막내 아들 또한 숨졌습니다. 헨리는 한나의 무덤으로 되돌아가서 어린 아들을 아내의 팔에 품어 주고는 두 사람을 함께 다시 묻었습니다. 그런 후 헨리는 8 킬로미

터 정도 떨어진 마차 행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 자신도 콜레라로 고통 받던 헨리는 자신의 상태를 죽음의 문턱에 있다는 말로 표현했으며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약 천 마일(약 1,600 킬로미터)이나 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한 발 한 발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한나와 어린 아들을 잃고 나서 그는 몇 주 동안 일지를 적지 않았습니다. 그 분이 다시 일지를 적기 시작했을 때 그 분께서 사용했던 “계속 나가고 있음”이라는 말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성도들의 집합지인 유타에 도착한 뒤 그는 새로운 가족을 가졌습니다. 그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아내와 아들을 묻은 비통함에서 앞으로 나아가 끝까지 마치는 우리 가족의 유산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헨리 클레그와 같은 개척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종종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에도 개척자 유산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기에, 때때로 저는 이런 질문이 두렵습니다. 최근에 서아프리카를 방문한 저는 앞으로 나아가고, 새로운 교회에 들어오고, 오래된 전통을 뒤로하고, 심지어는 헨리처럼 가족과 친구를 뒤로하는 현대의 개척자들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제 조상들에게 드리는 만큼의 커다란 찬사와 사랑을 그 분들께 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이 우리 자신의 어려움보다 더 힘들게 보이십니까? 우리는 종종 엄청난 책임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을 보고는 “나는 도저히 저렇게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합니다. 한 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똑같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책임의 크기라기보다는 아직 일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이 어떻게 느끼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자녀들을 가진 젊은 어머니의 경우, 밤낮으로 그들을 돌보는 것이 마치 천 마일을 걷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상호부조회에서 연로한 자매들이나 젊은 자매들이나, 경험 많거나, 교육을 많이 받은 자매들에게 공과를 가르치는 것은, 특히 주제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그에 따



라 그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더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부산하게 움직이는 6살짜리 아이 열 명이 있는 반을 가르치는 것은 기진맥진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6살 된 여러분의 자녀가 그 반에 있어 여러분이 그 아이를 일대 일로 가르칠 방법이 전혀 떠오르지 않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어린 지미, 초기의 개척자들, 전세계에 있는 현대의 개척자들을 통해 구체적인 어려움 속에서 도움이 되는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까?

지미는 마감일도 없는 글을 쓰면서 여러 해를 보냈고, 헨리 클레그는 일지조차 쓰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도 홀로 나아갔으며, 아프리카 성도들은 자신들의 나라에 세워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생활을 했습니다. 계속 나아가고, 충실하게 견디며, 마무리하는 것에는 그에 따른 보상이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제 딸애가 밖으로 나와서 함께 공놀이를 하자고 했습니다. 딸애는 제게 막대기에 달려 회전하고 있는 끈 한쪽 끝에 매달린 공을 자기가 계속해서 때리는 것을 구경하라고 말했습니다. 끈을 여러 차례 감는 것을 지켜보고 나서 제가 이 놀이에서 엄마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묻자 딸애가 말했습니다. “엄마

는 공이 막대기 주위를 회전할 때마다 그저 ‘잘했어, 잘했어’ 라고 말하면 돼”

“잘했어!”라는 말은 여행을 계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초등학교 반에 있는 한 여섯 살짜리 아이의 어머니가 초등학교 교사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이들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린 여동생이 차량용 어린이 의자에 앉도록 세심하게 도와 주었다고 알려 주며, 초등학교 교사의 공과가 이런 새로운 행동의 자극이 되었다고 감사해 하는 것은 “잘했어!”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찾아서 끝내야 하지만, 격려의 말이 분명하게 주어질 때, 그 여행이 얼마나 오래 전에 시작되었건 간에 우리의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 값있게 여겨질 것이며, 축하를 받을 때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대단히 감미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요 중재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앞에 앞서 갈 것이므로 너희 오른편이나 왼편에도 있으리라. 나의 영은 너희 마음에 있겠고 나의 천사는 너희를 둘러 있어 너희를 감싸 주리라.”(고리와 성약 84:88)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 이런 말씀을 우리 각자의 여행길에 갖고 싶지 않겠습니까?

헨리 클레그는 충실한 성도들 가운데 살고

자 앞으로 계속 나아갔으며,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의로운 가족을 만들고, 이웃에게 봉사했습니다. 그는 마음이 심히 괴로울 때에도 그런 바람을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매일 의를 선택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라는 질문에 가나에서 온 한 초등학교 어린이가 “그것은 매일 주님과 구세주를 따르고 어려울 때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현대의 개척자 소년은 헝클리 대관장님의 권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이는 매일 계명을 지키는 것에 관해 알았습니다. 그 어린이는 단순히 매일 한 발씩 나아감으로써 자신의 이야기가 펼쳐진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가을에 저는 스페인어로 제작된 비디오를 통해 초등학교 모임을 개발하고 가르치는, 훌륭하고도 어려운 과제를 맡았습니다. 예전에 잠시 스페인어를 사용하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포르투갈어를 사용해 왔기에 스페인어를 다시 배우는 것이 힘들게 생각되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어렵게 느껴지는 일을 완수하기 위해 누구나 하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저는 유능하고 헌신적인 스페인 혈통의 자매들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오랫동안 연구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일했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주님께서 요청하신 것

을 해야 하는 날이 다가오자 우리는 두려웠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자료가 배포되는 순간까지 일했으며, 더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싶었습니다. 남편들은 우리 각 사람에게 신권의 축복을 주었고 평안과 평온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녹음되는 동안 매 30분마다 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자신의 시계에 알람 기능을 설정해 놓았던 사랑하는 남편, 눈으로 “잘했습니다”라고 알려 주었던 카메라맨, 영이 역사함을 믿었고 또 권세를 갖고 영을 전할 수 있었던 초등학교 지도자들이, 마치 천사들처럼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지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비디오 촬영을 끝냈습니다. 이 작업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조금은 놀랐고, 한결같이 성공리에 끝나게 된 것을 감사히 여겼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으로 일했고, 때로 우리가 끄는 손수레를 포기하고 길가에 주저앉으려고 할 때에는, 천사들이 뒤에서 어느 정도 밀어 주었습니다.

이 일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우리는 헨리 클레그 이세와 지미가 배웠던 것과 똑같은 교훈, 그리고 현대의 모든 충실한 개척자들이 배우고 있는 것과 똑같은 교훈을 배웠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37 참조) 우리는 자신의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분은 그분의 영을 보내시고, 우리는 서로서로 큰소리로 격려하지만, 우리 각자는 자신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쓰고, 계속해서 견고, 계속해서 봉사하고,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계속해서 나아감”은 인생의 여정에 있어 기본적인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끝마무리를 잘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께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이야기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히브리서 12:2 참조) 그분의 아들,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가운데 끝마무리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주의 힘을 의지하여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제명을 지키려면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보다 훨씬 큰 힘이 필요합니다.



**점** 었을 때, 저는 한 현명한 지방부장의 보좌로 봉사했습니다. 그 분은 저를 가르치고자 노력했습니다. 저는 그 분이 제게 준 다음과 같은 충고를 듣고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형제님이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마치 그 사람이 큰 고민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대한다면 ... 절반 정도는 맞을 것입니다.”

당시 저는 그 분이 비판적인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저는 그 분이 얼마나 세상과 삶을 잘 이해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세상은 더욱 살기 어려운 곳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의 체력 또한 서서히 감퇴합니다. 인간의 힘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시련의 저자가 옳았습니다.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sup>1</sup>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으로 역경을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주님의 힘을 받을 자격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은 왜 우리가 삶에서 시련을 받는지에 대해 말해 줍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보호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련들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목적은 우리가 영원토록 영광 중에 가족과 함께, 그분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갖추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받을 자격을 갖추려면 필멸의 육신을 입어야 합니다. 필멸의 육신을 입음으로써 유혹과 시련을 통해 시험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회복된 복음은 왜 우리가 시험 받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줄 뿐 아니라 무엇을 시험 받게 되는지도 명확하게 알려 줍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계시를 통해 세상이 창조될 때의 말씀들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들은 필멸의 세계로 내려갈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들, 곧 우리에게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와 같았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저들을 시험하여 주 저희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명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행하는지 아니 하는지를 보자.”<sup>2</sup>

이 설명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왜 시련을 겪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시련은 하나님께 우리의 충실함을 증명할 기회



를 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에서 그저 견뎌 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듯한 수많은 시련들을 겪습니다. 제가 “끝까지 참을 진대”<sup>3</sup>라는 성구를 처음 읽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마치 누군가가 제 이를 뽑는 동안 의자 다리를 붙잡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처럼 끔찍하게 들렸습니다.

끝까지 참는다는 말은 가뭄 속에서 곡식에 의존하는 어느 가족에게는 분명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범람하는 외설물과 유혹을 견뎌 내야 하는 청소년에게도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내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직장을 갖는 데 필요한 훈련을 받는 젊은이에게도 그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사업이 실패했을 때,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계속 실직을 당한 어떤 사람에게도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생에서 일찍, 또는 늦게 찾아오는 건강과 육체적 힘의 쇠퇴를 겪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

으신 시험은 우리가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지 보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잘 견디는지 보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그분의 계명을 기억한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잘 견디는 것은 우리 주위의 어떤 반대에도, 어떤 유혹에도, 어떤 동요에도 상관없이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토록 명확한 이해력을 가진 것은 회복된 복음이 행복의 계획을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같은 명확성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도움을 볼 수 있게 해 줍니다.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계명을 지키려면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보다 훨씬 큰 힘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환경이 가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노년의 쇠약함일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넘쳐 흐르는 젊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 시험을 받고 어떤 시험을 받는지 알 수 있다면,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

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회복된 복음은 우리가 행할 필요가 있는 간단한 것들을 평이하게 알려 줍니다. 회복된 복음은 우리에게 위기의 순간이 오기 훨씬 전에 그러한 것들을 일찍, 꾸준히 한다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도움이 올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해야 할 일의 처음도, 중간도, 마지막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세주는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 가장 명확한 가르침은 니파이삼서에 나옵니다.

“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항상 깨어 기도하여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라. 사탄이 너희를 사로잡아 밀 같이 채로 치려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항상 기도하라. 너희가 반드시 주시리라 믿으며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을 아버지께 나의 이름으로 구하면, 보라 너희에게 주시리라. 너희의 가족과 더불어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하여 너희의 처와 자녀들이



러시아 세인트 피츠버그의 회원인 니콜라츠시 가족

복 받게 하라.”<sup>4</sup>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도록 하는 또다른 간단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취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표준 경전과 살아 있는 예언자들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매일 이와 같이 행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약속은 물몬경에서 주어졌지만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모든 말씀에 적용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거니와 하나님께서 합당하다 여기시어 허락하사 너희로 이 기록을 읽게 하실 때에 너희는 아담이 창조된 때로부터 너희가 이 기록을 받을 때까지 주가 베푸신 자비를 기억하며 이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라. 또한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거니와, 너희가 이 기록을 받거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기록들이 혹 참된 것이 아닌지 간구하여 보라. 너희가 참마음 참뜻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써 간구할진대 하나님께서는 성신의 능력으로 이것들이 진실함을 밝히 나타내어 보이시리라. 또한 성신의 권세로써 너희가 온갖 진리를 알지니”<sup>5</sup>

우리는 단지 한 번, 혹은 물몬경에 국한해서 그 약속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약속은

확고합니다. 성신의 권세는 실재합니다. 그 권세는 다시, 그리고 계속해서 오는 것입니다. 성신이 언제나 증거할, 모든 것에 우선되는 진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 간증은 우리를 구세주께로 이끌며, 필멸의 용광로 속에서 시험 받는 모든 사람에게 그분이 제공하는 도움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분은 암탉이 그 병아리를 날개 아래에 품듯 그분께로 우리를 모으려 하신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온유함과 그분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참마음으로”<sup>6</sup> 회개하기 위해 그분께로 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은 성도들과 함께 그분의 교회에 모이는 것입니다. 힘겹게 여겨질 때도 모임에 가십시오. 여러분이 결심을 한다면, 그분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갖도록 도와 주실 것입니다.

영국에서 한 회원이 제게 편지를 썼습니다. 감독님이 새벽반 세미나리 교사 부름을 받아들이겠다고 물으면서, 그녀가 받아들이기 전에 그것에 대해 기도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했고, 부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가 부모들과 처음 대면했을 때 감독님이 그녀의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프로그램이 일주일에 5일간 진행되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

니다. “오지 않을 거예요. 아이들이 참석하지 않는 걸로 자신들의 뜻을 보일걸요.”

그 의심은 반쯤 맞았습니다. 처음엔 정말로 학생들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젠 춤고 깜깜한 시간의 출석률이 90%나 됩니다. 교사와 감독은 학생들이 오기 시작하면 그들 자신보다 더 큰 힘으로 강화되리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힘이 찾아왔습니다. 그 힘은 그들이 오지 말일성도들만이 있는 곳으로 갔을 때 그들을 지켜 줄 것입니다. 그들은 쉽지 않은 때에 성도들과 모이라는 초대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홀로 있거나 힘 없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 힘은 청소년뿐 아니라 나이드신 분들에게도 주어집니다. 저는 90세가 넘으신 한 미망인을 압니다. 그녀는 휠체어를 탑니다. 그 자매님도 여러분이 하듯이 기도를 통해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움을 간청합니다. 그 응답은 마음속의 느낌입니다. 그 마음의 확신으로 “또한 보라 너희는 자주 함께 모이며”<sup>7</sup>라는 계명을 지킵니다. 그 곳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자매님을 보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 자매님은 특별한 영을 지니셨습니다.”

그 자매님은 성찬을 취하고 성약을 새롭게 합니다. 그 자매님은 구세주를 기억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자 노력합니다. 그렇게 그 자매님은 언제나 주님의 영광과 함께합니다. 그 자매님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문제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의 선택에서 오는 것이며, 그 자매님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택하도록 강요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녀를 구세주의 안전으로 보호하시며 그분의 영이 그녀와 함께 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자매님이 자주 성도들과 모이라는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주님의 힘으로 그녀가 겪는 시험들을 통과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잘 견뎌내고 있다는 증거이며 앞에 놓여 있는 시련들을 위한 그녀가 지닌 힘의 원천입니다.

간단히 행할 수 있는 또다른 것이 있습니

다. 주님의 교회는 회복되었으며 따라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은 주님께 봉사하라는 부름입니다. 그 영국의 감독은 참으로 현명했습니다. 그는 그 자매님께 봉사하도록 부름을 주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어떤 응답을 받을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응답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오는 초대가 될 것입니다. 그는 그녀가 주님의 부름에 응답으로써 무엇을 배우게 될지 알았습니다. 봉사를 통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성신은 동반자로 오십니다. 그 교사가 부모들 앞에 섰을 때, 학생들이 참석하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을 느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힘겨운 일이 주님의 힘 안에서 기쁨이 되었습니다.

세미나리반을 위해 경전을 읽고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녀는 구세주께서 자신을 위해 아버지께 성신을 보내 주실 것을 간청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자신이 가고 나면 제자들이 어떤 시험에 빠질 것인지 아셨던 구세주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약속과 같습니다. 그분은 어떤 위로도 없이 그들을 내버려두고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섬길 때 성신이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을 섬기라는 초대가 올 때마다,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부름과 함께 그 부름에 따른 시험보다 더 큰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도움이 올 것입니다.

현재 모든 사람이 공식적인 부름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제자는 간증을 나누고 주위 사람들에게 친절함으로써 주님께 봉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침례의 물에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계속해서 지킨다면 영의 동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섬길 때 그분을 알고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와 충실한 봉사에 꾸준히 힘쓴다면 성신이 동반자가 됨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이 때로 그런 봉사를 하며 성신의 동반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그 때



세인트 피츠버그의 필리펜코 가족이 그들의 집에서 친구 마이클 코토브와 함께 대화를 하고 있다.

를 돌아해보면, 자신에게 변화가 있었음을 기억할 것입니다. 악을 범하도록 하는 유혹이 줄어들고, 선을 행하려는 소망이 커졌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가장 잘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보다 친절하고 참을성도 많아진 것 같아요. 당신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여요.”

여러분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실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실질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러 시험에 맞서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 우리는 그분에게 봉사하는 가운데 얻게 된 힘, 곧 주님의 힘 안에서 나아갑니다. 그분도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시험받고 강화된 그분의 제자가 됩니다.

그 후 여러분은 자신의 기도에서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더욱 열렬해지고 빈번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말들이 스스로에게 다른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계명에 따라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뢰 받고 증명된 제자로서 그분에게로 나아간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릴 때 더욱 큰 확신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이생에서

더 큰 평화와 힘을 갖게 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생애의 시험이 끝났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행복한 기대감도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저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한 대가를 치르셨으며 우리가 그분에게로 나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과 아들이 우리가 인생의 시험을 통과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우리를 위한 길을 마련하셨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말일에 복음의 회복을 통해, 우리를 위한 길이 명확해졌습니다. 우리는 계명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성신의 동반이라는 약속을 주장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견딜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시편 37:39.
2. 아브라함서 3:25.
3. 니파이서 31:20 참조.
4. 니파이삼서 18:18~21.
5. 모로나이서 10:3~5.
6. 니파이삼서 10:6.
7. 니파이삼서 18:22.
8. 마태복음 25:21 참조.

# 개인적인 영향력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갈릴리 출신의 그분,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부름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개인적인 영향력은  
선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특권이  
자 책임인 말씀을 여러분께 전하  
면서, 이 곳에 계시는 분들과 전세  
계 곳곳에 모여 계시는 모든 분들의 기도와 신  
앙에 유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40여 년 전에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  
님이 저를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부르실  
때, 그분은 진심어린 미소와 다정한 포용으로  
저를 환영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다음과 같은  
성스러운 권고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무  
도 회피할 수 없는 책임이 하나 있습니다. 그  
것은 사람의 개인적인 영향력으로 인한 결과입  
니다.”

초기 사도들의 부름에는 주님의 영향력이  
반영되었습니다. 주님은 신앙 있는 자를 선택  
하실 때, 회당에 정규적으로 참석하며 자신을

의롭다 여기는 무리 속에서 찾지 않으셨습니  
다. 그분은 가버나움의 어부들 속에서 그 사람  
을 택하셨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  
한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sup>1</sup>  
그들은 그 부름에 따랐습니다. 의심 많은 시몬  
이 신앙에 찬 사도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열정과 힘이 넘치는 선교사를 택하고자 하  
셨을 때 구세주께서는 그 사람을 그의 지지자  
들 가운데서 찾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원수  
들 가운데서 찾으셨습니다. 박해자였던 다소  
사람 사울이 전도자 바울이 되었습니다. 구속  
주께서는 완전에 이르는 길을 가르치시기 위해  
불완전한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렇  
게 하셨으며,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어 이 세상  
에서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일을 이루게 하십니  
다. 그 위임은 절대적입니다. 양심의 갈등은  
없습니다.

갈릴리 출신의 그분, 곧 주 예수 그리스도  
를 따를 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부  
름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개인적인 영향  
력은 선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의 지명 받은 임무가 중요하지 않고,  
불필요하고, 주목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제가 어디에서  
일하리이까?”

저의 사랑이 따뜻하게 흘러 넘치나이다.  
그러자 그분은 작은 지점을 가리키시면서  
“나를 위하여 저 곳을 돌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즉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 저것은 싫습니다!”

제가 아무리 그 일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도 저것을 안 볼 겁니다.

저 작은 것만은 맡기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그들을 위하여 일하는가 나를 위하여  
일하는가?”

나사렛은 작은 장소였으며,  
갈릴리도 그랬느니라.”<sup>2</sup>

가정은 가르치기에 이상적인 곳입니다. 또한  
배움을 위한 실험실입니다. 가정의 밤은 가족  
모두에게 영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정은 의로운 생활의 기초이며, 다른 어  
떤 수단도 그 자리를 대신하거나 그 필수적인  
기능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sup>3</sup> 이러한 진리를  
교회의 여러 대관장들께서 가르쳐 오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검소한 생활  
을 가르칠 수 있는 곳은 바로 가정입니다. 일  
을 분담하고 서로 돕는 것은 자녀들이 성장하  
여 결혼하고, 가정을 떠날 때, 그들의 미래의  
가족을 위한 본보기가 됩니다. 가정에서 배운  
교훈들은 가장 오래 지속됩니다. 고든 비 힝클  
리 대관장님은 불필요한 부채,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게 생활하는 오류, 욕구를 필요로 만들  
려는 유혹 등을 피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끼던 디모데에게 준 다음의  
훈계는 우리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개인적인 영향력이 머물 자리를 찾도록  
해 주는 권고를 제공합니다. “오직 말과 행실  
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sup>4</sup>

제가 소년일 적에 우리 가족은 파이오니어  
스테이크의 제6-7와드에 살았습니다. 그곳은  
회원들의 이사가 잦아 주일학교 교사들이 자주  
교체되었습니다. 청소년이던 우리가 어느 한





교사와 친숙해지고 서로가 제대로 알 때쯤 되면 주일학교 회장이 우리 반을 들러 새로운 교사를 소개하곤 했습니다. 모두의 마음속에는 실망이 가득했고 수업 태도도 나빠졌습니다.

우리 반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들은 교사 예정자들은 부름을 완곡히 거절하거나 보다 유순한 다른 반을 가르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상황을 맞아 묘한 즐거움을 느꼈고, 교사들의 그런 두려움에 걸맞게 행동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에 한 아름다운 숙녀가 주일학교 회장과 함께 교실로 들어와 우리를 가르칠 기회를 갖게 된 교사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귀환 선교사이며 청소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루시 거취였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웠고 말을 부드럽게 사용했으며 우리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각 반원에게 자기 소개를 부탁한 다음, 우리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유타의 미드웨이에서 보냈던 자신의 소녀 시절 이야기를 들려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 아름다운 계곡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 아름다운 광경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선생님도 그토록 사랑했던 푸른 초원을 우리도 가 보고 싶었습니다.

루시 선생님이 가르칠 때면 경전이 실제로 생생하게 되살아 났습니다. 우리는 사무엘, 다윗, 야곱, 니파이, 요셉 스미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잘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늘어났습니다. 우리의 품행도 좋아졌습니다. 루시 거취 선생님에 대한 사랑도 한없이 커졌습니다.

우리는 동전을 모아 성대한 성탄절 파티를 갖기로 했습니다. 거취 자매님은 우리의 발전을 세심하게 기록하셨습니다. 전형적인 소년 시절의 왕성한 식욕을 가진 우리는 모은 돈으로 케이크며, 과자며, 파이며, 아이스크림 등을 살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멋진 행사가 될 것 같았습니다. 우리 교사들 중 어느 누구도 그와 같은 이벤트를 제시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름이 희미하게 가을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가을이 지나가고 겨울이 왔습니다. 우리가 목표한 만큼의 파티 모금 액이 걷혔습니다. 반원들은 성장했습니다. 훌륭한 정신이 깃들여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께서 우리 반원 중 한 아이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다고 발표하셨던 그 우울한 아침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생각했으며 어머니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친구 빌리 데브포트가 정말로 가엾게 느껴졌습니다.

그 일요일의 공과 내용은 사도행전 20장 35절이었습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잘 준비된 공과를 끝낸 후에 루시 거취 선생님은 빌리의 가족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당시는 대공황기로 돈이 귀했습니다. 맑은 눈을 반짝이며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분은 주님의 이런 가르침을 어떻게 따르고 싶지요? 우리가 모은 파티 기금을 모든 반원이 함께 가지고 가서 데븐포트 가족에게 사랑의 표시로 준다면 어떨까요?” 모두가 그 결정에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동전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세어 모두 커다란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름다운 카드를 하나 사서 우리의 이름을 다 적었습니다.

친절을 담은 이 단순한 행동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 참으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축복이란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도시 산업화의 결과로 오래된 예배당은 사라졌습니다. 진리를 가르치던 영감 받은 선생님의 지도 아래 배우고 웃고 성장한 청소년들은 그 분의 사랑이나 그 분의 수업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선을 향한 그 분의 개인적인 영향력은 널리 퍼져 나갔습니다.

개인적인 영향력을 멀리 그리고 넓게 펼쳤던 총관리 역원 가운데 한 분이 돌아가신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이셨습니다. 그 분은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주셨습니다.

제가 감독이었을 때, 하루는 전화를 받았는데 스펜서 더블류 킴볼 장로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몬슨 감독님, 감독님의 와드에 트레일러촌이 있습니다. 그 곳에 있는 한 작은 트레일러,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트레일러에 마가렛 버드라는 나바호 족 출신의 아름다운 미망인이 계십니다. 상호부조회 회장에게 그 자매님을 방문해서 상호부조회에 참석하여 다른 자매님들과 어울리도록 권유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마가렛 버드 자매는 상호부조회에 나왔고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또다른 일로 킴볼 장로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몬슨 감독님, 시내의 호텔에서 사모아 소년 둘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을 감독님 와드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한밤중에 호텔 계단에 앉아 우쿨렐레를 연주하며 노래하고 있는 두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와드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성전에서 결혼하고 씩씩하게 봉사했습니다. 선을 위한 그들의 영향력은 널리 퍼졌습니다.

처음 감독으로 부름 받았을 때 저는 제6-7와드 상호부조회 잡지 구독률이 아주 저조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잡지 대표로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검토했습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키치 자매에게 그 임무를 주어야 한다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감독으로서 저는 그녀에게 그 부름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감독님, 해 보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엘리자베스 키치 자매는 스코틀랜드 출신이였으며, 그 분이 “해 보겠습니다.”라고 대답했을 때, 그것은 정말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키가 150센티미터 정도밖에 안 되었던 그녀와 그녀의 동서 헬렌 아이보리 자매는 우리 와드 관할의 이 집 저 집으로, 이 거리 저 거리로, 이 구역 저 구역으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우리는 스테이크의 다른 모든 단위 조직들의 구독자를 합한 수보다 더 많은 상호부조회 잡지 구독자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저는 엘리자베스 키치 자매님의 성공을 축하하면서 “이제 자매님의 일이 끝났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매님이 대답했습니다. “감독님,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 가 보지 못한 구역이 두 곳이나 있습니다.”

그 자매님이 그 곳이 어떤 구역인지 말했을 때 제가 말했습니다. “아, 키치 자매님, 그 구역에는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 그 곳은 공장 지대입니다.”

그러자 자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벨과 함께 가서 직접 점검해 보겠습니다.”

비가 오던 어느 날, 그녀와 벨은 마지막 남은 두 구역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들은 한 구역에서 집을 찾지 못했고 또다른 구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와 아이보리 자매는 최근의 폭풍으로 진창이 된 도로에 잠시 멈추었습니다. 기계 공장에 인접해 있는 삼십 미터 가량의 도로를 가만히 내려다보던 키치 자매는 그 곳에서 차고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창문에 커튼이 있는 것을 보면 보통 차고는 아닌 듯했습니다.

그녀는 동반자를 돌아보며 “벨, 가서 살펴볼까요?”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스러운 두 자매는 진창길을 12미터 정도 내려가 차고 전체를 볼 수 있는 지점까지 갔습니다. 그들은 차고쪽으로 나 있는 문을 하나 보았는데 그 문은 도로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엘리자베스 키치 자매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68세 된 윌리엄 링우드라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모든 가정에는 상호부조회 잡지가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윌리엄 링우드는 “제 부친께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94세 된 찰스 더블류 링우드 형제가 문으로 와서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구독 신청을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키치 자매는 우리 와드에 이 두



사람이 소속돼 있다는 것을 제게 보고했습니다. 교회 본부에 이들의 회원 증서를 요청했을 때 저는 감리 감독단 사무실의 회원 기록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원 기록과 직원이 물었습니다. “감독님의 와드에 찰스 더블류 링우드 형제가 살고 있다는 것이 확실합니까?”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의 회원 증서가 지난 16년 동안이나 감리 감독단 사무실의 “주소 불명” 철에 보관되어 있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일요일에 엘리자베스 키치 자매와 벨 아이보리 자매는 찰스 링우드 형제와 윌리엄 링우드 형제를 신권회로 모시고 왔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오랜만에 교회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찰스 링우드 형제는 제가 이제껏 만난 집사 중 가장 연로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제가 이제껏 만난 사람 중 신권을 받지 않은 가장 연로한 회원이었습니다.

저는 찰스 링우드 형제를 교사에, 그런 다음 제사에, 그리고 마침내 장로에 성임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성전 추천서 발급을 위해 그 분과 가졌던 접견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오래되어 다 해어진 가죽 동전 지갑에서 일 달러짜리 은화를 꺼내 제게 건네 주며 말했습니다. “여기 제 금식 헌금이 있습

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링우드 형제님, 금식 헌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을 위해 쓰세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돈을 간직하고픈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찰스 링우드 형제를 솔트레이크 성전으로 모시고 가서 그 분과 함께 엔다우먼트 의식에 참석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몇 달 후에 찰스 더블류 링우드 형제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분의 장례식에서 영안실 앞자리에 앉아 있는 그 분의 가족을 보았고, 영안실 뒤쪽 가까이에 앉아 있는 아름다운 두 자매들도 보았습니다. 바로 엘리자베스 키치 자매와 헬렌 아이보리 자매였습니다.

충실하고 헌신적인 두 자매를 바라보며 선을 위한 그들의 개인적인 영향력에 관해 생각할 때, 주님의 다음과 같은 약속이 제 영혼을 채웠습니다. “나 주는 나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자비로우며, 은혜를 베푸나니, 끝까지 의와 진리로 나를 섬기는 자를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노라. 저희 상은 클 것이요, 저희 영광은 영원하리로다.”<sup>5</sup>

어느 누구보다도 그 개인적인 영향력이 대륙을 뒤흔들고, 대양을 지나서 참되게 믿는 사람들

의 마음을 관통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죄를 위해 속죄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진리의 교사임을, 그러나 단순한 교사 이상임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완전한 생활의 모범이 되시나 단순한 모범 이상이십니다. 그분은 위대한 의사이시나 단순한 의사 이상이십니다. 그분은 문자 그대로 세상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평강의 왕,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예언자들이 세상에 오리라고 증거한 바 예수 그리스도라. ... 나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라.”<sup>6</sup>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살아 있는 자요, 죽임을 당하였던 자니, 아버지와 너희의 중보자니라.”<sup>7</sup>

그분의 증인으로서 저는 그분이 살아 계심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주

1. 마태복음 4:19.
2. Meade MacGuire, “Father, Where Shall I Work Today?” in *Best-Loved Poems of the LDS People*, comp. Jack M. Lyon and others (1996), 152.
3. 1999년 2월 11일 대관장단 서한, 1999년 12월호 *리아호나* 1쪽에서 인용.
4. 디모데전서 4:12.
5. 교리와 성약 76:5~6.
6. 니파이삼서 11:10~11.
7. 교리와 성약 110:4.

# 교회 역원 지지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형**제 자매 여러분, 힝클리 대관장님의 지시를 받아 이제 제가 교회의 총관리 역원,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 및 교회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에 대한 지지를 묻겠습니다.

고든 비트너 힝클리 형제를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으로, 토마스 스펜서 몬슨 형제를 대관장단 제1보좌로, 제임스 에스드라스 파우스트 형제를 대관장단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같은 방법으로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마스 스펜서 몬슨 형제를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보이드 케네스 패커 형제를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으로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위스린, 리차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헨리 비 아이어링 형제를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관장단 보좌와 십이사도들을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에서 수고하셨던 데니스 비 노인슈안더 장로님께 감사의 뜻을 표하며 해임하고자 합니다.

동의하는 분들께서는 그 뜻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형제님들을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에서 해임할 것을 제의합니다:

아돌포 아발로스, 로웰 시 바버, 데이비드 제이 바넷, 알 마이클 터핀, 로우런드 이 엘버지, 실비오 게손트너, 브렌트 에이치 코일레, 에이 로우저 메릴, 제이 마이클 멀러, 아드리안 오초아, 린던 제이 로빈슨.

저의 제의에 동의하시는 분은 모두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으로 수고하신 메릴 제이 베이트먼 장로님, 존 에이치 그로버그 장로님, 발 알 크리스티슨 장로님과 본부 청남 회장단으로 수고하신 에프 멜빈 하몬드 장로님, 린지 로빈스 장로님, 도널드 엘 홀스트롬 장로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임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모두 감사의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존 에이치 그로버그 장로님을 칠십인 회장단으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모두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형제님들을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으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조지 엠 알바라도, 호메로 에스 아마토, 존 에스 앤더슨, 조지 디 아레빌라가, 에이 배나시오 칼레이라, 가브리엘 에이 캄포스, 마리오 엘 칼로스, 존 제이 치프먼, 리그랜드 알 커티스 이세, 세사 에이 다빌라, 모시아야 에스 텔가도, 키스 알 에드워즈, 제이 로저 플루먼, 루이즈 시 프란카, 마누엘 곤잘레즈, 토루 호타, 빈 기꾸찌, 이용환, 알프레도 헬리톤 데



레모스, 도밍고스 에스 린하레스, 알렉산더 에이 누네즈, 멜빈 알 퍼킨스, 제임스 시 페리, 에를 에스 퓌펜, 존 시 핑그리, 네일 이 피츠, 다나 엠 리에스, 조지 에이 로자스, 에릭 비섬웨이, 조셉 더블류 시타티, 터렌스 시 스미스, 로웰 엠 스노우, 마이클 제이 테흐, 스탠리 완, 알렌 피 영.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최근의 결정으로 칠십인 정원회의 회원들은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과 본부 청남 회장단에서 봉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 회장으로 에이 로저 메릴 형제를, 제1보좌로 다니엘 케이 주드 형제를, 제2보좌로 윌리엄 디 오스왈드 형제를 지지할 것을 제한합니다.

또한 본부 청남 회장단 회장으로 찰스 더블류 달퀴스트 이세 형제를, 제1보좌로 딘 알 버게스 형제를, 제2보좌로 마이클 에이 네이더 형제를 지지할 것을 제한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다른 총관리 역원들과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 및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을 지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만장일치로 지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의 끊임없는 신앙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새로 부름 받으신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과 본부 청남 회장단 여러분은 단상에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윌리엄 디 오스왈드 형제님은 현재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선교부의 선교부장으로 봉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 2003년도 교회 감사부 보고서

보고자: 웨즐리 엘 존스  
교회 감사부, 관리 책임자

수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존** 경하는 대관장단께: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감사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부서는 본부의 다른 부서와 운영 기구들로부터 독립되어 있습니다. 교회 감사부의 관리 책임자가 직접 정기적으로 대관장단에게 보고합니다. 교회 감사부 직원들은 공인 회계사, 공인 내부 감사자, 공인 정보 시스템 감사자, 그리고 그 외 자격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관장단의 지명에 따라 감사부는 교회의

모든 부서와 전세계의 모든 운영 기구들을 감사할 권능을 갖고 있으며, 현금, 지출 및 교회 자원을 감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시스템, 기록, 인사 및 부동산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감사 작업은 전문적인 재정 및 운영 감사 표준에 따라 집행됩니다. 위험은 감사 선정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2003년의 교회 기금 지출은 십일조 지출 평의회가 승인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이 평의회는 제시된 대로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



회, 그리고 감리 감독단으로 구성됩니다. 현금, 지출 및 교회 자원에 대한 사용은 이 평의회의 지시에 따라 각 부서의 관리 그룹과 교회 예산 및 재정부를 통해 관리됩니다. 이들 부서, 예산, 그리고 재정 그룹에 의한 자금 관리 상황은 감사한 후 보고했습니다.

교회 감사부는 감사에 근거해 2003년 동안의 현금 영수, 지출 및 사용한 교회 자원이 모든 면에서 승인된 예산 지침과 현 교회 정책 및 절차에 따라 행해졌음을 밝힙니다.

교회와 독립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교회 관련 업체들의 재정 상태는 2003년에 교회 감사부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업체들의 재정 상태 및 관련된 관리 상태는 독립 공인 회계 회사가 감사했습니다. 이러한 업체로는 데저렛 매니지먼트 코퍼레이션 및 그 계열사, 그리고 브리감 영 대학교를 포함하여 교회의 고등 교육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감사부는 각 업체의 감사 위원회와 함께 실시한 공인 회계 회사의 감사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삼가 제출합니다,  
교회 감사부  
웨즐리 엘 존스  
관리 책임자 ■

# 2003년도 통계 보고서

**보고자: 에프 마이클 왓슨**  
대관장단 서기

**대** 관장단은 교회의 회원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 2003년 12월 31일 현재 교회의 성장과 현황에 대한 다음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 교회 단위 조직

스테이크 .....	2,602
선교부 .....	337
지방부 .....	644
와드 및 지부 .....	26,237

## 교회 회원

교회 회원 총수 .....	11,985,254
증가된 기록상의 자녀 수 .....	99,457
침례 받은 개종자 .....	242,923

## 선교사

전임 선교사 .....	56,237
--------------	--------

## 성전

2003년 동안 헌납된 성전 수 .....	2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스베인, 캘리포니아 레드랜드즈)	
현재 운영 중인 성전 수 .....	116

## 작년 4월 이후 작고한 교회의 저명 인사들

제이콥 디 아저 장로, 명예 총관리 역원; 앤드류 웨인 피터슨 장로, 명예 총관리 역원; 로버트 엘 심슨 장로, 명예 총관리 역원; 일레인 캐논 자매, 전 본부 청년 회장; 로이 엠 달리 형제, 전 태버네클 오르간 반주자 ■



# 뿌리와 가지

러셀 엠 벨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간단히 요약하면, 인생에서 최대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 가슴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릴 때 찾아옵니다.



**공** 항에서 보안 검사를 받을 때마다 우리는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제시하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우리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기에, 그런 요구를 이해하고 그것에 따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신분의 증거물로 제 사진을 다소 점연쩍게 제시합니다. 누군가가 제 여권 사진을 살펴본 후에 아주 비슷하다고 말하면, 저는 이 때가 집에 가야할 때임을 압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이유로 점연쩍어합니다. 사진은 저의 뿌리와 가지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뿌리와 가지는 제 신원을 밝히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무 등치만 나온 사진을 보고 나무에 관해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무의 뿌리와 가지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개인이 나 종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개인의 뿌리

개인의 뿌리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벨슨 장매와 저는 집 외벽에 그려진 커다란 그림을 통해 조상의 뿌리에 대한 증거를 자랑스럽게 전시하고 있는 한 가족을 알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두 사람 각각의 가계도는 아름답게 예술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생아 주위에 친자들이 모이면 “엄마를 닮아 빨간 머리구나”, 혹은 “아빠처럼 보조개가 있네” 하는 말들이 반드시 오고가게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조상의 뿌리가 있습니다. 남자는 저마다 아버지와 비슷한 유전적 특성의 일부를 물려받습니다. 여자는 저마다 어머니와 비슷한 유전적 특성의 일부를 물려받습니다.<sup>1</sup> 더구나 우리 개개인도 우리를 독특하게 하는 다른 유전적인 특성들도 물려받습니다.

우리는 육신은 물론 영을 가졌기 때문에,<sup>2</sup> 오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영적인 뿌리 또한 가진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뿌리가 우리의 가치와 믿음과 신앙의 형성을 돕습니다. 영적인 뿌리는 주님의 이상과 가르침으로 우리의 각오를 이끌어 줍니다.<sup>3</sup>

자녀에게는 부모의 행동을 모방하려는 자연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자 아이들은 아버지의 태도와 일에 이끌리고, 여자 아이들은 어머니가 하는 대로 생활하고자 합니다. 부모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느 뎡가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마땅히 신체적이거나 영적인 개인의 뿌리에 감사드려야 합니다. 제게 삶을 주신 창

조주와 사랑하는 부모님과 조상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 분들에 관해 배우고 성전에서 그 분들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그 분들을 존중하고자 합니다.<sup>4</sup> 부모는 그들의 개인적 뿌리에 관한 지식을 자녀들 및 손자녀들과 나눌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역사에 관해 함께 배울 때 가족이 단합됩니다.

## 종교적 뿌리

우리는 또한 우리 종교의 뿌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비록 1830년에 공식적으로 조직되었지만, 오랜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는 뿌리에서 회복된 것입니다. 이전 경륜의 시대들로부터 진리들이 모였고, 더욱 상세히 설명되고, 분명하게 밝혀졌습니다.<sup>5</sup> 부모나 교사들인 우리에게 신앙개조는 훌륭한 교육 자료가 됩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 의해 씌어진<sup>6</sup> 이 문서는 우리 종교를 뒷받침하는 많은 교리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회, 도덕적 선택의지, 아담의 타락,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 회개, 침례, 성신의 은사를 위한 안수례 등에 관한 기초적 원리와 의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권의 권능 및 조직에 관해 말해 줍니다. 그것은 성경과 물문경,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되는 계시가 추가되는 열린 경전을 거룩한 경전이라고 말해 줍니다.<sup>7</sup> 또한 그것은 이스라엘 회복의 실재성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우리 종교의 뿌리에 대해 가르칠 때 이 귀중한 문서가 참으로 훌륭한 진리의 보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종교의 뿌리에서 계시된 다른 교리에는 창조, 부활, 십일조의 법, 기도, 성전의 위대한 축복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교리들을 가르칠 때, 우리의 기초가 얼마나 확고한지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우리 종교의 뿌리가 우리 자신에게 있어 영적인 힘의 일부가 됩니다.

개종자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뿌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든 비 할링리 대관장님은 각 개종자가 친구와 책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됨이 필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들과



회원들이 일본 마치다 스테이크 센터에서 대회 모임을 보고 있다.

자녀들을 지탱해 주는 그러한 뿌리를 가지고, 소중한 개종자들은 그들의 가족이 뒤따를 개척자들이 된다.

불행하게도, 충실한 가족들의 어떤 구성원들은 뿌리가 연약하여 떨어져 나갑니다. 개척자 선조들의 신앙에서 돌아서는 사람들에게 대대들 때마다 제 가슴은 고통스럽습니다. 전문가로서 명성을 떨치는 친구이자 충실한 선조의 재능 많은 한 아들이 교리에 관한 한 가지의 문제로 인해 복음의 충만함을 보는 눈이 흐려지고, 자신과 성전 사이에 갈수록 골이 깊어지게 하는 썩음을 박았습니다. 매우 유명한 개척자 조상을 갖고 있는, 제가 알고 있는 사랑스러운 한 자매는 자신이 더 이상 교회의 “활동 회원”이 아니라고 정중하게 말합니다.

이 소중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뿌리를 잊어버릴 만큼 유행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까? 이들은 진정 회복이 무엇이며,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잊어버렸던 말입니까? 개척자의 유산, 그리고 축복사의 축복을 통해 선언된 그들의 혈통을 잊어버렸던 말입니까? 얼마 되지 않는 이익 때문에 영생을 잊어버렸던 말입니까? 자신들을 축복한 그 뿌리를 망각한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한 성도들이 누리는 영적인 축복들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합니다.

그들의 고귀한 조상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예언과 계시의 영으로 ...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개심하여 주님에게로 돌아왔고, 다시는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였습니다.”<sup>8</sup> 그러한 선조들이 후손들의 표류를 보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뿌리에서 떨어져 나간 열매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선조들의 실망은 슬픔으로 변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엄숙한 경고를 주셨습니다. “너희가 ...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나서 ... 예언자들의 말씀을 거역하며, ... 그리스도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거절하며, ... 하나님의 권세를 부인하고 성령의 은사를 부인하며 ... 너희들 앞에 마련된 구속의 계획을 조롱하겠느냐?”

“... 부활(은) ... 너희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부끄러움과 무서운 가책으로 서게 하실 것 [이라.]”<sup>9</sup> 저는 여러분 각자에게 이 성스러운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기를 간청합니다.

### 개인의 가치

우리의 뿌리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듯이, 우리의 가치 또한 우리의 정체성을 밝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한 개인의 가치들은 우리를 닮은 열매들을 맺을 것입니다.<sup>10</sup> 경전은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가르칩니다.<sup>11</sup> 제 아내

와 제가 훨씬 젊었을 때, 제 자녀들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알 것 같다고 말하는 젊은이들을 자주 만났습니다. 이제는 우리 손자들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아는 사람들로부터 다정한 인사를 받습니다.

### 종교적 가치

이와 흡사하게 우리의 종교도 그 가치들의 열매로 알려집니다. 최근에 저는 이곳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멀리 떨어진 한 나라에서 온 정부 관리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교회와 교회가 전세계에서 벌이는 여러 노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가족에 관한 우리의 가르침을 좋아했으며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과 가정의 밤 지도서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복지 프로그램과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 더 많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응했고, 그런 후에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서 우리가 그것을 왜 하느냐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저는 나무의 비유를 들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믿음의 여러 열매로 인해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열매는 풍성하고 강력합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맺는 나무를 알지 못한다면 그 열매의 참맛을 알 수 없습니다. 더구나 그 뿌리를 이해하지 않는 한 그 나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종교에서



는, 뿌리가 없이는 열매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이해했습니다.

복음이라는 나무의 가지에 맺힌 열매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이 포함됩니다.<sup>12</sup>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의 뿌리가 기름지고 비옥한 토양에 심어지지 않거나 적절한 가지치기와 배양, 관개와 같은 적절한 관심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아름답고, 달콤한 열매는 결코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덕성과 순결, 정직, 절제, 고결성, 충성이라는 달콤한 열매들도 그 삶이 복음과 인생의 진리,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한 굳건한 간증 위에 세워지지 않은 개인에게서는 자라나지 못할 것입니다.”<sup>13</sup>

복음의 열매는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달콤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은 예지”<sup>14</sup> 라는 것을 알기에 교육을 추구합니다. 십일조의 축복은 십일조를 바침으로써 옵니다.<sup>15</sup> 지혜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거기서 오는 보상을 거두게 됩니다.<sup>16</sup> 우리는 복음대로 생활할 때 오는 경험을 통해 기도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성찬을 취하는 것이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의 율법대로 생활할 때, 개인의 순결에서 오는 평안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을 알기에 외설물과 부도덕을 멀리합니다.

주님은 이런 약속과 계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으니 ...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sup>17</sup> 간단히 요약하면, 인생에서 최대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 가슴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릴 때 찾아옵니다.<sup>18</sup>

## 간증

개인의 신분은 여권 사진 이상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또한 뿌리와 가지가 있습니다. 신성이 우리 각자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창조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sup>19</sup> 우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전세에서 우리 형제들은 신권 책임에 예입되었습니다.<sup>20</sup>



일본 회원들은 시차 때문에 인공위성을 통해 재방송으로 연차 대회를 본다.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여성들은 자녀를 출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준비되었습니다.<sup>21</sup>

우리는 육신을 얻고, 시련과 시험을 받기 위해 이 필멸의 세계로 왔습니다.<sup>22</sup> 우리는 영원히 지속될 기쁨과 사랑하는 관계를 가지고 성전에서 가족을 이루고 인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영원한 진리에 우리는 각기 개인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과 복음의 가지들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할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업과 영광, 즉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사업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sup>23</sup> 우리는 그분과 우리 가족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그분의 방법과 시간에 따라 충실한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될 것입니다.<sup>24</sup>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요셉 스미스는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의 계시자요 예언자입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이 지상에 다시 세워진 주님의 왕국입니다. 고든 비 헝클리 대관장님은 그분의 살아 계신 예언자이십니다. 이러한 진리 위에 뿌리를 내린다면, 우리의 가지에는 열매가 항상 있게 될 것입니다.<sup>25</sup>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 주

1. 이와 더불어 미토콘드리아 DNA가 어머니에게서 아들과 딸 모두에게 전달된다.
2. 교리와 성약 88:15 참조.
3. 에베소서 3:14~19; 골로새서 2:6~7 참조.
4. 교리와 성약 128:15 참조.
5. 교리와 성약 128:18 참조.
6. 시카고의 한 신문 편집자이자 소유자였던 존 윌트워스에게 보낸 편지로, 1842년 3월 1일 *Times and Seasons*에 처음으로 게재되었다.
7. 이 문서는 또한 교회 회원의 삶을 교화시키는 영의 은사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열 지파의 회복, 시온의 설립, 새롭게 된 지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천년의 통치와 같은 말일의 커다란 사건들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는 예배, 관용, 법률에 대한 순종의 원리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삶과 높은 개인적 이상에 관한 통찰의 표현으로 끝을 맺고 있다.
8. 알마서 23:6.
9. 야곱서 6:7~9.
10. 예를 들어 니파이서 3:6~7 참조.
11. 마태복음 7:20; 니파이서 14:20; 또한 요셉 스미스 1서 7:25 참조.
12. 갈라디아서 5:22.
13. *Stand Ye in Holy Places*(1974), 218~219쪽.
14. 교리와 성약 93:36.
15. 말라기 3:10; 니파이서 24:10 참조.
16. 교리와 성약 89:18~20 참조.
17. 요한복음 15:3~5.
18. 에베소서 3:17 참조.
19. 이사야 64:8.
20. 알마서 13:1~5 참조.
21. 교리와 성약 132:63 참조.
22. “아브라함처럼”(교리와 성약 101:4). 또한 히브리서 11:17 참조.
23. 모세서 1:39 참조.
24. 어떠한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때에는 “그것이 근거를 두고 있는 율법을 순종하였으므로 얻게 되는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130:21)
25. 요한복음 15:16 참조.

# “내 안에 거하라”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복음의 열매가 우리 생활을 꽃피우고 축복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  
모두의 구세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단단히 묶여 있어야 합니다.



**초** 기에는 총관리 역원들이 연차 대 회를 통해 자신의 임무에 대해 자 주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는 지금 이 1904년이 아닌 2004년임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초기의 그 관례에 따라 제가 홀런드 자매와 함께 중남미에서 경험하고 있는 놀라운 일들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살거나 어디서 봉사하시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생활에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저는 우리가 받은 말일의 이 훌륭한 과업을 위해 열심히 일해 오신 모든 선교사들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회복된 복음의 전파는 모든 의미에서 하나의 기적이며 그 기적의 상당 부분은 열아홉 살짜리들의 어깨에 짊어진 노력의 결과입니다. 칠레에서 충실하게 봉사하고 있는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의 부모나 조부모)을 보면서 저는 세상 도처에서 만났던 그들과 같은 수천 수만의 사람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깨끗하고 순수하며 총명한 눈빛을 갖고 두 명씩 함께 다니는 선교사들은 어디서든 이 교회의 살아 있는 상징이 되어 왔습니다. 그들 자체가 바로 구도자가 접하는 첫 번째 복음 메시지이며, 그 메시지는 정말 훌륭합니다. 모두가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며, 그들을 가장 잘 아는 우리들은 그들을 매우 사랑합니다.

저는 모국 아르헨티나에서 부름 받아 우리와 함께 봉사하는 한 자매를 여러분이 만나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선교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하기 원했던 그 자매는 자신에게 있어 가장 귀중하고 거의 유일한 소유물인 바이올린을 팔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바이올린으로 저를 축복해 주실 거예요.”

저는 또한 가족을 떠나 기숙사에 살면서 물 문경을 접하고는 그 날 저녁에 읽기 시작했던 칠레 출신의 한 장로를 여러분이 만나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팔리 피 프렛의 일화를 연상시키는 그는 밤새 멈추지 않고 욕심을 내어 읽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그는 평화의 심오한 느낌과 희망의 새로운 영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는 이 책의 출처와 그 놀라운 내용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13개월 뒤에 그는 선교사로 나가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볼리비아에서 온 놀라운 한

청년을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어울리지 않는 옷과 자신의 사이즈보다 3 치수나 큰 신발을 신고 왔습니다. 그는 그의 집에서 유일하게 생계비를 버는 사람이었고, 닭을 키워 집집마다 다니면서 달걀을 팔아 선교 사업 비용을 모으느라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다른 선교사보다 나이가 좀 많았습니다. 마침내 부름장이 왔을 때 그의 홀어머니가 위급한 맹장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 친구는 선교 사업을 위해 번 돈 모두를 어머니의 수술과 병간호를 위해 지불한 다음, 조용히 할 수 있는 만큼 친구들에게서 헌 옷들을 모아 일정에 맞추어 산티아고의 선교사 훈련원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그는 몸에 맞는 옷과 신발을 신고 있고 그와 그의 어머니가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음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그들은 온 세상에서, 자신의 가정을 떠나옵니다. 헌신적인 주님의 종들의 긴 명단 가운데는 이 사업에 꼭 필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그 수가 점점 증가하는 노부부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교회의 모든 선교부에 계신 부부 선교사들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며 필요로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이 귀환했을 때 손자들이 여전히 손자들로 있을 것임을 깨닫는 사람들은 골프채와 주식 시장에 관한 염려를 던져 버리고 나가십시오!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이제 훌륭한 교회 회원들에 대해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광범위한 경계를 지닌 시골의 한 스테이크를 재조직하는 가운데 저는 한 사람을 스테이크장단에 부르라는 주님의 속삭임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가 자동차가 없이 자전거를 한 대 갖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교회 내의 많은 지도자들이 차를 갖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특별한 스테이크에 있는 이 사람에게 차가 없다는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부족한 스페인어로 접견을 하며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Hermano, no tiene un auto?” 그는 웃으며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No tengo un auto; pero, yo tengo pies, yo tengo fe.” (“제게 자동차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겐 두 발이 있고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버스를 타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아니면 그냥 걸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como los misioneros”, 즉 “선교사처럼 말입니다”라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꼭 8주일 전에 저는 방문자들이 거의 없는 칠레 남쪽의 오지에 위치한 칠로에 섬에서 한 지방부 대회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예배당 앞쪽 가까이 앉아 계신 매우 연로한 분이 11시가 되어야 시작하는 모임을 위해 아침 5시부터 걷기 시작하여 9시에 그 자리에 앉기까지 네 시간을 걸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아름다운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책임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좋은 자리에 앉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눈을 들여다 보며 지난날 제가 너무 무관심했거나 너무 늦었던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sup>1</sup>

칠레 폰타 아레나스 스테이크는 이 지구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스테이크로서, 그 경계는 남극 대륙까지 뻗어 있습니다. 남쪽으로 더 멀리 떨어진 스테이크가 있다면 그 곳에서는 펭귄들이 역원이 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오랫동안 여러분이 알고 계신 몇몇 스테이크 역원들을 두고 웃기 마시기 바랍니다.) 폰타 아레나스 성도들에게 그것은 산티아고 성전까지 오기 위한 6,759킬로미터의 버스 왕복 여행을 의미합니다.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에게는 그 교통비만으로도 연 수입의 20퍼센트를 차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버스에 태울 수 있는 사람은 50명이지만 매 여행 때마다 250명이 나와서 출발 아침에 방문단과 함께 간단한 기도 모임에 참석합니다.

잠시 동안, 차디찬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는 마젤란 해협 인근 주차장에서 서서, 다음에는 돈을 모아 갈 수 있기를 바라며, 성전에 가는 사람들과 함께 노래하고 기도하며 그들을 격려했던 때가 언제였는지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110시간의 여행, 그 중에서 70시간은 아르헨티나의 파타고니아 황야의 먼지 나는 비포장 도로를 지나 여행합니다. 버스 속에서의 110



시간이 어떤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잘 모르지만 우리 중 어떤 사람은 성전에서 110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 살거나 모임 시간이 110분 이상 걸린다면 과민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십일조와 기도 그리고 이들과 같은 먼 곳의 말일성도들을 위해 더 많은 성전을 건립해야 한다는 원리를 가르치는 동안, 아마도 나머지 우리들은 너무도 많은 성전들이 우리가 다닐 수 있는 범위 내에 점점 더 세워지면서 정규적으로 성전의 축복과 기적을 누리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 마지막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전반에 있어 우리는 특별히 성전 및 성전 건축의 방대한 확장을 포함하여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의 통찰력 있는 지도력과 관련된 많은 일들을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이 연단에 계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회에 들어온 개종자들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유지하게 하겠다는 그분의 결심만은 최소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대의 어느 예언자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보며 이 같이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거나 우리에게 기대를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얼마 전 눈을 깜빡이시며 앞에 있는 탁자를 살짝 두드리시고는 십이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들, 내 생이 끝나고 장례식을 마치면서 내 영이 일어나 이 세상을 떠날 때 나는 여러분 각각의 눈을 들여다보며 ‘지속적인 활동에 관해 어떻게 일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지속적인 활동이란 주제는 우리를 선교 사업으로 되돌아가게 해 줍니다. 그것은 전세계 교회의 훌륭한 회원들에게서 나타나는 큰 결심과 헌신과 더불어 선교사들이 열심히 애쓰고 있는 참되고 뜻 깊은 개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 너희는 가지라.”<sup>2</sup>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sup>3</sup>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킹 제임스판 성경의 우아한 영어로 이해하기 쉬운, 아름다운 개념이지만 “거하라”는 말은 영어에서 더 이상 많이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언어로 번역된 이 구절을 듣고 주님께서 주신 이 권고에 대해 더 큰 감사를 느꼈습니다. 스페인어로 그것과 유사한 표현은 “*permaneced en mi*”입니다. 영어 동사인 “abide”처럼 *permanecer*는 “남아 있다, 머물다”라는 뜻이지만 저와 같은 비 스페인계나 라틴계는 영어의 “*permanence*”와 같은 어원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머물라—그러나 영원히 머물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칠레 사람들과 그 외의 세상 모든 사람에게 외치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오십시오, 그러나 와서 남으십시오. 확신과 인내를 가지고 오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 뒤에 올 모든 세대들을 위해 영원히 오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강하게 되도록 끝까지 서로 도울 것입니다.

“지팡이의 한쪽 끝을 든 사람은 다른 끝도 든 것입니다.” 저의 훌륭한 선교부장은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첫 메시지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sup>4</sup> 그것은 우리가 참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의, 참되고 살아 있는 이 교회에 들어올 때 이미 예정된 길입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로 들어올 때 우리는 시온의 멋진 배에 승선하여 복천년이라는 항구로 갈 때까지 어디든 그 배와 함께 항해합니다. 우리는 폭풍우 속에서나, 잔잔할 때나, 비바람이 몰아칠 때나, 강렬한 햇볕 속에서나, 언제라도 그 배에 머물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유일한 배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중대한 교리, 의식, 성약 및 승영에 필수적인 열쇠를 위한 주님의 전달 수단이며, 지상에 설립된 교회에서 충실하려 노력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분히 충실할 수 없습니다. 새 개종자와 오래된 회원에게 똑같이 우리는 니파이의 강력한 고별 말씀의 영으로 선언합니다. “너희는 이제 그 문에 들어섰으며 …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너희가 이 곧고 좁은 길에 들어서지만 하면, 만사가 다 행하여진 것이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으로 힘차게

나아가야 하느니라 … 끝까지 참을진대, 보라 …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sup>5</sup>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sup>6</sup>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영원히, 단단히, 굳건히, 영원토록, “거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열매가 우리 생활을 꽃피우고 축복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 모두의 구세주,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지닌 그분의 교회에 단단히 묶여 있어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 힘의 참 근원이며 또 영생의 유일한 근원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견디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의 재림 시에 널리 퍼져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음이 거룩한 대업에서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우리가 그 대업과 그분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 주

1. 마태복음 8:10.
2. 요한복음 15:1,5.
3. 요한복음 15:4.
4. Harry Emerson Fosdick, 매리온 디 행스 장로.
5. 니파이서서 31:18~20.
6. 요한복음 15:5.

# 예수님 생각하오니

키스 비 맥멀린 감독  
감리 감독단 제2보좌

예수님, 그분을 생각하면 제 마음은 표현할 길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그것은 제 존재의 모든 부분을 다스립니다.



**최**근에 힝클리 대관장님이 성전에서 갖 결혼한 한 젊은 부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이렇게 살아 있으면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경이롭지 않습니까?” 그분의 낙관적인 인생관과 성품이 재확인되는 대목입니다. 이런 면들은 어두운 세상에 희망을 가져다줍니다. 이것들은 하지만 단지 긍정적인 성격을 표현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과거를 잠깐 돌아보는 것이 제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2세기 초에 “한 열정적인 신앙의 소유자”<sup>1</sup>였던 클레르보의 생베르나르라는 성직자는 다음과 같은 가사를 적었습니다.

예수님 생각하오니  
내 마음 기쁘네

당신과 함께 거하면  
더욱 더 기쁘리.<sup>2</sup>

이 가사는 세상의 대부분이 무지와 빈곤과 절망에 휩싸여 있던 때에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희망과 기쁨과 평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사들은 언제나 예수님에 대한 간증에 따르는 중요한 확신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확신은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충실한 모든 사람들에게 열의와 낙천적인 기질을 전해 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이 간증은 무엇이며, 어떻게 이 간증을 얻을 수 있고, 이 간증은 이를 얻는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간증은 성신을 통해 사람의 영에 계시되는 것으로, 예수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살아 계신 아들이라는 분명하고 확실한 지식입니다.<sup>3</sup>

예수님에 대한 간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숭고하고 또 행복한 삶에 있어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종교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이며 우리 신앙과 관련된 그 밖의 모든 것들은 그것에 부속되는 것입니다.<sup>4</sup> 힝클리 대관장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인류의 구속주라는 ... 확실한 지식을 혼자 힘으로 얻는 것은 모든 말일성도의 특권이며, 기회이며, 의무입니다. ... 그 간증은 ... 우리가 지닐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재산입니다. 저는 사람이 살아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실재성에 대한 참 간증을 가질 때 언제나 그 밖의 모든 것들이 마땅히 잘 풀린다는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sup>5</sup>

의로운 삶을 통해 얻어진, 예수님에 대한 이런 간증은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을 다스리는 힘이 됩니다. 게다가 그것은 모든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하나님은 사람의 의외를 보지 아니하시기”<sup>6</sup>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간증은 개인의 노력 없이는 얻어지지 않습니다. **알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알기 위해 연구하고, 획득하기 위해 실천하고, 얻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겸손과 신앙 가운데서 추구할 때 우리는 그 지식을 얻게 되고, 이 지식으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감미로운 확신뿐 아니라 잘 되게 해 줄 내적인 힘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 알고자 하는 소망

알고자 하는 소망은 예수님에 대한 간증의 추구에 있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경전에서는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깨어나 너희의 능력으로 나의 말을 실제로 시험하며 아주 작은 신앙을 품어 보려 할진대, 비록 너희가 믿겠다는 의욕만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 믿겠다는 의욕이 내 말을 조금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네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게 하라”<sup>7</sup>

## 알기 위해 연구함

예수님에 대한 간증은 정직하게 추구하는 사람에게 **알기 위해 연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sup>8</sup>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고 증거합니다. 그분은 구약의 여호와시며 신약의 메시아이십니다.<sup>9</sup> 그분의 또 하나의 성약인 몰몬경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편찬되고, 보존되어, 세상에 나왔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나라의 백성들



에게 친히 나타내어 보이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느니라.”<sup>10</sup>

### 획득하기 위해 실천함

그러한 간증을 얻기 위해서는 소망과 연구가 어우러진 가운데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할는지 알리라.”<sup>11</sup>

### 얻기 위해 기도함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한 간증은 이를 얻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에게 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sup>12</sup>라는 말씀은 겸손하고 뉘우치는 사람들을 그러한 지식으로 이끄는 초대장입니다. 이러한 지식을 갖고 구하는 사람은 또한 생의 기원과 목적에 대한 이해력을 얻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숨겨진 채로 남아

있었을 인생에 대한 열린 시야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 주님의 생은 베들레헴에서 시작되지 않았으며,<sup>13</sup> 우리의 생도 출생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전세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영원한 계획에서 굳세고 흔들리지 않는 옹호자로 서 계셨으며,<sup>14</sup>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천국에서의 큰 전쟁에서 루시퍼가 내쫓긴 것은 장자의 권세에 의해 그렇게 된 것이며<sup>15</sup> 우리는 그 대업을 지지하고 도왔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 “세상이 창조되어 지금 존재하며”<sup>16</sup>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거룩한 잠재력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제이 르우벤 클라크 부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태초에 내려오셔서 ... 이 세상을 만든 분은 초보자도 아니요, 아마추어도 아니며, 처음으로 시도를 한 분도 아니었습니다.

“태초부터 아마도 백만 개 이상의 세계를 갖고 있던 이 은하계에 대해 생각해 보고, 또 거기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백만 개의 은하계를 곁에 본다면, ...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 조금은 알게 될 것입니다.”<sup>17</sup>

경이로움 속에서 우리는 작사자인 그 옛적의 성직자처럼 이렇게 기뻐합니다: 예수님 생각하오니 내 마음 놀라네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필멸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신 분으로서, 전세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를 입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가 되셨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그분의 위엄과 메시야 되심과 신성의 충만함이 그분께 오지 않았지만 그분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가시더니 마침내 충만함을 받으시[었으며]” 우리도 그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sup>18</sup>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으며, 성신이 그분께 강림하셨고, 그분은 온 인류의 질고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죄는 그분을 통해 용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sup>19</sup>

그리스도라 불리는 이 예수님은 그분의 비길 데 없는 삶, 겹세마네에서의 고통, 피 흘리심,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 그리고 영광스런 부활에 의해 온 인류를 위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무덤을 이기셨으며, 그분으로 인해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sup>20</sup> “그분은 이 지상

에 태어난 가장 위대한 분이십니다 ... 그는 만 주의 주, 만왕의 왕, ... 구세주, ... 광명한 새벽 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는, 하늘 아래 유일한 이름입니다.”<sup>21</sup> 그분은 기쁨부음 받은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 생각하오니 내 마음 경배하네

절정의 시기에 세상이 그분을 이길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시대의 세상도 그분 없이는 이길 수 없으며,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목적은 “인간에게 불사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일”입니다.<sup>22</sup> 그리하여 그분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으며, 신권을 회복하셨고, 그분의 교회를 다시 설립하셨으며, 구속의 계획을 다시 한번 선포하셨습니다. 요셉은 그분을 보았고, 그분과 대화했으며, 그분에 관한 다음과 같은 뛰어난 시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나는 보좌 주위로 거룩한 천사들과 만군을 보았네  
그리고 세상에서 깨끗하게 된 자들도 보았네  
그들은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과 어린양을 경배했네  
영원히 아멘, 아멘.

그분을 알고 있는 모든 목격자들이 드리는 그분에 대한 모든 간증 뒤에  
그가 살아 계신다는 내 간증을 마지막으로 드리니,  
참으로 그는 살아 계시다  
또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서 그의 보좌에 앉아 계시네

그가 구세주이며 하나님의 독생자라 간증하는 큰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니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 그로 인해 세상들이 만들어졌고  
그 넓은 하늘에 수 놓인 모든 것들이 그러하도록

처음 된 자부터 마지막 된 자까지 그 주민 또한



바로 그 구세주에 의해 모두 구원 받으며  
바로 그 진리와, 바로 그 권세로,  
그들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딸이 되었네.<sup>23</sup>

오늘날 우리에게는 주님으로부터 합당하게 성임 받은 사도들이 계십니다.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특별한 증인”으로서, 성스러운 의무에 진실한 그 분들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sup>24</sup>

“예수님[은 살아 계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위대한 왕인 임마누엘이시며 오늘날 아버지의 우편에서 계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요 소망이십니다. 그분의 길은 이 생에서는 행복으로 인도하고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 어느 것으로도 비길 데 없는 선물로서 거룩한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sup>25</sup>

예수님, 그분을 생각하면 제 마음은 표현할 길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그것은 제 존재의 모든 부분을 다스립니다. 당신께서 그리스도, 거룩한 분임을 제가 알기에 저의 인생, 저의 사랑, 저의 포부가 형성되고, 활기 넘치며, 목적을 얻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저의 간증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게 이같은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아멘. ■

#### 주

1. 카렌 린 데이빗슨, *Our Latter-day Hymns: The Stories and the Messages*(1988), 167
2. “예수님 생각하오니”, 찬송가, 104장.
3. 욥기 32:8, 고린도전서 2:11 참조.
4. *History of the Church*, 3:30, 참조
5. *Teachings*, Gordon B. Hinckley(1997), 647~648쪽.
6. 사도행전 10:34; 또한 교리와 성약 1:35; 38:16 참조.
7. 앨마서 32:27.
8. 요한복음 5:39.
9. “살아 계신 그리스도: 사도들의 간증”, *리아호나*, 2000년 4월호, 2쪽 참조
10. 물문경 표제지.
11. 요한복음 7:16~17.
12. 마태복음 7:7~8; 또한 교리와 성약 4:7 참조.
13. “살아 계신 그리스도: 사도들의 간증”, *리아호나*, 2000년 4월호 2쪽 및 모세서 2:26 참조.
14. 아브라함서 3:22~27.
15. 모세서 4:1~3 및 교리와 성약 76:25~27 참조.
16. 교리와 성약 76:22~24 참조.
17. “누가 우리의 구세주인가?” *Improvement Era*, 1962년 11월호, 798~799쪽.
18. 교리와 성약 93:12~20.
19. 앨마서 7:11~13.
20. 누가복음 24:36~39, 고린도전서 15:55, 앨마서 11:41~45, 니파이삼서 11:7~14
21. Bible Dictionary, “그리스도” 633쪽.
22. 모세서 1:39.
23. “시현”, *The Latter-day Saints' Millennial Star*, 1843년 8월호, 51쪽, 브르스 알 맥클링, *물문 교리 제 2판*, 65~66쪽, 교리와 성약 76:21~24 참조.
24. 교리와 성약 107:23.
25. “살아 계신 그리스도: 사도들의 간증”.

# 그리스도의 말씀 - 우리의 영적인 리아호나

더블류 롤프 카 장로  
칠십인 정원회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취합시다.



**전** 세계의 성도들과 함께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를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하는 데 참여할 수 있음을 성스럽고 영광스러운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특별한 증인”(교리와 성약 107:23)이라는 사실을 겸손히 선포합니다. 우리는 또한 그들이 “성신으로 감동되는 대로 말하[고] ... 저들이 성령으로 감동되어 말하는 것은 다 경전의 말씀이 되며, 주의 뜻이 되며, 주의 생각이 되며, 주의 말씀이 되며, 주의 음

성이 되며, 구원으로 인도하는 주의 권능이”(교리와 성약 68:3~4) 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구세주께서는 “내 자신의 음성이거나 내 종의 음성이거나 다 같으니라.”(교리와 성약 1:3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일의 주님의 종들이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합니다.

구세주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거나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요한복음 5:39) 사도 바울은 믿고 의지하던 동반자인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디모데후서 3:16) 우리는 몰몬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경전임을 세상에 선포합니다. 몰몬경은 또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우리는 몰몬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은사와 권세에 의해 고대 기록으로부터 번역되었음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이 고대 기록은 성경의 동반자라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출현하도록 기록되고 보존되었습니다. 그 둘은 주님의 손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에스겔 37:16~20 참조) 몰몬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지키라.

보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너희가 행하여야 할 바를 모두 전하여 주심이라.”(니파이이서 32:3)는 권고를 듣습니다. 우리는 몰몬경이 구세주의 생애와 사명에 관한 두 번째 증거임을 간증합니다. 그것은 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입니다. 우리는 몰몬경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6백여 년 전에 주님은 고대 예언자인 리하이에게 가족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 대양들을 건너서 중국에는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놀라운 여행을 시작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몰몬경은 고대 미대륙에 살았던 이 백성들의 영적인 기록입니다. 몰몬경에는 이 백성들에게 주어진 예언과 계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신성한 교통 가운데는 구세주의 탄생과, 그분의 성역과, 그분의 위대한 속죄 희생에 대한 많은 예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록과 계시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 그리고 고대 미대륙 백성들에게 그분이 친히 오신다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몰몬경에서 부활 이후에, 그리고 승천하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실제로 나타나신 역사적 사건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역사상 이 놀라운 사건의 이야기를 저와 함께 듣고 느껴 보십시오.

“큰 무리를 이루어 ... 주변에 모여

“저들이 또한 그 죽으심의 표적이 이미 보여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야기하며,

“서로서로 이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임하는지라 ... 그 음성을 깨닫지 못하니라. 이는 거친 음성도 아니요, 큰 소리도 아니요 비록 적은 음성이었으나 온 몸을 속속들이 파고 드는지라, 몸에 떨리지 않는 곳이 없었고, 저들의 영혼을 꿰뚫어 가슴을 불붙게 하였으며,

“저들이 또다시 그 음성을 들었으니 이를 깨닫지 못하였고

“세 번째로 음성이 들릴 때 비로소 귀가 열려 듣게 되니라, 소리 나는 쪽으로 눈을 돌려 곧게 하늘을 우러러 보매 그 소리가 하늘로부터 나는데,

“보라 세 번째 소리가 들릴 때 이를 깨달아



듣게 되었으니, 소리가 무리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로 인하여 나의 이름이 영화로움을 받았으니, 저에게서 들으라 하시느니라

“무리가 이를 알아듣고 눈을 들어 다시 하늘을 우러러 보니, 보라 저들이 보매 하늘로부터 인자가 하강하시는데, 흰 옷을 입으셨더라. 저가 하강하사 무리 가운데 서심에,

“이에 저가 손을 앞으로 내미시며 백성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예언자들이 세상에 오리라고 증거한 바 예수 그리스도라.

“보라 나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쓴 잔을 마시며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고, 태초로부터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행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자 무리가 땅에 엎드렸으니, 이는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후에 저들에게 나타내어 보이시리라고 한 예언된 말씀을 저들이 기억하였음이라.”(니파이삼서 11:1~12)

구세주께서는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대로 그 백성들을 친히 축복하셨고 자신의 영광스러운 복음 또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고대 백성들에게 말씀된 대로 그분의 말씀, 즉 그리스도의 말씀 그대로를 물문경을 통해 갖게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리하이와 그의 가족이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은 후, 그들은 자신들의 여정을 알려 주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 성스러운 도구를 받았습니 다. 우리는 그것이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신앙에 따라 움직였다는 기록을 읽습니 다. 물문경의 예언자인 엘마는 그의 아들 힐라 맨에게 그 나침반이 “리아호나”(엘마서 37:38 참조)라고 불리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아들아, 이러한 일들이 이유 없이 일어나지 않음을 깨닫기 바라노라. 조상들은 게을러 나침반에 관심을 갖지 않음에 세상적인 일에서도 발전하지 못하였고, 영적인 일에서도 그러하였느니라. 보라 조상들이 약속의 땅에



이르는 올바른 길을 안내하는 나침반에 마음을 두는 일 같이 너희를 영원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일은 쉬운 일이라. 이제 내가 이르노니, 이러한 일에 비유가 있지 아니하냐? 이 방향구가 조상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일 같이 우리가 올바르게 따르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멀리 슬픔의 계곡 저 너머 보다 훌륭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오 나의 아들아, 길이 쉽다고 하여 게으르지 말지니 ...”(엘마서 37:43~46)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이 우리 각자에게 길을 보여 주는 개인적인 리아호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매사가 쉽다고 하여 게으르지 마십시오. 신앙을 가지고 성스러운 경전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리고 살아 계신 예언자들, 선견자들, 계시자들이 전하는 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취합시다. 신앙과 근면함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취합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가 행해야 할 모든 것을 알려 주는 영적인 리아호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엄숙한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

# 가정에서 간단하고 단순한 복음 원리들을 적용함

프란시스코 제이 비냐스 장로  
칠십인 정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간단하고 단순한 원리들이 가족 생활의 행복을 확고히 하기 위해 우리의 가정에 굳건히 세워져야 합니다.



**19** 98년 9월 상호부조회 총회에 서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은 이같이 선언하셨습니다. “저는 우리의 문제는, 어쩌면 대부분 사람들의 문제 일테지만, 가정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혁신을 하고, 변화를 기하며, 예전의 성스러운 가치관들로 돌아가길 원한다면, 그것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가정에서 진리가 가르쳐지고, 온전함이 자라나며, 자기 수련이 몸에 배고, 사랑이 길들여지

기 때문입니다.”(“주님의 빛 안에서 걸어감”, 리아호나, 1999년 1월호, 98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간단하고 단순한 원리들이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예전의 성스러운 가치관들 중 일부입니다. 가족 생활의 행복을 확고히 하기 위해 이 원리들을 우리의 가정에 굳건히 세워야 합니다.

월포드 우드럽 대관장님은 이같이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많은 위대한 원리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가장 위대한 원리들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단순한 것들입니다.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복음의 첫째 원리들은 가장 단순합니다. 그 어느 것도 이보다 우리들에게 더 영광스러우며 중요하지는 않습니다.”(“Remarks,” *Deseret News*, 1857년 3월 22일, 27)

가족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도전에 직면할 때 자주 이러한 원리들을 간과하곤 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 원리들이 간단하면서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문제가 더 심각해짐에 따라 해결책도 더 커지고 복잡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 가정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단체에서 도움을 찾으려고 할 때가 있습

니다. 그러나 사실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복음의 영광스러운 원리들을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매일의 작은 행동이나 책임에 적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경전은 “지극히 간단하고 작은 것이 위대한 일을 이루며”(엘마서 37:6) 라고 일깨워 줍니다.

“가족-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에서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이같이 선언했습니다. “성공적인 결혼과 가족은 신앙, 기도, 회개, 용서, 존경, 사랑, 동정심, 일 그리고 건전한 오락 활동 등의 원리 위에서 이루어지고 유지된다.”

이 원리들을 분석해 보면 그것들 대부분이 서로 관련되어 있고 보완해 준다는 것과, 그것들이 우리 삶에 융합될 수 있게 하는 권세는 바로 구속주이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원리들이 적용되면 그것은 가족 구성원들을 감화시킬 빛으로서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가족 관계를 강화시켜 줄 다른 가치관들이나 원리들을 점진적으로 흡수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우리는 “빛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빛을 받아들이는 자는 받은 빛이 더욱 밝아지고 점점 더 밝아져서 드디어는 대낮이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50:24)

만일 우리가 이 원리들을 적용하여 가정의 질서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데 성공한다면, 그 원리들이 미치게 될 강한 영향력을 매일 우리 가정에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 살면서 겪는 마찰로 인해 생긴 모든 상처는 치유될 것이고, 남에게 상처를 입혔던 것도 용서받게 될 것입니다. 교만과 이기심은 겸손, 동정, 그리고 사랑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여 삶에서 활용하게 되는 원리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의 정신을 좌우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원리를 완전히 받아들일 때, 그 영향력은 우리에게서 발산되어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간악한 자의 권세가 온 땅에 퍼졌던(몰몬서 1:19) 예언자 몰몬의 시대처럼, 그 어느 때보



다도 가정이 악의 세력으로부터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는 지금, 부모로서 우리는 이 원리들을 우리의 삶에 융합시킴으로써 그 영향력이 발산되어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 원리들을 실천하여 그로 인해 개인과 가족의 테두리 안에서 속죄가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은 복음의 첫째 원리인 신앙에서 시작됩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이사야 5:20 참조) 하는 것과 같이 가치관이 변하는 세상에서 물몬이 전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믿는 자 모두를 저에게 속한 자라 하시었으며 저를 믿는 신앙을 갖는 자들은 온갖 선한 일을 굳게 지킬 것인지라”라고 가르침으로써 우리에게 희망과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모로나이서 7:28)

우리가 온갖 선한 일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해 주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써 오게 되며,(로마서 10:17) 그 말씀은 가정의 밤 공과나 가족 경전 공부를 통해 더욱 강력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신앙을 키우는 데 있어 가정보다 더 나은 장소는 없으며 매일 그곳에서 공과와 실제적인 적용이 실현되고 실천됩니다.

신앙이 속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 마지막 회생은 곧 공의를 다스리시며, 사람이 능히 회개할 수 있는 신앙을 갖도록 자비를 내려 주시려는 데 뜻이 있다”는 점을 배우는 곳은 바로 가정입니다.(앨마서 34:15)

우리의 삶에서 속죄의 영향력이 없다면, 회개에 필요한 수준의 신앙을 키운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자비의 계획의 영향력 밖에 놓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갖고 회개한 자에게만 크고 영원한 구원의 계획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앨마서 34:16)

회개, 즉 마음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생기며, 죄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이끌어 그분의 뜻에 순종하게 해 주는 그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만 효력이 발생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됩니다.”(Guide to the Scriptures, “Repent, Repentance”, 206쪽)

하나님께서 일단 회개를 받아들이시면, 우리가 설명하는 다음 과정에 따라 우리는 침례와 확인 등의 회개와 관련된 의식과 성약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정규적으로 성찬을 합당하게 취할 때 우리는 그 성약들을 새롭게 하며, 비로소 우리의 죄 사함을 얻습니다.

죄 사함을 얻은 후, 계명에 충실함으로써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모로나이서에 설명된 것과 같이 온유하며 마음이 낮아져서 그로 인해 성신이 임하시게 됩니다. 이 성신이란 보혜사로서 소망과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며 그 사랑은 기도의 원리에 따르는 우리의 근면에 의해 유지될 것입니

다.(모로나이서 8:26 참조)

은유하며 겸손해진 마음을 지니고 성신의 동반을 얻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다치게 하거나 상하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지 않을 것이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에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를 사랑과 존경심으로 대할 것이며,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로서도 그는 가정에서와 같은 원리를 적용할 것이며 그것을 통해 가정에서의 자신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자신의 모습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 줄 것입니다.

위에 설명해 드린 과정에서 구현되는 신앙, 회개, 사랑, 용서, 그리고 기도와 같은 원리들은 부도덕, 교만, 질투, 분쟁, 학대, 그리고 가족 관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고통, 기만, 그리고 가족 유대를 파괴하는 행위와 같이 가정 내에서 여러 가지 양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죄의 질병과 싸우는 데 필요한 최상의 치료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 원리들을 적용하려는 결정과 그 과정을 시작할 시기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 단순한 과정은 모두가 성취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적용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적용할 복음의 근본적인 원리들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 원리들을 더욱 필요로 하는 세상에서 그것들을 계속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누구에게 주의 구원에 참가하지 말라 명하시더나?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주는 만민에게 값 없이 구원을 주시며, 만백성 앞에 나아가 회개를 전하여 가르치라고 그의 백성들에게 명하셨느니라.”(니파이서 26:27)

이 원리들이 참되다는 저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그 원리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 원리들에 따라 살려고 가족들과 함께 노력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세상의 부채, 하늘의 부채

조셉 비 워스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에게는 세상의 부채와 하늘의 부채가 있습니다. 그 각각의 부채를 청산하기 위해 현명해집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대회에 참석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들은 말씀들이 영감 받은 말씀임을 알고 있으며, 이 곳에 참석하는 것은 참으로 큰 기쁨입니다.

저는 하늘에 지고 있는 부채와 세상에 지고 있는 부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서는 거의 모든 곳에서, 구세주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의 무리에 둘러싸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 고침을 받기 원했으며, 다른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제적인 충고를 듣기 위해 왔습니다. 성역을 마치실 무렵, 사람들은 그분께 와서 그분을 조롱하고 비웃고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했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구세주께 와서 가족의 분쟁을 중재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구세주께서는 이 문제에서 어느 한쪽 편을 들기를 거부하셨지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sup>1</sup>

형제 자매 여러분, 탐심을 물리치십시오. 그것이 이 말일의 큰 고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은 욕심과 원한을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속박과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과 과중한 부채로 이어지곤 합니다.

금전 문제로 결혼 생활에 파탄을 가져오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마음에 상처를 입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돈에 대한 걱정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가 가족을 힘들게 하고, 병과 우울증과 심지어는 예기치 않은 죽음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 세상의 부채

교회가 초기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가르쳐 왔음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은 때때로 현명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많은 재정 문제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구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로 계속 지출합니다. 어



느 정도까지 그들은 연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경우에, 바라던 돈은 생기지 않습니다.

부채는 속박의 한 형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재정적인 흰개미입니다. 신용 카드로 물건을 구매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단지 번영에 대한 환상을 줄 뿐입니다. 우리는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물건이 우리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소한 집, 교육 또는 꼭 필요한 자동차 한 대 정도의 지출을 위한 일부 부채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으므로써 소비성 부채를 통해 재정적인 속박에 얽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자가 훌륭한 하인이지만 가혹한 주인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제이 르우벤 클라크 부대관장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이자는 잠들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으며 죽지도 않습니다. 병원에 가지도 않고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도 일하며 결코 휴가도 가지 않습니다. ... 일단 빛을 지면, 이자는 밤낮으로 매분마다 여러분의 동반자가 되며, 그 빛을 피하거나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펼쳐 버릴 수도 없으며, 간청이나 요구나 명령에 굴복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그

길 중간에 서 있거나 그 진로를 방해하거나 요구 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을 눌러 부셔 버리고 맙니다.”<sup>2</sup>

이 주제에 관해 우리 시대의 영감 받은 다른 예언자들로부터 주어진 권고는 분명한 것이며, 50년이나 150년 전에 참되었던 것은 오늘날에도 역시 참됩니다.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 재임시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저는 연단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람들에게 빛이지 말라고 촉구하는 것을 들어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는 그 권고를 수행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믿습니다.”<sup>3</sup>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님은 “자신이나 가족을 재정적 폭풍에 대해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저축을 하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sup>4</sup>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부채를 청산하도록 가르쳐야 할 뿐만 아니라 부채를 지지 않도록 가르쳐야 합니다.”<sup>5</sup>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수입을 다 지출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빛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 여러분의 재정 상태를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지출할 일이 있을 때, 검소하게 쓰시고, 가능한 빛을 피하시고, 빛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끊임으로써 빛의 속박에서 벗어나시기를 권고합니다.”<sup>6</sup>

형제 자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예언자들의 권고에 귀를 기울여 왔습니다. 그들은 수입의 범위 내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빛이 있으면 갚고, 다른 사람들에게 빚지고 있는 짐을 줄이려고 애씁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젠가는 그들의 노력에 대해 축복을 거두고 이 영감에 찬 권고의 가치를 이해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재정 문제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정적으로 그들에게 해를 입힌 불행이나 예측하지 못한 사건들의 희생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고 소비 충동을 절제하지 못하여 재정적인 속박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그들은 현명하지 못한 재정적 선택을 한 것입니다.

저는 재정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다섯 가지 중요한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일조를 내십시오.** 하늘의 문이 여러



가나 아카 크리스천스버그 스테이크 회원들이 집회소에 모여 있다.

분에게 열리기를 바라십니까? 축복이 너무 많아서 받을 곳이 없을 만큼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항상 십일조를 바치고 그 결과는 주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행복한 생활의 기초입니다. 물론 우리의 순종에 대해 우리는 하늘의 은사들을 축복으로 받습니다. 원리를 알고 있으면서 십일조를 바치지 않는 사람들은 이생에서는 마음에 상처를 얻고 다음 세상에서는 아마 슬픔을 갖게 될 것입니다.

**둘째, 수입보다 적게 지출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권고이지만 재정적으로 행복해 지는 강력한 비결입니다. 너무나 자주, 가족의 지출이 수입에 의해서가 아니라 욕망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그들은 주변에 물건이 풍족하게 있을 경우, 생활이 나아질 것이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남는 것은 대체로 피할 수도 있었던 걱정과 낙담이 전부입니다.

수입의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은 매달 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알고 있으며, 비록 힘들더라도 그 금액보다 적게 쓰기 위해 스스로 통제합니다.

외상으로 사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사실상 그것은 거의 우리에게 억지로 떠맡기는 것입니다. 신용 카드를 과용하는 사람들은 신용 카드를 없애야 합니다. 신용 카드를 없애는 것이 가족이 뒤흔들리고 멸망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셋째, 저축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애굽의 요셉이 보인 교훈을 기억하십시오. 번영할 때에 궁핍할 때를 위해 저축하십시오.<sup>8</sup>

너무나 자주 사람들은 자신이 다치거나, 병들거나, 실직하거나, 혹은 투자한 것이 급작스럽게 줄어들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종종 내일 좋은 일이 일어나리라는 낙천적인 기대를 갖고 오늘 물건을 구입한다는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필요한 때를 대비하여 저축하는 일의 중요성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병이나 사망 시에 도움을 줄 적절한 보험에 가입합니다. 가능한 곳에서는 1년치의 식량, 물 및 기타 생필품들을 비축합니다. 그들은 재산을 저축 예금과 투자 구좌에 따로 떼어 둡니다. 다른 사람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부지런히 일하고 부채에서 자유롭게 되고자 노력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비축된 식량이 애굽과 요셉의 부친의 가족에게 도움이 되었듯이, 오늘 여러분이 하는 준비는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넷째, 자신의 재정적인 책임을 이행하십시오.** 때때로 우리는 커다란 슬픔을 안겨 주는 욕심과 이기심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기, 대출 약속 불이행 및 금융 사기, 파산 등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가족을 재정적으로 소홀히 하는 아버지에 대해 듣습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 모든 남성과 여성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세상에 데려왔을 경우, 온 힘을 다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마련해 주는 것이 여러분의 엄숙한 책임입니다. 자동차, 보트 및 다른 소유물들을 자신의 주변에 모아 들이면서

아내와 자녀에 대한 재정적인 책임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남자라고 불리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실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부채를 상환하고 이웃과의 거래에서 정직함을 믿습니다.

자신의 재정적인 성실함과 존경심을 유지하기 위해 큰 희생을 치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930년대에 프레드 스노우버거는 오리건 북동부에 새로운 약국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사업체를 갖는 것이 그의 꿈이었지만, 기대했던 경기는 결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프레드는 8개월 후에 결국 자신의 약국을 폐업해야 했습니다.

사업에는 실패했지만, 프레드는 지불하기로 약속한 융자금을 갚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왜 빚을 갚으려고 하는지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어째서 그는 파산 선고를 하고 법적으로 부채 탕감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프레드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융자를 갚겠다고 말했었고, 자신의 말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손수 옷을 만들어 입었으며, 정원에서 식량을 재배하고, 모든 물건을 다 닦아 없애지거나 헤어질 때까지 사용했습니다. 비가 오든 날이 맑든, 프레드는 매일 걸어서 출퇴근했습니다. 그리고 프레드는 매달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린 돈을 갚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마침내 프레드가 마지막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기쁜 날이 이르렀습니다. 그는 직접 그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에게 돈을 빌려 준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한 푼도 남김 없이 다 갚았을 뿐만 아니라, 인격자와 정직한 사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프레드가 그 어음에 서명을 한 지 근 7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프레드와 에마 스노우버거의 후손들은 아직도 긍지를 갖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직하고 숭고한 행동은 고결한 가족의 소중한 모범으로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 다섯째,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모범을 따르도록

**가르치십시오.**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가정에서 재정 계획의 적절한 원리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릴 때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단순히 무엇인가 원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십시오. 노동과 절약, 그리고 저축의 원리를 가르치십시오.

그들을 가르칠 만큼 충분히 모른다고 생각할 경우, 여러분은 배우기 시작해야 합니다. 학원, 책, 인터넷 등 배울 수 있는 많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넘치도록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돈을 보관하기 위해 더 큰 헛간을 짓기 보다는 그 돈으로 더 많은 일을 하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여러분이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고 그들의 삶에 빛과 희망을 가져 다주기 위해 여러분이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 하늘의 부채

우리는 세상의 부채와 그것을 갚아야 할 우리의 의무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채가 있습니다. 그것은 더 영원한 것으로서 갚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그 중 일부를 결코 상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들은 하늘의 부채입니다.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지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데려오셨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육신을 얻고 이 풍부한 세상에서 기쁨과 슬픔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 주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들은 자녀들 때문에 자신의 꿈과 소망을 포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고, 언행으로 그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감사를 나타내 보이는 것은 얼마나 당연한 일입니까.

우리는 또한 우리보다 앞서 가시고, 장막 저편에서 계속 영원히 발전하게 해 주는 의식을 기다리고 있는 조상들에게도 큰 빛을 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부분이나마 갚을



가나 아카의 성도들이 집회소에서 대회를 시청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수 있는 부채입니다.

이 말일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그분의 거룩한 교회와 참된 복음을 회복해 주신 주님께는 얼마나 큰 빛을 지고 있습니까. 소년 시절부터 순교를 당할 때까지 그는 잃어버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류에게 가져오기 위해 그의 온 생애를 바쳤습니다. 우리는 그를 비롯해 이 교회를 관리하도록 성스러운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감사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세주께 진 빛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우리가 결코 갚을 수 없는 부채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그분이 지지도 않은 부채를 갚으셨습니다.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분의 무한하신 속죄로 인해 우리의 죄는 씻겨질 수 있으며, 하나님의 가장 큰 은사인 영생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sup>9</sup>

그러한 은사에 값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러한 은사에 대해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경의 예언자 베냐민 왕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비록 너희가 전심 전력을 다하여 ...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 전심 전력을 다하여 섬긴다 할지라도, 너희는 무익한 중에 불과한 것이니라.”<sup>10</sup>

우리에게는 세상의 부채와 하늘의 부채가 있습니다. 그 각각의 부채를 청산하기 위해 현명해지고, 구세주의 다음 말씀을 항상 염두에 두도록 합시다. 경전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sup>11</sup> 이 세상의 재물은 아버지의 집에서 충실한 자들에게 주어질 재물에 비하면 먼지에 불과합니다.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 생애를 바치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영생을 추구하기 위해 생애를 바치는 사람들은 얼마나 현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여러분이 그분에게 다가갈 때, 그분도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복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었습니다. 하늘은 닫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고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예언자이신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이 이 시대에 이 세상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 주

1. 누가복음 12:13,15 .
2. Conference Report, 1938년 4월, 103쪽.
3. Conference Report, 1921년 10월, 3쪽.
4. 빛을 청산하고 생활하라 ... *Brigham Young University Speeches of the Year*(28 Feb. 1962), 10.
5. *Teachings of Harold B. Lee*, ed. Clyde J. Williams(1996), 315쪽.
6. “청남과 성인 형제들에게”, *리아호나*, 1999년 1월호, 51쪽.
7. 말라기 3:10.
8. 창세기 41:47~57.
9. 교리와 성약 14:7.
10. 모사이야서 2:20~21.
11. 마태복음 6:19~20.

# “주가 베푸신 자비를 기억하여”

닐 에이 맥스웰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여러분 각자의 삶에는 경험을 통한 추억들이 깊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주가 베푸신 자비를 기억하”(모로나이사 10:3)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없이 제 삶을 회상해 보고자 합니다. 바라건대 느긋하게 거의 대화하는 기분으로 극적이 아닌 몇 가지 추억과 인생의 일부 작은 교훈들을 인용하여 이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내용이 간결해서 계속해서 기억에 남아 있는 일부 재담들도 할 것입니다. 이러한 회상의 초점은 자비로운 주님께서 어떻게 저에게 성장하도록 도전을 주셨는가에 관한 것입니다.(모로나이사 10:3 참조)

이러한 회상 중에 단지 자신에게 적용할 만한 것이 있다면(니파이일서 19:23 참조), 나 중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간단한 토론 시간

을 가져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1. 60년 전으로 되돌아가 봅시다. 그랜트 스테이크, 반다미어 와드의 1944년 6월 4일 역사 기록에는 141명의 회원들을 위해 나의 친구인 와드 잭슨 그리고 아서 힉스와 제가 성찬을 축복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 후에 전쟁터로 갔고, 1945년 5월에, 저는 다시 성찬을 축복했지만, 이번에는 오키나와의 참호에서 단 한 명의 회중인 제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에 배웠던 대로 했습니다. 거기에는 물도 거의 없었고 그나마 있는 물은 심하게 소독된 것이어서 물보다는 커피가 더 나은 정도였지만, 저는 배운 대로 했습니다.

저는 청남 여러분의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의 권고가 여러분을 안전하게 해 줄 것이고 여러분이 배운 원리를 확고히 유지해줄 것입니다!

2. 초등회 시절, 우리는 분명 동기 부여는 하지만 신학적으로 깊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골짜기 흐르는 시냇물”(어린이 노래책, 116~117쪽)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 어린이들은 보다 영적인 것에 초점을 둔 “주 예수를 닮으려고”를 부릅니다.(어린이 노래책, 40~41쪽)

3. 그 당시에는 가정이나 이웃, 와드나 학교 생활에서 우리 모두가 가난했지만 그것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실수와 회개를

통해 영성을 발전시켜 나가고, 성장하도록 기다려 주는 여유를 서로에게 보였습니다. 오늘날 일부 부모들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뿌리가 잘 자라나 보려고 데이지 꽃나무를 계속 뽑아 보는 자들처럼 성급해 보입니다.

4. 신권을 지닌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젊은 나이가 들었던 듣고 싶지 않을 때라도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을 지적해 주고 여러분의 표준과 가능성에 대해 일깨워 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하십시오.

지금은 고인이 된 사랑하는 한 친구가 수년 전에 제가 냉소적인 말을 하자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하지 않고도 하루를 보낼 수 있었을 텐데.” 그 친구의 짧은 한 마디 질책은 사랑이 담긴 말이었으며,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이 어떻게 사랑의 행위가 될 수 있는지 보여 줍니다.

5. 사랑하는 사람이 모범을 보이면, 특히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제 여동생 로이스는, 태어날 때부터 시각 장애자였으나, 장애를 잘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공립 학교 교사로 33년간 근무했습니다. 여동생은 묵묵히 손수레를 끌고 서부로 향했던 개척자의 태도, 즉 우리 모두가 필요로 하는 태도를 지녔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몫으로 여러 시련이 주어진다면, 삶의 쓴 잔을 마시되, 너무 괴로워 하지 마십시오.

6.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 제대한 저에게는 얼마 지나지 않아 “ 지켜야 할 약속”이 있었습니다. (“눈 오는 저녁 숲에 서서”,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에드워드 코너리 레이턴 편집 [1969], 225쪽) 그것은 당장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해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 저는 감독님을 기다리는 데 지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권 권능의 올바른 절차를 무시하고, 감독님 댁으로 가서는, 돈을 모았으니 선교 사업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친절한 감독님은 망설이시더니 제게 선교 사업을 나가라고 말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에, 저는 현신적인 와드 서기로부터 감독님은 제가 지금껏, 즉 인생의 십분의 일을 멀리서 보낸 후라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좀더 필요할 것으로 느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게 된 저는 너무 성급한 판단을 했던 것에 대해 자책했습니다.(브루스 시 하펜, *제자의 삶: 닐 에이 맥스웰 전기*[2002], 129~130 참조)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님의 부친께서 전에 관찰하셨듯이 주님은 완전하시지만 회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7. 이제 젊은 아빠들에 관련된 추억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당시에 저는 젊은 아빠였고, 사고로 인해 친구가 사망했다는 전화를 받은 직후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린 아들 코리가 거실 복도를 지나다가 그런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자신이 뭔가 잘못하여 아빠가 실망해서 우는 것이라고 걱정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화 통화에 대해서는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얼마나 진정으로 그리고 자주 우리를 기쁘게 하려 하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8. 실제로 수학 실력이 전혀 없는 저로서는 자녀들에게 수학과 과학에 대한 도움을 거의 주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고등학교에 다니던 딸 낸시가 연방 대법원 판재인 *"Fletcher 대 Peck"*에 관한 "작은 도움"을 구했습니다. 저는 여러 번 도움을 주지 못했던 터라 너무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만회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Fletcher 대 Peck"*에 대해 제가 아는 바 모두를 쏟아 냈습니다. 그러자 실망한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단지 '작은' 도움이 필요해요!" 저는 "작은 도움"을 주기보다는 제 자신의 욕심을 채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교훈에 교훈을 더하시는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때 역시 우리가 아는 지식 전체를 한꺼번에 쏟아 붓지 않도록 합시다.

9. 최근, 저는 교회를 떠난 후에도 교회를 결코 그만두지 않는 몇몇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흔히 자신의 지적인 회의를 자신들의 범법에 대한 구실로 사용합니다.(닐 에이 맥스웰, *이 모든 것이 네게 경험을 주리니* [1979], 110 쪽 참조) 여러분도 그런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문제에 대한 세상의 해결책이 아주 효과적일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러한 해결책은 시 에스 루이스가 적은 것처럼, 흔히 흥수가 낮을 때 소회기를 가지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사람들과 비슷한 것입니다.(스크루 테이프 편지[1959], 117~118 참조) 복음만이 계속 의미가 있으며 대체물들은 효과가 없습니다.

10. 한번은 러셀 엠 넬슨 장로님 부부와 함께 여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파키스탄의 카라치를 경유하여 이슬라마바드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하고자 인도 봄베이(현재의 뭄바이)의 한 호텔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혼잡한 공항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탈 비행기의 운항이 취소되었습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저는 항공사 탑승 창구에서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 포기하고 호텔로 돌아갈까요?" 그는 매우 위엄 있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호텔로 되돌아 가는 일은 결코 없으실 겁니다." 우리는 공항을 돌아다니며 항공편을 찾아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슬라마바드로 가서 약속을 지켰고 그곳에서 잠까지 잤습니다. 때로 인생은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호텔로 되돌아 가기"를 거부

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실망스런 가능성도 견뎌 내야만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쉽게 포기하는 것"이 인생 전반을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주님은 우리가 "잠들기 전에" 우리가 가야 할 거리를 알고 계십니다!(*"눈 오는 저녁 숲에 서서"*)

11. 워싱턴 디 시에서 여러 해를 보내고 그곳에서 여러 매력적인 직장 제안을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온 후인 1956년에, 저는 유타 대학교에서 일하도록 제의를 받았습니다. 제 아내는 저에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곳에 가면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성급하게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일하는 대신에, 난 문서 작업만 하고 있을 텐데." 그 후 저는 학생 와드의 감독이 되고, 학생 처장이 되었으며, 수백명의 훌륭한 학생들에게 정치학을 가르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지위가 아니라, 성장하고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아내들은 때때로 논리적이진 않지

만 자주 영감을 받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아버지들께서 확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손자녀들의 삶에 대한 기대를 점증적으로 키워나가는 방법을 아는 것은 흥미있습니다. 몇 년 전, 손자 로비가 다섯 살이었을 때, 우리는 오랜만에 있는 가족들을 보기 위해 들렀습니다. 그 아이는 위층에서 자고 있었고, 아이의 어머니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로비야, 널 할아버지가 오셨다!” 졸음 섞인 조그만 음성이 아래층까지 들렸습니다. “경전을 가져갈까요?”

물론 그 애는 너무 어려서 경전을 읽을 수 없었지만, 오늘날 교회의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는 훌륭한 새로운 방식으로 경전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각자의 삶에는 경험을 통한 추억들이 깊이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주가 베푸신 자비를 기억하”(모로나이서 10:3)도록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제게 계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뜻을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은 그분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을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제단을 찾거나 그 제단 위에 여러분의 뜻이라는 선물을 놓아 두기를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지 마십시오. 영수증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받았음을 알리는 특별한 방식을 갖고 계십니다.

형제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주 오래 전부터 개인적으로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교리와 성약 93:23 참조) 그분은 여러분을 오래 전부터 사랑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모든 별들의 이름만을 알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시편 147:4; 이사야 40:26 참조) 여러분의 이름과 마음속의 고통과 기쁨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한편, 여러분은 결코 영원한 별을 볼 수 없습니다. 모든 별은 결국에는 소멸됩니다. 오늘 밤 여러분 옆에는 필멸의 그리고 불완전한 분들이 앉아계시지만 그분들은 바로 “예수를 닮으려고 노력하는” 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머빈 비 아놀드 장로  
칠십인 정원희

각 정원희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이 개별적으로 ... “연약한 자를 데리고 [다녀] ... 강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 우리 주님의 모범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 세 데 소우자 마르케스 형제는 구세주께서 가르치신 다음과 같은 원리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 전형적인 지도자입니다. “또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성령의 힘이 강하면 연약한 자를 데리고 다니라. 그리하여 지극히 온유하게 가르쳐 깨우치게 하여 연약한 자로 강한 자가 되게 할 지어다.”(교리와 성약 84:106)

브라질 포르탈레자에 있는 지부장단의 일원으로서 다른 신권 지도자들과 함께 마르케스 형제는 저활동 상태에 있는 지부 사람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활동 상태에 있던 사람들 중에는 페르난도 아라우조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페르난도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들려 주었습니다.

“저는 일요일 아침마다 열리는 파도타기 대회에 참가하게 되어 교회 모임에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에 마르케스 형제가 저희 집 문을 두드리더니 저와 이야기를 나누어도 괜찮은지를 비회원이신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가 자고 있다고 말하자, 그 분은 저를 깨워도 되겠느냐며 어머니의 허락을 구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말했습니다. ‘페르난도, 교회에 늦었다!’ 그 분은 제 변명을 듣지도 않고 저를 교회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다음 일요일에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 일요일이 되자 그 분을 피해 일찍 집을 나가기로 작심했습니다. 그러나 대문을 여는 순간, 차에 앉아 경전을 읽고 있는 그 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 그 분이 말했습니다. ‘안녕! 일찍 일어났구나. 오늘은 가서 다른 청남을 찾아보자꾸나!’ 제게도 선택의지가 있다고 주장해 보았으나 그 분은 ‘그것에 관해서는 다음에 얘기해 보자.’고 말했습니다.

“여덟 번째 일요일이 지난 후에도 저는 그 분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집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해변에 있을 때 양복을 입고 빅타이를 맨 한 남자가 저를 향해 걸어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분이 마르케스 형제라는 것을 알아 본 저는 물 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별안간 누군가의 손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가슴까지 물이 차는 곳까지 쫓아온 사람은 바로 마르케스 형제였습니다!

그 분은 저의 손을 잡고는 ‘늦었구나! 어서 가자’ 라고 말했습니다. 입고 갈 옷이 없다고 우겨대자 그는 ‘차에 옷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날 바다에서 걸어 나오면서 저는 마르케스 형제님의 진정한 사랑과 저에 대한 염려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 분은 구세주의 이런 말씀을 진정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에스겔 34:16) 마르케스 형제는 단순히 저를 교회까지 태워다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원회는 제가 활동적으로 남아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필요로 했고 제가 원하는 활동을 계획했습니다. 저는 부름을 받았으며, 정원회 회원들이 제 친구가 되었습니다.”

재활동이 된 후에 아라우조 형제는 전임 선교사로 나갔고, 후에는 감독으로, 스테이크장으로, 선교부장으로, 지역 대표로 봉사했습니다. 미망인이 된 그의 어머니, 세 자매, 그리고 여러 사촌들 또한 침례의 물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자신의 와드에서 아론 신권 정원회의 사업에 관해 말씀하면서, 다시 한번 감독으로 봉사하고 있는 아라우조 형제는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우리의 구조 사업은 아론 신권의 세 정원회 모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잃어버린 양들 개개인의 이름이 적힌 명단이 있습니다. 정원회 회장단과 고문과 감독단은 조를 나누어 정기적으로 그들을 방문합니다. 우리는 저활동 회원을 방문할 뿐만 아니라 저활동 가족이나 일부만 회원인 가족 중의 비회원들도 방문합니다.

“각 청년에게 도움을 손길을 위한 활동들이 계획되었습니다. 우리는 정원회 회장단 모임과 월례 감독단 청소년 위원회 모임에서 청년 개개인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2003년에 우리는 다섯 명의 제사, 한 명의 교사, 두 명의 집사를 활동화시켰습니다. 그들은 현재 각자의 정원회에서 활동적입니다. 우리는 또한 몇몇 가족을 재활동시켰으며 몇몇 비회원들이 침례의



**청소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의 중요성을 나타내기 위해 머빈 비 아놀드 장로가 말한 이야기를 재현했다. 이 사진에서 이제 장성한 페르난도 아라우조는 신권 지도자를 나타낸다. 브루노 아구스토는 청소년 시절의 페르난도 아라우조를 나타낸다.**

물속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행정적인 일보다 오히려 회원들을 위해 봉사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사용하며 자신들의 성스러운 의무를 완수하고자 하는 이런 신권 형제들의 소망을 생각할 때 제 마음속에는 구세주의 다음 말씀이 떠오릅니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마태복음 25:35~36)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애쓰시는 구세주의 모범은 경전 곳곳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들로 나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요셉 스미스역, 누가복음 15:4) 선한 목자는 그의 양 하나가 길을 잃었을 때 그것을 압니다. “주는 … 주님의 양을 헤아리[며] 양들이 그를 [알며]”(니파이일서 22:25)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릅니다]”(요한복음 10:3) 그분은 때때로 “혼란스럽게 하는 군중 또는 집단”으로 정의되는 “광

야”(메리엄 웹스터 대학교 사전, 제11판 [2003], “광야”, 1432쪽)로 나가서 잃어버린 양을 찾습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또는 다른 사람들이 도와 주었는지에 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았으며]”(요한복음 10:4) 그분이 양들을 사랑했다는 것을 압니다. 목자가 포기하지 않았으며,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 나가 찾아” 다닌 것을 알고 또 돌아왔을 때 양이 그의 어깨에 안전하게 있었음을 압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이렇게 기뻐 외쳤습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 기뻐 … 하리라”(누가복음 15:6~7)

에스겔서 34장에서 우리는 예언자의 이러한 경고의 음성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 진저 목자들이 양 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

“내 양 떼가 모든 산과 높은 멧부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 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므로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



“주 여호와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 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였도대 …

“내가 … 내 양 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1~2, 6, 8, 10절; 강조)

아버지, 정원회 지도자, 그리고 정원회 회원을 포함하여 주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신권을 맡긴 사람들은 그분의 양 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 양 떼를 찾아야 하며 우리의 양 떼가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구세주는 교리와 성약 20편에서 신권 소유자로서 뿐만 아니라 정원회 회원으로서 우리가 갖는 많은 의무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와 관련된 단어나 표현은 그분의 긴박감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돌아보며”, “인도하며”, “해석하며”, “각 회원의 집을 방문하며”, “기도하며”, “격려하고”, “경고하고”, “보내고”, “가르치며”, “훈계하며”, “침례를 베풀며”,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 권유하며”(42, 44, 46~47,

53, 59, 81~82절; 강조)

저는 또한 이 말씀을 하신 힝클리 대관장님의 음성에서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를 도와 온 세상의 자녀들에게 불사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영광스러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책임감과 새로운 의무감 앞에 분연히 일어서겠다고 굳게 결심합시다.”(“양을 찾고 먹이라”, 리 아호나, 1999년 7월호, 124쪽)

저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선한 목자의 모범과 감독으로 봉사하는 동안 그의 양 떼를 고문의 손에게 맡기고 웨스트 템플 정비소로 가서 차량 정비 작업용 구덩이에서 리차드를 구조했던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의 모범에 대해, (“아론 신권의 길”, 성도의 벗, 1985년 1월호, 45쪽 참조) 바다에서 페르난도를 구조했던 마르케스 형제에게, 여섯 달 동안 매주 일요일마다 스코트의 침대 창문을 두드려서 스코트가 양 우리로 돌아올 때까지 그와 우정을 나누고 그를 사랑했던, 제가 알고 있는 정원회 고문과 여러 정원회 회원들에게,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애쓰신 여러분의 모

범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력은 정원회 회원들의 삶과 다가올 그들의 후손들의 삶에 영원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들은 구세주께서 주신 다음의 약속에 대한 살아 있는 간증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내게로 데려오며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저들과 더불어 안식을 누리라”(교리와 성약 15:6) 위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라! …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베드로전서 5:2, 4) 그리고 “너희 기쁨은 얼마나 더 크겠느냐!”(교리와 성약 18:16)

각 정원회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이 개별적으로 교회의 권고에 따라 일하여 “연약한 자를 데리고 [다녀] … 강한 자가 되게”(교리와 성약 84:106) 하기 위해 우리 주님의 모범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예언자였으며, 몰몬경이 참된 경전이며,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참으로 하나님의 예언자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주이며 참된 목자이며, 살아 계심을 간증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얼 시 텅기 장로  
칠십인 회장단

교회의 표준들은 굳건하고 참됩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을 영원토록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신** 권을 지닌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저는 오늘 저녁 여러분과 함께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 손자 네 명, 크레이그, 브렌트, 캔들, 마이클이 오늘밤 컨퍼런스 센터에 함께 있습니다. 저의 손자들과 모든 아론 신권 소유자들에게 말씀드리며 그 외 다른 분들에게도 경청하기를 권유합니다.

소책자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나오는 대관장단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남 ...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대단히 신뢰합니다. 여러분은 책임과 기회뿐 아니라 유혹 또한 가장 큰 이 시대에 태어난, 특별히 선택 받은 영들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필멸의 삶을 지나는 인생 여정의 출발점에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의 삶이 기쁨에 차며 다시 여러분을 그분의

면전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들은 앞으로의 인생뿐 아니라 영원토록 내내 뒤따를 많은 것들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sup>1</sup>

여러분은 매우 불확실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많은 길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 귀를 기울일지 어디로 가야 할지 여러분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언자 야콥은 다음 성구에서 이러한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영은 진리를 말하며 거짓말하지 않음이라. 그러므로 영은 만물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며 장차 이를 대로 이야기하나니.”<sup>2</sup>

야콥이 언급한 “만물을 사실대로”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닐 에이 맥스웰 장로님은 이 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사실 그대로의 만물”에 순응하지 않는다면, 끝없는 우회로를 취해 또 다른 인생의 길을 공허히 찾는 것입니다 ... 지금 잘못된 인생의 길은 후에도 옳은 것으로 판명될 수도, 판명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많은 진리를 알려 줍니다. 참으로 살아 계신 하나님이 계시며, 참으로 살아 있는 교회가 존재하며, 참으로 살아 있는 예언자들이 있으며, 참으로 살아 있는 경전들이 있으며, 참으로 부활과 함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진리를 전해줍니다.”<sup>3</sup>

표준에 의해 구체화되는 “사실 그대로의 확실한 만물”, 즉 확실한 진리들이 있으며, 그것

들 중에는 많은 것들이 측정 가능합니다. 운동 종목에서 몇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2004년 3월호 *New Era* 표지에는 멕시코 성도인 모로나이 루비오의 사진이 나옵니다. 2년 전에 16세의 나이로 그는 중미 청소년 선수권 대회의 육상 100미터 경기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현재 그의 최고 기록은 10.46초입니다.<sup>4</sup> 그의 이 기록은 초시계로 측정합니다.

남자 높이뛰기 세계 신기록은 약 8 피트 (2.4 미터)를 뛰어넘은 쿠바 선수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높이 뛰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높이 뛰기 선수들은 두 수직 기둥 위에 놓인 수평 막대 위를 뛰어넘습니다. 이 막대는 표준을 나타내며, 충족시키거나 넘어야 할 기준인 것입니다.

달리기 선수의 기록을 초시계로 측정하지 않거나 높이뛰기 선수들의 기록을 측정할 수평 막대가 없이 경기를 연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인생에도 운동 경기처럼 표준, 즉 행동 기준이 있습니다. 옳고 그른 것이 있습니다. 신권 소유자로서 우리 역시 수평 막대가 없는 높이뛰기는 하지 않습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오늘날의 세상에서 도덕과 행위의 전통적인 표준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유행어 중 “뒤편 상관 없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오랫동안 존중해 온 표준들을 낱아빠진 또는 진부한 것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우리는 표준을 철저히 지킬 것을 기대하는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과거에 언제나 잘못되었던 것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변해가는 풍습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관습에 타협하고자 도덕적인 표준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은 소년 시절, 어느 날 밤에 오래된 농장 짐 마차 안의 침대에 동생인 셔먼과 함께 누웠던 경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서로 번갈아 가며 아는 별들을 찾아내고 북극성을 찾고자 국자 모양을 한 북두칠성을 손가락으로 따라가 보았습니다.” 힝클리 대관장님



은 복극성에 매료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복극성은 지구의 자전과는 상관없이 언제나 제자리를 지키며 결코 자리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변화 속에서도 일정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으며, 그것이 없다면 항상 움직여 불안전해 보일 하늘에서 그것은 닷과 같은 것이었습니다.”<sup>5</sup>

복극성의 흔들림 없는 절대적인 위치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면서, 한 작가는 캠핑에서 길을 잃은 한 어린 소년의 대조적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마침내 그의 아버지가 아들을 찾았을 때, 아버지는 그 지형에서 언제나 볼 수 있는 무언가를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하면 일정한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소년은 “그렇게 했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무엇이었니?”라고 아버지는 물었습니다.

“저기에 있는 토끼요.”라고 소년은 대답했습니다.<sup>6</sup>

아론 신권 소유자인 청남 여러분, 복음의 변함없는 표준에 시선을 고정하고 움직이는 토

끼와 같은 것에 시선을 두지 마십시오.

소책자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나와 있는 대로, 다른 것들 가운데 다음의 표준들은 여러분에게 복극성과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높은 표준을 지닌 친구들을 선택하며, 문신이나 몸에 구멍을 뚫어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않으며, 외설물을 피하고, 거친 욕설이 나오는 음악을 듣지 않으며, 불경스러운 말들을 사용하지 않고, 높은 표준의 소유자와만 데이트하며, 성적인 순결함을 지키고, 필요하다면 회개하고, 정직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십일조를 내고,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sup>7</sup>

십이 년 전에,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 여러 해 동안 가정에서 모임을 가져 온 충실한 교회 회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선교사들이 들어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정부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그 나라에 갔습니다. 저는 정부 고위 관리와 만났습니다. 그는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도록 20분을 주었습니다.

제가 말을 끝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한 말에서 현재 우리 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과 별다른 차이를 모르겠소. 이 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신의 요청을 승인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는 사무실 밖으로 저를 안내하려고 일어섰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사로 잡혔습니다. 제가 실패한 것입니다. 잠시 후면 우리의 모임은 끝날 것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게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장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관님, 시간을 5분만 더 주신다면, 다른 생각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후에 떠나겠습니다.” 그는 친절하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저는 지갑을 꺼냈고 언제나 갖고 다니던 작은 소책자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를 꺼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소책자는 교회의 모든 청소년들에게 주는 표준에 관한 작은 소책자입니다.”

그런 후에 저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표준에 대해 읽어주었습니다. 제가 읽기를 마치자,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회의 청소년들이 이러한 표준에 따라 살기를 기대한다는 말씀인가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청소년들은 그렇게 생활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놀랍군요, 저의 교회 청소년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게 이러한 소책자들을 좀 보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물론입니다.”라고 대답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수개월이 지난 후 저는 교회를 세워도 좋다는 그 나라 정부의 공식 허가를 받았습니다.

청남 여러분, 여러분이 지킬 특권을 가진 이러한 표준들은 진정으로 값진 진주입니다. 세상은 그 표준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많은 선한 사람들이 그 표준들을 구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것들이 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오늘날 우리가 어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어떤 표준을 따라야 할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을 확립해 준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 계시에서, 우리 시대, 혹은 세대는 “자기들을 휩쓸어 가는 징벌”과 “황폐케 하는 질병이 땅을 뒤덮을 것임”<sup>8</sup>을 보게 될 시

# 선택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내일의 축복과 기회는 오늘 우리가 하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전** 세계에 계신,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사랑과 우정의 영으로 인사드립니다.

이생에서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떤 것들은 매우 중요한 선택이며 어떤 것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과 악 사이에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선택은 많은 경우에 우리 자신의 행복이나 불행을 결정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 생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번 완벽한 선택을 한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불어 생활하고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훌륭한 선택을 하는 일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신성한 인도에 합당하게 생활할 때 그들은 "영원토록 자유로울 것이요, 선과 악을 알며... 스스로 행동하며 강요되지 아니" [합니다.]

때로는 또래 친구들의 압력에 굴복하여 형

편없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키스 메릴은 젊었을 때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솔트레이크시티 북동쪽에 있는 이스트 캐년 저수지에서 위험한 바위에 올라 다이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십대들의 경쟁심을 유발하여 한 아이가 댐 꼭대기까지 올라가 15미터 높이에서 깊은 저수지로 뛰어 들었습니다. 나머지 청소년들도 댐 꼭대기로 올라가 똑같은 높이에서 뛰어내렸습니다. 한 소년이 그에 만족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아, 나는 더 높은 곳에서 떨어 거야." 그는 절벽을 타고 올라가 18미터나 되는 곳에 섰습니다. 키스는 지기 싫어 그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다른 소년이 물속으로 뛰어든 후에 괜찮아 보이는 것을 확인한 키스는 용기를 내어 물속으로 뛰어 들었습니다. 이제 경쟁은 이 두 소년들 사이에 계속되었습니다. 키스의 친구는 21미터나 되는 곳으로 올라가 뛰어내렸습니다. 그는 물에서 나오며 웃으면서 어깨와 눈을 비볐습니다. 그런 다음 키스에게 물었습니다. "너도 해 볼 거야?"

"물론 하지." 다른 모든 소년들도 말했습니다. "물론 할 거야."

그래서 키스는 물가로 헤엄쳐 바위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자신도 똑같이 21미터 높이에서 뛰어내리면 친구는 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고 싶어하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24미터 되는 절벽 맨 꼭대기로 재빨리 올라갔습니다. 아무도 그 꼭대기보다 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수는 없을 것이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물은 까마득히 너무 먼 곳에 있었습니다. 키스는 두려웠습니다. 그는 성급한 결정

대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 후 주님은 충실한 제자들을 보호할 안전한 표준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제자들은 거룩한 곳에 서 있어 움직이지 아니 하려니"<sup>9</sup>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형제들은 거룩한 곳에 선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세대에 걸쳐 진리가 변하고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동요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의 표준들은 굳건하고 참됩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을 영원토록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한 표준에 따라 생활하고자 결심한다면, 하나님께서 승인하시고 오랜 시대를 통해 입증된 표준에 따라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제 손자들과 사랑하는 아론 신권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생명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라톤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확립된 표준들에 의해 시험 받고 평가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도록 영에 의해 인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확립되어, 오랫동안 존중되어 온 표준을 지키는 거의 유일한 조직입니다. 대다수의 다른 조직이 세상의 문화에 굴복했습니다. 우리에게 살아 계신 예언자들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교회의 표준을 지킴으로써 축복 받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주

1.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2001), 2쪽.
2. 야곱서 4:13.
3. *Things as They Really Are*(1978), 11~12장.
4. 애담 시 울슨, "모로나이의 발", *리아호나*, 2004년 3월호, 8~11쪽 참조.
5. 서리 엘 듀, *Go Forward with Faith: The Biography of Gordon B. Hinckley*(1996), 5~6쪽 참조.
6. 제리 존스턴, "Following True North Is Lifelong Challenge", *Deseret Morning News*, 2004년 2월 14일, E부, 1쪽 참조.
7.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12~37쪽 참조.
8. 교리와 성약 45:31.
9. 교리와 성약 45:32.



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고 싶은 일도 아니었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되지도 않았습니 다. 오히려 그는 지금은 기억조차 할 수 없는 5, 6명 가량의 친구들의 재촉과 도전에 못이 겨 결정을 내리고 만 것입니다.

그는 뒤로 물러섰다가 있는 힘을 다해 절벽 가장자리쪽으로 뛰었습니다. 바위 가장자리에 조심스럽게 표시해 놓은 곳을 발견하고는 그 곳에서 허공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아래를 향해 내려가는 동안 그는 잘못된 결정 때문에 죽게 되는 수도 있으니 주의하라고 하셨던 부모님의 가르침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난 이미 그런 결정을 내리고 말았어. 물에 부딪치는 순간 속도가 너무 빨라 물이 마치 콘크리트 같을 거야.” 물에 부딪치는 순간, 그것은 정말로 콘크리트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머리를 물 밖으로 내밀면서 그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왜 뛰어내렸을까요? 무엇을 증명하려 했을까요? 그에게 뛰어내리라고 한 소년들은 상관하지 않았으며 아마 그 어리석은 행동을 기억조차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키스는 자신이 내린 결정이 생명을 위협하는 결정일 수도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는 친구들이 부추기는 바람에 그만 그들의 압력에 굴복하여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 일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는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 그 순간에는 제 자신을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 밖에 있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의 생명에 관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저를 대신해 그 결정을 내렸으며 ... 저는 가까스로 무덤에 묻히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sup>2</sup>

어리석게도 누군가가 우리 자신을 대신하여 선택을 하려 할 때, 그에 따라 충동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의미 있는 미래의 밝은 잠재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며 거룩한 신권을 소유한 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함으로써, 좀더 쉽게 의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의 잘못된 선택들 가운데 일부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되돌릴 수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진로를 바꾸어 옳은 길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옳은 길로 돌아가는 데는 다음과 같은 회개의 원리가 수반됩니다. 첫째,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둘째, 잘못된 행동을 버리고, 셋째, 되풀이하지 않고, 넷째, 고백하고<sup>3</sup> 가능한 경우 보상하는 것입니다.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이 가치 있기는 하지만 호된 경험의 학교라는 이름은 괜히 붙은 것이 아닙니다. 부모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나, 교사에게 배울 때, 발전은 더 빠르고 더 쉽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수와 그들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를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일부 선택들은 어떤 길을 택하더라도 좋은 기회를 제시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직업을 택하고 어떤 학교에 갈 것인지를 결정할 때가 그것입니다. 저는 똑똑하고 유능한 한 젊은이를 알고 있는데 그는 의사가 되고 싶어했지만 그럴 기회가 오지 않아, 법률을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변호사로서 크게 성공을 거두었습니다만, 만약 그가 의사가 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성공을 거두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중요한 선택들 가운데 일부는 구체적인 시간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을 미룬다면 기회는 영영 가버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의심이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택을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할 경우, 그것 자체가 선택이다.”<sup>4</sup>

어떤 사람들은 선택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떤 정신과 의사가 환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음의 결정을 내리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자 환자가 대답했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호수아가 이와 같이 단호하게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단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원합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sup>5</sup>

어떤 선택들은 다른 것보다 더 큰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결혼 반려자를 택하는 것보다 더 큰 자발적인 선택은 없습니다. 이 결정은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승고한 성취감을 얻기 위해서는 배우자 모두 결혼 생활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성취와 행복을 위한 일부 중요한 선택들은 단 한 번뿐이어야 하며, 선택을 하고 나면, 결코 다시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으며, 사교력에 영향을 주는 약물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확고부동한 결심은 한 번만 해야 합니다

1976년에, 당시 미 공군 대령이었던 로버트 시 옥스 장로는 해상 분쟁 협상 팀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들은 레닌그라드 해군 지구에서 주최한 만찬에 주빈으로 초대되었습니다. 약 50여 명의 소련과 미국의 고위 장교들이 참석했으며 식사를 하기 전에 주최측 사회자가 건배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들은 건배를 하기 위해 일어서서 러시아 보드카가 담긴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옥스 형제의 잔에는 핑크색 레모네이드가 담겨 있었으며 건배를 권하던 수석 장교가 곧바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건배를 중단하고 옥스 형제에게 잔에 보드카를 채우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진행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옥스 형제는 그의 말을 거부하면서 그는 자신의 잔에 있는 것을 만족스럽게 여긴다고 설명했습니다.

불편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으며 대부분 그보다 상급자인 팀의 동료들도 그러한 상황에 대해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옥스 형제의 소련측 안내자가 귀에다 대고 속삭였습니다. “잔에 보드카를 채우십시오.” 옥스 형제는 평생 처음으로 가장 짧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잠시 후에, 전에 종교 문제를 토론한 적이 있는 소련측 통역관인 육군 대위가 제독에게 속삭였습니다. “그의 종교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독이 고개를 끄덕이자 긴장감은 즉시 해소되고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sup>6</sup>

옥스 장로는 오래 전에 결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이러한 시련의 순간에 다시 선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옥스 장로는 보드카를 마셨을 경우 그에게 올 수도 있었던 해보다 신앙의 원칙과 타협했을 경우 더 큰 해가 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그가 종교적인 원리들을 고수한 것은 그의 경력이 아무런 해가 되지 않았습니 다. 이 일이 있는 후에도 그는 계속 진급하여 사성 장군이 되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지만, 그릇된 일을 하는 것이 종종 합리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가장 쉬운 방법처럼 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릇된 행동을 합리화하는 말을 듣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는데요.” 이러한 악한 생각은 진리를 왜곡시키며 그 장본인은 사탄입니다. 니파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같이 악마가 저들의 영혼을 속여 조심스럽게 저들을 지옥으로 인도해 가느니라.”<sup>7</sup>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 관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부정직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신성한 것을 모독하고, 특히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고, 부도덕한 성관계에 빠져 있거나, 주님의 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정당하게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옳고 그름을 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한 사람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소책자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언급되어 있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지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기로 선택한다면, 여러분의 환경이나 가족이나 친구들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의로움과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sup>8</sup>

어떻게 올바른 선택을 합니까? 선택에는 의식적인 결정이 수반됩니다. 지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우리는 문제의 양면에 있는 모든 가능한 사실들을 평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결정을 내

리는 데에는 기도와 영감이 필요합니다. 교리와 성약 9편은 훌륭한 열쇠를 제공합니다. 주님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너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나니, 깊이 생각지도 아니하고 구하기만 하면 내가 그것을 네게 줄 것으로 여겼도다.

“그러나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네 마음속으로 깊이 연구하여야 하리니, 그러한 연후에 옳은 일인지 아닌지 내게 간구하여야 하느니라. 만일 옳은 일이면 나는 네 가슴을 뜨겁게 하리니, 그로 인하여 그것이 옳은 일인 줄 느끼리라.

“그러나 옳지 아니한 일이면 그 같은 느낌이 없고 다만 무감각해져서 옳지 아니한 일을 잊게 하리라. ...”<sup>9</sup>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사람들이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sup>10</sup> 하는 세상에서 우리의 선택에 대해 더 확고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의지를 하나님 뜻이나 신권의 권고에 상반되게 사용할 경우 그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내일의 축복과 기회는 오늘 우리가 하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온 세상에 의로운 모범을 보여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제 믿음이며 간증입니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의 위대한 지도력 아래 우리는 우리가 하는 영감 받은 선택에 의해 길을 가리켜야 합니다. 선택의 힘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의지를 영원한 선택을 하는데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주**

1. 니파이서 2:26.
2. “Deciding about Decisions,” *New Era*, 1976년 6월, 12~13에서 발췌.
3. 교리와 성약 58:43 참조.
4. William James, *20,000 Quips and Quotes*(1968), Evan Esar 편집, 132에서 인용.
5. 여호수아 24:15.
6. *Believe! Helping Youth Trust in the Lord* (2003), 27~28에서 발췌.
7. 니파이서 28:21.
8.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2001), 5쪽.
9. 교리와 성약 9:7~9.
10. 니파이서 15:20.

# 용기를 구하는 외침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일반적인 흐름을 저버릴 수 있는 용기, 원리를 위해 앞장설 수 있는 용기를 우리 모두 지녀야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감동적인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엔 전 세계의 수많은 교회에서, 여러분과 같은 신권을 소유하신 분들이 이 대회를 위성 중계로 시청하고 계심을 알게 되니 경외 감마저 듭니다. 여러분의 국적은 다양하고, 사용하는 언어도 수없이 많습디만, 공통된 하나의 끈이 우리를 함께 묶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권을 지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라는 위임을 받았습디다. 우리는 거룩한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것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래 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 찰스 디킨스는 *기다리고 있는 기회*에 대한 글을 쓴 일이 있었습니다. 디킨스는 위대한 유산이라는 고전 작품에서, “핼”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필립 피립이라는 소년을 묘사했습니다.

핼은 특별한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고아였습니다. 그는 학자나 신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야망과 모든 소망은 실패로 끝나는 듯이 보였습니다. 젊은이 여러분들도 때때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와 같은 노년층의 사람들도 이와 같은 생각에 동조하십니까?

그러던 어느 날 재거스라는 런던의 한 변호사가 어린 핼을 찾아와 익명을 요구하는 어느 기증자가 재산을 물려주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변호사는 팔로 핼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자, 자네는 많은 유산을 받은 거네.”

오늘 밤, 저는 젊은 청소년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위대한 유산을 받았습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알지 못하는 기증자가 아닌, 이는 기증자, 곧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는 것이므로 여러분은 실로 위대한 것을 유산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여정은 장애물과 함정이 없는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갈림길과 돌아가라는 표시가 가득한 길입니다. 우리 앞에는 언제나 결정할 일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현명한 결정을 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결정이 운명을 좌우합니다.

용기를 구하는 외침이 우리 각자에게 끊임 없이 들려옵니다. 그 외침은 언제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한 군사 지도자의 용기가 남북 전쟁 당시에



남부군의 회색 군복을 입었던 어린 보병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제이 이 비 스튜어트 장군의 영향력을 이런 말로 묘사했습니다. “긴박한 전투 순간에, 그는 적 방향으로 손을 휘두르며, “진진, 진진, 나를 따르라!”고 외쳤습니다.”

“용기와 결의로 부하들은 [그의 뒤를 따라] 노도처럼 내달아 고지를 탈환하고 사수했습니다.”<sup>1</sup>

그 보다 일찍이, 한 원방 나라의 또 다른 지도자가 그와 같이 “나를 따르라”<sup>2</sup>는 탄원을 했습니다. 그분은 전쟁터의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평강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당시 그분을 따랐던 사람들이나, 현재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은 훨씬 더 중대한 승리를 얻는 것이며, 그 결과는 영원합니다. 용기의 필요성은 항구적입니다.

경전은 이 진리를 증거합니다. 애굽으로 팔려 갔던, 야콥의 아들, 요셉은 자신을 유혹하려 했던 보디발의 아내에게 확고한 결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 요셉은 듣지 아니하고 ... 밖으로 나가매”<sup>3</sup>

우리 시대에, 한 아버지는 다음과 같은 말로 이 용기의 모범을 자녀들의 삶에 적용시켰습니다. “네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면, 그곳에서 나오도록 해라!”

부모님의 가르침에 따르려는 용기, 순결하고 순수하고자 하는 용기의 필요성을 가르쳤고 실제로 보여 준 힐라맨의 이천 용사들의 삶에서 감동을 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sup>4</sup>

아마도 이러한 이야기들의 백미는 끝까지 의로움을 지키려는 용기를 가졌던 모로나이의 모범일 것입니다.<sup>5</sup>

모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역시 강화되었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sup>6</sup> 그분은 결코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

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의 날에,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과 저를 이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감미로운 확신입니다. 물론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며, 조롱을 경험할 것이며, 반대 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때 일반적인 흐름을 저버릴 수 있는 용기, 원리를 위해 앞장설 수 있는 용기를 우리 모두 지녀야 하겠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용기는 하나님의 인정의 미소를 가져옵니다. 기꺼이 남자답게 죽겠다는 결심만이 아니라, 깨끗하게 살겠다는 결심이 수반될 때 용기는 생명력 있고 매력적인 덕성이 됩니다. 도덕적 겁쟁이란 남들이 찬성하지 않거나 비웃는다고 하여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기 두려워 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두려움을 갖고 있지만, 존엄성을 가지고 자신의 두려움에 맞서는 사람이 용기를 가진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제 개인적인 용기의 일대기에서, 군복부 때의 한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이차 세계 대전이 끝나 갈 무렵에 미해군에 들어간 것은 제게 힘겨운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용감한 무용담, 용기 있는 행동, 용기의 모범들에 대해 배웠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뽐내지 않았던 남다른 신앙을 가진, 18세 된 한 수병의 조용한 용기였습니다. 250명의 부대원 중, 그는 호기심 많은 자들의 흉내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도, 매일 밤 침대 옆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저는 시인 엘라 윌러 윌콕스의 다음 시구를 좋아합니다.

인생이 노래 같이 흐를 때  
 흥겨워하는 것은 쉽다오.  
 하지만 진정 가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잘못되었을 때 미소 짓는  
 사람이라오.<sup>7</sup>

그 같은 사람이 바로 폴 텡기였습니다. 한 달 전에 저는 이 곳 슬트레이크시티에서 그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폴은 훌륭한 말일성도 가정에서 성장하여 독일에서 주님을 위해 영예

로운 선교 사업을 했습니다. 그가 선교 지역에서 함께 봉사한 동반자는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브루스 디 포터 장로였습니다. 포터 장로는 텡기 장로를 자신이 아는 가장 헌신적이고 성공적인 선교사였다고 했습니다.

선교 사업을 마친 후에, 텡기 장로는 집으로 돌아와, 대학에서 학업을 마치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여, 함께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감독으로 봉사했고 직장에서도 성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무런 경고도 없이 무서운 병의 징후가 그의 신경 조직에 나타났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이었습니다. 이 병마에 사로잡혀서도 폴 텡기는 용감하게 싸웠지만, 결국 여생을 요양소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곳에서도 그는 슬픔에 젖은 자들을 위로했고 모든 사람을 즐겁게 했습니다.<sup>8</sup> 제가 그 곳 교회 모임에 참석할 때마다, 폴은 다른 사람에게 했듯이, 제 마음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2002년에 슬트레이크시티에서 동계 올림픽 성화 주자로 선택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요양소에 알려졌을 때, 그 곳에 모인 환자들 사이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고, 건물 곳곳에서 진심 어린 박수 갈채가 쏟아졌습니다. 폴에게

축하한다고 하자, 그는 힘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성화를 떨어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형제 여러분, 폴 텡기 형제는 올림픽 성화를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그는 인생에서 건넨 성화를 용감하게 갖고 뛰었으며 그것을 넘겨주는 날까지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영성, 신앙, 결심, 용기-폴 텡기는 그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용기란 두려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라고 누군가 말했습니다.<sup>9</sup> 때로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다시 노력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청소년이었을 때, 저는 교회 농구 경기에 참여했습니다. 결과를 예측 못할 박빙의 상황에서, 코치는 후반전이 시작되자마자 저를 내보냈습니다. 저는 인바운드 패스를 받고 공을 골대쪽으로 드리블하여 슛을 날렸습니다. 공이 제 손끝을 떠났을 때, 상대방 가드들이 왜 저의 드리블을 막지 않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우리 편 골대를 향해 슛을 쏘았던 것입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발 하나님, 공이 들어가지 않게 해 주세요.” 공은 링 주위를 빙그르르 돌다가 다행히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관람석에서 외쳤습니다. “몬슨, 몬슨, 몬슨, 몬슨 나와라!” 코치는 저를 시합에서 빼 버렸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저는 다른 총관리 역원들과 함께 새로 완공된 예배당을 방문했습니다. 그 예배당에서 우리는 체육관 바닥에 깔려 있는 촘촘히 짠 카펫의 효과를 시험해 보고 있었습니다.

여럿이 바닥을 점검하는데, 당시에 감리 감독단 일원이었던 리처드 클라크 감독이 갑자기 제게 공을 던지면서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지금 서 계신 곳에서 장로님은 아마도 슛을 성공시키지 못할 것 같은데요!”

저는 프로 농구 3점 라인 밖에서 좀더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거리에선 한번도 슛을 성공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마크 이 피터슨 장로님은 사람들

에게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장로님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래 전에 우리 편 농구대로 슛을 쏘던 당혹스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농구대를 겨누어 공을 던졌습니다. 공이 네트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공을 제게 다시 던지면서, 클라크 감독은 한 번 더 도전했습니다. “한 번 더는 안 되실 거예요!”

피터슨 장로님은 큰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천만에, 장로님은 하실 수 있어요!”

시인의 글귀가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우리를 이끄소서, 우리를 이끄소서, 위대한 인간의 조물주여, 다시 한 번 어둠에서 벗어날 노력을 하게 하소서.”<sup>10</sup> 저는 골대를 향해 공을 던졌습니다. 공은 높이 솟았다가 네트 속으로 그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시찰 방문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점심 시간에 피터슨 장로님은 저에게 “저, 장로님께서 NBA에서 신인 선수로 뛸 수 있었을 텐데요.”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두 신권인 아론 신권과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로서의 우리의 의무를 깊이 새길 때 농구 경기에서 이기고 지는 문제는 우리 생각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기 위해 주어진 부름에 응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준비할 엄숙한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권에 성임된 우리들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도울 자격을 갖출 때, 우리는 소년들을 키우고, 성인들을 고치며, 그분의 거룩한 봉사 안에서 기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회는 한계가 없습니다.

과업이 큰 듯 보이지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리를 통해 강화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은 인간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부름을 할 때,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받을 자격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신성한 도움은 우리의 합당성을 전제 조건으로 합니다. 필멸의 바다를 안전하게 항해하려면, 인간을 구조하는

사명을 수행하려면, 우리에게 영원한 선장이신 위대한 여호와와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 위를 바라보며, 이웃에게 손을 내밉니다.

우리의 내미는 손길이 깨끗합니까? 우리의 소망하는 마음이 순수합니까? 역사의 책장을 통해 시간을 돌이켜보면, 죽어가는 다리오 왕의 말에서 합당성의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적법한 의식을 통해 다리오의 애급의 합법적인 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그의 적수였던 알렉산더 대왕은 암몬의 적자로 선포되었습니다. 그 또한 바로였습니다. 알렉산더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패배한 다리오를 발견하고는 그를 치유하기 위해 그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일어나 왕과 같은 힘을 되찾으라고 명한 후, 다리오와 같은 말로 축복을 마쳤습니다. “나는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다리오, 그대에게 맹세하노니 나는 이 모든 것을 참되게 위선 없이 행하노라.” 다리오의 조용히 꾸짖었습니다. “알렉산더여, 그대는 그대의 손으로 하늘을 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sup>11</sup>

형제 여러분, 우리의 의무를 배우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름을 영화롭게 한다면, 주님은 우리가 노력할 때 인도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수년 전에, 오랫동안 알아 왔고 그분의 감독으로서도 봉사한 적이 있는 매티라는 미망인을 방문했을 때, 제 마음은 그분의 처절한 외로움에 비통했습니다. 그분의 귀한 아들은 먼 곳에 살면서, 여러 해 동안 노모를 방문하지 않았었습니다. 매티는 오랜 시간 창가에 앉아 쓸쓸하게 창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자주 열어 닦아 빠진 커튼 뒤에서, 실망한 어머니는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딕은 올 거야. 딕은 올 거야.”

하지만 딕은 오지 않았었습니다. 한 해 두 해,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줄기 햇살처럼, 어머니에게서 멀리 떨어져, 텍사스 휴스턴에서 살았으며, 저의 아론 신권 소년들 중 한명이었던 딕의 삶에 교회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저를 만나고자 솔트레이크로 찾아 왔습니다. 그는 전화로 자신의 도착을 알렸고, 들뜬

음성으로, 자신의 삶에 찾아온 변화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제게 곧바로 제 사무실을 찾아 간다면 만나줄 시간이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응대했습니다. “딕, 먼저 자네 모친을 찾아 뵙고 그런 후에 나를 찾아 오게.” 그는 제 말에 기꺼이 따랐습니다.

그가 제 사무실에 오기도 전에, 그의 모친인 매티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매티는 기쁜 마음으로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독님, 딕이 올 줄 알았어요. 그럴 거라고 했었죠?. 아들이 오는 것을 창문 너머로 봤어요.”

그 후 몇 년 뒤에 있었던 매티의 장례식에서, 딕과 저는 그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아들을 믿는 어머니의 신앙의 창을 통해 하나님의 치유 권세가 역사함을 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무도 커집니다. 의무는 희미해지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파멸의 충동이 왔다 가지만, 인간의 영혼을 위한 전쟁은 쉬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처럼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와 모든 곳의 신권 소유자들에게 들려 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저마다 자기 의무를 배우며 자기에게 임명된 직책을 부지런히 완수하게 하라.”<sup>12</sup>

우리 각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주

1. 에모리 엠 토마스, *Bold Dragoon: The Life of J. E. B. Stuart*(1986), 211~212쪽에서 인용.
2. 마태복음 4:19.
3. 창세기 39:9~10, 12.
4. 엘머서 56장 참조.
5. 모로나이서 1~10장 참조.
6. 신명기 31:6.
7. “Worth while”, by Ella Wheeler Wilcox in *The Best-Loved Poems of the American People*, sel. Hazel Felleman(1936), 144쪽.
8. “오늘 세상에서 선한 일 했나?”, 찬송가 182장 참조.
9. 마크 투웨인, in Gorton Carruth and Eugene Ehrlich, eds., *The Harper Book of American Quotations*(1988), 111쪽 참조.
10. “Alma Mater” of Yonkers High School에서.
11. 휴 니블리, *Abraham in Egypt*(1981)의 변안, 192쪽.
12. 교리와 성약 107:99.

#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기타 어떤 이유로든 궁핍한 지역에,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파견되었습니다. ... 저는 우리의 인도주의적 노력의 효과를 가장  
가까이서 목격했습니다.



**68**년 전인 1936년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비서들 가운데 한 사람이 십이사도 중 한 분이 자신에게 해 준 말을 제게 알려 주었습니다. 그녀는 다가올 연차 대회에서 우리가 개척자로서 이 계곡에 왔던 것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알려질 프로그램이 발표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은 비서에게 기밀 사항을 말해서는 안 되며, 비서 또한 기밀 사항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에는 단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요.

물론,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의 유능한 비서는 기밀을 결코 누설하지 않는다는 것을 부연해야겠습니다.

역사를 잘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당시 교회 안전 계획이라는 것이 발표되었는데, 후에 그것은 교회 복지 프로그램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교회가 어떤 일을 하든, 개인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것이 어떻게 미국의 이 서부 계곡으로 성도들을 집합시켰던 이 역사적인 사건보다 더 중요한 일일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관련된 집합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야 흥미로운 사실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관장단 사무실에는 많은 저명 인사들이 방문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정부 지도자들과 대사들도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는 세계의 대도시 중 한 곳의 시장을 만났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에콰도르의 부통령과 대사, 리투아니아의 대사, 벨로루시의 대사 및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러한 내방객들과의 대화에서 어

는 누구도 우리 조상들의 위대한 개척 여정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각기 우리 교회의 복지 프로그램과 인도주의적 노력에 대해 높은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위대한 신권 모임을 빌어, 교회 회원 여부에 관계 없이 세계 여러 지역에서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기울이고 있는 노력에 대해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대의 복지 프로그램을 시행했을 때의 의도는 우리 회원들의 필요 사항을 돌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감독들과 상호부조회 회장들은 궁핍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식량과 의복 및 기타 생활 필수품들을 전해 주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교회 회원들이 필요한 것을 만드는 데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일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113개의 감독의 창고, 63개의 농장, 105개의 통조림 공장과 가정 비축 센터, 18개의 식품 가공 및 분배 공장과 다른 많은 시설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교회는 회원들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 줄 뿐만 아니라, 다른 무수한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곳 솔트레이크시티 지역 사회에서는 말일성도가 아닌 단체들이 말일성도 복지용 물품을 이용하여 많은 굶주린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합니다.

이 도시와 다른 여러 곳에서 우리는 훌륭한 상점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건 값을 계산하는 계산대도 없고, 돈도 사용하지 않으며, 식품과 의복 그리고 다른 생활 필수품들을 궁핍한 사람들에게 제공합니다. 저는 일반 식품점에 있는 어떠한 우유나 고기나 밀가루도 감독의 창고에서 분배되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운영되는 원리는 기본적으로 시작할 때의 원리 그대로입니다.

궁핍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돌보기 위해 먼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부족하다면 그들의 가족이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도 부족하다면 그때 교회 자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또한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 받으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혈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마태복음 25:34~36)

이것이 궁핍한 자들을 돌보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마태복음 26:11 참조)

능력 있는 사람들은 능력 없는 사람들의 필요에 대비하여 자발적으로 일합니다. 작년에 각종 복지 시설에 기증된 노동 일수가 563,000일이었습니다. 이는 한 사람이 하루에 여덟 시간씩 일할 경우 1,542년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처치 뉴스의 최근호에는 아이다호 주의 작은 마을에 있는 한 그룹의 농부들에 관한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그 기사를 간단히 읽겠습니다.

“10월 하순의 어느 날 아침 여섯 시, 아이다호 주 루퍼트에 있는 사탕무 밭에는 이미 서리가 내렸다.

“사탕무의 잎을 잘라 내는 기계가 열두 고랑에 이르는 긴 팔을 벌려 회전 날로 무청을 잘라낸다. 그런 다음 수확기가 강철 갈고리로 흙을 파헤치며 사탕무를 집어 올려 벨트 위로 얹으면, 그것은 대기 중인 트럭에 실리게 된다. …

“이 곳은 아이다호 주 루퍼트에 있는 복지 농장이며 오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원 봉사자들이다.

“때로는 추수철이 되면 60대가 넘는 기계가 함께 가동된다. 그 기계들은 모두 개인 소유이다.”

일은 하루 종일 계속됩니다.

“오후 7시 … 해가 지면 밭은 다시 어두워지고 추워진다. 농부들은 지쳤으나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향한다.

“그들은 또다른 하루를 잘 마친 것이다.

“그들은 주님의 사탕무를 수확했다.”(닐 케이 뉴웰, “A Harvest in Idaho”, *Church News*, 2004년 3월 20일, 16쪽)

그처럼 놀라운 자원 봉사는 주님의 창고에 필요한 물건들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계속 진행됩니다.

그 일이 시작된 이래로, 이 프로그램은 궁핍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그치지 않고, 교회의 가족들에게 예비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장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재난이 언제 닥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또한 질병이나 실직, 또는 사고로 인해 불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이 프로그램은 가족들에게 어려운 때에 대비하여 기본 식량 8,165톤을 비축하도록 도왔습니다. 바라건대, 그러한 날이 결코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상태가 좋고 영양가 있는 기본 식량이 것처럼 비축되어 있다는 것은 마음에 평화를 주며 권고에 순종한다는 만족감을 주기도 합니다.

이제 복지 프로그램에 또다른 요소가 추가되었습니다. 그것은 몇 년 전 아프리카에 가뭄이 닥쳐 많은 사람들이 아사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회원들은 극심하게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 주기 위한 위대한 인도주의적 노력에 기부해 달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후한 기부를 하셨습니다. 많은 지역에 여러 심각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수는 참으로 기적적입니다. 수백만 킬로그램의 식량, 의약품, 담요, 텐트, 옷 및 기타 물품들이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는 기근과 황폐를 막았습니다. 우물을 파고, 작물을 심고,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닐 달링턴은 가나에 있는 커다란 산업 회사에서 일하는 화학 기술자입니다. 마침내 그는 은퇴했습니다.

그 후 그는 부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그들을 가나로 보냈습니다. 달링턴 형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근과 질병과 사회

적 불안으로 고통 받는 지역에서 우리는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빈곤하고 굶주리고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작은 마을에 새로운 우물을 파고 오래된 우물을 정비했습니다. 신선하고 깨끗한 물을 풍족하게 사용하는 우리는 물이 없는 그러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헌신적인 말일성도 부부 선교사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마른 땅을 파 내려 갑니다. 땅을 파는 기계가 물이 있는 곳까지 파 내려가면 기적과도 같은 물이 지면으로 솟아 올라 메마르고 목마른 땅을 적십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먹을 물, 씻을 물, 작물을 키울 물이 있습니다. 메마른 땅에서는 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새로운 샘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은 그 마을의 추장들과 원로들이 모여 달링턴 부부에게 감사를 표하는 자리에서, 그는 아내와 함께 그들을 위한 노래를 하나 불러도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앞에 있는 검은 피부의 남자와 여자들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모두 형제라는 것을 표현하는 *난 하나님의 자녀를* 불렀습니다.

이 한 쌍의 부부는 노력을 기울여 외딴 마을과 난민촌에 사는 약 190,000명에게 물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가져오는 기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실제로 수천 쌍에 달하는 그러한 부부들이, 그렇지 않았더라면 여생을 무료하게 보냈을 부부들이, 많은 곳에서 많은 방법으로 봉사를 했으며 현재도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메리카의 궁핍한 지역에서 일했으며 지금도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러시아 및 발트 해 연안의 여러 나라에서 일했으며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업은 확장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최근 다른 단체들과 협력하여 42,000명의 장애인들에게 휠체어를 제공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기어다녀야 했던 그들에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심 없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의 도움으로 신생아 인공 호흡 훈련이, 2003년 한 해에만, 약 19,000명의 전문 의료인들에게 제공되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아이들의 생명이 살아날 것입니다.

작년 한 해에만 약 2,700명이 시력 치료를 받았으며, 300명의 치료사들이 시력 구제 방법에 대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맹인들이 시력을 되찾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을 휩쓸어 가는 홍수 피해 지역, 지진으로 재해를 입은 지역, 굶주림이 장기화된 지역, 기타 어떤 이유로든 궁핍한 지역에,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파견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현금과 물자로 도움을 베푼 것이 약 9천 8백만 달러였으며, 지난 18년 동안 모두 6억 4천 3백만 달러의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인도주의적 노력의 효과를 가장 가까이서 목격했습니다.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저는 여러분이 내는 후한 기부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1998년에 저는 허리케인 미치로 황폐화된 중앙 아메리카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식량과 의복이 신속하게 분배되고, 파괴된 집들과 그로 인해 영향을 받은 삶을 재건하는 일련의 일들은 바라보기에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 여러분은 올바른 메시지를 받았습니까?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우리는 생활에 질서를 세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에 대한 메시지를 받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그리고 친구 여러분, 우정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인사드립니다. 우리는 놀라운 최고속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메일, 팩스, 휴대폰 및 기타의 방법으로 보내지는 정보의 양은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사실상 메시지는 필요 이상으로 많습니다. 그 양이 너무나 방대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기 쉽고, 농친 메시지로 인해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시 상황에서 지휘관과 사병들 사이에 정보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커다란 혼란과 막대한 인명 손실을 가져옵니다. 실제로 제1차 세계대전 중에 308보병

대대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필사적으로 진격하여 아르곤 요새를 탈환하고 사수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워낙 전투가 치열한 나머지 좌우에 있던 지원군들은 철수를 했고, 308보병 대대는 포위된 채 고립되었습니다. 사령부와 308대대의 교신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 대대는 잃어버린 대대로 알려졌습니다.

대대는 현재의 위치에서 사령부까지 날아가 메시지를 전해 줄 전서구(통신용 비둘기)를 이용하여 본부와의 교신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둘기들마저 날아오른 즉시 반대 세력에 의해 사살되었습니다. 잃어버린 대대 소속의 포대는 대대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해 자기 대대를 향해 폭격을 함으로써 많은 희생자를 냈습니다. 대대는 식량과 물과 탄약이 거의 바닥난 상황에서도 위치를 사수하였으며 엄청난 손실에도 불구하고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체르 아미라는 비둘기가 총상을 입고도 대대의 위치를 알리는 메시지를 갖고 사령부까지 날아갔습니다. 대대의 생존자들은 그 중요한 메시지가 전달됨으로써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sup>1</sup>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들을 놓친다면, 특히 이러한 메시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이 위대하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의 업적을 다 말씀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도움을 주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회원인지의 여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이 필요한 때에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했습니다. 우리는 칭찬이나 감사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자녀들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도왔을 때, 그것이 그분과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한 것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보상이 됩니다.

우리는 이 사업을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늘 있을 것입니다. 굶주림과 공핍함과 재난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빛에 감동되어 공핍한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봉사하고 일하고 격려하려는 사람들도 늘 있을 것입니다.

이와 연관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는 연구 교육 기금을 설립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의 후한 기부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 23개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출금은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합당한 젊은 남녀에게 지급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들은 부모와 조상들이 여러 세대 동안 안고 살아온 변함 없는 가난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약 10,000명 이상이 도움을 받았으며, 지금까지의 경험을 보면 훈련과 교육을 받은 그들의 수입은 전보다 서너 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영이 이 사업을 인도하십니다. 이 복지 사업은 쌀과 콩, 담요와 텐트, 옷과 의약품, 구직과 더 나은 직장을 위한 교육에 관련된 세상적인 활동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적인 사업은 그 내면에 갖고 있는 정신, 즉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사도행전 10:38)신 주님의 영의 외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하늘이 이 위대한 프로그램을 번영케 해주시기 바라며, 이 복지 프로그램을 위해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나오는 불꽃”<sup>2</sup>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는 왜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지 궁금했으며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sup>3</sup> 모세가 그것을 알아보려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sup>4</sup>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셨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sup>5</sup>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와 대화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분은 모세에게 시키실 일이 있다고 하셨으며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라고 하셨습니다.<sup>6</sup>

주님의 말씀이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통해 왔던 것은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예언자 엘리야는 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

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sup>7</sup>

메시지는 경전과 현대 예언자와 개인적인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듣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주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여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메시지를 무시하고 옹바로 도망쳐 그 곳에서 주님을 피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다에 강한 폭풍이 일게 하셨습니다. 선원들은 두려움에 빠졌고, 주님의 노를 풀기 위해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커다란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고, 그는 물고기 몸 안에서 삼 일 밤낮을 보냈습니다. 요나는 기도으로써 용서

해 주실 것과 구출해 주실 것을 간구하자, 물고기가 그를 육지에 토해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을 때 그는 말씀을 듣고 니느웨 백성에게 가서 회개를 외쳤습니다.<sup>8</sup>

우리 가운데 일부는 깨닫기 위해 불타는 떨기나무 같은 놀랄 만한 경험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은 사람이나 상황, 물체 등과 같은 어떤 것의 중대한 본질을 문득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감으로 이해합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생활의 참다운 본질을 영감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특별한 은사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영감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 인간의 지혜로는 작다고 생각”<sup>9</sup>하거나 “점차로 하늘로부터 보여지는 표적과 기사를 놀라워 하지 않”<sup>10</sup>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영감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중학교 시절에 어려운 과목을 공부했는데 가르치는 내용들을 대부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선생님께서 제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질문도 이해하지 못했는데 답을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불현듯 답이 머릿속에 떠올라 선생님께 그 답을 말했습니다. 그것은 정답이었지만, 저는 그 정답이 제가 알아낸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영감이 올 때 그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으로 울부짖고 있을 때에 보라 주의 음성이 내 마음에 다시 임하시어 이르시기를 ...”<sup>11</sup> 계시를 주는 영의 음성은 반드시 들리는 것은 아니지만 생각과 느낌을 통해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우리는 교리와 성약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읽을 수 있습니다. “나는 네게 와서 네 마음 가운데 거할 성령[성신]으로 네 정신과 마음에 말하리라.”<sup>12</sup> 우리는 그 신성한 음성에 민감하도록 훈련을 쌓아야 합니다.

제가 처음 가졌던 라디오는 광석 수신기였습니다. 그것은 어느 특정한 방송국에 주파수를 맞추기 어려운 라디오였습니다. 저는 신호가 잡히는 정확한 지점을 찾기 위해 말 그대로 비늘 전극으로 광석 표면을 거의 긁다시피 했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총관리 직원

## 대관장단

2004년 4월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제1보좌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제2보좌

## 십이사도 정원회



보이드 케이 팩커



헨 톰 페터



데이비드 비 헤이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머릴 에이치 오스



엠 러셀 발라드



조셉 비 워스핀



리처드 지 스크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켄리 비 아이어람

## 침십인 회장단



영 시 영기



데이브드 크리스토퍼슨



데이비드 이 소렌슨



찰스 디디에이



디터 에프 우흐토르프



머릴 제이 배이트먼



존 에이치 그로버그

칠십인 제일 정원회



카탈로스 에이치 이매도



남 영 현두순



몬트 제이 브라프



셀빈 애드 차인드



영 후트니 콜레이븐



거리 제이 로플린



스벤서 제이 콘디



진 일 록



헨리 월 록



클러두오그 윌 영 코스닥



로버트 제이 엘린베호



존 비 디슨



크리스토퍼 필 존드 이세



윌터 에드 곤잘레스



브루스 지 허벤



도널드 영 홀스트롬



에프 윌비 허브드



해럴드 지 헬범



에프 버트 허워드



제이 이 켈슨



윌버 제이 켈슨



케니스 존슨



더블류 톨프 카



요시윙고 기꾸찌



존 영 에드슨



리처드 제이 베이너즈



린 에이 미글슨



테니스 비 노리뉴언더



클렌 엘 페이스



리무스 디 포터



칼 비 프켓



로널드 에이 린스윈드



린 지 로빈스



세실 오 사뮤엘슨 이세



스튜어브 이 스노우



프란시스코 제이 비나스



린스 비 워드먼



더블류 크래이그 조윙크

칠십인 제이 정원회



머빈 비 아렌드



이 레이 네이트만



더블류스 엘 콜리스토



크래이그 시 크리스틴슨



샐리 디 크리스틴슨



밥 윌 크리스틴슨



다윈 비 크리스틴슨



키스 크로켓



아메이 데이애니



제임스 엠 던



대릴 에이저 간



디 렉스 개렛



에이저 엘드러지 길레스피



로버트 티 웨버슨



키스 케이 힐버그



스벤서 브리 존스



제임스 엠 윈드



클렌트 더블류 마스크 아세



테일 이 엘러



메릴 시 옥스



로버트 시 옥스



러버트 에프 오른



스티븐 비 보브슨



윌버윈 더블류 핀리



웨인 에스 피터슨



에이저 브라이언 라차즈



네드 비 루에시



알 콘래드 솔즈



더블류 더블류스 샐웨이



테니스 이 시만즈



도널드 엘 스터벨러



로버트 필 스투어



테이비트 윌 스톤



에이저 브루스 스투카



윌버윈 알 윌커



괴드 비 와츠



스티븐 에이 웨스턴



로버트 제이 웨튼



리처드 에이저 윌렐



로버트 에스 우드



에이저 로스 워드먼



리처드 시 에슬러 제1보좌



에이저 데이비드 배든 감리 감독



키스 비 맥달린 제2보좌





브라질 성도인 리브리엘 도미시아노가 대회 일요일 오전 모임에서 태버나클 합창단과 함께 노래하고 있다.

습니다. 정확한 지점에서 1밀리미터만 벗어나도 신호를 놓치고 시끄러운 잡음이 들렸습니다. 여러 번 인내와 끈기를 갖고, 집중력과 흔들리지 않는 손놀림으로, 저는 그다지 어렵지 않게 광석에서 신호를 찾아내는 법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영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감에 자신을 맞추어야 하며 시끄러운 잡음이 들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주파수를 맞추는 데 있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주파수를 맞추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처음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당시 70대이셨던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영의 지시로 일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압니다.” 우리가 영에 의해 인도되고 있는 때를 알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은사입니다.

현대의 통신 수단을 언급할 때, 광석 라디오는 새로운 통신 기술의 출발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통신 곧 의사소통을 첨단 기술의 휴대 전화로 합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신호가 잡히지 않는 사각 지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터널이나 계곡이나 다른 방해 요인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미한 음성은 작고 조용하지만 매우 강력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꿰뚫으며 … 속삭이듯 말씀 하”[십니다.]<sup>13</sup> 그러나 저의 옛날 광석 라디오 처럼 메시지는 그 곳에 있으나 우리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생활의 어떤 부분이 메시지를 듣지 못하게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무디”<sup>14</sup>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영적인 사각 지대나 신성한 메시지가 차단된 상황에 처하게 합니다. 이러한 사각 지대에는 분노, 외설물, 범법, 이기심 및 영을 거스르는 갖가지 상황들이 포함됩니다.

메시지는 신성한 출처나 교회 감리 역원을 통해 개인적이고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오는 중요한 메시지는 부모와 조부모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부모의 메시지는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과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감에 찬 메시지가 사랑의 메시지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모님의 권고에 따르는 것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sup>15</sup>는 계명을 지키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우리 시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한 가지 메시지는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흠 없게 지키라”<sup>16</sup>고 명하시는 주님

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도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지나치게 이 세상 것에 얽매어”<sup>17</sup> 있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그의 의를 이룩하라”<sup>18</sup>는 구세주의 탁월한 메시지는 우리 모두에게 “불타는 떨기나무”의 메시지만큼 중요합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꿰뚫어야 합니다. 이 메시지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생에서 무엇을 지지할 것인가를 선택하게 됩니다. 정규적인 성전 방문은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지금 전세계에는 117개의 성전이 있습니다. 과거 어느 때도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거룩한 집에만 적이 없었습니다.

또다른 중요한 메시지는 가족을 강화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가족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이 기승 아픈 사회적 추세가 끝없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비통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결혼 생활에서의 행복은 부부가 함께 사랑과 친절과 상호 존경을 보이며 주님 앞에 의롭고 겸손하게 생활할 때 시작됩니다. 그것은 모든 맹세와 성약에 얼마나 충실한 생활을 하는가에 따라 좌우됩니다. 어떤 이



유род든 가족이 해체되게 되면, 부모는 죄가 없는 아이들을 지지하고 돕기 위해 특별히 노력해야 합니다.

또다른 중요한 메시지는 주님께 정직하고, 자신에게 정직하며, 다른 모든 사람에게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한 십일조를 내야 하며, 수입의 범위 내에서 생활하고, 힘든 때를 대비하여 저축해야 합니다. “빛진 자는 채주의 종”<sup>19</sup>이므로 부채는 속박입니다. 집을 사거나 교육을 받기 위한 것과 같이, 일부 부채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주제에 대한 주님의 권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빛을 청산하여 속박에서 벗어나라.”<sup>20</sup>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게 하는 가르침과 격려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것은 종종 특별한 임무를 맡도록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이것은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메시지를 받았을 때와 같습니다. 우리는 생활에 질서를 세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에 대한 메시지를 받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고 행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여러 근원으로부터 많은 메시지가 전해지는 오늘날, 우리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저는 메시지의 출처와 그 동기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엘마를 통해 다음과 같은 지침을 주셨습니다. “선한 것은 무엇이든 모두 하나님으로부터요, 악한 것은 모

두 악마에게서라.”<sup>21</sup>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오한 메시지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합당하게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메시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반적인 복음이 포함됩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 이래로 역대 대관장들 중 절반이 넘는 대관장님들을 만나고 그 분들과 다소 친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저의 특권이었습니다. 저는 아론 신권 제사였을 때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 분에 대한 사랑을 느꼈으며 그 이후로도 모든 대관장님들에 대해 똑같은 사랑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분들의 권고에 따라 살기를 원했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님과 함께 보좌로서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을 위해 봉사한 9년 동안, 저는 힝클리 대관장님이 우리 시대를 위한 영감 받은 대관장이요 예언자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아무 의심의 여지없이 알게 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분이 교회 회원과 온 세상을 위해 주님의 생각과 뜻을 알고 받아 오셨으며, 앞으로도 계속 받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간증합니다. 우리는 늘 현재의 대관장님으로부터 오는 예언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귀기울여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 주

1. Buck Private McCollum, *History and Rhymes of the Lost Battalion* 참조.
2. 출애굽기 3:2.
3. 출애굽기 3:3.
4. 출애굽기 3:4.
5. 출애굽기 3:5.
6. 출애굽기 3:8.
7. 열왕기상 19:11~12.
8. 요나 1~3 참조.
9. 이터서 3:5.
10. 니파이삼서 2:1.
11. 이노스서 1:10.
12. 교리와 성약 8:2.
13. 교리와 성약 85:6.
14. 니파이일서 17:45 참조.
15. 출애굽기 20:12.
16. 교리와 성약 59:9.
17. 교리와 성약 121:34~35.
18. 요셉 스미스 역 마태복음 6:38, 마태복음 6:33 참조.
19. 잠언 22:7.
20. 교리와 성약 19:35.
21. 엘마서 5:40.



# 아버지, 영원한 부름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창세 이래로,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중요성에 대해 경고해온 예언자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상을 오랫동안 유심히 살펴 보면, 사탄이 사람의 영혼을 노예로 만들기 위해 전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노리고 있는 주요 대상은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족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사탄은 모든 조직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가정을 비하시키고 품위를 떨어뜨리기 위해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수많은 가족의 붕괴와 관련하여 거의 매일 불길한 사건들이 보도되는 현실을 보면 사탄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가족의 붕괴와 더불어, 우리는 그로

인한 범죄의 증가, 비정상적인 행동, 빈곤, 약물 남용 등이 지속적으로 더욱 증가되는 끔찍한 결과들을 봅니다.

제가 보기에 사탄의 노력은 남편과 아버지들에게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의 미디어는 남편이나 아버지, 또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들의 역할을 비웃고 경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그들을 공격해왔습니다.

## 경전에서 보여주는 모범

미디어에서 그려지는 남편과 아버지의 상을 경전의 그것들과 대비시켜 보는 것은 유용할 것입니다. 경전에는 참으로 위대한 모범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구세주.** 신약전서에서 우리는 구세주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중 하나는 배반당하시기 직전 동산에 계실 때입니다.

“[예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 하더라”<sup>1</sup>

**모세와 이드로.** 출애굽기에는 모세가 이스라

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관찰하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예가 나옵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이라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sup>2</sup>

그런 다음 이드로는 모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불러 책임을 위임하고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백성을 재판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 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sup>3</sup>

**엘마.** 물론경에는 모반하는 무리와 함께하며 온갖 악을 저지른 엘마의 아들 엘마의 기록이 나옵니다. 부친 엘마는 자신의 아들이 진리의 지식으로 나아오도록 두터운 신앙으로 간구했습니다. 그 기도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할 때] ... 천사가 저들 앞에 나타나 마치 구름 가운데 싸인 듯이 내리더니, 천둥 같은 목소리로 저들에게 이야기 하는지라 ...

“이에 저들이 심히 놀라 땅에 엎드러졌고, 천사가 저들에게 이른 말을 깨닫지 못한지라.

“천사가 다시 큰소리로 이르기를, 엘마야 일어나 내 앞에 서라. 어찌하여 너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느냐? 주님께서 이르셨으되, 이는 나의 교회라 내가 일으켜 세울 것이요, 내 백성들이 범법하지 않을진대 아무도 이를 허물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니라.

“천사가 다시 이르기를, 보라 주님께서 주



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또한 주의 종, 엘마의 간구를 들으셨으니 곧 이는 너의 부친이라, 저가 네게 진리를 알게 하려 두터운 신앙으로 간구한지라, 이제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네게 알릴 뜻으로 이곳에 왔음에, 주님의 종의 간구가 저의 신앙에 따라 성취되리로다.”<sup>4</sup>

엘마 이세는 이 경험에서 회복되었을 때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 약화되는 아버지의 역할

사탄은, 가족을 파괴하기 위해 마련한 교묘

한 술책으로, 아버지의 역할을 감소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청소년 폭력, 청소년 범죄, 더 큰 빈곤과 경제적인 불안, 취약 아동 수의 감소 등은 가정에서 아버지의 긍정적인 영향력이 결핍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sup>5</sup> 가족은 닳아 되어 줄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수세기의 경험을 통해 근원적인 가족이 사회를 위한 가장 안정되고 안전한 기반을 제공하며 미래의 책임에 대비하여 젊은이들을 준비시키는 데 가장 기초가 된다는 것을 배웠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전통적인 가족 형태를 대신하는 다른 형태의 가족들은

제대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으며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도 배웠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발표한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평의회는 남녀간의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여 주신 것이며 가족은 창조주께서 그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을 위하여 마련하신 계획의 중심이라는 것을 엄숙하게 선언한다.

“모든 인간, 즉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사람은 모두 하늘 부모의 사랑하는 영의 아들과 딸이며, 따라서 각각 신성한 품성과 운명을 지니고 있다. 남녀의 성별은 각 개인의 전세와 현세와 영원에 걸친 개인의 신분과 목적을 결정하는 본능적인 특성이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던 최초의 계명은 그들의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가 될 수 있는 잠재력에 관한 것이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하신 계명이 여전히 유효함을 선언한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출산의 신성한 능력은 남편과 아내로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하셨음을 선언한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아버지는 자신의 가족을 사랑과 의로움으로 다스려야 하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고 가족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어머니의 주된 책임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성한 책임을 수행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등한 동반자로서 서로를 도울 의무가 있다. 장애나 죽음으로 기타 다른 상황에 따라 이러한 원리를 개별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우리는 순결에 관한 성약을 어기거나, 배우자나 자녀를 학대하거나, 가족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게 되리라는 것을 경고한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가족이 붕괴될 때 개인과 지역 사회와 국가에 고대와 현대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재난이 닥칠 것이라는 사실을 경고한다.”<sup>6</sup>

## 아버지의 역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들이 맞게 될 미래에 관해 이토록 절박한 경고가 주어졌다면,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자신들이 영원한 가족을 이루라는 주님의 지시를 분명히 따르고 있는지 온 영혼을 다해 확인해야 합니다. 아버지와 관련하여 주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의 역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 1. 아버지는 가족의 머리입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지도자, 즉 가장 중요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그래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영원한 동반자의 도움과 권고와 격려에 힘입어 여러분은 가정을 다스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가장 합당하고 자격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거룩한 임명의 문제입니다.”<sup>7</sup>

가정에서의 지도력에는 가족 예배를 이끄는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버지는 식탁에서나 가족 기도에서 감리자입니다. 가정의 밤을 감리하십시오. 주님의 영의 인도에 따라, 자녀가 정확한 원리를 배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의 모든 생활과 관련하여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여러분의 일입니다.

“가장의 축복을 주십시오. 가족의 규칙을 세우고 훈육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가정에서의 지도자로서, 화목하고 행복한 가족의 축복을 이루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희생하십시오. 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 중심의 생활이 요구됩니다.”<sup>8</sup>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가정에 종교적인 헌신과 사랑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신이 너무 부족합니다. 가정 내에 지나친 속물 근성, 이기주의, 무관심, 경건성의 결여 등이 지금처럼 만연되었던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은 개혁이 필요합니다. 가정을 변화시키기 위해 오늘, 그리고 내일, 노력해 보십시오.”<sup>9</sup>

형제 여러분, 가족의 지도자로서 여러분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아내는 여러분의 동반자입니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교회의 남자들은 자신의 아내 앞에서나 뒤에서 걷지 않고 바로 옆에서 걷습니다. 그들은 동등합니다.”<sup>10</sup> 창세 이래로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남편과 아내는 결혼 생활을 통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sup>11</sup> 따라서 가정에는 사장이나 부사장이 있지 않습니다. 부부는 가족의 유익을 위해 영원히 함께 일합니다. 그들은 함께 가족을 이끌고, 인도하고, 지도할 때 언행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들은 동등한 배우자입니다. 그들은 함께 가족의 일을 계획하고 처리하며 일치 단결된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 2. 아버지는 교사입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의 권고는 오늘 날에도 적용됩니다. “자녀들이 전문가를 찾아 가도록 하지 말고 ... 여러분의 훈계와 모범을 통해, 여러분 자신이 갖는 노변의 모임을 통해

자녀를 가르치십시오 ... 여러분 스스로가 진리의 전문가가 되십시오.”<sup>12</sup>

“자녀를 가르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은 이러한 일이 교훈과 모범으로 성취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겸손해집니다. 자신이 하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성신의 끊임없는 동반을 위해 생활하고 공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범과 지도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나타내도록 삶을 청결케 하고 정돈해야 합니다.

“다른 관심거리로 인해 여러분의 첫째되는 책임인 자신과 가족의 복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주님의 영의 인도에 따라 이러한 것들을 진지하게 구하며 하루를 계획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 계신 예언자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성공도 가정에서의 실패를 보상할 수 없습니다.’”(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회 보고, 1964년 4월, 5쪽; J.



2004년 4월 연차 대회 모임을 시청하기 위해 스테이크 센터에 도착한 한 가족이 독일 프랑크푸르트 성전을 배경으로 포즈를 취했다.

E. McCulloch의 *Home: The Savior of Civilization* [1924년, 42쪽에서 인용]<sup>13</sup>

3. 아버지는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입니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내가 가정에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완수할 수 있도록 모든 남편에게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을 부과해 주셨음을 말씀드립니다. ... 때로 남편의 격려와 권유로 부수입이 있을 때 편리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어머니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가족이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과 발달도 막히게 됩니다.”<sup>14</sup>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은 자신의 가족을 감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은 여러분이 저야 하는 가장 엄숙하고 중요한 책임입니다. 이는 그것이 영원한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가족을 올바른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덤 저편까지도 지속될 여러분 삶의 일부입니다. 저는 다음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남자가, 특히 맬기세텍 신권을 소유한 남자가 가정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가장 중요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남자를 가족의 머리로 삼으시면서 부여하신 질서와 권능 안에서 인식되고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가족 조직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특히 그 조직이 대신권 소유자에 의해 관리되는 경우, 아버지의 권능보다 더 높은 권능은 없습니다.

... 족장의 반치는 거룩한 기원에 속한 것으

로 현세와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가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에 있는 이러한 반차와 권능을 이해하며, 가장 높은 승명을 위한 자격과 준비를 갖추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정에서 감리하는 권능은 항상 아버지에게 부여되었으며 가정 문제와 가족 문제에 관한 모든 것에서 그에 필적할 만한 권능은 없습니다.”<sup>15</sup>

오늘 저는 몇 개의 인용문을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한 데에는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곧 나올 5월호 리아호나에 분명히 명시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대회의 메시지들을 공부하고 회고해 보실 것을 권유합니다. 이는 훌륭한 잡지로서 반드시 모든 가정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대회의 영이 그 잡지와 더불어 1년 내내 함께할 것입니다.

창세 이래로,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중요성에 대해 경고해 온 예언자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시온에 있는 아버지들에게 주신 의무와 책임을 더욱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기를 바라며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주

1. 누가복음 22:41~43.
2. 출애굽기 18:14~15, 17~18.
3. 출애굽기 18:22
4. 모사야서 27:10~14.
5. David Blankenhorn, *Fatherless America: Confronting Our Most Urgent Social Problem*(1995), introduction, 25~48; David Popenoe, *Life without Father*(1996), 52~78 참조.
6. 리아호나, 1998년 10월, 24쪽.
7. 십이사도 정원회, *Father, Consider Your Ways: A Message from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pamphlet, 1973); 재인쇄 *Ensign*, 2002년 6월호, 16쪽.
8. *Ensign*, 2002년 6월호, 16쪽.
9. “Worship in the Home,” *Improvement Era*, 1903년 12월호, 138쪽.
10. 대회 보고, 1996년 10월호, 68쪽; 또는 *Ensign*, 1996년 11월호, 49쪽.
11. 창세기 2:24 참조.
12. *Improvement Era*, 1903년 12월호, 138쪽.
13. *Ensign*, 2002년 6월호, 14쪽.
14. 대회 보고, 1987년 10월호, 60~61쪽; 또는 *Ensign*, 1987년 11월호, 49쪽.
15. 조셉 에프 스미스, “The Rights of Fatherhood,” *Juvenile Instructor*, 1902년 3월 1일, 146쪽.

#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

데니스 이 시먼즈 장로  
철십인 정원희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므로써, 즉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알지 못하는 때에라도 신앙을 행사함으로써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성취합니다.



**청**남이었을 때, 중학교 2학년 농구 대회에서 패한 저는 진 이유를 몰라 의기소침해 하며 실망감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무심결에 어머니께 큰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우리가 졌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길 것이라는 신앙이 제게 있었는데!”

저는 그 당시 신앙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는 것을 이제야 압니다.

신앙은 무모함도 아니고, 그냥 바라는 것도 아니며, 막연하게 그저 소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즉 사람으로 하여금 그분을 따르도록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신뢰입니다.<sup>1</sup>

수세기 전에 다니엘과 그의 젊은 친구들은 갑자기 안전한 곳에서 위험한 외국 땅으로 끌려 오게 되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왕이 세운 금 신상에 엎드려 절하지 않자 매우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sup>2</sup>라고 말하며 명령대로 절하지 않는다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그들을 내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 젊은이는 신속히 그리고 자신 있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당신께서 우리를 풀무불에 던질지라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 말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가졌던 신앙과 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당시 그들은 신앙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음을 몸소 보여 주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것입니다]”<sup>3</sup>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선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sup>4</sup> 비록 그들이 바라던 대로 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그들은 신앙이 정신적 일치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에 대한 인정 이상의 것으로, 즉 신앙은 바로 그분에 대한 완전한

신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비록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분은 모든 것을 이해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은 비록 우리의 힘이 부족하더라도, 그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그분에 대한 완전한 신뢰로 이루어집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는 주님의 계획을 알고 또 그분이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분을 의지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sup>5</sup>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들은 지상 생활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이요 딸인 우리들이 가까이 따르기만 한다면 그분이 누리고 계신 것과 똑같은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분의 위대한 계획의 작은 부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sup>6</sup>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들은 전세에서 우리가 지상 생활의 목적에 관해서 주님으로부터 가르침 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 이들이 살게 될 땅을 만들자. 이로써 우리는 저들을 시험하여 주 저희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명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행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보자.”<sup>7</sup>

따라서 이곳에서 우리는 시험을 받습니다. 그것은 진짜 시험입니다. 세상은 필멸의 남자와 여자에게 있어 시험을 보는 장소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시는 시험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그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보다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사업과 영광은 “인간에게 불사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sup>8</sup> 그분은 이미 하나님의 위상을 이루셨으며 이제 그분의 유일한 목적은 우리를 돕는 것, 즉 우리가 그분께 돌아가 그분과 같이 되고 그분의 삶과 같은 삶을 영원히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았던 그 세 명의 히브리 젊은이들이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고 싶



었고, 그분을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하고 싶으셨을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 그 뒤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선택의지, 즉 결정권과 그에 따른 책임을 주셨습니다.<sup>9</sup> 그분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함으로써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유혹을 받도록 하지는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sup>10</sup> 그러나 우리는 커다란 어려움이 큰 사람을 만든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앙을 갖고 그것을 이겨나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강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도 놀라운 축복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수십 년에 걸쳐 선교 사업에 헌신한 뒤에 이런 중요한 교훈을 깨달아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이라”<sup>11</sup>

바울에게 구세주께서는 이런 확신을 주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sup>12</sup>

바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sup>13</sup> 바울이 주님의 방법으로 자신의 어려움들을 이겨 냈을 때, 그의 신앙은 커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 습니다.<sup>14</sup> 큰 신앙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보다도 많을 것이고, 그 후손이 이삭을 통해 올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주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분을 계속 완전히 믿는다면, 그가 기대했던 방법으로 하지 않으실지라도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므로써, 즉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알지 못하는 때에라도 신앙을 행사함으로써 사람은 놀라운 일들을 성취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며 ...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 하지 아니하고 ...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 같이 건넜으며 ...

“믿음으로 ... 여리고 ... 성이 무너졌습니대 ...”<sup>15</sup>

어떤 사람들은 “...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기도 합니다”<sup>16</sup>

그러나 관련된 사람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이러한 모든 빛나는 결과 속에서도 그분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가 항상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며 ...”<sup>17</sup>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난을 통해 그들을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이는 고난이 없이는 그들이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sup>18</sup>

우리의 경전과 역사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실 것임을 믿었던, 설사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이 믿고 참되었을 것임을 몸소 보았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의 기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분은 우릴 구할 힘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시험입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그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 나머지는 그분께서 하십니다. 니파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하히 노력하더라도 다만 하나님의 자비로 인하여 구원 받게 됨을 앎이라.”<sup>19</sup>

우리는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와

같은 신앙을 지녀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조롱과 박해에서 우리를 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 우리의 하나님께서 아픔과 질병에서 우리를 구하실 것입니다. ...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 그분은 외로움, 절망 또는 두려움에서 우리를 구하실 것입니다 ...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 우리의 하나님께서 위협과 비난과 위협에서 우리를 구하실 것입니다. ...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 그분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이나 부상에서 우리를 구하실 것입니다. ...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공의와 공평을 받을 것을 보실 것입니다. ...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 그분은 우리가 사랑과 인정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 우리는 온전한 동반자와 의롭게 순종하는 자녀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한다면, 그분의 때에 그리고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분께서 지니신 모든 것을 받게 된다는 점을 알기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지닐 것입니다.<sup>20</sup>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The Guide to the Scriptures*, 80쪽 참조; 또한 히브리서 11:1; 열매서 32:21; 이터서 12:6 참조.
2. 다니엘 3:15 참조.
3. 다니엘 3:17~18 참조.
4. 모사이야서 7:33 참조.
5. 열매서 7:20; 니파이삼서 24:6; 몰몬서 9:19; 모로나이서 8:18 참조.
6. 니파이이서 11:5; 열매서 12:25; 교리와 성약 84:35~38 참조.
7. 아브라함서 3:24~25 참조.
8. 모세서 1:39.
9. 니파이이서 2:27; 힐라멘서 14:30; 교리와 성약 101:78 참조.
10. 고린도전서 10:13; 열매서 13:28 참조.
11. 로마서 5:3~5.
12. 고린도후서 12:9.
13. 고린도후서 12:9~10.
14. 히브리서 11:17.
15. 히브리서 11:24~27, 29~30.
16. 히브리서 11:33~34.
17. 히브리서 11:36~37.
18. 히브리서 11:40, 요셉 스미스역 참조.
19. 니파이이서 25:23 참조.
20. 교리와 성약 84:35~38 참조.

# 모성

## 줄리 비 벅

본부 청년 회장단 제1보좌

**모성을 발전시킴으로써 모든 소녀와 여인은 어머니의 역할이라는 신성하고 영원한 사명을 위해 준비합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모성”을 가진 여인으로 묘사하시는 것을 종종 들었는데,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수천 아니 수만의 사람들이 저의 어머니의 다정 다감한 영향력을 느껴 왔으며 어머니는 양육자의 역할을 예술의 경지에까지 승화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에 대한 어머니의 간증, 그리고 정체성과 목적에 관한 강한 의식은 그 분의 삶을 인도해 왔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동반자를 만나기까지 다른 대부분의 여성들보다도 오랜 시간이 걸렸으나 독신으로 지내는 동안에 자신을 향상시키는 데 전념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흔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 분은 대학 교육을 받고 직장에서도 남보다 앞서 나갔습니다. 결혼을 한 후에는 계속해서 자녀들을 갖게 되었으며, 몇 년 지나지 않아 대가족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 분이 얻

었던 모든 지식, 모든 천부적 능력과 은사, 모든 기술이 이 지상 생활 너머까지 계속될 조직인 가족에 집중되었습니다. 성약을 지키는 하나님의 딸로서 그 분은 어머니의 역할을 하기 위해 자신의 전생애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모성은 무엇이며 어떻게 얻습니까? 우리는 경전에서 몇 가지 자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잠언에 있는 내용을 부연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누가 [모성을 가진]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여인은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잠언 31:10, 13, 16, 20, 25~27)합니다. 모성을 가진 여인은 회복된 복음에 대한 간증을 갖고 있으며 복음의 원리를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런 여인은 성전에서 맺은 거룩한 성약을 지킵니다. 자신의 재능과 기술을 이기심 없이 나눕니다. 그녀는 환경이 허락하는 대로 많은 교육을 받아 자신이 배운 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열정을 갖고 자신의 마음과 영을 향상시킵니다.

자녀를 가진 여인은 살아 계신 예언자들의 가르침에서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행위의 표준에 따라 생활하고 이를 가르치는 “훌륭하신 부모”(니파이일서 1:1)입니다. 그녀는 “자녀에게 기도할 것과 주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할 것”을(교리와 성약 68:28) 가르칩니다. 세상의



음성과 거짓이 약간이라도 들어 있는 진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복음의 표준이 영원하고 불변하는 진리에 기초를 두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녀를 양육하는” “주된 책임”이 참으로 중요하며, 고귀하며, “신성한 책임”(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1998년 10월호, 24쪽)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자녀를 육적으로 양육하고 먹이는 것은 그들을 영적으로 양육하고 먹이는 것만큼이나 큰 영예입니다. 그녀는 “선을 행함에 지치지” 않으며 가족에게 봉사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것은 “작은 일에서 큰 일이 생계”(교리와 성약 64:33) 난다는 것을 그녀가 알기 때문입

니다.

모든 소녀와 여성이 이 지상에서의 성약을 지킨다면, 어머니로서의 영원한 역할을 위한 자신의 잠재력에 대한 간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하늘 부모의 사랑하는 … 딸이며, 따라서 각각 신성한 품성과 운명을 지니고”(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딸로서 여성은 “영의 세계에서 첫 교훈을 받았으며” 지상에 “나올 수 있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교리와 성약 138:56) 그들은 지구가 창조되었을 때 “다 기뻐 소리를 질렀[던]”(욥기 38:7) “고귀하고 위대한 영들”(교리와 성약 138:55)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냐하면 육신을 갖고 이 지상에서 “시험” 받을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아브라함서 3:25)

그들은 혼자서는 얻을 수 없는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의로운 남자와 함께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여성의 역할은 지상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며 그것은 여기서 끝나지도 않습니다. 지상에서 어머니의 역할을 소중하게 여기는 여성은 다가올 세상에서도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의] 보물 있는 그곳에는 [그녀의] 마음도 있[기]”(마태복음 6:21) 때문입니다. “모성”을 발전시킴으로써 모든 소녀와 여인은 어머니의 역할이라는 신성하고 영원한 사명을 위해 준비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녀]가 얻은 예지는 어떠한 것이든지 다 부활할 때에 [그녀와] 함께 부활합니다. 만일 어느 [여인이] 근면하고 순종심이 강하여 다른 사람보다 한층 많은 지식과 예지를 얻었으면 [그녀는]장차 오는 세상에서 그만큼의 유익을 얻[을]”(교리와 성약 130:18~19) 것입니다.

경험을 통해 저는 참된 모성을 가진 몇몇 분이 이 생애에서 자신의 자녀를 키울 기회를 갖지 못하는 여성들 대열에 속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지만 그런 분들은 “만사는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며 자신들이 “위대한 사업의 기초를 닦고 있다[는]”(교리와 성약 64:32~33)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자신들의 성약을 지킬 때, 그것은 원대하고 유망한 장래에 투자를 하는 것인데, 이는 그들이 “뚝째 지체를 지키는 자는 저희 머리 위에 영광이 영원토록 더하여”(아브라함서 3:26) 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근에 한 공원에서 모성을 지닌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성약을 지키는 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중요한 일을 그 날 저녁 식사를 계획하고 가사에 관한 아이디어를 나누는 데 쏟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 살짜리 어린이들에게 서로 친절하라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갓난아기들을 달래고, 다친 무릎을 호호 불고, 눈물을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의 한 어머니에게 어떻게 해서 자신의 재능을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어머니의



역할에 쏟게 할 수 있었는지를 물어 보았습니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가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그 결과이지요.” 그 젊은 어머니는 한 번의 가족 기도, 한 번의 경전 학습 모임, 소리내어 읽는 한 권의 책, 노래 한 곡, 한 번의 가족 식사를 통해 다음 세대의 신앙과 성품을 키워 줄 것입니다. 그녀는 위대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은 여호와 의 기업이요 …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여인인 복](시편 127:3, 5)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의롭고, 성실하고, 꾸준하고, 매일 이루어지는 어머니의 보살핌이 갖는 영향력이 사람이 고안한 그 어떤 세상적인 위치나 제도보다 훨씬 더 지속적이고,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합당하기만 하다면 고대의 리브가와 같은 축복을 받아 “천만인의 어머니”(창세기 24:60)가 되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성을 갖고 성약을 지키는 여성들은 어머니가 되는 일이 일찍 오든 늦게 오든 관계없이, 이 곳 필멸의 세상에서 자녀라는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하든 그렇지 않든 관계없이, 그들이 독신이든 결혼을 했든, 아니면 부모의 책임을 혼자서 지게 되었든 관계없이, 그들은 거룩한 성전을 통해 “높은 곳에서 임하는 능력을”(교리와 성약 38:32) 받으며, 또 그 능력을 가지고 약속된 축복을 받았으며 “그것들을 … [확신하고] 환영”(히브리서 11:13)합니다.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지키는 모든 소녀와 여성은 모성을 지닐 수 있습니다. 모성을 가진 여성이 성취할 수 있는 일은 무한합니다. 의로운 여인들은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영원의 세계까지 기하급수적으로 퍼지고 성장할 것입니다. 어머니의 역할이라는 신성한 사명을 가진 신뢰 받는 여성에 대해 제가 주님께 얼마나 큰 감사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인류의 어머니인 이브처럼 저도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되어 “기뻐나다”(모세서 5:1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두려워 말라”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문명의 존립 자체가 달려 있는 도덕적 가치가 더욱 빠른 속도로 하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몇 주 전에 막내 아들 내외와 그 가족이 함께 우리를 보러 왔습니다. 두 살짜리 손자가 가장 먼저 차에서 내리더니,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고 외치며 팔을 뻗은 채로 제게 달려 왔습니다. 그 아이는 제 다리를 꼭 안았고, 저는 아이의 미소 짓는 얼굴과 크고 순수한 눈을 내려다 보면서, “이 아이에게는 어떤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언급했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잠시 동안 엄습해 왔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 걱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신의 느낌이 찾아 왔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희미하게 사라져 갔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우리를 인도하고 위안을 주는 영이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비록 악이 만연한 세상에 살게 될 테지만, 밝은 눈을 가진, 그 어린 두 살짜리 손자는 훌륭한 삶, 아주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으며, 그 후손들 또한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생애 동안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건들 중에는 그들의 용기와 신앙을 요구하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도움과 안내를 구한다면, 역경을 극복할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시련들은 그들의 발전을 가로막도록 허용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더 큰 지식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할아버지이자 십이사도 중의 한 사람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약간의 조언과 경고, 그리고 많은 격려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가족의 할머니인, 57년 동안 제 곁에 있었던 아내가 함께 섰더라면 이 일을 훨씬 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머니들은 아버지들보다 인생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알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우리는 위험하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전 시대에 인류를 안정시켰던 가치들이 현실팩처럼 버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를 보고 경고한 모로나이의 다음 말씀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너희가 처참한 상태에 놓인 줄을 깨달아 알라.”(이더서 8:24)

우리는 물론경에 나오는 이 경고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주가 그의 끝없이 크신 선하심으로 주를 의지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번영하게 하심을 알며 ... 주의 백성들의 복과 행복을 위하여 만사를 행하시나니, 그러하실 때에 백성들은 저들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여 저희 주 하나님을 잊으며 거룩하신 이를 발 아래 짓밟나니, 이는 오직 저들이 안이한 때문이요, 크게 번영하기 때문이라.

“그러하여 주가 이 백성들을 고난으로 징계 하시며 사망과 공포(*terror*)와 기근과 온갖 역병으로 저들을 치지 아니하시면 저들이 결코 주를 기억하지 아니 하[느니라.]”(힐라맨서 12:1~3)

물론경에 나오는 이 예언적인 경고에서 테러(역주: 공포로 번역되어 있음)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을 주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명의 존립 자체가 달려 있는 도덕적 가치가 더욱 빠른 속도로 허약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제가 태어나기 불과 6년 전에 끝났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전쟁의 여파는 모든 곳에서 느껴졌습니다. 그 후 2차 세계대전이 15년 만에 발발했습니다. 어두운 구름이 이미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현재 여러분 대다수가 느끼는 그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 불안한 세계에 어떤 미래가 전개될지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제가 소년이었을 때, 어느 곳에서나 소아 질병이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수두나 홍역, 또는 볼거리에 걸리면, 보건 담당자가 그 집을 방문하여 현관이나 창문에 검역 표시를 붙임으로써 사람들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우리 집과 같은 대가족에선 그런 병이 릴레이 식으로 찾아들어 한 아이가 낫고 나면 이번엔 다른 아이가 앓게 됨으로써, 때로는 검역 표시가 여러 주 동안 붙어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그런 끔찍한 전염병을 피하기 위해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거나 다른 곳에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학교나 직장이나 교회 등,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제 누이 두 명이 홍역을 심하게 앓았습니다. 처음에는 회복되는 듯 했습니다. 몇 주가 지난 후에 어머니께서 창 밖을 내다보시다 아델이 그녀에 기대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아델은 고열로 인해 몹시 쇠약해졌습니다. 류마티스 열이었습니까! 홍역이 합병증을 일으킨 것입니다. 다른 누이도 또한 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거의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아델은 숨졌습니다. 당시 그녀는 8살이었습니다.

그보다 두 살 더 많은 노나는 회복되었지만, 평생을 병약한 몸으로 살았습니다.

중학교 일 학년 보건 시간에, 선생님이 한 기사를 읽어 주셨습니다. 이웃집 아이가 수두에 걸렸다는 것을 한 어머니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도 차례로 수두에 걸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이들 모두가 한꺼번에 수두를 앓게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이웃집에 보내 수두가 유행하도록 그 집 아이들과 놀게 했고, 아이들은 모두 수두를 앓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의사가 집

에 찾아와 아이들이 수두가 아니고 천연두에 걸렸다고 했을 때 그녀가 느꼈을 공포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신체나 영적인 전염병에 걸릴 위험이 있는 장소를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자들이 천연두에 걸릴 것이라고 거의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예방접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걱정 없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세계 대다수 지역에서 천연두는 거의 박멸되었고, 백신 예방도 가능하지만 여전히 그것은 유아 사망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말일성도들이 후하게 내는 헌금으로, 교회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천연두 예방 접종을 위한 후원금 백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일 달러면 한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은 이제 도덕적, 영적인 병에 대해 근심합니다. 이러한 병들은 표준과 가치관이 버려질 때 끔찍한 합병증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모두 보호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적합한 백신만 있다면, 신체는 병으로부터 보호됩니다. 우리는 또한 도덕적, 영적 병으로부터도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Inoculate*(접종하다)라는 말은 다음과 같은 두 부분으로 나뉘집니다. *In*은 “안에 뒹”을 의미하며, *oculate*는 “보는 눈”을 의미합니다.

어린이가 침례를 받고 확인을 받을 때(교리와 성약 20:41, 43; 33:15 참조), 그들은 성신의 놀라운 은사인 내면의 눈을 갖게 됩니다.(교리와 성약 121:26 참조) 복음의 회복과 함께 이 은사를 주는 권능이 주어졌습니다.

물론경은 그 열쇠를 우리에게 줍니다.

“천사는 성신의 권세로 말하는 것이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지키라. 보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너희가 행하여야 할 바를 모두 전하여 주심이라.”(니파이서 32:3)

그것을 마음 속에 받아들이고 온 마음을 다해 보살핀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회복된 복음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으로 영적인

면역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도덕적, 영적 질병에 대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훌륭한 피난처는 안정된 가정과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언제나 진리였으며 영원토록 진리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가슴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경전에는 주님께서 “악한 자의 불화살을 날 날이 끝 수 있다”고 하신 “신앙의 방패”가 나옵니다.(교리와 성약 27:17)

이 신앙의 방패는 가내수공업으로 만들어질 때 최고 품질이 보장됩니다. 이 방패는 교회 공과반이나 활동에서 다듬어질 수는 있지만, 가정에서 직접 손으로 개개인에 맞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온전한 갑옷을 입어 악한 날에 견딜 수 있게 하고 모든 일을 수행하여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라.”(교리와 성약 27:15)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우리 때보다 여러모로 훨씬 강인하고 뛰어납니다. 그들과 우리는 앞에 놓여 있는 것들로 인해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살 필요가 없습니다.(교리와 성약 6:36 참조) 두려움은 신앙의 반대입니다.

우리는 악을 없앨 수는 없지만, 영적으로 양육되고, 악한 영향력에 대해 면역력을 갖춘 어린 말인성도를 길러낼 수는 있습니다.

오랫동안 살아온 할아버지로서, 저는 여러분에게 신앙을 가질 것을 권고합니다. 일들은 해결될 것입니다. 교회와 가까이하십시오. 자녀들이 교회와 가까이하도록 하십시오.

엘마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사람들에게 정당한 일을 하게 하는 데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알아, ... 하나님의 말씀이 겁이나 그밖에 어떠한 것 보다도 더 큰 영향을 사람들에게 미침을 알았으니, 이로써 엘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지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였느니라.”(엘마서 31:5)

참된 교리와 이해력은 태도와 행위를 변화 시킵니다. 복음 교리에 대한 연구는 행위에 대



한 연구가 행위를 개선시키는 것보다 훨씬 빨리 행위를 개선시킬 것입니다.

일상적인 것에서 행복을 찾으며, 유머 감각을 유지하십시오.

노나는 홍역과 류마티스 열에서 회복되었습니다. 누이는 살아 남아 심장 절개술 덕에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었고, 삶을 즐기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누이가 얻은 새로운 활력에 대해 언급하자 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형 T 모델에 캐딜락 엔진을 달았어요.”

유머 감각을 유지하십시오!

자녀들을 세상으로 데려오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들이 필멸의 세계로 올 수 있도록 육체를 제공한다고 성약을 맺었

습니다.(창세기 1:28; 모세서 2:28 참조) 어린이들은 회복된 교회의 미래입니다.

가정에 질서를 세우십시오. 어머니가 밖에 나가 일을 한다면, 그것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알아 보십시오. 지금 당장 바꾸기에는 매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세심하게 분석하고 기도하십시오.(교리와 성약 9:8~9 참조) 그런 후에 계시인 영감을 기대하십시오.(교리와 성약 8:2~3 참조) 장막 저 너머에 있는 권세가 때가 되면 여러분 가족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십시오.

엘마는 구원의 계획을 “위대한 행복의 계획”이라고 불렀습니다.(엘마서 42:8, 니파이서 11:5, 엘마서 12:25, 17:6, 34:9, 41:2, 11~13, 15, 31; 모세서 6:62 참조)



우리 개개인은 필멸의 육신을 입고 시험 받고자 필멸의 세계로 왔습니다.(아브라함서 3:24~26 참조)

인생은 어려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때로 그런 어려움은 쓰라리고 참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시련으로부터 벗어나길 바라지만, “범사에 서로 상대가 되는 것이 있어야 함이 마땅하니”(니파이서 2:11) 그것은 위대한 행복의 계획에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그 시험이 우리 힘의 근원입니다.

순수한 아이였던 제 누이 아델의 삶은 병마와 고통으로 비참하게 중단되었습니다. 제 누이나 그렇게 간 모든 사람들은 장막 저편에서 주님의 사업을 계속합니다. 제 누이는 영원한 진보에 필수적인 그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젖먹이 손녀를 잃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제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엠마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경전에서 위안을 얻었습니다.

“어린이들은 회개나 침례가 필요하지 아니하니 ...

“어린이들은 ...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

니라.”(모로나이서 8:11~12)

그리스도의 속죄를 기억하십시오. 사탄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을 영원히 잃은 것으로 여기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빛을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마태복음 5:26) 다 갚은 후에, 완전한 회개를 통한 병고침을 받은 후에, 구원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감리하도록 부름 받은 지도자들을 따르십시오. 다음과 같은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 백성이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내 백성을 인도하기 위하여 내가 임명한 종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들은 결단코 저의 처소에서 옮겨지지 아니하리라.”(교리와 성약 124:45)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교리와 성약 65:2) 위대한 여호와께서 사업이 다 끝났다고 선언하실 때까지 나아갈 것입니다.(교회 정사, 4:540 참조) 교회는 안전한 항구입니다. 우리는 정의로 보호되고 자비로 위안을 받을 것입니다.(앨마서 34:15~16 참조) 거룩하지 않은 어떠한 손도

이 사업이 발전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76:3)

우리는 세상의 상황에 대해 눈먼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말일의 “고통하는 때”(디모데후서 3:1)에 대해 예언하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에베소서 6:12)고 경고했습니다.

이사야는 또한 이같이 약속했습니다.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네게서 멀어질 것인즉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네게 가까이하지 못할 것이라”(이사야 54:14)

주님께서는 직접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그러므로 기운을 내어 두려워 말라. 나 주가 너와 함께하며 너희 곁에서 있을 것임이니라. 그리하면 너희는 나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간증하리니,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에도 계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간증하리라.”(교리와 성약 68:6)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찬란한 아침이 밝아옴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그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시기였으며, 지금도 그렇습니다. 전능자의 사업 속에서 새 날이 도래하였습니다.



**정**말로 훌륭하지 않았습니까? 리리엘 도미시아노 자매와 합창단에게 감사드립니다. “내 구주 살아 계시다” 이 얼마나 훌륭한 신앙의 표현인지요. 감동적이고 훌륭한 음악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먼저 교회 회원들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동안 여러분이 힝클리 자매와 제게 보여 주신 큰 친절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상냥하고 관대하셨으며 지금도 그러합니다.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들에 저희는 감동 받았습니다. 저희가 대접 받은 대로 온 세상이 대접 받는다면, 참으로 이 세상은 다른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위안과 병고침을 위해 팔을 내미셨던 주님의 영으로 서

로를 보살펴야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조금 전에 패커 회장님께서 할아버지로서 여러분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분이 말씀했던 내용 중 한 부분을 주제로 삼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지금은 노인으로, 여러분에게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패커 장로님보다 더 늙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살아오면서 멀리 여행하고 또 이 세상의 많은 지역을 보아 왔습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 세상 곳곳에 왜 그렇게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우리 시대는 위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디모데후서 3:1)라는 말씀이 자주 인용되는 것을 우리는 들어 왔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널리 퍼져 있을 상황에 대해서도 묘사했습니다. 저는 이 말일이 참으로 바울이 묘사한 상황에 딱 들어맞는 위험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디모데후서 3:2~7 참조)

그러나 위험한 상황은 인류 가족에게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계시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피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요한계시록 12:7~9)

분명 위험 천만한 때였을 것입니다. 아침이 벌어지는 동안 우리도 그 곳에 있었습니다. 분명 어려운 필사적인 싸움이었을 것이나 우리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 필사적인 시기에 관해 주님은 폭풍우 가운데서 읊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 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욥기 38:4, 7)

그 때에 우리는 왜 행복해 했습니까? 저는 선이 악에 대해 승리를 거두고 온 인류 가족이 주님의 편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원수에게 등을 돌려 하나님의 군대에 가담했고, 그 군대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런 결정을 내렸던 우리가, 왜 필멸의 세상에 태어난 후에도 그런 일을 다시 거듭해서 겪어야 합니까?

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큰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내린 결정을 이 생에서 저버리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으로 비롯된 선과 악 사이의 경쟁이 결코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계속되어 현재까지 이어졌습니다.

시대를 지나오면서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분에게서 받은 선택의지를 행사하여 선의 길이 아닌 악의 길을 걷겠다고 선택했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분명 우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찍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악이 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노아 시대까지 증가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창세기 6:5~6) 하셨습니다.

그분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것을 명하시고 그로 인해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었습니다.(베드로전서 3:20)



지구는 깨끗해졌습니다. 홍수는 물러갔습니다. 의로움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인류 가족 중에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불순종의 오래된 길로 돌아가기까지는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의 성, 소돔과 고모라의 주민들은 인간이 빠져 버린 타락의 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완전히] 멸하”셨는데, 그것은 정말 완전하고도 철저한 멸망이었습니다.(창세기 19:29)

이사야는 큰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냄이라”(이사야 59:2~3)

구약전서의 다른 예언자들도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들의 메시지의 핵심은 악에 관한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위험은 구대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경은 서반

구에서도 야벳인들의 군대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싸웠다는 기록을 전하고 있습니다. 니파이인들과 레이맨인들 또한 수천 명이 죽을 때까지 싸웠으며, 모로나이는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홀로 떠돌아다녀야 했습니다.(모로나이서 1:3 참조) 우리 시대의 사람들을 위한 그의 위대한 마지막 호소는 의를 지키라는 외침이었습니다.

“내가 거듭 너희에게 권고하거니와, 너희는 그리스도께로 나아와 온갖 좋은 은사를 취하며 사악한 은사나 불결한 것은 손에 대지 않도록 하라.”(모로나이서 10:30)

구세주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으나(사도행전 10:38)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위선을 비난하셨습니다.(마태복음 23:27 참조) 그분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누가복음 19:46)라고 말씀하시며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을 향해

채찍을 휘두르셨습니다. 그 시대 또한 크게 위험한 시대였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로마 제국의 일부로서, 로마는 통치하는 방식에 있어서 혹독하고 억압적일 뿐만 아니라 그 내부는 악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바울은 서신을 보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악한 자의 길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 사이에 힘을 기를 것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결국 배도의 영이 널리 퍼졌습니다.

무지와 악이 전세계로 퍼져 나가, 암흑 시대로 알려진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사야는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이사야 60:2) 여러 세기 동안 질병이 창궐하고 가난이 지배했습니다. 14세기의 “흑사병”으로 인해 약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시대야말로 참으로 위험한 시대가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인류가 어떻게 살아 남았는지 의아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길었던 어둠의 시기가 지난 후에 촛불 하나가 불을 밝혔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는 학문과 예술과 과학을 꽃 피웠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신성한 아들을 인정하고 하늘을 바라보았던 담대하고 용감한 사람들의 움직임도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종교 개혁이라 부릅니다.

그런 다음에도 여러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갈등과 증오, 어둠과 악 속에서 지낸 후에 비로소 회복의 위대한 새 날이 찾아왔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날은 아버지와 아들이 소년 요셉에게 나타나심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때가 찬경륜의 시대의 새벽이 지상에 찾아온 것입니다. 이전의 경륜의 시대에 존재하던 선하고 아름답고 신성한 모든 것이 이 가장 눈에 띄는 시대에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악도 있었습니다. 그 악의 한 형태는 박해였습니다. 증오도 있었습니다. 겨울철의 추방과 강제적인 이동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찰스 디킨즈가 자신의 저서 두 도시 이야기(*Tale of Two Cities*)의 서두에서 묘사한 상황과 같았습니다. “그것은 가장 좋은 시대이기도 하고, 가장 나쁜 시대이기도 했다. 빛의 시대이기도 하고, 어둠의 시대이기도 했다. 희망의 봄이기도 하고, 절망의 겨울이기도 했다.”

시대의 커다란 악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시기였으며, 지금도 그렇습니다. 능자의 사업 속에서 새 날이 도래한 것입니다. 그 사업은 성장하고 강화되어 지상 곳곳으로 퍼졌습니다. 그것은 수백만 명의 생활에 선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위대한 여명은 또한 엄청나게 많은 세속적인 지식을 세상에 부여주었습니다.

수명 연장에 관해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 의학의 기적에 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경탄할 뿐입니다. 학문의 발전에 관해 생각해 보십시오. 여행과 통신의 기적적인 발전에 관해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또 빛과 지식을 부여하실 때, 인간의 창의력은 그 끝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분쟁이 있습니다. 끔찍한 빈곤, 질병, 증오가 있습니다.



인간은 아직도 서로를 대함에 있어 몰인정하고 잔인합니다. 하지만 이 영광스러운 새벽이 왔습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었습니다.(말라기 4:2)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그분들을 경배합니다.(요한복음 4:24) 우리는 그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분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영원한 신권의 열쇠는 과거에 닫혀 있던 속박의 문을 열었습니다.

*동트니 날이 밝는다*

*보라 시온 기 날린다.*

*찬란한 아침이 온다*

*하루의 시작 장엄하게*

(“동트니 날이 밝는다”, 찬송가, 4장)

지금 이 위험한 시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위험한 때입니다. 그러나 인류는 지구가 창조되기 전부터 위험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모든 어둠 속에서도 어느 정도 희미하나마 아름다운 빛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빛이 광채를 더하여 세상을 비추고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행복의 계획과 구속주의 속죄라는 위대하고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생활하기만 한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모든 위험 속에서도 그분의 자녀들을 친절히 보살피사 그분의 왕국에서의 구원의 기회와 승영의 축복을 가져다주실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해야 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나 이 일은 중요하고도 힘든 책임을 우리 개개인에게 부과합니다. 1894년에 월포드 우드럽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계시를 받게 될 것입니다. ... 저는 살아 있는 동안 저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고 싶습니다. 또한 말일성도들이 그들의 의무를 다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거룩한 신권이 있습니다. 그들의 의무는 훌륭하고 위대합니다. 하나님과 모든 거룩한 예언자들의 눈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여러 차례 언급된 위대한 경륜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 하나님의 권세와 계명에 의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고 있습니다. ... 우리의 사명을 성취합니다.”

(James R. Clark, comp., *Messages of the First Presidency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6 vols. [1965~1975], 3:258)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일은 위대하고 노력을 요하는 도전입니다. 이 일은 우리 이전의 세대들이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가 한결같이 해야 할 선택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문해야 합니다.

*누가 주의 편이나? 누가?*

*지금 보일 때라*

*두렵 없이 묻노니*

*누가 주의 편이나? 누가?*

(“Who’s on the Lord’s Side?”, *영어 찬송가*, 260장)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의 엄청난 중요성을 정말로 깨닫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인

일요일 오후 모임  
2004년 4월 4일

# 속죄와 한 영혼의 가치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저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참으로 이해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한 아들이나 딸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금년 1월에 저희 가족은 비행기 추락으로 인해 손자 네이단을 잃는 비극적인 슬픔을 겪었습니다. 네이단은 러시아어권 발틱 선교부에서 봉사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사랑했으며 그것이 주님께 봉사하는 특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네이단과 그의 아내 제니퍼의 영원한 결혼을 집행해 주고 난 3개월 후에, 그는 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네이단이 세상을 떠나자 우리 각자의 마음과 생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한 의미를 말로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저

는 그분의 속죄가 저와 저희 가족에게 의미하는 바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의미할 수 있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구세주의 탄생, 생애, 겐세마네 동산에서의 속죄, 십자가에서의 고난, 그리고 요셉의 무덤에 매장되었다가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를 주는 실제 사건들이었습니다. 구세주의 부활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도 언젠가는 그분을 따르게 될 것이며 우리 자신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온 인류의 구세주요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많은 은혜를 통해 오는 평안과 위안은 얼마나 위대한 은사입니까. 그분 덕분에 우리는 네이단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영웅적인 속죄보다 더 큰 사랑의 표현은 없습니다. 창세 이전에 마련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아니었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온 인류는 영원한 발전이라는 소망도 없이 내버려졌을 것입니다. 아담의 범법의 결과로 필멸의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으며, (로마서 6:23 참조) 죽음의 시슬을 풀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는 한 영원히 분리된 상태에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는 자로서 온 인류의 죄를 스스로 저야 하는 분의 대속 희생

간의 모든 세대의 완성이자, 인류가 한 경험 기록 전체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우월한 위치에 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그것은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마태복음 19:19)라고 가르치신 주님의 영 속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피할 수 없는 책임을 우리에게 부과합니다. 우리는 독선을 던져 버리고 웅졸한 이기심을 던지고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지상에서 주님의 왕국을 건설하면서 주님의 사업을 전진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시를 통해 밝혀진 교리들을 결코 타협할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존중하고, 그들의 미덕을 칭찬하며, 그릇된 풍조, 분쟁, 증오 등 태초부터 인간과 함께 있어 온 모든 위협에 반대하는 일에 힘을 모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리의 어떤 요소도 포기하지 않은 채, 우리는 이웃이 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친절하고 넉넉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대에 속한 우리는 전에 있었던 모든 추수의 마지막 결과입니다. 그저 이 교회의 회원으로 알려지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엄숙한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책임을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완수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는 약을 선으로 보답하며, 주님의 길을 모범으로 가르치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개요를 말씀해 주신 크나큰 봉사를 성취하면서,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을 품고,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사람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모든 위협 속에서도 지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빛과 지식, 그리고 영원한 진리라는 영광스러운 은사를 누리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특별하고 훌륭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특히 충실하십시오. 제가 이 사업이 참됨을 간증하는 것처럼 이것이 저의 겸손한 간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대 예루살렘에서 이 희생을 완수하셨습니다. 겹세마네 동산의 외딴 곳에서, 구세주께서는 마디가 많고 뒤틀린 감람나무 사이에 무릎을 꿇고, 우리 중 아무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세상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의 생애가 깨끗하고 죄로부터 자유로웠지만, 그분은 여러분과 저와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한 최후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의 정신적, 정서적 및 영적 고통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모든 땀구멍에서 피를 쏟게 했습니다.(누가복음 22:44; 교리와 성약 19:18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신앙을 갖고, 죄를 회개하고, 합당한 신권의 권능을 가진 자로부터 침례를 받고, 확인에 의해 깨끗하게 하는 성신의 은사를 받고, 필요

한 다른 모든 의식을 받음으로써 우리 모두가 깨끗하게 씻겨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려고 기꺼이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구세주께서는 또한 고문의 고통과 잔인하게 매맞는 일을 견디어 내시고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최근 이 문제에 대해 많은 해석이 있었지만, 그 중 어느 것도, 아무도 구세주의 목숨을 취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중요한 요지를 분명하게 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위한 속전으로 목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에게는 상황을 변화시킬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전은 그분이 인간의 자녀들에 대한 위대하신 사랑으로 자신을 내주고, 채찍질과, 모욕과, 고통을 당하셨으며,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 주고 있습니다.(니파이일서 19:9~10 참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에게 주어진 지상에서의 사명과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분의 계획에서 필요 불가결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 중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버지로서의 본능을 참으셨다는 것에 대해 얼마나 감사해야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에 대한 그분의 영원한 사랑으로 인해, 그분은 예수께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기로 한 예임된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부활과 불멸의 은사는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하거나 악하거나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주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분에 대한 사랑과 신앙을 나타내 보이고, 속죄의 충만한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면전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인 승영과 영생이라는 약속을 추가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구세주의 인자한 속죄의 희생을 생각할 때의 느낌을 표현하는 다음과 같은 찬송가를 부릅니다.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에 놀라며  
주 내리신 큰 은혜에 나 당황하네  
이 죄인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큰 사실을 알 때 맘 심히 떨리네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 찬송가 111장)

온 인류의 구세주요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돌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 계십니다. 그것이 제 간증입니다. 그분은 오늘날 이 교회의 일들을 인도하십니다.

1820년 봄, 빛 기둥이 뉴욕 북부에 있는 한 숲을 비추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경험으로 인해 수세기 동안 잃어버렸던 강력한 교리적인 진리들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배도의 어둠으로 인해 잃어버렸던 진리들 가운데는 우리가 모두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아들과 딸이었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 가족의 일부입니다. 그분은 상징적이거나 시적인 의미에서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를 염려하십니다. 이 세상은 남자와 여자의 가치를 저하시키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모두 왕과 하나님의 혈통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성스러운 숲에 나타나신 비할 데 없는 사건에서, 우리 모두의 아버지께서 처음 하신 말씀은 요셉이라는 개인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와 개인적으로 갖고 계신 관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며 우리가 다시 돌아와 그분과 함께 살기에 합당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복음의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택하

신 예언자를 통해, 앞으로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해 집합하게 될 의식과 신권의 권능을 다시 한번 계시해 주셨습니다.

다른 시대에 살았던 다른 예언자는 "땅에 있는 국민들"을 보았습니다.(모세서 7:23 참조) 또 주께서 "모든 일 곧 세상의 끝날까지 있을 일을 에녹에게 보이"(모세서 7:67)셨습니다. 에녹은 또한 사탄이 "손에 큰 사슬을 쥐었는데 그 사슬이 온 지면을 암흑으로 덮었고 [사탄이]바라보고 웃"(모세서 7:26)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녹이 본 모든 것 중에, 무엇보다도 그의 주의를 끌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나머지 백성을 보시며 우시"(모세서 7:28)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룩한 기록에서 에녹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우실 수 있사옵니까? 어떻게 당신께서 우실 수 있나이까?"(모세서 7:29, 31)

주님은 에녹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네 형제들을 보라. 저들은 내 손의 솜씨니 내가 저들을 만드는 날에 저들에게 ... 서로 사랑하고 나 저들의 하나님을 택하라는 계명을 주었도되, 저들에게는 아무런 애정도 없이 자신의 혈족을 미워하는도다."(모세서 7:32~33)

에녹은 이 말의 상태를 보았습니다. 그와 다른 초기 예언자들은 우리가 자신의 삶에서 속죄를 받아들이고 복음에 따라 생활하려고 노력할 때에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평안과 기쁨, 그리고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위대한 은사를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각 자녀가 개인적으로 추구해야 할 일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참으로 이해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한 아들이나 딸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를 위해 갖고 계신 영원한 목적이 대개는 우리가 행하는 작고 단순한 것을 통해 성취된다고 믿습니다. 영어로 속죄(Atonement)라는 단어에서 핵심이 되는 말은 중간에 있는 *하나(One)*라는 말입니다. 온 인류

가 이 사실을 이해할 경우, 연령, 인종, 성별, 종교, 혹은 사회적이거나 경제적인 신분에 상관없이, 염려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결코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세주를 따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결코 불친절하거나, 무정하거나, 불경스럽거나, 무감각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속죄와 각 영혼의 영원한 가치를 이해할 경우, 빛나간 아들과 딸 그리고 빛나간 하나님의 모든 다른 자녀를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자신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알게 되도록 도울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구원을 위한 복음의 의식을 받도록 준비하는 데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속죄와 각 개인의 가치를 참으로 이해할 경우, 새로운 회원이나 재활동원 회원이 다시는 소홀히 여겨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와드와 지부 지도자들이 모든 영혼이 얼마나 중요인지 깨달을 때, 그들은 협력하여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교리를 가르칠 것입니다.

네이단을 생각하면서 그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생각할 때, 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분의 모든 자녀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더욱 분명하게 알고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된 복음의 진리를 그분의 자녀들과 나누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시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젊은이들이 속죄의 축복을 알도록 노력하고 선교 지역에서 주님을 위해 봉사하기에 합당하게 되도록 노력할 것을 간구합니다. 건강이 허락되는 더 많은 부부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이 지닌 의미를 깊이 생각한다면, 그들은 선교사로서 주님께 봉사하려는 더 큰 열의를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온 생애 동안 이 백성에게 회개를 외쳐 단 한 사람이라도 내게로 이끌어 오면 저와 더불어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맞볼 너희 기쁨은 얼마나 크겠느냐!"(교리와 성약 18:15; 강조) 그뿐만 아니라 회개한

사람에 대한 주님의 기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분에게 있어 그 한 사람은 너무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구세주의 속죄를 통해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권유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와 그의 구원에 참여하며 그의 구속의 능력을 얻기 바라노라.”(욘나이서 1:26) 그분은 우리에게 복음 원리를 충실하게 지키므로써, 회복된 구원의 의식을 받음으로써, 지속적인 봉사를 함으로써, 그리고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이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겠습니까?

서글프게도, 이 세상에서 개인의 가치는 종종 그가 공연하는 곳에 모인 관중의 규모로 판단됩니다. 그것이 바로 미디어나 스포츠 프로그램이 평가되고, 회사의 지명도가 정해지고, 종종 공무원의 계급이 정해지는 방법인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선교사의 역할은 기립 박수를 받는 경우가 드문 것 같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선교사들은 소수의 관객 앞에서 “공연”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영원히 중요한, 오직 하나의 관객만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오직 한 사람, 각 사람,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자녀 각각의 한 사람입니다. 속죄의 아이러니는 그것이 무한하고 영원한 것이지만, 한번에 한 사람씩 개인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찬송가 187장)라는 어린이 찬송가는 영원한 음악과 조화를 이룹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각자 충실할 경우,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 기쁨을 가져다드릴 수 있다는 의미에서 소중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께서 니파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신앙을 가졌으며 복되도다. 나의 기쁨이 넘치는도다.

“이같이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우시니, 무리가 이를 보고 증거하니라.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차례대로 저들을 축복하시며 아버지께 저들을 위하여 간구하시었고.”(니파이삼서 17:20~21; 강조)

형제 자매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결코,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늘 주님의 다음과 같은 간단한 권고를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요한복음 14:15)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라는 성스럽고 충만한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사랑하는 네이단과 헤어짐으로 인해 슬픔에 잠긴 우리에게 구세주이자 구속주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

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가족은 한 사람, 한 사람, 그분에게 돌이켰으며 지금은 더 큰 감사와 이해로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오, 나를 사랑하여  
죽으신 그 일 놀라운  
일일세  
주님의 업적은  
훌륭하시리라”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 찬송가 111장)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가져다주는 모든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주고 여러분 자신이 그것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 ■

# 부모의 지극한 정성을 모아: 가족들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세상이 아무리 악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가족은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행한다면 우리는 인도와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는 “고통하는 때”<sup>1</sup>에 살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곳 저곳에] 이르러 백성들의 마음을 꾀고 있으며”<sup>2</sup> 그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악해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가족은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행한다면 우리는 인도와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개척자 선조들이 자주 부른 찬송가에 있는 “팔을 걷고 용기내자 하나님 보호하리

라”는 가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해 줍니다.<sup>3</sup> 그런 용기와 신앙이 바로 이 말일에, 부모로서, 그리고 가족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리하이이는 아버지로서 그런 용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사랑했고 몇몇 자녀들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두 아들 “레이맨과 레뮤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열매를 따먹지” 않았을 때는 분명히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는 “레이맨과 레뮤엘의 일을 두렵게 생각하였으며 … 레이맨과 레뮤엘이 주님의 면전에서 쫓겨나게 될 것을 두려워” 했습니다.<sup>4</sup>

모든 부모는 그런 두려움의 순간을 맞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가르치고 돕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행함으로써 신앙을 행사할 때, 우리의 두려움은 줄어듭니다. 리하이이는 허리를 동여매고, 신앙으로,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주님의 자비하심이 저들 두 사람에게 미[칠] 것이라 느껴, “부모의 지극한 정성을 모아 [자녀들을] 권고” 했습니다. 또 그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명”했습니다.<sup>5</sup>

우리 또한 자녀들을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명할 신앙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선택이 우리의 신앙을 약하게 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합당성이 그들의 의로움에 따라 측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리하이이는 레이맨과 레뮤엘이 생명의 나무 열매를 취하기를 거부했다고 해서 생명의 나무를 따먹는 축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들이 실수를 하거나 방황할 때 실패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자녀들을 사랑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보살핀 어떤 부모도 실패자가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 기도, 노력이 자녀들의 유익에 기여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모인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은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에 따라 네 자녀에게 빛과 진리를 가르치라 … 네 집에 질서를 세우라. 좀더 근면하고 가정에 마음을 쓰게 하라”<sup>6</sup>

어느 가족도 완전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가족은 필멸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선택의지, 즉 스스로 선택하여 그 결과로부터 배우는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어느 누구나 배우자, 자녀, 부모, 또는 확대 가족 중의 한 사람이 이런 저런 방법으로, 즉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고통 받는 것을 경험할 수 있으며, 우리 자신 역시 이런 환란을 때때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필멸의 세상은 쉬운 곳이 아닙니다.

각 가족은 나름대로 특수한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어려움에 대한 답을 줍니다. 바로 그 점이 우리가 복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이유입니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과 의로움으로 양육하고, 그들에게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충족시켜 주며,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어디서 살든지 법률을 준수하는 시민이 되도록 가르쳐야



할 거룩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 남편과 아내 곧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 의무의 이행에 대해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sup>7</sup>

이런 의무를 성취하는 것이 이 말일에 우리의 가족을 보호하는 열쇠입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라고 권고했습니다.<sup>8</sup> 우리는 가족에 대해 지속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모세는 지속적인 가르침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는 그가 어려운 시기에 성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는 애굽에 있는 모든 히브리 남자 아기를 강물에 던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부모로서의 자신들의 의무를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경전에는 “믿음으로 모세가 낳을 때에 그 부모가 … 석 달 동안 숨겨 [그의 부모들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sup>9</sup> 모세가 자라 숨기기가 힘들게 되었을 때, 그의 모친 요게벳은 갈대로 정교한 상자를 만들어 역청과 나무 진을 발라 방수를 하고는 그 안에 아들을 넣었습니다. 그녀는 그 작은 배를 강 아래의 안전한 장소, 즉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곳으로 내려보냈습니다.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요게벳은 영감 받은 조력자인 15세 된 딸, 미리암을 보내어 지켜보게 했습니다. 바로의 딸인 공주가 그 아기를 발견했을 때, 미리암은 용감하게 히브리 유모를 부를 것을 제의했습니다. 그 유모는 바로 모세의 모친, 요게벳이었습니다.<sup>10</sup> 모친의 충실함으로 인해 모세는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훗날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으며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sup>11</sup>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고, 부모로서 우리의 책임을 이해하며, 어둠의 왕자인 사탄의 노함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음을 선언하는 일에서 저는 곳곳에 있는 충실한 부모들과 함께하

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신뢰합니다.

요게벳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악하고 적대적인 세상, 즉 바로가 다스리던 애굽 왕궁처럼 위험한 세상에서 우리의 가족을 키웁니다. 그러나 요게벳처럼 우리 또한 자녀를 주위에 보호 상자, 즉 “가족”이라 불리는 상자를 만들어 그들을 안전한 장소로 인도합니다. 가정과 교회는 안전한 곳에서 우리의 가르침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들을 가장 위대한 배움의 집, 즉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고 그곳에서 그들은 언젠가는 충실한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무릎을 꿇고 현세와 영원을 위해 합당한 배우자에게 인봉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배운 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될 것이며, 그리하여 영원한 가족 사업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때때로 자녀들이 우리에게서 멀어질 때, 주님은 그들을 지키기 위해 영감 받은 “미리암”과 같은 사람들, 즉 신권 및 보

조조직 지도자, 교사, 확대 가족, 그리고 합당한 친구들과 같은 특별한 조력자들을 주십니다. 때때로 영은 우리 자신의 능력을 초월해서 의사나 치료사와 같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특별한 도움을 구할 것을 부모인 우리에게 속삭여 줍니다. 그런 도움을 얻어야 하는 때와 방법도 영이 지시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족을 위한 가장 큰 도움은 복음을 통해서, 즉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신의 인도를 통해서, 교리와 원리로, 신권을 통해서 옵니다. 가족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자녀 양육의 다섯 가지 중요한 요소를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족 평의회를 가지십시오.** 때때로 우리는 자녀들을 두려워합니다. 자녀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 두려워 그들과 함께 상의하지 못합니다. 우리 가족 개개인의 삶에 진정한 관심을 보이며 가족들과 함께 상의할 때 얻어지는 아주 소중한 축복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밤이나 다른 특별한 모임의 일부로 갖는 가족 평의회에 모든 가족들을 참여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자녀들 하나하나와 개별적으로 만나 정규적으로 상담해야 합니다.

이런 일 대일 상담을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갖지 않는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아빠나 엄마 또는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관심이 없다고 믿기 쉽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말을 가로막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도움을 주고 가르쳐야 하는지를 알도록 영이 도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자신의 행동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그 행동의 결과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행동의 결과가 그들 자신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들이 이해하도록 도울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가르침을 들으려 하지 않을 때, 그리고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하도록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 놓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가족, 특히 부모에 대한 강력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스스로 돌이킨” 후에<sup>12</sup> 집으로 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거부하지 않을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시절의 그에게 피할 수 없는 오해, 갈등, 어리석음이 있었을지라도, 저는 그의 아버지가 이해하려는 측은한 마음, 유순한 대답, 경청하는 귀, 용서의 포용으로 그를 기다렸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그려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아들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따뜻한 집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경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sup>13</sup>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문을 열어 놓고 계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너를 사랑한다”, “미안하구나”, “용서해라” 등과 같은 간단한 말로 우리와 자녀들 사이에 문을 여는 것이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또한 간증드립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게 될 가정을 만드는 일을 현재뿐 아니라 영원의 관점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순종적인 자녀들에게 우리의 사랑과 고마움을 표시함으로써, 그리고 그들이 형제 자매의 회개를 기뻐하도록 도움으로써, 그들이 용서의 문을 열어 놓도록 도와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 이렇게 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경전을 우리 생활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경전의 내용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할지 모르겠는가?

여러 해 전에 저는 어린 아들에게 야렛의 동생의 생애와 경험에 관해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였지만 아들은 새겨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그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것이 너에겐 어떤 의미

가 있지?”라고 물을 때 더 효과적입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시잖아요, 요셉 미스가 숲 속에서 기도하고 응답을 얻었을 때 했던 일과 거의 비슷한 데요 뭘.”

제가 말했습니다. “너도 당시 요셉의 나이와 비슷하단다. 기도가 네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별안간 우리가 저 먼 나라에서 오래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들에 관해, 즉 그의 삶, 그의 필요 사항, 기도가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경전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모든 부분을] 우리와 자녀들에게 적용하 [도록] 자녀들을 돕는 책임은 부모로서 우리의 몫인데, 이는 [“우리 가족을 유익하게 하고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sup>14</sup>

우리는 자녀들의 모든 복음 경험을 그들의 실제 필요 사항에 적용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어려움에 닥칠 때 그들에게 성신의 은사, 회개, 속죄, 성찬, 성찬식의 축복에 관해 가르치고 있습니까? 공식적인 모임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모임이 충분히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 **매일 주어지는 가르침의 기회를 활용하십시오.**

이런 기회들은 매우 소중합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일할 때, 놀 때, 함께 고민할 때 찾아옵니다. 그 시간이 찾아올 때, 주님의 영은 우리가 말해야 할 바를 알게 도와 주고 또 자녀들이 우리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도와 줍니다.

우리 가정에 영을 지니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축복입니까! 경전을 공부하면서 친절하게 말하고, 서로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면서 기도를 통해 영을 불러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아이들을 위해 간구했을 때처럼 “두터운 신앙”<sup>15</sup>을 갖고 기도하고, 영혼의 모든 힘을 다해 금식하며, 경전을 찾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성신이 우리의 마음을 사랑과 용서, 동정심으로 채우게 함으로써 가르칠 기회를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집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런 후 **선한 목자를 신뢰하십시오.**

모세의 모친 요벳은 “우리 영혼의 목자”<sup>16</sup>를 믿는 신앙을 갖고 아들이 강물에 흘러내려가도록 인도했습니다. 부모로서의 우리 또한 우리를 인도하고 지시하는 선한 목자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시야는 그분이 젊은이들에 대한 책임을 지닌 모든 사람들을 “온순히 인도”<sup>17</sup>하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분은 자녀들이 현명하지 못한 결정을 내릴 때조차 우리가 선택의지, 상대되는 것, 그리고 속죄의 원리들을 믿고 존중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자녀들의 삶에서의 모든 어려움, 시련, 환란을 그들이 누구인지를 앞으로써, 즉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함으로써 극복하도록, 그분의 영을 통해 우리가 그들을 가르치게 도우실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sup>18</sup> “원수의 불화살”을<sup>19</sup> “믿음의 방패”<sup>20</sup>와 “성령의 검”<sup>21</sup>을 가지고 견딜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 우리에게 영감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자녀들이 영적으로 무장되고 강화될 때, 그분은 그들을 축복하셔서 충실하게 끝까지 견디고 집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면전에 합당하게 서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가족들이 필멸의 세상에서 돌팔매와 화살을 경험하는 것을 보는 슬픔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내리신 구세주의 사랑에 크게 놀라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분으로 인해 매질이 그들을 망가뜨리거나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부드럽게 하고, 강화시키고, 정화시킵니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전세계 곳곳에 계신 부모와 가족들에게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치유자, 구속주이시며 아흔 아홉을 두고 하나님을 찾아 구해내시는 목자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가족 안에 있는 특별한 “사람들”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다면, 그들은 이미 그분의 팔이 미치는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에 따라 충실하게 생활하고, 성전에서 인봉되며, 그곳에서 맺은 성약에 참되게 생활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을 구하시는 그분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한 올



슨 에프 휘트니 장로의 말씀으로부터 부모들은 큰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충실한 부모들의 영원한 인봉과 진리의 대업에서 행하는 용감한 봉사에 대해 그들에게 주신 신성한 약속에 따라 그들 자신뿐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까지도 구원 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가 이보다 더 위안을 주는 교리를 가르친 적이 없었습니다. 비록 양들의 일부가 길을 잃고 헤맬 수도 있으나 목자의 눈은 그들 위에 머물며, 그들은 조만간 그들을 우리로 다시 모으려는 거룩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든지 다음 세상에서든지 그들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공의에 대한 그들의 부채를 갚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에 대한 고통을 겪을 것이며 어쩌면 가시밭 길을 걸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마침내 돌아온 탕자처럼 사랑하고 용서할 아버지의 품과 집으로 그들을 이끌기만 한다면 그 고통스러운 경험은 헛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조심성 없고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으로 그들을 불드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때까지 계속 희망을 가지고 신뢰하십시오.”<sup>22</sup>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의 모든 가족들의 구원과 승영을 가능케 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다는 저의 특별한 간증을 전해 드립니다.

부모의 지극한 정성을 모아 저는 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전해 드립니다.

우리가 주변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의 허리를 동여매고 용기]”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신앙, 용기, 그리고 사랑으로 가족은 진실로 영원히 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 주

1. 디모데후서 3:1.
2. 니파이삼서 2:3.
3. “성도들이 두려울 것 없다”, 찬송가, 16장.
4. 니파이일서 8:35~36.
5. 니파이일서 8:37~38.
6. 교리와 성약 93:42~43, 50.
7. 리아호나, 1998년 10월호, 24쪽.
8. 신명기 6:7
9. 히브리서 11:23.
10. 출애굽기 2:3~10; 또한 제리 더블류 허드, *Our Sisters in the Bible*(1983), 36~37쪽 참조.
11. 히브리서 11:24~27 참조.
12. 누가복음 15:17.
13. 누가복음 15:20.
14. 니파이일서 19:23.
15. 모시아서 27:14.
16. 베드로전서 2:25.
17. 이시야 40:11.
18. 에베소서 6:11, 13 참조; 또한 교리와 성약 27:15 참조.
19. 니파이일서 15:24; 교리와 성약 3:8; 또한 에베소서 6:16 참조.
20. 에베소서 6:16; 교리와 성약 27:17.
21. 에베소서 6:17; 또한 교리와 성약 27:18 참조.
22. 대회 보고, 1929년 4월, 110쪽.

# 주님 앞에 흠 없이 섬

클레이트 더블류 마스크 이세 장로  
칠십인 정원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 흠 없고 정결하고 흰 모습으로 설 수 있습니다.



**수**년 전, 모험심이 강한 제 아들 제프와 저는 새벽 1시에 중미의 한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버스에 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날 유일한 버스였던 아주 이른 버스를 탔던 것입니다. 한 시간 반 후에, 운전사는 두 선교사를 위해 차를 세웠습니다. 그들이 차에 올랐을 때, 우리는 도대체 이렇게 이른 시간에 어디를 가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지역 대회에 간다고 했습니다. 새벽 2시에 또다른 장로들이 버스에 탑승했고 동료 선교사들을 보고 기뻐하며 얼싸안았습니다. 버스가 외딴 산길을 오르는 동안 매 30분마다 이런 광경이 되풀이되었습니다. 새벽 5시 무렵, 우리는 16명의 주님의 선교사들과 함께하며 그들이 탑승할 때 가지고 온 영에 행복해 했습니다. 그 때 갑자기 버스가 급정거했습니다. 커다란 진창이 길을 가로막은 것이었

습니다. 제프가 물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죠, 아빠?” 친구인 스탠, 에릭, 앨런도 같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 순간 지역 책임자가 소리쳤습니다. “장로들, 감시다. 아무것도 우리를 막지 못할 겁니다!” 그러더니 재빨리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우리도 서로를 마주 보며 말했습니다. “장로들을 따릅시다.” 우리는 모두 선교사들을 따라가기 위해 진창을 건넜습니다. 때마침 건너편에 트럭이 와서 우리 모두 올라탔습니다. 그러나 그 트럭도 1마일 정도를 가다 다시 진창을 만나 멈춰 섰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트럭도 없었습니다. 지역 책임자는 대담하게 말했습니다. “나머지 길을 걸어가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있어야 할 곳에 있을 것입니다.” 수년이 지난 후 제프는 제게 그 선교사들과 그때의 경험이 자신이 아르헨티나에서 주님께 봉사하는 데 큰 영감과 동기를 부여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진창을 건너느라 우리는 모두 진흙으로 얼룩졌습니다. 선교부장님과 자매님이 꼼꼼하게 외모를 확인할 것이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지역 대회에서 선교부장 앞에 서는 것에 대해 다소 염려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진창길을 건너면서, 진흙이 묻는 것을 어찌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진흙이 잔뜩 묻은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고대 미대륙에 나타나신 주님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회개하라, 너의 온 땅에 거하는 자들아, 회개하여 내 앞에 이르러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신을 받아 정결케 되어 마지막 날에

내 앞에 흠 없이 서도록 하라.”(니파이삼서 27:20)

엘마는 진흙이 묻게 되는 몇몇 길에 대해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를 정죄할 것이요, 우리의 행위가 또한 우리를 정죄하리라. 우리는 흠 없이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를 정죄하리라”(엘마서 12:14)

엘마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 너희는 구원을 받지 [못하리니] 이는 사람이 저의 의복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구원 받지 못함이라 ... 너희의 옷이 온갖 더러운 것으로 더럽혀진 채 하나님의 전에 서게 된다면 어찌 되겠느냐?”(엘마서 5:21~22)

그는 또한 우리에게 모든 성스러운 예언자들은 “... 깨끗하고 흠이 없고 정결하고 흰 옷을 입”(엘마서 5:24)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후에 그는 인생의 진창길을 어떻게 건너야 하는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살아 왔느냐? 바로 지금 너희가 죽게 된다면, ... 너희의 옷이 백성을 죄에서 구하려고 오실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희게 되었노라고 할 수 있느냐?”(엘마서 5:27)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 우리의 의복 또는 “피부”는 물론 우리의 마음과 영혼







중앙 아메리카 지역의 한 도로에서 걸어 내려오고 있는 선교사들, 칠십인 정원회의 클레이트 더블류 매스크 이세 장로가 말한 실화의 일부.

까지도, 깨끗하고 흠이 없고 정결하고 희게 될 수 있습니다. 모로나이는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오 너희 믿지 아니하는 자들아, 주께로 돌아서며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부르짖어, 마지막 큰 날에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 흠 없이 정결하게 아름다우며 깨끗한 자로 임하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라.”(물몬서 9:6)

사무엘상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 사람은 외모를 보지 나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16:7)

야곱은 니파이인들이 레이맨인들의 외모를 본다고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한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하나님의 말씀이라. 너희는 레이맨인의 살갓이 검다 하여 저들을 욕하지 말고 ...”(야곱서 3:9)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보스톤, 오키나와, 샌 안토니오, 스페인, 이탈리아, 코스타리카 등 전세계 모든 곳에 있는 자녀들을 알고 계시며 사랑하십니다. 최근에 가나에서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은 주님께 다음과 같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 피부색이나 출생지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형제애를 갈라놓을 수는 없습니다.”(가나 아크라 성전 헌납 기도, in “Brotherhood Exists”, Church News, 2004년 1월 17일, 11쪽)

우리는 언어나 문화가 어떻게든 세계 모든 곳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 초대합니다. “... 그의 선하심을 취하게 하시고,

그에게로 나아오는 자면 검거나 희거나 속박된 자거나 자유인이거나, 남자나 여자인지를 부인치 아니하[시리니] ... 모두 하나님 앞에는 동일함이라”(니파이이서 26:33)

우리는 다양한 피부색과 모양과 크기와 환경으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 왕국에서 구원 받기 위해 부유하거나, 키가 크거나, 날씬하거나, 똑똑하거나, 아름다울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정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든,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든 상관없이 그렇게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사이야의 네 아들들이 거칠고 사나운 레이맨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자, 놀라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 많은 레이맨인들이 믿어 개심하여 주님께로 돌아왔고, 다시는 떨어져 나가지 아니 하였더라.

“의로운 백성이 된 이들은 하나님이나 그들의 형제를 대항하여 싸우지 아니하려 모반에 쓰이는 무기를 버렸더라.”(앨마서 23:6~7)

오늘날, 그들의 많은 후손들이 물몬경에서 이 구절을 읽고 있으며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제가 봉사하는 남 멕시코 지역의 여러 성전에서 흠 없이 흰 리하이의 후손들을 만나는 것을 기뻐합니다. 저는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이 과테말라시티 성전

을 헌납하실 때처럼 이렇게 느낍니다.

“친절하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의 선조 여러 세대가 크게 고통 받고 오랫동안 어둠 속을 헤맨 끝에 주님께서 리하이의 후손들을 기억해 주시니 우리 마음이 감사로 가득합니다. 당신께서 그들의 울부짖음과 눈물을 보셨나이다. 이제 그들에게 구원과 영생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과테말라 과테말라시티 성전 헌납 기도, in “Their Cries Heard, Their Tears Seen”, Church News, 1984년 12월 23일, 4쪽.)

저는 리하이의 겸손한 후손들이 산에서 성전으로 내려와 경외감에 젖은 채 소리 내어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저를 안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져다준 사랑하는 선교사들과 충실한 십일조를 바침으로써 성전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한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과 감사와 형제애의 포용을 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 흠 없고 정결하고 흰 모습으로 설 수 있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 목소리를 높여 니파이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언하며, 예언에 따라 기록하는 것은 우리들의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저들이 저들의 죄를 어떻게 사함 받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니파이이서 25:26)

제 아내와 저는 이 구절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제 아내는 자기로 된 희고 아름다운 그리스도 조각상 아래의 거실 벽에 이 구절을 적어 놓았습니다. 이것들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삶을 살도록 언제나 일깨워 줍니다.

어느 날, 아들이 자신의 가족과 함께 그 구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7살 난 손자 클레티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 이 구절은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벽에 새겨 둔 글이잖아요!”하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 구절은 손자가 좋아하는 구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손지들과 함께 템플 스퀘어의 방문자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두 살 난 애슬리가 피곤해 하며 떠나고 싶어했습니다. 마스크 자매가 우리 벽에 있는 것과 같은 큰 예수님 상을 보러 가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손녀가 물었습니다. “저만큼 큰가요?” “더 크단다” 마스크 자매가 대답했습니다. 작은 꼬마는 그 장엄한 그리스도상을 올려다보곤, 뛰어가더니 발 아래서서 몇 분 간 존경하는 눈빛으로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빠가 갈 시간이라고 하자, 손녀가 대답했습니다. “안 돼요, 아빠. 예수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안아 주고 싶어하세요!”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 영적인 진창들을 여기 저기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죄나 불완전함이 무엇이든 간에 장로들이 용감하게 진창을 건넌 것처럼 선교사들이 보여 준 열정을 가지고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 없이 설 수 있도록 진흙 자국들을 용서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매일 같이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슬리가 맞았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거룩한 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마태복음 25:21)

그분은 살아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이며 우리의 구속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결혼과 가족: 우리의 성스러운 책임

더블류 더글라스 셉웨이 장로  
칠십인 정원희

*결혼을 기피하며, 자녀를 갖지 않으려 하며, 가족이 경시되는 사회에서 우리는 결혼을 존중하고, 자녀를 양육하며, 가족을 강화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결**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와 저의 세 형제들은 업무 회의를 위해 아버지의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회의를 마친 후 떠나려 할 때, 아버지께서 우리 쪽으로 몸을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들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고 있구나. 좀더 존중하고 친절히 대하거라.” 아버지의 말씀은 제 가슴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결혼 생활과 가족 관계가 끊임없이 공격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

마는 그 두 가지를 경시와 파괴의 주된 표적으로 삼고 있는 듯합니다. 흔히 결혼을 기피하며, 자녀를 갖지 않으려 하며, 가족이 경시되는 사회에서 우리는 결혼을 존중하고, 자녀를 양육하며, 가족을 강화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결혼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배우자들 서로가 사랑하고 존경하며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성스러운 지시를 받았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아내를 사랑하여 결합하며 다른 아무 여자라도 결합하지 말라.”(교리와 성약 42:22)

예언자 말라기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말라기 2:14~15) 어려서 맞이한 아내와 생을 함께하기 위해 성약을 지키고, 지혜를 얻으며, 현세나 영원한 시간 동안 사랑을 나누는 것은 대단한 특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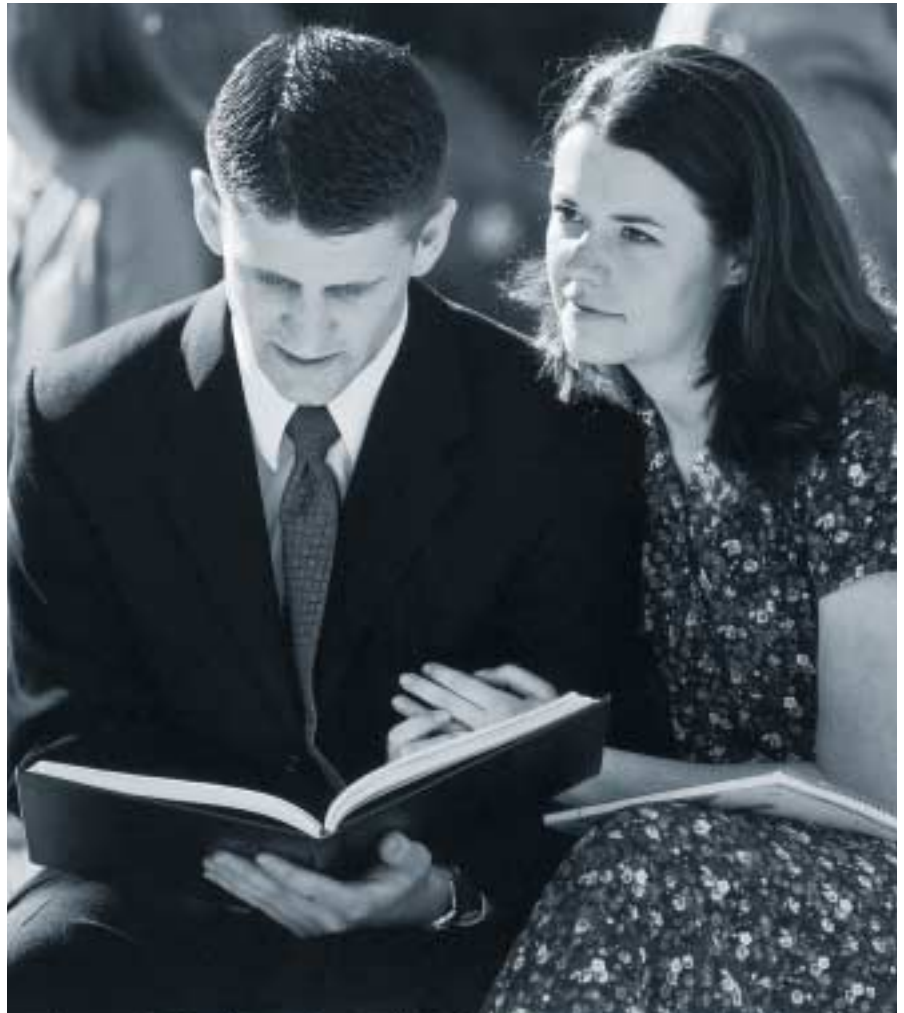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생각납니다. “사랑이란 타인의 만족과 안전이 자기 자신의 것처럼 중

요한 것이 될 때 존재하는 것이다.”(해리 스텍 설리번, *Conceptions of Modern Psychiatry*, [1940년] 42~43쪽)

결혼은 남녀 간에 사랑으로 결합하여 조화를 이루며 또 그래야 하는 관계입니다. 가족이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며, 결혼은 영원을 두고 영향을 미치는 약속과 축복들로 가득찰 수 있음을 남편과 아내가 이해할 때, 말일성도 가정에서는 별거와 이혼이란 고려할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집에서 맺은 성스러운 성약과 의식들은 그 방법을 제공할 것이며, 그 결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부모들은 다음과 같은 성스러운 의무를 맡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에베소서 6:4)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던 최초의 계명은 그들의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가 될 수 있는 잠재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1998년 10월호, 24쪽) 그렇다면 우리의 책임에는 배우자의 안녕뿐 아니라 “자식들은 여호와와 기업”(시편 127:3)이기에 자녀들을 잘 돌보는 것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그들에게] 기도할 것과 주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할 것을 가르”(교리와 성약 68:28)치기 위해 선택해야 합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고, 우리의 가정을 자녀들을 사랑하고, 훈련하며, 양육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지도자라는 외투는 편안한 외투가 아니라 책임감의 역할을 강조하는 외투입니다. … 청소년은 비판은 적게 받고 훌륭한 모범은 많이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백 년 후에는 우리가 어떤 종류의 차를 몰았는지, 어떤 종류의 집에 살았는지, 은행에 얼마나 많은 돈을 저축해 두었었는지, 어떤 모습의 옷을 입고 있었는지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어린 소년과 소녀의 삶에 선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세상은 좀더 나아질 것입니다.”(풍요한 삶을 찾아서,



1988년 성도의 빛, 1988년 8월호, 7쪽)

때로는 삶에 지치고 마음 졸이며 너무 바빠 자녀들에게 시간을 낼 수 없게 되더라도, 가정에서 우리가 지니고 있는 무한한 가치, 즉 우리의 아들 딸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진행중인 일, 업무 약속, 새로운 자동차 등도 모두 소중한 기 하지만 어린 자녀들의 영혼의 가치에 비하면 하찮은 것에 불과합니다.

존 군터라는 한 아버지는 어린 아들을 뇌암으로 잃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녀들이 아직 함께할 동안 그들을 기쁨으로 알고 더 행복해 하고 더 세게 그들을 안아 주십시오.”(*Death Be Not Proud: A Memoir* [1949년], 259쪽).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은 한 남학교의 현남식에서 연사로 말씀했던 위대한 교육자 호레이스 만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수백만 달러를 들인 이 학교가 단 한 소년만이라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

다면 그 모든 비용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모임이 끝난 후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열이 다 식었군 그래. 단지 한 소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이 곳에 들인 수백만 달러의 가치를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겠지? 호레이스 만은 그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닐세, 친구. 만약 그 한 소년이 내 아들이라면 그러한 돈을 들이는 것이 결코 많은 것은 아닐 걸세.’”(청소년의 참피온, *성도의 빛*, 1988년 1월호, 29쪽)

자녀들을 사랑하고, 보호하며, 양육하는 일은 우리가 하게 될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일들입니다. 세상적인 소유물들은 사라지게 되어 있으며, 오늘 인기 있는 영화나 노래들은 내일이면 구식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녀는 영원합니다.

“가족은 창조주께서 그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을 위하여 마련하신 계획의 중심이 됩니다.”(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따라서 부



모와 자녀들은 가족 관계를 강화하고, 나날이 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한마음으로 일해야 합니다.

저에게는 큰 대학에서 일하는 형이 한 분 있습니다. 형은 우수한 허들 경주 선수인 한 학생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장님이었습니다. 저의 형 렉스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넘어진 적은 없니?” “정확해야만 해요, 매번 뛰기 전에 거리를 가늠하죠. 한번은 그렇게 하지 않아서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어요.” 라고 그 선수는 말했습니다. 그런 뒤 그는 자신이 최고 선수가 될 때까지 그의 아버지가 허들을 가르치고, 돕고, 시범을 보이며 헌신했던 수많은 시간들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하는 팀에서 이 젊은이가 어떻게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청남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합당한 가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움을 줄 때 여러분의 가정에 선한 영향력을 크게 미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가졌던 가정의 밤을 저는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 모임에서 우리 가족 모두의 이름은 모자 안에 들어 있었고, 각자가 뽑은 이름이 다음 주 동안 그 사람의 “수호 천사”가 되었습니다. 화요일,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제가 전에 치우기로 약속했던 쓰레기가 치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제 마음을 채웠던 사랑을 상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쓰레기통에는 다음과 같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좋은 날이 되길 바랍니다-수호 천사로 부터” 그리고 금요일 저녁 침상으로 들어갔을 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막대 사탕이 스카치 테이프로 조심스럽게 싸여져 있었고, 흰 종이 위에 “아빠, 많이 사랑해요!-고맙습니다. 수호 천사로 부터”라고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최고의 정점은 일요일 오후 늦게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아름답게 꾸며진 식탁 위의 제 자리에 놓여 있던 냅킨에는 굵은 글씨로 “아빠, 최고”라

는 글과 함께 괄호 안에 “수호 천사로 부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정의 밤을 가지십시오. 이 모임을 통해 복음을 가르치고, 간증을 얻으며, 가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비록 사탄이 행복한 결혼과 의로운 가족 관계에 필요한 핵심 요소들을 파괴하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전쟁에서 공격자들과 싸워 이기는 데 필요한 도구와 가르침들을 제공한다든 사실을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배우자를 좀더 사랑하고 비이기적으로 대함으로써 결혼을 존중하고, 부드러운 설득과 가장 훌륭한 모범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지속적인 가정의 밤과 가족 기도, 그리고 경전 공부를 통해 가족의 영성을 강화시키기만 한다면, 살아 계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가족 단위를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을 인도해 주시고 승리를 가져다주시길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속죄: 모두를 위한 모든 것

브루스 시 하펜 장로  
철심인 정원희

구세주의 모든 것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함께할 때,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 “우리가 저와 같이 될” 것입니다.



오늘 벨라드 장로님의 말씀에서 아름답게 설명된 것처럼 최근에 우리 말일성도들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많이 가르치고, 노래하고, 간증을 해 왔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기쁨을 누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많이] 이야기”할 때 복음 교리의 충만함이 어두운 곳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몇몇 제 친구는 속죄에 관한 우리의 믿음이 좀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되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개신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에 근거를 둔 은혜와 행함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쪽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고

잘못 생각합니다. 그런 질문은 저로 하여금 회복이 가져다준 독특한 속죄의 교리를 오늘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배도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요셉 스미스를 통해 그분의 복음을 회복하셨습니다. 5세기 이후로 기독교는 아담과 이브의 타락을 비극적 실수로 여겼으며, 따라서 그것은 인류가 태어날 때부터 악한 본성을 갖고 있다는 믿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 견해는 타락과 인간 본성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도 그릇된 것입니다.

타락은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수나 우연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계획에서의 의도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소생”이며,<sup>2</sup> 아담의 범법으로부터 “무죄”한 채로 지상에 보내집니다.<sup>3</sup> 그러나 아버지의 계획에 따르면, 진정한 기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유혹과 비참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쓴 것을 맛보지 않으면 우리는 단 맛을 실제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sup>4</sup> 아버지처럼 되기 위한 [우리 발전의 다음 단계로서] 우리에게 필멸의 세상에서의 수련과 정련이 필요합니다.<sup>5</sup> 그러나 성장은 고통의 증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가 “여하히 노력”하는 동안과 그 후에 구세주께서 펼치시는 은혜로 가능하게 된 지속적인 과정에서 우리의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이브는 그들의 험난한 경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들은 고생하는 가족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알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속죄로 인해 그들은 정죄 받지 않고도 그들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그들의 선택을 지워 버려 그들을 무죄한 에덴 동산으로 돌려놓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즐거리도 없고 성품의 성장도 없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분의 계획은 말씀에 말씀, 은혜에 은혜를 더하는 단계적인 발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문제들과 씨름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보이실 것이고 그 연약함을 통해 우리를 더 현명하고 더 강하게 만드실 것입니다.<sup>7</sup> 만일 여러분께서 자신의 연약함을 더욱 많이 인식하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더욱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가까이 가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초기의 한 호주 개종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날의 내 삶은 꽃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는, 잡초로 우거진 광야였습니다 ... [그러나] 지금 ... 잡초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sup>8</sup>

우리는 두 가지 방법, 즉 부정적인 잡초를 제거하고 긍정적인 꽃을 재배함으로써 성장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다한다면 구세주의 은혜는 두 가지 길을 다 축복합니다. 먼저 그리고 반복해서 우리는 죄와 나쁜 선택이라는 잡초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잡초를 베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뿌리째 뽑아 버리고 자비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충분히 회개하십시오. 그러나 용서 받는 것은 우리 성장의 일부일 뿐입니다. 단지 부채를 청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해의 왕국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마음속을 깨끗이 하고 나면, 신성한 자질이라는 씨를 지속적으로 심고, 잡초를 뽑고, 영양분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의 땅과 수련이 우리를 발전시켜 그분의 은사를 충족시킬 때,



“은혜의 꽃”이 희망과 온유함처럼 피어납니다.<sup>9</sup> 생명의 나무가 이 마음의 동산에 뿌리를 내려 너무도 달콤한 열매를 맺고 “독생자의 기쁨으로”<sup>10</sup> 우리의 모든 짐을 가볍게 합니다. 그리고 이 곳에 사랑의 꽃이 필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지니신 사랑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sup>11</sup>

우리가 죄의 잡초를 이겨내고 또 신성한 꽃을 키우는 것, 이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어느 한 가지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말 얻기 어렵고, 심지어는 아주 “값비쌉니다.” 이 은혜의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충분합니까? 값진 진주를 발견했던 사람은 그것을 위해 “자기의 소유를 다” 주었습니다.<sup>12</sup> 만일 우리가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바란다면,<sup>13</sup>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런 훌륭한 보물을 얻을 만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의 말씀처럼, 우리의 길이 어떠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주신 방법대로 주어야 합니다. “얼마나 격렬한지 알지 못하니, 참으로 그러하도다. 너희는 견디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지 못하는도다.”<sup>14</sup> 바울은 “우리가 그와 함께 ... 고난도 함께 받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했습니다.<sup>15</sup> 그분께서 마음에 지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우리도 마음의 모든 것을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진주가 그분과 우리에게 그런

가치를 지닐 수 있을까요? 이 지구는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향에 돌아가서 그곳에 머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멀리 떨어진 학교에 와서 “위대한 행복의 계획”의 교훈을 터득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sup>16</sup> 주님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왜 이 계획이 우리의 희생과 그분의 희생을 바칠 만한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이브는 그것을 “우리의 구속의 기쁨”이라고 불렀으며,<sup>17</sup> 야곱은 “오직 성도를 위하여 마련된” 행복이라 불렀습니다.<sup>18</sup> 당연히 이 계획은 그분과 우리의 가치와 눈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과 우리가 완전히 함께 이 계획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반대를 이겨내고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기쁨”을 가져다줄 것입니다.<sup>19</sup>

그리스도의 속죄는 이 계획의 핵심입니다. 그분의 위대하고 값진 희생이 없었다면 본향으로 갈 방법도, 함께 있을 방법도, 그분처럼 될 방법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께서 지니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중에 어느 한 사람이 “그것을 이해라도 할” 때, 즉 잡초가 난 땅에서 눈을 들어 자신의 얼굴을 아들에게 돌릴 때 “주의 기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sup>20</sup>

오직 회복된 복음만이 이런 진리의 충만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짧은 역사에 비해 가장 큰 노력으로 진리를 은폐하려 하고 있어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우리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만들어 주는가에

관해 이 교회가 사실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적게 알고 있다고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어야 한다면, 거의 모든 것만을 주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계명을 거의 지킨다면, 우리는 축복을 거의 받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선교 사업이나 성전에 가기 위해 접견을 하기 직전까지, 즉 회개의 목욕을 하기 전까지는 죄의 진흙탕에서 뛰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법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회개를 계획합니다. 그것은 참된 회개가 허락하는 자비의 은사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손을 성전 벽 위에 놓은 채 다른 한 손으로 세상의 “부정한 것들”<sup>21</sup>을 만지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두 손 모두를 성전에 놓고 소중한 생명을 위해 꼭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한 손만으로는 거의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자 청년은 거의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구세주께서 그에게 모든 소유를 팔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재물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니었습니다.<sup>22</sup>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영생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은 오직 우리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모든 것을 바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의지에 역행하고 또 우리의 충분한 참여 없이 우리를 성장시키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완전히 바칠 때조차도 오직 하나님만이 완성할 수 있는 완전함을 만드는 권세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으로도 여전히 “거의 충분한” 정도일 뿐인데, “믿음의 주”이신 그분의 “모든 것”으로 우리가 드린 것이 완성될 때까지는 그렇습니다.<sup>23</sup> 그 시점이 되어서야 우리의 불완전하고 헌신적인 거의 모든 것들이 충분하게 됩니다.

제 친구 도나는 결혼해서 대가족을 양육할 것을 바라며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축복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녀는 와드

에서 한량 없는 동정심으로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커다란 학군에서 정신 이상 어린이들을 상담하면서 성인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불구성 관절염을 앓고 있어 정말 오랫동안 우울한 나날을 보냈으나 항상 친구들과 가족을 격려해주고 또한 그들에게서 격려도받았습니다. 한번은 리하이의 꿈에 관해 가르칠 때, 그녀는 재치 있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쇠막대를 잡고 곧고 좁은 길에 있다가 바로 그 길 위에서 피곤해 쓰러지는 제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죽기 직전에 받은 한 영감을 통해 그녀의 가정 복음 교사는 주님께서 그녀를 “받아주셨다”고 말했습니다. 도나는 울었습니다. 그녀는 독신으로서의 자신의 삶이 받아들여졌다고 느껴 본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희생을 바쳐 ... 언약을 ... 지키는 ... 자는 ... 내게 용납”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sup>24</sup> 도나를 기쁘게 들어올려 그녀의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생명의 나무에 이르는 길을 걸으시는 그분을 저는 마음으로 그려 볼 수 있습니다.

도나와 같이 정말 충분히 자신을 바쳐 그들에게는 “거의 모든 것”이 충분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 생각해 봅시다.

지속적인 거부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상처 받은 마음을 바치기를 멈추지 않았던, 유럽에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 그들입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그분을 알기 위해 치른 값이 치를 만한 특권이 있다고 말할 손수레 개척자들이 그들입니다.

최대한으로 자신의 팔을 뻗었으나 딸 아이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 얼마처럼 간구하며 주님께 겸손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오랫동안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씨앗이 결국 마음에 싹을 틔울 때까지 남편을 격려했던 아내가 그렇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께서 저를 바라보았을 방법으로 남편을 바라보려 노력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여러 해 동안 무기력한 정서적 불안정으로 고통을 받았으나 아내의 상황이 결코 “그녀의 질병”이 아니라 그에게는 항상 “우리



의 조그만 어려움’에 불과했던 남편이 그렇습니다. 결혼 생활의 영역에서 그는 아내의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sup>25</sup> 그것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무한한 영역에서 “우리의 고난으로 고통을 겪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sup>26</sup>

니파이삼서 17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멸망과 의심, 어둠 속에서 살아 남아 예수께서 계신 성전으로 갔습니다. 놀라움 속에서 여러 시간 동안 그분의 말씀을 들은 뒤에 그들은 너무나 피곤한 나머지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떠날 준비를 하실 때, 그들은 그분께서 그들 곁에 머물러 계시고 고통 받는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것을 바라며 눈물을 머금고 그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이해하지도 못했지만, 다른 어떤 것을 바라기 보다 그분과 함께 더 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더 머물러 주셨습니다. 그들의 거의 모든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거의 모든 것은 우리가 비록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우리 자신의 희생이 어느 정도 구세주의 희생과 비슷할 때 각별히 충분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맛보지 않고는 다른 사람에 대해 그분이 갖고 계신 사랑, 곧 순수한 사랑을 결코 진정으로 느낄 수 없습니다. 이는 그 사랑과 고난이 한 가지 일의 양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의 고통으로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그 고난에 참여”하게 되며

그분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sup>27</sup>

우리가 결국 그분에게서 나오는 은사를 받기 위해 치려야 하는 값이 얼마나 큰지에 압도되어 도리어 위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세주의 모든 것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함께할 때,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를 볼 것”이고 “우리가 저와 같이 [될]” 것입니다.<sup>28</sup> 저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주

1. 니파이삼서 25:26.
2. 사도행전 17:28 참조.
3. 교리와 성약 93:38 참조.
4. 교리와 성약 29:39 참조.
5. 제프리 알 홀런드, *Christ and the New Covenant: The Messianic Message of the book of Mormon*, 1997년, 207쪽.
6. 니파이삼서 25:23; 강조.
7. 이디서 12:27 참조.
8. 마서 마리아 헵프리, quoted in *Marjorie Newton, Southern Cross Saints: The Mormons in Australia*, 1991년, 158쪽.
9. “내 영혼이 햇빛을 받아”, 찬송가 153장.
10. 앨머서 33:23.
11. 모로나이서 7:48 참조.
12. 마태복음 13:46; 또한 앨머서 22:15 참조.
13. 교리와 성약 84:38.
14. 교리와 성약 19:15.
15. 로마서 8:17.
16. 앨머서 42:8.
17. 모세서 5:11.
18. 니파이삼서 9:43.
19. 앨머서 28:8 참조.
20. 교리와 성약 18:13; 강조.
21. 앨머서 5:57 참조.
22. 마태복음 19:16~22 참조.
23. 히브리서 12:2; 또한 모로나이서 6:4 참조.
24. 교리와 성약 97:8; 강조.
25. 교리와 성약 30:6 참조.
26. 교리와 성약 133:53 참조.
27. 빌립보서 3:10.
28. 모로나이서 7:48; 요한1서 3:2; 강조.

# 점점 증가하는 악 속에서 잘 사는 방법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을 계속해서 그분에게 둘 때, 여러분 주변에서 그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도록 그분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음을 우리 각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자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은 세상의 상태와 우리가 지닌 기회를 매우 분명한 시각으로 보셨습니다. 최근 두 번에 걸쳐 신권 지도자들과 보조 조직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그런 비전을 잘 말해 줍니다. 첫째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도전에 관한 것입니다.

“전통적 가족이 지금 공격 받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 우리는 오늘날 비슷한 상황을 봅니다. 그런 일들이 온 세상 곳곳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멋대로인 그분의 아들과 딸들을 내려다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sup>1</sup>

다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매우 특별한 기회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어느 누가 우리가 살고 있는 행운의 시대를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 교회는 발전하고 강화될 것입니다 ... 이 위대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이자 과제이며, 이 사업의 장래는 가히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sup>2</sup>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양손을 비틀어 짜며 장래에 대한 염려로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고, 악이 넘쳐 나는 세상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주님께서 주신 권고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어둠의 편에 집중한다면, 여러분은 어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유덕함과 의로움, 개인적 고결성, 전통적 결혼 관계 및 가족 생활을 버리고 도덕적 타락이라는 불어나는 강물 속으로 빠져 들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구약 시대의 불경스러운 삶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 영향은 국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상황이 전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사탄은 모든 형태의 대중 매체와 커뮤니케이션의 힘을 능숙하게 조작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공은 전세계적인 타락과 파멸적

인 영향력의 범위를 넓히고 그 이용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악을 찾아내려면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은 세상의 구석 구석에 악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불어나는 악의 영향력이라는 강물을 막을 수는 없는데, 이는 그 영향력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성하게 허락하신 도덕적 선택의지를 행사하는 결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영향력의 유혹적이고 파멸적인 흐름에 가까이 있는 것의 결과에 관해서는 분명하게 경고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이제 밝은 쪽을 봅시다. 악의 세력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선하고 성실한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악의 세력들이 곳곳에 퍼트린 타락한 압력에 의해 오염되지 않는 한 가지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보호의 계획에 따름으로써 유덕하고, 생산적이고, 의로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은 경전에 그리고 그분의 예언자들의 영감에 찬 선언에 들어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예지에 영을 입히셨으며 여러분이 육체의 경이로움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분께서 명하신 방법으로 그 육체를 사용한다면, 여러분의 힘과 능력은 성장할 것이고, 범법을 피해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 성스러운 숲에서 그 장엄한 시현을 통해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분들은 행복의 계획 그리고 이 계획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시 지상에 두기 시작하셨습니다. 회복에는 성경에 있는 귀중한 기록을 보충하기 위한 성스러운 경전을 추가하는 일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런 소중한 경전은 물몬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에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시대에 관해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경전을 준비하셨고 우리를 지원하기 위해 신성한 인도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 도움은 점점 증가하는 악 속





에서도 여러분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줄 것입니다.

다음 성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사는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시 우리가 당면할 어려움을 아시고 이런 권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함에 지치지 말라. 너희는 위대한 사업의 기초를 닦고 있음이라. 적은 일에서 큰 일이 생겨나느니라. 보라 주는 진심을 구하시며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요구하시나니, 기꺼이 하고자 하는 자와 순종하는 자는 이 말일에 시온의 땅의 좋은 것을 먹으리라.”<sup>3</sup>

이는 아주 값비싼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을 계속해서 그분에게 둘 때, 여러분 주변에서 그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도록 그분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바울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지혜로운 가르침을 주었습니다.<sup>4</sup>

우리는 다음 말씀을 하신 여호수아를 본받아야 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sup>5</sup>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환난 중에 인내하라. 이는 많은 고난을 겪게 될 것임이라. 그러나 이를 견디라. 보라 네 생애가 다하는 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

라.”<sup>6</sup> “충실한 자는 모든 것을 이기리니, 마지막 날에 높이 들리우리라.”<sup>7</sup>

마지막으로 성공의 패턴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와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며, 경건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부인하라. ... 너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 그의 자비하심으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리라.”<sup>8</sup>

저는 행복의 계획이 어디서나 이에 따라 생활하는 사람들 들어올리고 축복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37년 전의 성탄절 전날 밤, 보름달 빛 속에서 저는 볼리비아 키리사의 외딴 마을에 있는 작은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네 명의 젊은 장로와 저는 산 하나를 횡단하는 위험천만한 도로를 지나며 낮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당시 우리는 구세주의 가르침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며 강바닥을 힘들게 걸었습니다. 낮 동안에 보았던 것은 실망스러운 것들로, 영양 실조에 걸린 어린이들과 보잘것없는 농작물로 연명하는 성인들이었으며, 어떤 사람들은 술과 마약으로 위안을 구하며 흐트러진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래에 있는 작고 빈약한 마을은 초가 지붕에 짚과 진흙을 섞어 만든 집들이 모여 있었고, 그나마 혹독한 환경에 의해 노후된 것이었습니다. 삶의 유일한 흔적은 음식을 찾아 헤매는

개들뿐이었습니다. 그 곳에는 전기나 전화, 길, 상수도, 의사도 없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진지한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그 곳에 있어야 한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회복된 복음에 따라 살겠다는 의지를 갖고 그것을 받아들인 겸손한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빈곤, 술, 마약, 마술, 부도덕이 창궐하는 혹독한 상황 아래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한 선교사들의 인도 아래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여 밭을 경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영양가 있는 채소를 수확하고 양질의 단백질을 얻기 위해 토끼를 키웠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교훈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관해, 그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구세주에 관해 가르치는 사랑스러운 선교사들에 의해 전해졌습니다. 그들의 외모는 변하기 시작했고, 진리의 빛이 그들의 행복한 얼굴에 반영되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주님의 헌신적인 사자로서 선교사들은 끈기 있게 기꺼이 배우고자 하는 백성들에게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아내들과 남편들은 조화를 이루어 생활하고, 자녀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영의 인도를 느끼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침례식을 유심히 바라보았던 여섯 살된 한 소년이 자기가 본 대로 여동생에게 흉내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소년은 조심스럽게 여동생의 손을 쥐고 조그만 자기 손을 들어 직각을 만들고는 뭐라고 중얼거리더니, 태양에 매마른 땅에 난 구덩이 속으로 부드럽게 여동생의 몸을 낮추었으며 바위로 데려와서는 확인을 한 뒤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그 어린이들은 정말 빨리 배웠습니다. 그들은 선교사들이 그리고 나중에는 부모들이 가르친 빛과 진리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순종을 통해 저는 그 마을에서 침례를 받은 청소년들이 한 세대 뒤에 희망이 전혀 없어 보였던 장래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교사가 되고, 대학을 졸업하고, 성전에서 인봉을 받았습니다. 근면과 순종을 통해 그들은 초기의 혹독한 환경과 악으로 가득 찬 환경을 극복하고 인생에서 목적과 성공을 발견했습니다. 만일 그런 일이 볼리비아 키리사에서 행해질 수 있다면 다른 어느 곳에서도 행해질 수 있습니다.

사탄이 지나치게 변칙이는 이미지, 울려 퍼지는 음악, 모든 신체 감각에 대한 자극으로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과 정서를 사로잡는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탄은 부지런히 행동과 오락과 자극으로 인생을 가득 채우려 노력하며, 그에 따라 사람은 사탄의 유혹적인 권유에 따르는 결과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매력적인 행위들이 용인될 수 있는 것처럼 비취지기에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계명을 어기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이런 일들이 매력적으로 보이고 심지어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지기까지 합니다. 심각한 결과가 있기는커녕 도리어 영속적이고 분명한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들은 대본과 배우들에 의해 연기된 것임을 인식하십시오. 마찬가지로 내려진 결정의 결과 역시 제작자가 원하는 대로 조작됩니다. 인생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덕적 선택의지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게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를 여러분이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그릇된 창작물과는 달리,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선택한 결과를 판단하십니

다. 순종은 행복을 가져오는 반면, 그분의 계명을 어기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에게 매혹적인 삶의 모습들을 창작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그들은 대중 매체를 통해 그들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가장 부도덕한 파멸적인 영향력에 스스로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부유할 수도 있으나 양심이 없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영감 받은 예언자요 동정심 어린 아버지였던 엘마의 이런 말씀이 참으로 그들의 삶에 배어 있습니다. “죄란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닌 것이니라.”<sup>9</sup> 만일 여러분이 루시퍼의 매력적인 제의를 시험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고 있다면, 먼저 그런 선택에 따르는 필연적인 결과를 침착하게 분석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엉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행복을 파괴하고 영적 인도를 쪼먹는 비극적 결과 없이 결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살짝 맛만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죄로 인해 잘못된 길에 이미 들어섰다면, 다시 돌아가겠다고 부디 지금 결정하십시오. 여러분은 시작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행하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비록 삶이 어려워 보일지라도 젊었을 때에 진리의 쇠막대를 굳게 잡으십시오. 여러분이 깨닫는 것보다 여러분은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구세주의 계명을 지키면서 행하는 여러분의 노고는 성격과 수련, 그리고 그분들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의롭게 살기 위해 여러분이 치르는 희생을 기꺼이 치르는 사람이 너무나 적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결혼 성약 안에서 최상의 행복을 얻기 위해 감수성, 사랑, 그리고 친절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결코 자녀들에게 줄 수 없는 통찰력으로 그들을 축복할 것입니다. 세상이 더욱더 힘들어지는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모범은 자녀들의 성공적인 삶의 진로를 정해 줄 것입니다. 성장하는 주님의 왕국을 강화시

키고 빛과 진리가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 줄 모범으로서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세상적인 악을 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아십시오. 조만간 사탄은 완전히 패하고, 자신의 잘못된 악행에 대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삶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고 지속적인 순종으로 그분을 찾을 때 그분께서는 그 계획을 조금씩 여러분께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분의 아들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의 결과로부터가 아니라 선택을 자유롭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여러분이 이 필멸의 생에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게 되어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신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개인적인 인도를 구하고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을 받기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따라야 할 길을 확실히 알지 못하여 비틀거리고, 혼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안전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에 관해 증거하도록 권능을 부여 받은 그분의 사도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구세주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과 그분은 부활하신 영화로운 개체로서 완전한 사랑을 지닌 분이라는 것을 엄숙하게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희망이자 중보자이시며 구속주이십니다. 점점 증가하는 세상의 악속에서도 순종을 통해 그분이 여러분을 평안과 행복으로 인도하도록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주

1. “굳건하고 흔들림 없이 섬”, *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2004년 1월 10일.
2. “교회 현황”, *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4, 7쪽.
3. 교리와 성약 64:32~34.
4. 로마서 12:21.
5. 여호수아 24:15.
6. 교리와 성약 24:8.
7. 교리와 성약 75:16.
8. 모로나이서 10:32.
9. 엘마서 41:10.

# 폐회 말씀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 이 사업의 위대한 기본 원리들에 대한 간증이 우리 생활과 행동에서 빛을 발할 수 있기 바랍니다.



미치는 사랑과 평안, 회개하는 자세, 그리고 복음의 밝은 빛 안에서 좀더 당당하게 서겠다는 결의로 우리와 함께 남아 있기 바랍니다.

더욱 분명해진 이 사업의 위대한 기본 원리들에 대한 간증이 우리 생활과 행동에서 빛을 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과, 평화와, 서로에 대한 감사의 영이

우리의 가정에 더욱 충만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더욱 번성하고, 서로에게 더욱 후하게 나누어 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정과 존경심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모든 선한 것을 주시는 분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 되고, 우리의 구속주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되기 바랍니다.

자, 형제 자매 여러분, 망설여지지만 잠시 동안 개인적인 일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몇몇 분들은 힝클리 자매님이 안 계신 것을 알아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총관리 역원이 된 후 46년이라는 세월 중, 처음으로 제 아내가 연차 대회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초 저희는 가나 아크라 성전을 헌납하기 위해 아프리카에 있었습니다. 그 후 대서양에 위치한 살이라 불리는 불모의 섬에 도착해 그 지역 지부의 회원들과 만났습니다. 그런 다

**형** 제 자매 여러분, 거의 끝났습니다. 이 역사적인 대회를 마치는 지금, 루드야드 키플링이 쓴 불후의 “찬송가 가사”가 떠오릅니다.

“소요와 외침은 사라지고  
대장과 왕들은 떠나는데  
그 옛날 당신의 희생은 그대로네,  
우리 겸손하고 상한 심령  
만군의 주 하나님 함께하소서  
우리 잊지 않도록, 우리 잊지 않도록”  
("God of Our Fathers, Known of Old",  
영어 찬송가 80장)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때, 이 위대한 대회의 영을 가져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 곳에서 우리가 듣고 경험한 것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 모든 것이 연합하여 만사 형통하리라

수잔 더블류 태너  
본부 청년 회장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고 믿을 때, 우리의 삶에서 기적을 인식하게  
되며, 다른 사람의 삶에서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음 카리브 해에 위치한 세인트 토마스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 곳에서는 회원 중 일부 몇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아내가 피로로 쓰러졌습니다. 그 후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나이가 조금 적어 이제 아흔 둘입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그것을 되돌릴 방법은 아무도 모릅니다. 저에게는 우울한 시간입니다. 이번 달이면 결혼한 지 67년이 됩니다. 그녀는 유능하고 재능 있는 다섯 아이의 어머니이며, 스물 다섯의 손자 및 손녀 그리고 계속 성장하고 있는 증손자 및 증손녀의 할머니입니다.

여러 해 동안 우리는 나란히 함께 걸어왔으며 동등한 동반자로서 힘든 시기와 좋은 시기를 함께 겪었습니다. 그녀는 가는 곳마다 사랑, 용기 및 신앙을 전하면서 도처에서 이 사업에 대해 간증했습니다. 전세계에서 많은 여성들이 감사의 편지를 적어 보냈습니다.

우리는 계속 그녀를 위해 희망하고 기도하고 있으며, 그녀를 보살피고 돌보아준 분들과 여러분의 큰 신앙과 기도에 대해 그녀를 대신해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를 표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이 시점에,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다시 만나 볼 동안 하나님께  
함께 계셔  
혼계로써 인도하며 보호하시기를 바라네  
위험이 닥쳐올 때에  
안아주시기를 바라네  
사랑의 깃발 들고서  
죽음 이기기를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나 볼 동안 하나님께  
함께 계셔  
(우리 다시 만나 볼 동안, 찬송가 74장)

모든 남성, 여성, 그리고 아이, 소년 및 소녀들이 이 모임을 떠날 때 이를 전 이 모임을 시작 했을 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저의 축복과 사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저**는 독서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소설이 너무 격렬해지거나 주인공의 삶이 너무 위험하거나 슬프거나 복잡한 경우에는 마음이 조마조마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주인공의 결말이 괜찮은지 보기 위해 소설의 끝 부분을 먼저 읽어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 즉 자신의 소설 속에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이야기는 매우 격렬하게 느껴지고 우리 자신의 결말이 괜찮을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미리 읽고 싶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겪게 될 일들을 자세히는 모를지라도, 다행히 우리는 합당하게 생활할 때 자신의 미래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 90편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열심히 구하며 항상 기도하며 믿으라. 만일 올바르게 행하며 너희가 서로 맺은 성약을 기억하면 모든 것이 연합하여 만사 형통하리라.” 모든 것이 연합하여 만사 형통할 것이라는 주님의 이 놀라운 약속은 경전에서 여러 번, 특히 그들 자신의 인생 여정을 통해 고난 받고 있는 백성들이나 예언자들에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약속이 우리의 인생 여정 내내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야 할 이유를 주시고자 하는 다정하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할 것임을 알게 되면 “약속을 ...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히브리서 11:13) 그분의 약속에 관해 알고 그분을 믿었던 경전상의 충실한 백성들처럼 환란을 견디는데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약속을 환영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약속이 즉시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어떤 때는 몇 년 동안 간구한 후에 바라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충실한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약속을 받아들였지만 지상에 있는 동안 “약속을 받지 못”하고 “믿음을 따라 죽기도”(히브리서 1:13)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이 오직 내세에서만 성취될 것이라는 점이 사

실일 수도 있는 반면,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고, 믿을 때, 이 생에서 일이 연합하여 만사 형통할 것임을 종종 인식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사망 이후에 활동하셨던 그분의 사도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분들이 자주 그리고 잔인하게 박해받고, 돌로 맞고, 투옥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용기와 신앙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연합하여 만사 형통하게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 도중에 받은 축복과 기적들을 통해 일들이 잘되어 가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들은 지지받고, 단련받고, 보호받았습니다. 그들은 먼 약속뿐 아니라 인생에서의 약속들도 받아들였습니다.

헤롯 왕이 베드로를 투옥시켰을 때 그의 생애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동료 사도 야고보는 막 죽임을 당했으며 이제 베드로는 감옥에 내던져져 열여섯 명의 간수가 철통 같이 지켰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리버티 감옥에서 고생할 때 느꼈던 그 느낌을 베드로도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주님은 “이 모든 일은 네게 경험이 되고 네게 유익이 되는 줄 알지어다”(교리와 성약 122:7)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시련 속에서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었겠지만, 베드로는 요셉처럼 주님으로부터 축복 받았습니다.

교회의 회원들은 함께 모여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중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슬에 매여 자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그를 “급히 일으켜 세웠으며”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겨졌습니다.” 베드로는 꿈인지 생시인지 의아해 했습니다. 그는 천사를 따라 파수꾼을 지나고 쇠문을 통과하여 거리 밖으로 나갔으며, 이 때 “천사가 곧 떴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것이 꿈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기적으로 구출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는 교회의 회원들이 함께 모여 자신을 위



해 기도하고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 로데라는 이름의 여자 아이기(마치 여러분 청녀와 같은) 대문으로 와서 소리를 듣고는 베드로의 음성임을 알아했습니다. 경전에는 그녀가 “기뻐”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그녀는 너무 흥분해서 문을 여는 것을 깜빡 잊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베드로가 문 밖에서 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뛰어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으며, 그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며 다투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베드로는 계속 문을 두드리며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나와서 그를 보았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사도행전 12:4~17 참조)

이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며 계속 기도해 왔지만, 정작 주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자 크게 놀랐습니다. 그들은 기적적인 응답을 통해 보여 주신 그분의 선하심에 놀랐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에서 약속이 성취

되는 것을 인식합니까? 구세주께서 물으셨던 것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마가복음 8:18) 있지는 않습니까?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위험과 역경에 직면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헤쳐 나가고 있는 청녀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둘러싸고 여러분을 감싸줄 천사(교리와 성약 84:88 참조)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짐을 지고 갈 때 그들이 우리를 지지해 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스스로 주님의 도구가 된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서 종종 그런 천사가 됩니다. 스펜서 터블류 김벌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 주는 방법은 대체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왕국에서 우리가 서로서로 봉사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합니다.”(“There



Is Purpose in life”, *New Era*, 1974년 9월 호, 5쪽)

저는 훌륭한 청년들과 청년 지도자들,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서로를 강화시켜 주는 좋은 친구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생활에서 성취되도록 돕는 천사들입니다.

오콜라호마에 사는 일단의 청년들은 청각 장애를 지닌 꿀벌 반원 한 명을 가장 효과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했습니다. 그들은 이 청년을 돕는 일에서 그분의 도구와 손(정말 문자 그대로)이 되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꿀벌 반원 알렉시스를 돕는 천사가 되었을 때 기적이 그 와드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알렉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녀가 되는 것이 걱정도 되고 흥분도 되었습니다. 제가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수화 통역을 위해 엄마가 항상 저와 함께 다녔습니다. 기도와 노래가 끝나자 청년 회장인 호스킨 자매가 말했습니다. ‘알렉시스, 우리가 너를 위해 선물을 준비했다.’ 그러자 모든 소녀들이 일어나 수화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중에 저는 그것이 청년 주제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와드의 모든 소녀들이 저를 놀라게 해 주려고 수화를 배웠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사랑을 보여 준 이 곳 지상에 있는 홀

륭한 사람들, 특히 저를 위해 수화를 배워 제가 복음을 배우도록 도와 주는 청년들과 청년 지도자들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본부 청년 회장단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청년 회장인 호스킨 자매는 알렉시스를 도와 줄 방법을 찾기 위해 열심히 기도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와드 청년 회장이 된 지 일주일밖에 안 되었을 때 저는 꿀벌 반원 한 명에 관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시스는 청각에 문제가 있었으므로 저는 어떻게 하면 그 아이가 적응하도록 돕고 또 우리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 줄 수 있는지에 관해 고민했습니다. 여러 날 동안 여러 차례 기도를 한 뒤에 저는 꿈을 꾸다가 한밤중에 깨어났는데, 꿈 속에서 청년들이 함께 서서 청년 주제를 수화로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 기도에 대한 응답임을 알았습니다.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상호 향상 모임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매주 연습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들인 후에야 준비를 마쳤습니다. 알렉시스의 생일이 되자 모두 흥분했으며, 깜짝 파티를 해줄 생각 때문에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청년들 앞에서 알렉시스와 그녀의 어머니를 끌어당기며 ‘우리가 너를 위해 선물을 준비했다. 이제 너는 우리와 함께 있어.’라

고 말했습니다.(알렉시스에게는 수화를 하며) 그런 다음 우리는 서서 주제를 암송하고 그것을 수화로 표현했습니다. 영이 강하게 임했고 모두가 눈물을 흘리는 바람에 암송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청년들은 훌륭히 해냈습니다. 알렉시스는 너무도 기뻐했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시며,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랑을 느끼도록 돕기 위해 우리가 그분의 음성이 되고 그분의 손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봉사가 가장 큰 기쁨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많은 일이 요구되고 또 일어날 것 같지 않을 상황에서 영의 속삭임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본부 청년 회장단에게 보낸 편지)

모든 어머니가 딸을 위해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은 소망과 꿈을 갖고 알렉시스의 어머니가 여러 해 동안 어떤 기도를 드려 왔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체 장애를 가진 딸의 엄마로서 저는 아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작은 일을 더 행해 왔습니다. 딸이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종종 아이를 위해 곁에서 통역을 합니다. 청년들 모두가 제 딸을 위해 청년 주제를 수화로 말하기 시작했을 때 제 가슴에 밀려왔던 그 느낌을 여러분도 상상할 수 있으실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 곳에 서 있으면서, 마태복음 25장 40 절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 청년들이 보여 준 놀라운 사랑과 봉사는 그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수화를 배웠으며 지금은 알렉시스를 위해 교회 모임에서 통역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알렉시스가 행복하고, 발전하고, 자신이 사랑 받고 있음을 알게 해 달라고 항상 기도해 왔습니다.

“이 청년들과 지도자들의 봉사와 사랑을 보면서 부모로서 구세주에 대한 제 간증은 강화되어 왔습니다. 때때로 딸에 대한 제 염려가

무거운 짐이 되기도 했지만, 이 충실한 청년들과 그들의 현명한 지도자들이 보여 준 행동으로 인해 그 짐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 어머니는 주님의 도움을 간구해 왔고 지금은 다른 사람들, 즉 지상에 있는 천사들의 도움을 통해 딸에게 모든 것이 연합하여 만사 형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와드에 있는 다른 청년들은 이러한 봉사를 통해 어떻게 발전했는지 말했습니다. 월계반 회장은 수화로 주제를 배우는 것이 힘들었지만 노력하는 가운데 영의 도움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평상시처럼 빨리 끝내려고 대충 암송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낱말들에 관해 생각해 보았고 다른 사람들도 그 낱말들을 알 수 있도록 수화로 표현했으며, 알렉시스가 주제를 이해하고 자신도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고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청남들도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와드 상호향상 모임의 활동에서 다가올 무도회를 준비하면서 “저와 함께 춤을 추실까요?”라는 표현을 수화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배웠습니다. 결국 알렉시스는 모든 춤을 다 추었습니다. 제사들은 그녀를 위해 성찬 기도를 수화로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랑의 영이 와드 전체를 감쌌습니다.

알렉시스는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이 연합하여 만사 형통하게” 될 것을 간구하고 믿었습니다. 모든 와드나 지부, 모든 가정이나 가족에게는 신체적, 정서적, 또는 영적으로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알렉시스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주님의 도구, 지상에 있는 천사가 되어 기적이 일어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이 지니신 모든 것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하는 다정하고 사랑이 많으신 부모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고, 믿을 때, 우리의 삶에서 기적을 인식하게 되며, 다른 사람의 삶에서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연합하여 만사 형통”할 것이라는 그분의 약속을 믿게 되기를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경전과 더불어 나의 심령이 기꺼워하며”

줄리 비 벅  
본부 청년 회장단 제1보좌

매일 경전을 공부하는 습관을 갖지 않았다면, 지금 시작하시고 계속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결** 혼 초에 저는 요리 솜씨가 탁월하신 시어머님께 맛있는 롤빵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시어머님은 눈을 반짝이시며 맛있는 롤빵을 만드는 것을 배우는 데 25년이나 걸렸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지금부터 만들어 보는 게 낫겠구나.” 저는 그분의 권고에 따랐고 우리 가족은 맛있는 롤빵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 즈음에 저는 몰몬경이나 짧은 교회 역사책을 읽은 와드의 자매들을 위한 점심 만찬에 초대되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경전 읽기를 건성으로 했기 때문에, 보다 쉽고 시간도 적게 드는 짧은 역사책을 읽은 것으로 만찬에 참가

할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저는 역사책도 좋지만 몰몬경을 읽어야 한다는 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성신은 제게 경전 읽기 습관을 바꾸도록 속삭였습니다. 그 날부터 저는 매일같이 경전을 읽기 시작하여 지금껏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전문가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지만, 참으로 경전을 사랑하며 평생 동안 경전을 읽는 습관을 시작하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단지 한 번 읽거나 수업 중에 선택된 몇 구절을 읽음으로써 경전이 담고 있는 모든 교훈들을 배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롤빵 만들기는 훌륭한 가사 기술입니다. 롤빵을 구우면 향긋한 냄새가 집안 가득히 퍼집니다. 가족들에게 제가 만든 것을 나누어 줌으로써 제 사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경전을 읽을 때면 주님의 영이 집에 가득합니다. 제가 중요한 깨달음을 얻으면 가족과 나눴고 가족에 대한 사랑도 커졌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시간을 “경전을 연구하는 데 ... 바쳐야”(교리와 성약 26:1) 하며 “몰몬경과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 주어진 것이라”(교리와 성약 33:16)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자매들은 가정에서 복음 교리를 가르치는 교사가 될 수 있으며, 교회의 지도자와 교사로서 복음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아직 매일 경전을 공부하는 습관을 갖지 않았다면, 지금 시작하시고 이생과 영원한 시간에서 맡게 될 책임을 준비



하기 위해 계속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롤빵을 만들고 경전 읽기를 하려 했던 초기에는 언제나 성공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쉬워졌습니다. 제게는 적절한 기법을 익히고 그 과정을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열쇠는 일단 시작한 후에 반복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경전 공부를 시작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경전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니파이일서 19:23 참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좀더 알고자 하는 주제를 주제별 색인에서 선택하여 읽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전의 한 복음서를 선택하여 처음부터 읽어 나가면서 구체적인 가르침을 찾습니다. 한 예로, 저는 청년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경전을 새로 구입하여 읽으면서 표지를 했고, 제 부름에 도움이 될 성구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때로는 경전에 색지로 표시하여 공부 중인 주제나 테마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저는 매주 성찬식 동안 묵상하며 회개와 속죄에 관한 좋아하는 구절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라벨을 붙여 두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배우는 것도 기록해

둡니다. 때로 저는 그러한 노트를 경전 속에 넣어 두기도 하고 때로는 별도의 공책에 적어 두기도 합니다.

이따금 저는 새 몰몬경을 구입합니다. 새 책을 읽기 시작할 때는, 여백에다 공부하며 배운 것을 적어 두어 기록을 남깁니다. 저는 배운 것을 잘 기억해 낼 수 있도록 그 생각들을 선으로 연결해 둡니다. 경전 구절에 색칠하고 핵심 단어에 밑줄도 긋습니다. 서로 관련된 아이디어를 발견하면, 그러한 아이디어를 연결할 성구 고리를 만들어 둡니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56~59쪽 참조) 저는 제 경전을 학습장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감을 얻은 장소나 가르침을 준 사람의 이름까지 기록합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그 구절을 다시 읽을 때 그 기억도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중에는 외국어를 공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언어로 몰몬경을 읽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새롭게 배우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즉 자신이 누구이며, 삶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합니다. 제 친구는 경전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 보신 질문을 찾아보고 그것들에 대해 상고해 보라고 제안했습니다.(John S. Tanner, "Responding to the Lord's Questions", *Ensign*, 2002년 4월호, 26쪽) 그 후로 저는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 [인가]?"(니파이일서 11:2), "...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마태복음 22:42) 등과 같은 많은 중요한 질문을 찾았습니다. 저는 제 경전 뒷장에 그 질문 목록을 적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따금 조용할 때 그 중 하나를 택해 깊이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 마음이 밝아져 "성경을 깨닫게"(누가복음 24:45)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전이 주변에 없을 때에는 기억을 돌이켜 보는 것으로 공부를 시작합니다. 신앙개조나 다른 성구들을 암송함으로써, 저는 그것들을 기억 은행에 간직해 둘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떠한 방식으로 경전 공부를 시작하건, 중요한 지식을 푸는 열쇠란 계속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경전의 가르침은 "말로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간결해[기]"(니파이일서



32:7) 때문에 경전에서 진리의 풍성한 보화를 찾아내는 일에 결코 지친 적이 없습니다. 경전은 “[우리가] 행해야 할 바를 모두 전해 주며”(니파이이서 32:3)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는”(요한복음 5:39) 것이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디모데후서 3:15) 것입니다. 저는 경전 공부에 따른 경전 읽기와 기도를 통해, 평화를 가져다주는 지식을 얻게 되었으며, 제 힘을 영속적인 우선 순위에서 집중하도록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전을 매일 읽기 시작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으며, 제가 그분들처럼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저는 성신에 대해서도 배웠으며 어떻게 그분과 동반할 수 있는지도 배웠습니다. 또한 제 자신이 하나님의 딸이라는 정체성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결국 제가 누구이며, 왜 이 지상에 있으며, 제 삶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소년 시절에 마음을 짓누르는 큰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는 경전을 읽기 시작했고 그 곳에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야고보서 1:5)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의 어느 구절도 이 때의 이 글처럼 나의 마음속에 힘 있게 임한 일은 없었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반복적으로” 되새겼습니다.(요셉 스미스서 2:12) 요셉은 자신이 경전에서 읽은 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과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배웠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누구였으며, 왜 이 지상에 있으며, 이생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경전은 니파이가 목숨을 걸고 얻고자 했을 만큼 중요합니다. 그는 “보고 듣고 알기를”(니파이일서 10:17) 원했습니다. 그는 “[경전을] 살펴보고 그 기록이 귀중하고 ... 소중한 것임을 알았습니다.”(니파이일서 5:21) 그는 경전에서 “주님이 다른 곳에서 옛날 백성들에게 베푸신 일”(니파이일서 19:22) 관해 배웠습니다. 그는 경전 공부를 시작했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과,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배웠습니



다. 그는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저는 교회의 청녀들을 크게 신뢰합니다. 매일같이 경전을 읽고 공부하는 습관을 갖고 계속한다면, 여러분은 “기록된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 곧 성스러운 경전을 믿게 될”(힐라맨서 15:7)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에 대한 이해와 간증을 가진 다음 세대를 준비시킬 어머니와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경전에서 가르친 것들로 인해 계속해서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신앙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경전 읽기가 아직 습관화 되어 있지 않다면, 바로 오늘이 그것을 시작할 가장 좋은 날입니다. 맛있는 롤빵 만들기를 배우는 데 실제

로 25년이 걸리지 않았습니 다. 단지 시작하기 위해 격려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집에서 만든 롤빵은 가족들에게 많은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기쁨은 제가 아주 오래 전에 시작한, 매일 경전을 읽는 습관에서 왔습니 다. 어떤 날에는 오랫동안 경전을 상고할 시간이 있었고, 어떤 날에는 단지 몇 구절만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도 니파이의 다음 말씀과 같은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경전과 더불어 나의 심령이 기꺼워하며 나의 가슴[마음]이 이를 깊이 사모함이라 ... 보라, 나의 심령은 주님의 일로 즐거워하며, 나의 마음은 보고 들은 바를 끊임없이 깊게 음미하는도다.”(니파이이서 4:15~16)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믿으십시오!

일레인 에스 돌튼  
본부 청년 회장단 제2보좌

자신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인도 받으리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수** 개월 전에, 제가 성장했던 스테이  
크에서 청년들에게 말씀을 해 달  
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마  
음이 설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그 곳  
에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모임은 제가 대학  
교에 가기 전까지 다녔던 교회 건물에서 행해  
졌습니다. 오랫동안 와 본 적이 없어서, 저는  
현관문을 들어서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온갖 추억들이 홍수처  
럼 밀려왔고 저는 그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  
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일  
레인, 벌써부터 그러니?” 하지만 아버지가 감  
독으로 봉사하셨던 아름다운 대리석 계단 위의  
감독실을 보면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계단  
을 올라가자, 감독실의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  
로 들어간 저는 실내가 작은 교실로 바뀐 것을  
보면서 또다시 추억들이 밀려드는 것을 느꼈습

니다. 제 마음의 눈을 통해, 아버지가 책상 뒤  
에 앉아 계시고 어린 소녀인 제가 그 앞 의자  
에 앉아 십일조를 내던 일, 청년일 때 접견을  
하기도 하고 신권 축복을 받기도 했던 일 등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건물에 대한 제 사랑은  
제가 그 곳에서 가졌던 영적인 경험이나 느낌  
들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어린 소녀였을 때 저는 종종 감독이셨던 아  
버지와 함께 교회에 가서, 모임이나 접견이 끝  
날 때까지 아버지를 기다리곤 했습니다. 저는  
교회 건물을 살피느라 바빴습니다. 저는 그 건  
물의 모든 곳을 알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방  
중의 하나는 탐실입니다. 그 방은 가파른 계단  
위에 있던 큰 방이었습니다. 그 방 안에는 구  
세주의 그림이 큰 화로 위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 방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계단  
을 올라가 경건한 마음으로 그 안에 들어간 저  
는 의자에 앉아 구세주의 그림을 바라보며 하  
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것  
은 단순한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면  
언제나, 매우 특별한 느낌이 저를 가득 채웠고  
저는 하나님께서 어린 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곳에서 저는 믿기 시작했  
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열심히 구하며 항상 기도하며 믿으라 ... 모든  
것이 연합하여 만사 형통하리라.”(교리와 성약  
90:24) 그렇다고 모든 것이 완전해지거나 우  
리가 시련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견뎌 낸다면”  
모든 것이 형통하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

리는 “믿는 자의 본”(디모데전서 4:12)이 될  
기회를 가졌으며, 구세주께서는 “믿는 자에게  
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마가복음  
9:23)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신을 믿으십시  
오. 여러분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  
십시오. 여러분이 언제나 인도 받으리라는 것  
을 믿으십시오.

## 자신을 믿으십시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님은 여러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믿으며, 여러분의 부모님들과  
형제 자매들도 여러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  
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최상의 것을 기대하십니  
다. 여러분은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상황이 나  
쁘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위대한  
사업의 기초를 놓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사업  
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입니다.”(“준비를 위한  
시간”, 성도의 빛, 1992년 1월호, 44쪽)

헝클리 대관장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  
셨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믿습니다. 자기 본  
위적인 마음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  
다. 저는 선을 행하고, 우리가 속한 사회에 기  
여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며, 현재는 불가능하  
다고 여기는 일들을 행할 제 자신과 여러분들  
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 제가 이 세상에서 변  
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원리를 믿습니다. 그런  
변화는 아주 작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변화가 더 큰 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I  
Believe”, 탐블리, 1996년 3월호, 9쪽)

여러분은 이 지상에 살았던 청년 세대들 가  
운데 가장 위대한 세대입니다. 여러분은 이 지  
상에 오기 전에 아버지의 슬하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상에 오도록 예비되었습니다. 여러분 각자  
에게 다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주어  
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일들을 완수해야 할  
운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보이는  
의로운 모범은 세상에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함에 지치지 말라. 너희는 위  
대한 사업의 기초를 닦고 있음이라. 작은 일에

서 큰 일이 생겨나느니라.”(교리와 성약 64:33)

### 여러분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자 노력할 때, 자신이 혼자라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의로워지고 순수해지고자 노력하는 유일한 사람인 듯이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행동과 말과 외모에서 단정해지려고 노력하는 유일한 사람인 듯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자 노력하는 수천 명의 청년들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멕시코 잘라파에 사는 두 명의 청년인, 카멜리타와 로사리오도 그러한 청년들입니다. 그들은 가족 내에서 유일한 교회 회원들이며 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들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 선교사를 보내셨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생활 여건이 어렵지만, 그들은 매일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과 인도에 의지합니다.

카멜리타와 로사리오를 비롯한 청년 개개인에게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앞에 앞서 갈 것이므로 너희 오른편이나 왼편에도 있으리라. 나의 영은 너희 마음에 있겠고 나의 천사는 너희를 둘러 있어 너희를 감싸 주리라.”(교리와 성약 84:88)

### 여러분이 인도 받으리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부지런히 경전을 상고하고 언제나 기도한다면,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몽골에 사는 한 청년은 선교사들이 물문경에서 읽어주는 구절에 나오는 예언자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물문경은 아직 몽골어로 번역되지 못했지만, 선교사들이 그녀를 위해 번역해주는 대로, 그녀는 믿었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몽골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후에 그녀는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녀는 영어를 배웠고 자



신의 경전을 구입했습니다. 그녀가 우리 집을 방문했을 때, 그녀는 자신의 새 경전으로 성구들을 경건하게 읽었습니다. 그녀는 경전을 사랑했습니다. 저는 모든 페이지마다 거의 모든 구절에 노란 색으로 밑줄이 쳐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사란체척 자매님, 자매님 경전은 마치 금판처럼 보이네요.” 그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만 밑줄 쳤어요.” 경전의 모든 성구를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경전은 우리 질문에 답을 주며, 우리에게 모델과 영웅들을 제시하며, 어려움과 시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여러분이 읽는 경전 구절이 간구하던 기도의 응답이 될 때가 많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나이였을 때, 아버지가 몹시 편찮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단지 감기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는 더욱

심해지셨습니다. 그 때 저는 “항상 기도하는” (니파이이서 32:9)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정으로 배웠습니다. 저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를 했고, 하나님 아버지께 제 아버지를 낫게 해 달라고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기 위해 조용한 곳을 찾아 다녔습니다. 몇 주간 시름시름 앓으시던 아버지는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고 두려웠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 간절한 기도를 듣지도 응답하지도 않으신다고 느꼈습니다. 제 신앙은 흔들렸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 이렇게 여쭙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정말 계십니까?” 여러 달 동안 저는 도움과 인도를 받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저는 가족을 위해 기도했고, 왜 아버지가 낫지 않았는지 이해하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동안 제게 하늘이 침묵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함께 도움과 인도를 받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저 또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 달이 지난 어느 날, 성찬식에서 제가 구하던 응답이 경전 구절을 통해 주어졌습니다. 연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잠언 3:5~6) 어떤 느낌이 제게 왔고 그 예배당 안에 저 혼자 있는 듯했습니다. 그것이 제게 주어진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경험은 수년 전의 일이지만, 저는 아직도 그것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간증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신뢰할 때 “모든 것이 연합하여 만사 형통하라”는 것을 압니다.

사도 바울이 어린 친구였던 디모데에게 했던 권고를 청년 여러분께 드립니다.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디모데전서 4:12)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옷차림과 말씨, 신체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 순결한 삶으로 세상과 주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 주시겠습니까? 세상은 믿음을 가진 청년들을 필요로 합니다.

구세주를 믿으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그분이 여러분을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간증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 두려워 말고 낙담 말이라  
너희 주 하나님 나 함께하리라  
힘 주고 도우어 높이 세우리라  
전능한 손으로 전능한 손으로  
내 손이 높이 널 받들겠노라  
(골도다 그 기초, 찬송가, 35장, 또한  
이사야 41:10; 43:2~5 참조)

저는 여러분 개개인이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가졌다고 믿습니다. 자신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인도 받으리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 드립니다. 아멘. ■

# 의로운 길에 머무십시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때로는 외로울 수도 있으나, 평안과 행복, 그리고 하늘의 기쁨으로 인도하는 의로운 길을 걷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아름다운 청년 여러분, 우리는 청년 회장단으로부터 영감에 찬 간증과 훌륭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재능 있고 능력 있는 지도자들입니까. 그들의 뒤에는 똑같은 능력을 가진 본부 임원들이 있으며 그들도 전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이 훌륭한 청년 프로그램을 위해 지도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릴 차례가 되었습니다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수에 저는 압도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컨퍼런스 센터에 수많은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건물들도 가득 찼습니다. 이 모임들은 이 넓은 세상, 많은 나라에 있는 집회소에

서도 방송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제 마음은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얼마나 막강한 힘입니까.

여러분은 현재의 힘이고, 미래의 희망입니다.

여러분은 지나간 세대의 결과요, 다가올 모든 세대의 약속입니다. 이미 들으신 대로, 여러분은 이 세상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같은 수천 수만의 청년이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는 뭔가 신성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생득권으로 아름답고 성스럽고 신성한 무언가가 주어졌습니다. 결코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원하신 아버지는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지만 그분의 딸로서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그분과 이야기할 때 들으시며,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조용한 시간이 되면, 저는 훌륭한 가능성을 지닌 모든 미래와, 그와 더불어 있게 될 무서운 유혹에 대해 생각합니다. 앞으로 십 년 후에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을까?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으며, 그 중 일부는 그리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옳은 일을 하느냐 그 큰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James Freeman Clarke, in *Elbert Hubbard's Scrap Book* [1923], 95쪽)

여러분은 무엇이든 생각하는 대로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각과 육신과 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작용할 때 여러분은 성취와 행복으로 이어지는 의로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데는 노력과 희생과 신앙이 요구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가능한 모든 교육을 다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너무나 복잡하고 경쟁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다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

다.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미래를 위해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최선의 재능을 다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심각한 절망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는 도움을 주는 손길이 있을 것이며, 그 도움들은 여러분이 전진하도록 격려와 힘을 줄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입원해 있는 친한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하는 여러 간호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으며, 진행되는 모든 일과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 다 알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잘 훈련되어 있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각 방에 걸려 있는 액자에는 다음과 같은 모토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훈련이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옵니까. 훈련은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

것은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전과 수련을 쌓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줍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는 원하는 훈련을 받는 데 필요한 자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을 수 있는 돈을 다 모으고, 장학금, 보조금, 그리고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으도록 하십시오.

이러한 목적으로 영구 교육 기금이 설립되었습니다. 우리는 적은 돈으로, 젊은이들이 필요한 훈련을 받을 경우 직업의 기회에서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금의 수혜자들은 훈련을 받고 대출금을 상환하여 다른 사람들도 이같은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합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보면, 훈련의 결과는 훈련을 받지 않았을 때보다 서너 배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프로그램을 모든 지역에서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커다란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의 친구들을 조심히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을 도울 수도 있고 망칠 수도 있습니다. 불우하고 곤란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때 후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친구, 즉 여러분을 격려하고, 곁에 있어 주고, 여러분이 바라는 생활을 하고, 여러분이 즐기는 것을 즐기고, 여러분이 거부하기로 한 것을 거부할 친구를 사귀고 친하게 지내십시오.

위대한 창조주께서는 행복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본능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 강력한 본능은 아름다운 경험을 하게 하기도 하고 무섭고 추악한 경험을 하게 하기도 합니다. 현재의 세상을 바라보면, 일반적으로 도덕은 무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 표준을 어기는 것은 평범한 일이 되었습니다.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랜 시간을 거쳐 입증된 원리들이 내버려지고 있습니다. 자기 수련은 잊혀지고, 성적인 부도덕의 탐닉이 너무도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평범하게 여기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교회 회원으로서 여러분의 표준은 더 높고 힘든 것입니다. 그것은 시내 산에서의 음성처럼 탐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욕망을 통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저는 주님이 회개와 용서를 마련하셨다고 고쳐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결코 치유되지 않고 흉한 자국이 남는 상처처럼 될 수 있습니다.

단정한 복장과 예절은 유혹으로부터 보호받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단정한 옷을 찾기가 어렵겠지만 노력하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때로 모든 청녀가 재봉틀을 가까이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훈련을 받았으면 합니다. 그러면 보기 좋은 자신의 옷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비현실적인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단정하면서도 매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거침 없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복장과 행동에서 참신하고 명랑하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개인 인격의 결정체인 개성으로 다른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십시오. 미소를 지으십시오. 즐기십시오. 그러나 모래위에 그어 놓은 것처럼 결코 넘어가지 않을 분명한 표준을 세우십시오.

주님은 권고를 거절하는 사람들과 “폭풍이 일고 바람이 불며 비가 내려 저희 집을 내리칠 때에 흔들리거나 넘어”(교리와 성약 90:5)지는 사람들에게 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도덕한 유흥을 멀리하십시오. 그것은 매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속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 고상한 체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흥을 깨는 사람으로 간주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청소년과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으로 생각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 뭔가 아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 마음과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취와 행복으로 이끌어 주는 의로운 길에 머물러 있을 것을 당부합니다. 좋은 친구들과 재미있게 지내십시오. 노래하고 춤추며, 수영하고 하이킹하며, 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열정과 기대에 찬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자신의 육신을 존중하십시오. 주님은 육신을 성전이라고 묘사하셨습니다. 요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문신으로 몸을 흉하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근시안적입니까! 이러한 문신은 평생토록 남습니다. 일단 문신을 새기고 나면 힘들고 값비싼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지울 수 없습니다. 저는 왜 청녀들이 그러한 일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육신을 손상시키는 이러한 일을 피하도록 권고합니다.

피해야 할 것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저는 다시 마약에 대해서도 말씀드립니다. 그것들을 시험 삼아 해 보는 일도 하지 마십시오. 더러운 질병처럼 그것들을 멀리하십시오. 그것들은 참으로 더러운 질병입니다. 결코 혼자서 잘 해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조용한 곳에서 무릎을 꿇고 그분에게 기도하는 일을 결코 주저하지 마십시오. 기도란 얼마나 놀랍고 훌륭한 것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실제로 하

늘에 계신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지만, 우리는 그 응답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너무 심각하거나 너무 하찮아 보이는 것도 들어 주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태복음 11:28) 그분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명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30절) 그 말씀은 단순히, 결국 그분의 방법은 감당하기 쉽고, 길은 걷기 쉽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로마서 14:17)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여러분 앞에 있는 등댓불과 같고 하늘에 있는 북극성과 같아야 합니다.

조지 앨버트 스미스 대관장님은 주님의 편에 머무는 것에 대해 자주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몇 년 전 연차 대회에서 말씀드렸던 이야기 하나를 다시 들려 드리고 싶습니다. 야구 선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계 여러 곳에 있는 일부 사람들은 야구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에 대해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훌륭한 교훈을 줍니다.

191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월드 시리즈가 진행 중이었으며, 그 경기는 최후의 승자를 가리는 마지막 경기였고, 점수는 1대 1 동점이었습니다. 뉴욕 자이언츠는 수비를 하고, 보스턴 레드 삭스는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타자가 높은 포물선의 타구를 날렸습니다. 두 명의 뉴욕 선수들이 공을 향해 뛰었습니다. 센터 필드에 있던 프레드 스노드그래스가 동료에게 자기가 잡겠다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는 공을 향해 힘껏 뛰었으며 공은 글러브를 향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글러브에서 약간 빛나가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관중석에서는 야유가 터져 나왔으며 팬들은 스노드그래스가 공을 놓쳤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전에 날아가는 공을

수백 개가 넘도록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공을 놓치고 만 것입니다. 결국 뉴욕 자이언츠는 지고 보스턴 레드 삭스가 이겼습니다.

스노드그래스는 다음 시즌에도 경기에 참가했으며 그 후로도 9년이나 더 눈부신 경기를 했습니다. 그는 86세까지 살다가 1974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 놓친 공 때문에 그 이후로도 62년 동안 그가 소개될 때면 언제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 공을 떨어뜨린 바로 그 사람이군요.” 불행하게도 우리는 공을 떨어뜨리는 사람을 늘 봅니다. 공부할 때 잘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학생이 있습니다만 기말고사 때만 되면 스트레스를 받아 시험을 잘못 봅니다. 매우 주의 깊게 운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의 부주의로 비극적인 사고를 저지릅니다. 신뢰 받고 일을 잘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거부할 수 없는 유혹에 직면합니다. 그에게는 완전히 지워지지 않을 오점이 남게 됩니다.

한 순간에 분노를 터뜨려 오래 지속되던 우정을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작은 죄가 점점 커져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품위 있게 생활해 오다가 한 번의 파괴적이고 늘 기억되는 도덕적 몰락이 오게 되면 그 기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든, 누군가 불을 떨어뜨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감을 충분히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나머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나는 시험해 볼 필요도 없어.” 그러나 공을 향해 달려갔을 때, 공은 글러브를 스쳐 땅에 떨어졌습니다. 물론 회개란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용서도 있습니다. 잊고 싶은 욕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을 떨어뜨린 순간은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훌륭한 소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아버지와 같은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잘 생활해 온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결코 실망하지 말고, 목표를 세우고, 표준을 잘 지키면서, 여러분의 길을 가로



막는 어떤 반대되는 유혹이나 세력에도 굴하지 말고 전진하도록 권고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낭비되지 않고 위대하고 영원한 유익을 위한 것이기를 간구합니다. 세월은 흐를 것이며 저는 여러분이 인생에서 이런 일들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의지할 사람들은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그들의 평안과 행복은 여러분의 업적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함께 계실 것이며, 그분의 딸인 여러분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수를 범할 경우, 그것은 용서

받고, 극복되고, 바로잡힐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기를 바라며, 여러분이 때로는 외로울 수도 있으나, 이 세상과 영원한 세상에서 누리게 될 평안과 행복, 그리고 하늘의 기쁨으로 인도하는 의로운 길을 걷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할 경우,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자신의 생명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 어린이들에 관한 총관리 역원들의 말씀

## 연차 대회를 삶의 일부로 삼음

**20**04년 4월 연차 대회의 말씀을 자신과 가족의 삶에 적용할 때, 개인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해 다음 제언들을 활용할 수 있거나 스스로 질문이나 활동 또는 토론에 관한 아이디어들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쪽 수는 말씀의 첫 페이지를 나타냅니다.)



### 어린이란

-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의 두 보좌는 누구일까요? 이분들은 힝클리 대관장님의 보좌로서 몇 년이나 봉사해 오셨을까요?(힌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님의 말씀 참조, 61쪽)
-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님은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언제 부름 받으셨을까요? 그분에게 그 부름을 준 분은 누구였나요?(힌트: 몬슨 부대관장님의 말씀 참조, 20쪽)
- 십이사도 정원회에 속한 분들은 누구일까요? 칠십인 회장단에는 몇 분이 봉사하고 계실까요? 칠십인 제1정원회와 제2정원회에는 몇 분이 봉사하고 계실까요?(힌트: 총관리 역원 도표 참조, 64~65쪽)
- 교회 회원 수는 대략 얼마 일까요? 연차 대회를 시청할 수 있는 교회 회원은 몇 퍼센트 인가요?(힌트: 힝클리 대관장님의 말씀 참조, 4쪽)
- 지난 해 동안 침례 받은 개종자는 얼마나 되나요?(힌트: 통계 보고 참조, 26쪽)
- “나는 보좌 주위로 거룩한 천사들과 만군을 보았네”로 시작되는 시를 지은 사람은 누구인가요?(힌트: 키스 비 맥멀런 감독님의 말씀 참조, 33쪽)

### 청소년란

- 내일 구세주께서 오실 것을 알았다면, 그분을 만날 준비를 위해 오늘 무엇을 하겠습니까? “24시간 영적 준비” 상자에 어떠한 것들을 담겠습니까?(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님의 말씀 참조, 7쪽) 몇 가지의 개인적인 목표를 세운 뒤 개인 일지에 기록해 둔다.

5번 참조



10번 참조

저활동 청소년들을 포기하지 않은 신권 지도자들에 대해 이야기 한 머빈 비 아놀드 장로.

- 사랑하는 사람의 사망 시 어떻게 화평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엠 러셀 벨라드 장로님의 생애 동안 그 분께서 이러한 것을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참조한다.(84쪽)
- 한 아르헨티나인 소녀는 선교사 비용을 대기 위해 자신이 아끼던 바이올린을 팔았습니다.(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님의 말씀 참조, 30쪽) 여러분은 좀더 충실해 지기 위해 어떠한 희생을 치를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세미나리에 정시에 도착하겠다는 결심, 또는 봉사나 경전 읽기를 더 할 시간을 갖기 위해 텔레비전 시청 시간을 줄이도록 결심할 수 있습니다.

10. 브라질의 한 신권 지도자는 한 젊은이를 다시 활동화 시키기 위해 한층 더 노력했습니다.(머빈 비 아놀드 장로님의 말씀 참조, 46쪽) 교회에 정규적으로 참석하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까? 그 친구를 격려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11.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 받기 위해 부유하거나, 키가 크거나, 날씬하거나, 똑똑하거나, 아름다워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정결해야 합니다.”라고 클레이트 더블류 매스크 이세 장로님은 말씀하셨습니다.(92쪽 참조) 우리는 어떻게 세상의 더러운 것을 피하거나 없애고 개인적인 정결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12. 하나님에 대한 의무나 개인 발전 프로그램에서 마쳐야 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까? 게이 일 엠 클레그 자매님의 마무리를 잘 하는 사람

의 예를 읽으십시오.(14쪽) 그들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시작한 활동들을 마무리 짓는 것과 끝까지 견디는 데 필요한 영감을 줄 것입니다.

### 가정의 밤 또는 개인 학습란

13. “우리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신앙과 충실함을 보는 것은 참으로 신나는 일입니다. 그들은 거대한 악의 물결이 세상을 뒤엎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2번 참조



...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수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복음의 표준을 고수하는 것을 봅니다.”라고 헝클리 대관장님은 말씀했습니다.(4쪽) 가정의 밤에 소책자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를 읽어보십시오. 초등학교 아이들과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뒤에 나오는 나의 복음 표준을 읽어 보십시오.

14.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는 이 사악한 세

상에 대해 우려하십니까? 현재 세상에 만연한 영적인 질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님의 말씀 참조, 77쪽)

15. 아버지로서 여러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엘 톰 페리 장로님의 말씀 참조, 69쪽) 어떻게 모성을 키울 수 있을까요?(줄리 비 벡 자

매님의 말씀 참조, 75쪽)

16.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고 ... 여러분을 오래 전부터 사랑해 오셨습니다. ... 여러분의 이름과 마음속의 고통과 기쁨까지도 알고 계십니다!”라고 닐 에이 맥스웰 장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44쪽 참조) 오늘 기도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시며,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기억하십시오.

17. “부채는 속박의 한 형태입니다.”라고 조셉 비 위스린 장로님은 말씀하셨습니다.(40쪽 참조) 자신이 안고 있는 세상적인 부채를 생각해보고, 재정적 자유를 위한 위스린 장로님의 다섯 가지 단계를 살펴봅니다. 또한 여러분의 하늘의 부채와 감사의 마음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십시오.

18. “신앙은 비록 우리의 힘이 부족하더라도, 그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그분에 대한 완전한 신뢰로 이루어집니다.”라고 테니스 이 시먼즈 장로님은 말씀하셨습니다.(73쪽)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특정한 어려움들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큰 신앙을 보일 수 있을까요? ■

## 읽고, 함께 나누는 이야기

말씀이나 공과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래에 나와 있는 페이지의 대화 말씀에서 자료와 영감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몇 년 만에 자신의 이야기를 마친 소년, 14쪽
- 걸어서 유타로 간 개척자, 14쪽
- 청소년에게 영향을 주는 주일학교 교사, 20쪽
-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인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 20쪽
- 찾아서 우정증진을 한 저활동 가족, 20쪽
- 부채를 청산한 사람, 40쪽
- 교회에 활동화 된 브라질 청년, 46쪽
- 북극성을 바라보는 소년 고든 비 헝클리, 49쪽
- 술 마시기를 거부한 장교, 51쪽
- 올림픽 성화를 옮긴 다발성 경화증의 남자, 54쪽
- 아들의 방문을 기다리는 미망인, 54쪽
- 사탕무 농장에서 일하는 자원자들, 58쪽
- 가나에서 봉사하는 부부 선교사, 58쪽
- 다시 교신을 하게 된 길 잃은 대대, 61쪽
- 천연두에 아이들을 노출시킨 엄마, 77쪽
- 진흙탕을 헤쳐 가는 선교사들, 92쪽
- 아버지에게서 배운 잠민 허들 선수, 94쪽
- 서로 가족들에게 봉사한 비밀 친구들, 94쪽
- 볼리비아 키리사의 사람들을 변화시킨 복음, 100쪽
- 수화로 주제를 배운 청년, 104쪽
- 공을 떨어뜨린 야구선수, 112쪽



아프리카의 관리가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책자를 받았음, 49쪽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의 농구 이야기, 54쪽

15번 참조



15번 참조



# 2004년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

네 번째 일요일 펠기세텍 신권 및 상호부조회 모임에서는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을 공부해야 한다. 매년 대관장단은 이 모임에서 사용할 참고 자료와 더불어 열 가지 주제를 정한다. 다음은 2004년을 위한 주제와 참고 자료이다. 스테이크장단 또는 지방부장단은 추가로 두 가지 주제를 선정한다.

네 번째 일요일 모임의 토론은 지정된 자료를 가운데서 정원회나 반원들의 필요 사항과 사정에 가장 알맞은 한두 가지 자료에 기초를 둔 것이어야 한다. 교사들은 참고 자료들을 모두 사용할 필요는 없다. 지도자들과 교사들은 이 모임이 강의나 발표보다는 토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들은 정원회 및 반원들에게 토론된 복음 원리들을 적용하도록 동기를 주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정원회 또는 반 토론을 준비하고 이끄는 것에 관한 제언은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과 교수법 지도서에 나와 있다.

### 1. 가족, 창조주 계획의 중심

출애굽기 20:12; 말라기 4:6; 모사이사서 27:14; 교리와 성약 93:36~40; 모세서 5: 4~5, 9~12.  
고든 비 힝클리 “가정의 밤”, *리아호나*, 2003년 3월호, 2~5쪽.  
제임스 이 파우스트, “가정의 밤을 통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함”, *리아호나*, 2003년 6월호, 2~6쪽.  
보이드 케이 패커, “인생의 황혼기”,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82~84쪽.  
엘 톰 페리, “가족의 중요성”,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2003년 40~43쪽.  
“영원한 가족”, *복음 원리* 36장.

### 2. 감사

누가복음 17: 11~19;  
모사이사서 26:38~39; 엘마서 37: 37; 교리와 성약 78:19, 98:1~3.  
데이비드 비 헤이트,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24~26쪽.  
델린 에이치 옥스, “범사에 감사하라”,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95~98쪽.  
“감사”,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짐”, *말일성도 여성상*, 제 2권, 35과.

### 3. 수고, 주님의 포도원에서

마태복음 16:24~26; 요한복음 12:26; 니파이일서 3:7; 모사이사서 2:17, 4:27; 교리와 성약 123:17.  
토마스 에스 몬슨, “네게 임명한 자리를 지킬지어다”,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54~57쪽.  
제프리 알 홀런드, “봉사하라는 부름”,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36~38쪽.  
헨리 비 아이어링, “자신의 부름을 수행하십시오”,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75~78쪽.  
“희생”, *복음 원리* 26장, “봉사”, *복음 원리* 28장.

### 4. 영적 자립 및 세상적 자립

말라기 3: 8~10; 마태복음 6: 5~13; 엘마서 37:37; 교리와 성약 88: 119.  
고든 비 힝클리, “신권 형제들에게”,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56~59쪽.  
리셀 엠 넬슨, “기도의 부드러운 힘”,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7~9쪽.  
로버트 디 헤일즈, “십일조: 영원한 축복을 가져오는 신앙의 시험”,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26~29쪽.  
“일과 개인의 책임”, *복음 원리* 27장.

### 5. 신권에 의한 축복

교리와 성약 13: 27:12; 107:39; 110:11~16; 128:20; 요셉 스미스서 2:68~74.  
보이드 케이 패커, “스테이크 축복사”,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42~45쪽.  
엘 톰 페리,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야”,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7~10쪽.  
데이비드 비 헤이트, “신권 안에서 성장함”,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43~45쪽.  
“신권”, *복음 원리* 13장, “신권 조직”, *복음 원리* 14장.

### 6. 불확실한 시대에서의 신앙 행사

히브리서 11: 야고보서 1:3~6; 할라맨서 12:1; 이더서 12:6; 교리와 성약 6:20; 59:21.

고든 비 힝클리, “전쟁과 평화”,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78~81쪽.

조셉 비 워스린, “인자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82~85쪽.

리차드 지 스코트, “불확실과 시험의 시기에 지켜 주는 신앙의 힘”,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75~78쪽.

로버트 디 헤일즈, “신앙은 시련을 통해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줌”,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15~18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복음 원리*, 18장, “순종”, *복음 원리* 35장.

### 7. 자녀 교육

예레미야 31:15~16; 누가복음 15:11~32; 요한복음1:43; 니파이삼서 17:11~24; 교리와 성약 68:25, 28.

토마스 에스 몬슨, “따라야 할 모범”,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60~67쪽.

제임스 이 파우스트, “길 잃고 헤매는 소중한 양들”,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61~68쪽.

제프리 알 홀런드, “자녀를 위한 기도”,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85~87쪽.  
“가족의 책임”, *복음 원리* 37장.

### 8. 성공적인 선교 사업

요한복음 21:15~17; 요한 1서 4:18~19; 모사이사서 28:3; 교리와 성약 4:5; 88:81.  
델린 에이치 옥스, “주께서 날 보내시기 심히 원하시는 곳은”,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67~70쪽.

엠 리셀 벨라드, “회원 선교 사업의 필수적 역할”,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37~40쪽.

엠 리셀 벨라드, “가장 위대한 선교사 시대”,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46~49쪽.

헨리 비 아이어링, “자녀와 제자”,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29~32쪽.

“선교 사업”, *복음 원리* 33장.

### 9. 성찬과 성찬식

이 주제는 4/4분기 동안 네 번째 주 안식일에 가르치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26~29;  
니파이삼서18:1~12; 모로나이서 4, 5장; 교리와 성약 59:9~14.

고든 비 힝클리, “신권 형제들에게”,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56~59쪽.

리셀 엠 넬슨, “성찬식 예배”, *리아호나*, 2004년 8월호.

델린 에이치 옥스, “우리 생활에서의 복음”,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36~39쪽.

델린 에이치 옥스,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들”, *리아호나*, 2001년 4월호, 14쪽.  
“성찬”, *복음 원리* 23장.

### 10. 그리스도의 제자 되다

마태복음 11:28~30; 갈라디아서 6:8; 엘마서 38:8~9; 교리와 성약 64:34; 101:36~38.  
토마스 에스 몬슨, “잠잠하라, 고요하라”,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53~56쪽.

제임스 이 파우스트, “속사함을 강건하게 함”, *리아호나*, 2003년 2월호, 2~7쪽.

닐 에이 맥스웰, “영육의 생명을 염려하라”,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68~70쪽.

리차드 지 스코트,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십시오”,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86~88쪽.

“회개”, *복음 원리* 19장, “우리의 재능을 발전시키”, *복음 원리* 34장.



## 아론 신권 교재 2 참고지도서

2004년 제26~50과에서 사용. 다음 참고 자료들은 제26~50과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참고 자료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는 아론 신권: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 지도서를 말한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에 있는 부분들을 공과 시간에 사용하거나 그것들을 가정에서 달성하도록 정원회 회원들을 격려한다. 공과 추가 제언들을 “*리아호나* 사용하기”에서 찾을 수 있다.

인쇄된 순서대로 공과를 가르친다. 교재에는 성탄절 특별 공과가 들어 있지 않다. 성탄절 특별 공과를 가르치고 싶다면, 구세주의 생애와 사명에 초점을 두고 있는 성구, 대화 말씀, 교회 잡지 기사, 그림, 찬송가 사용을 고려한다.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이 지도서를 인터넷에서 찾을 경우 [www.lds.org](http://www.lds.org)로 가서 홈페이지에 있는 세계 지도 아이콘을 선택한다.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고 *리아호나* 표지를 클릭한다. 그런 다음 2004년 5월호를 선택한다.

장래의 참고 지도서는 *리아호나* 5월호 및 11월호에 인쇄될 예정이다. *리아호나*(일부 언어)를 인터넷 [www.lds.org](http://www.lds.org)에서 찾을 수 있다.

### 제26과: 합당한 생각

고든 비 힝클리, “청소년들을 위한 예언자의 권고와 기도”, *리아호나*, 2001년 4월호, 30쪽. “깨끗하십시오” 부분이 공과에 있는 필름스트립 대화를 보충할 수 있다.

보이드 케이 패커, “진리의 표준이 세워졌습니다”, *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24쪽. 이 기사를 활용하여 교회가 도덕적 행동에 관한 그런 높은 표준을 갖고 있는 이유를 토론한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교사), “가족 활동”, 6번

### 제27과: 건강에 관한 주님의 율법

보이드 케이 패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85쪽. 패커 회장의 축복사의 축복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순종의 축복에 대해 토론한다.

해롤드 지 힐렘, “육신을 위하지 않는 것은”, *성도의 빛*, 1996년 6월호, 26쪽. 공과에 제언된 최근 소식 기사 대신에 저명한 치료 의사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집사), “교육, 개인 및 직업에 관한 발전”, 12번

### 제28과: 안식일

에이치 앨드리지 길레스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대한 축복”,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93쪽. 토론 시 현대 예언자들의 인용문을 추가 언급한다.

데이비드 오스카 사미엔토, “주님의 날을 존중함”, *리아호나*, 2003년 6월호, 41쪽. 공과에 있는 쿡 장로의 경험을 보충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들려준다.

“블러라 고요히 성가”, 찬송가, 94장

하나님에 대한 의무(교사), “영적인 발전”, 2번

### 제29과: 인생의 목적

더블류 크레이그 즈위크, “주 네 하나님께서 네 손을 잡아 주시리라”, *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34쪽. 신앙의 중요성에 대해 토론하면서 이 기사에 있는 가족 이야기를 살펴본다.

### 제30과: 사랑

진 알 쿡, “사랑: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91쪽. 우리가 어떻게 보다 사랑스러워질 수 있는지를 토론하면서 사랑으로 결속되는 것에 대해 쿡 장로가 준 세 가지 제언을 들려준다.

엠마누엘 플렉킨저, “아버지가 받은 용기의 훈장”, *리아호나*, 2003년 9월호, 40쪽.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 하는 예로서 이 이야기를 들려준다.

### 제31과: 용서

세실 오 사무엘슨 이세, “용서”, *리아호나*, 2003년 2월호, 26쪽. 공과에 있는 마지막 이야기를 보충하기 위해 예수님의 생애에 있었던 용서의 예들을 활용한다.

제인 맥브라이드 초우트, “용서의 조약돌”, *리아호나*, 2003년 2월호, 26쪽. 공과에 있는 세 가지 사례 연구를 토론하는 동안 용서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실물 공과를 활용한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집사), “시민으로서의 발전과 사회적 발전”, 8번

### 제32과: 성령의 은사를 발전시킴

조셉 비 워스린,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사”,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26쪽. 영적 은사를 받고 행사하는 일에서 성신의 역할을 토론한다.

“질 의 응답”, *리아호나*, 2003년 4월호, 44쪽. 간증의 은사에 대해 토론하면서 이 기사에 있는 제언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한다.

“성령 인도하시어”, 찬송가, 73장

### 제33과: 너희는 학문을 구할지어다

고든 비 힝클리, “청소년들을 위한 예언자의 권고와 기도”, *리아호나*, 2001년 4월호, 30쪽. “지식을 쌓으십시오” 부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배우기를 기대하시는지 설명해 준다.

존 케이 카머, “영구 교육 기금: 희망의 밝은 빛”, *리아호나*, 2004년 1월호, 32쪽.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 영구 교육 기금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원리를 토론한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제사), “교육, 개인 및 직업에 관한 발전”, 1번과 2번

### 제34과: 모범의 힘

고든 비 힝클리, “원방에 세우는 기, 세상을 비추는 빛”, *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82쪽. 이 말씀에 언급된 유혹들에 대해 공과 끝 무렵에 토론한다.

가브리엘 곤잘레스, “영예로운 졸업”, *리아호나*, 2003년 7월호, 34쪽. 공과에 있는 첫 이야기에 이 이야기를 추가해 사용할 것을 고려한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집사), “영적인 발전”, 12번

### 제35과: 법률을 존중하고 지키며 지지함

고든 비 힝클리, “전쟁과 평화”,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78쪽. 공과에 있는 마지막 토론 사항에 전쟁에 관한 교회의 입장을 추가할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집사), “시민으로서의 발전과 사회적 발전”, 5번; (교사), “시민으로서의 발전과 사회적 발전”, 6번; (제사), “가족 활동”, 8번

### 제36과: 범사에 감사함

델린 에이치 옥스, “범사에 감사하라”,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95쪽.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보일 수 있는지를 토론하면서 이 기사에 있는 제언을 참조한다.

후안 카를로스 로드리게스, “너무나 필요했던 비”, *리아호나*, 2003년 6월호, 40쪽. 공과에 있는 이야기들을 보충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활용한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교사), “영적인 발전”, 10번

### 제37과: 여성의 역할을 이해함

엠 리셀 벨라드, “외로운 여성”, *리아호나*, 2002년 12월호, 34쪽. 이 기사에 있는 제언이 공과에 있는 마지막 활동과 과제를 다양하게 할 수 있다.

### 제38과: 불의한 세상에서 의롭게 생활함

제임스 이 파우스트, “악마의 목구멍”,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51쪽. 공과를 시작하기 위해 이 기사에 있는 폭포의 비유를 활용한다.

존 비 디슨, “삶이 고될지라도”, *리아호나*, 2002년 5월호, 28쪽. 우리가 신앙에 충실할 수 있다는 것을 공과의 결론 무렵에서 설명할 때 네 가지 원리를 들려준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집사, 교사, 제사), “가족 활동”, 2번

### 제39과: 도덕적인 용기

토마스 에스 몬슨, “따라야 할 모범”,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60쪽. 공과의 마지막 편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 이 기사에 있는 용기에 관한 고대 및 현대의 예 몇 가지를 활용한다.

에이치 로스 워크먼, “머물게 하는 힘”, *리아호나*, 2003년 10월호, 6쪽. 도덕적 용기에 관한 이 이야기를 가지고 공과를 시작한다.

### 제40과: 유혹을 피하고 극복함

보이드 케이 패커, “영적인 악어”, *리아호나*, 2002년 10월호, 8쪽. 공과에 있는 첫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돕기 위해 이 기사에 있는 삽화를 활용한다.

“유혹에 맞서기 위해 준비함”, *리아호나*, 2003년 7월호, 25쪽. 공과를 결론 짓기 위해 이 메시지에 있는 성구 또는 인용문 중의 하나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한다.



창세기 39장; 다니엘 3장;  
마태복음 4:2~11 참조.

**제41과: 성찬: 주님을 기억함**

리셀 엠 벨슨, “성찬식 예배”,  
*리아호나*, 2004년 8월호, 10쪽.  
성찬을 집행하고 참여하는 방법에  
관한 벨슨 장로의 권고를 공과의 결론  
부분에서 살펴본다.

피터 비 가드너, “말 이상의 것”,  
*리아호나*, 2002년 2월호, 28쪽.  
공과를 다양하게 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들려준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 찬송가,  
108장

하나님에 대한 의무(집사), “정원회  
활동”, 7번

**제42과: 형제를 따름**

엘 톱 페리, “우리는 하나님에  
이제까지 계시하신 모든 것을  
믿는다”, *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85쪽. 공과의 해당 부분을  
가르치면서 계시가 어떻게 교회로  
오는지 살펴본다.

셀던 에프 차일드, “분명한 토대”,  
*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8쪽.  
공과를 시작하면서 2편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고려한다.

“예언자의 음성”, 찬송가, 12장

**제43과: 선교 사업을 위한 영적 준비**

리차드 지 스코트, “자신의 모든  
잠재력을 실현하십시오”, *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41쪽. 공과를  
시작하기 위해 청남에게 주는 스코트  
장로의 권고를 읽어준다.

몬트 제이 브러프, “청남-열쇠를  
지닌 사람들”, *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47쪽. 일부 청남들이 어떻게

전임 선교사들을 돕고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로 공과를 끝맺는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집사, 교사,  
제사), “가족 활동”, 1번

**제44과: 성전 결혼을 위해 자금  
준비함**

고든 비 힝클리, “영원히 지속되는  
결혼”, *리아호나*, 2003년 7월호,  
3쪽. 이 기사에 나오는 가상 인물인  
자니와 매리의 예를 읽어주고, 성전  
결혼의 축복에 관해 토론한다.

리차드 지 스코트, “의의 일 하세”,  
*리아호나*, 2001년 3월호, 10쪽.  
해의 왕국의 결혼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개인적 노력에 관해 토론할  
때, 경계선을 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제언을 활용한다.

교리와 성약 131:1~4과 함께  
교리와 성약 132:15~17을  
활용한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제사),  
“시민으로서의 발전과 사회적 발전”,  
2번

**제45과: 효과적인 가정 복음 교육**

데이비드 헤드, “임무를 포기하지  
않은 가정 복음 교사”, *리아호나*,  
2002년 9월호, 36쪽. 무엇이  
훌륭한 가정 복음 교사를 만드는지를  
토론할 때 이 이야기를 들려준다.

존 엘 하우어터, “후임 동반자”,  
*리아호나*, 2001년 11월호, 28쪽.  
청남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가정 복음  
교사가 될 것을 권유할 때 이  
이야기를 활용한다.

야곱서 1:19과 함께 교리와 성약  
107:99을 활용한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교사), “정원회

활동”, 1번

**제46과: 언론 매체의 나쁜 영향을  
피함**

토마스 에스 몬슨,  
“외설물-치명적인 매개체”,  
*리아호나*, 2001년 11월호, 2쪽.  
반원들이 저질적인 대중 매체의  
영향에 관해 토론할 때 나무쥬의  
작용에 관해 들려준다.

“앞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외설물의 함정을 피함”, *리아호나*,  
2002년 10월호, 12쪽. 벤슨  
대관장의 인용문을 들려줄 때,  
외설물을 피하는 다섯 가지 제언을  
주는 것을 고려한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교사),  
“시민으로서의 발전과 사회적 발전”,  
9번

**제47과: 깨끗하고 고운 말**

에이치 데이비드 버튼, “높이  
일어서라”,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75쪽. 말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는지에 관해 토론할 때,  
버튼 감독의 두 번째 예를 활용한다.  
“주께서 날 보내시기 심히 원하시는  
곳은”, 찬송가, 146장, 2절.

**제48과: 의로운 표준을 유지함**

데이비드 이 소렌슨,

“방울뱀하고는 못 노는 거야”,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48쪽.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거하는  
것의 의미를 토론하면서 방울뱀의  
비유를 활용한다.

“단순하고 간결한 진리: 여섯  
가지 원리를 적용한 청남 청녀들”,  
*리아호나*, 2002년 9월호, 16쪽.  
공과를 결론 짓기 위해 이 기사에  
있는 청소년들의 간증들을 활용한다.

**제49과: 정직과 고결성**

켄턴 엘 쿡, “당신은  
성도입니까?”, *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95쪽. 우리가 부정직하도록  
유혹받는 방법에 관해 토론하면서  
자기 평가 질문 세 가지를 활용한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제사), “영적인  
발전”, 1번

**제50과: 장애자들을 존중하고 격려함**

엘리자베스 퀴킨부시, “그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나왔다”,  
*리아호나*, 1999년 6월호, 36쪽.  
그리스도와 같은 동정심에 관한  
토론을 보충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활용한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제사),  
“신체적인 발전”, 11번 ■

## 청년 교재 2 참고 지도서

2004년 제26~49과에서  
사용. 다음 참고 자료들은  
제26~49과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참고  
자료에서 개인 발전 기록부는 청년  
개인 발전 기록부 책자를 말한다.  
개인 발전 기록부에 있는 부분들을  
공과 시간에 사용하거나 그것들을  
가정에서 달성하도록 반원들을  
격려한다. 공과 추가 제언들을  
“*리아호나* 사용하기”에서 찾을 수  
있다.

인쇄된 순서대로 공과를 가르친다.  
교재에는 성탄절 특별 공과가 들어  
있지 않다. 성탄절 특별 공과를  
가르치고 싶다면, 구세주의 생애와  
사명에 초점을 두고 있는 성구, 대회  
말씀, 교회 잡지 기사, 그림, 찬송가  
사용을 고려한다.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이  
지도서를 인터넷에서 찾을 경우

www.lds.org로 가서 홈페이지에  
있는 세계 지도 아이콘을 선택한다.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고 *리아호나*  
포지를 클릭한다. 그런 다음 2004년  
5월호를 선택한다.

장래의 참고 지도서는 *리아호나*  
5월호 및 11월호에 인쇄될 예정이다.  
*리아호나*(일부 언어)를 인터넷  
www.lds.org에서 찾을 수 있다.

**제26과: 성찬식**

리셀 엠 벨슨, “성찬식 예배”,  
*리아호나*, 2004년 8월호, 10쪽.  
공과의 결론을 지을 때, 성찬에  
참여하는 방법에 관한 벨슨 장로의  
권고를 살펴본다.

데니스 비 노인슈안더, “의식과  
성약”, *리아호나*, 2001년 11월호,  
16쪽. 성약에 관해 토론할 때, 침례와  
성찬 사이의 연관성에 관한 설명을  
활용한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 찬송가,

108장

개인 발전 기록부, "신앙 가치관 경험", 4번; "신성한 성품 가치관 경험", 4번

**제27과: 순종을 통해 간증을 강화시킴**

고든 비 힝클리, "확신에 찬 생활", *리아호나*, 2001년 9월호, 2쪽. 이 기사를 활용하여 순종하는 용기가 어떻게 우리의 간증을 강화시키는지 토론한다.

제임스 이 파우스트, "주여 내가 만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19쪽. 간증을 어떻게 얻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이 기사의 끝 부분에 있는 막대기의 비유를 활용한다.

**제28과: 자유의지**

조셉 비 워스틴, "세 가지 선택", *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78쪽. 공과를 결론 지으며 이 기사에 언급된 세 가지 선택에 관해 토론한다.

"포스터: 너를 얽어 매지 않도록 하라", *리아호나*, 2003년 2월호, 33쪽. 선택의 결과에 관해 토론을 시작하면서 이 포스터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토론한다.

"의의 일 선택하여 생활하라", 찬송가, 163장

개인 발전 기록부, "선택과 책임 가치관 경험", 3번

니파이이서 2:26~27;  
모사이야서 4:30; 힐라맨서 14:30~31 참조.

**제29과: 승영**

데이비드 이 소렌슨, "성전 사업의 교리", *리아호나*, 2002년 8월호, 30쪽. 성전 의식에 관해 토론할 때 이 기사에 있는 제언을 활용한다.

로마서 8:17; 요한계시록 3:5, 20~21 참조.

**제30과: 봉사를 통해 간증을 강화시킴**

토마스 에스 문슨, "주님의 길", *리아호나*, 2003년 1월호, 3쪽.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것에 관해 토론하는 동안 이 기사에 있는 이야기들을 포함시킨다.

델린 에이치 옥스, "주께서 날 보내시기 심히 원하시는 곳은",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67쪽. 공과를 결론 짓기 위해 이 기사에 있는 봉사에 관한 설명을 토론한다.

개인 발전 기록부, "선행 가치관 경험", 1, 2, 5, 6번



**제31과: 국가의 법률**

고든 비 힝클리, "전쟁과 평화",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78쪽. 신앙개조 제12조에 관해 토론과 같이 전쟁에 관한 교회의 입장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

러셀 엠 넬슨,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39쪽. 애국에 관해 토론할 때 이 기사에 있는 "시민으로서의 책임"편을 활용한다.

국가 또는 애국적인 적절한 노래 부르기를 고려한다.

**제32과: 생명의 중요성**

델린 에이치 옥스, "율법의 더 중요한 바", *리아호나*, 2000년 3월호, 15쪽. 생명의 존엄성에 관해 토론할 때 이 기사에 있는 "선택, 또는 자유의지"편을 활용한다.

리카르도 로페스 데 멘돈사, "주는 이 몸을 사랑해요", *리아호나*, 2003년 8월호, 44쪽. 공과를 시작하기 위해 이 이야기의 활용을 고려한다.

**제33과: 성스러운 출산의 능력**

닐 에이 맥스웰, "순결해야 할 이유들", 2003년 3월호, 6쪽. 순결에 관해 토론할 때 이 기사에 있는 10 가지 경고를 활용한다.

"질 의 응답", *리아호나*, 2003년 2월호, 22쪽. 사랑이 어떻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를 토론할 때 이 기사에 있는 몇 가지 대답을 들려준다.

창세기 39장; 사무엘하 11장;  
엘마서 39장; 교리와 성약 42:22~23 참조

**제34과: 도덕적인 합당성에 관한 주님의 표준을 굳게 지킴**

고든 비 힝클리, "청소년들을 위한 예언자의 권고와 기도", *리아호나*, 2001년 4월호, 30쪽. 주님의 표준에 관해 토론할 때 여섯 가지 '우'를 포함시킨다.

보이드 케이 패커, "진리의 표준이 세워졌습니다", *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24쪽. 유혹을 인식하고 극복하는 것에 관해 이 기사에 있는 제언을 토론한다.

개인 발전 기록부, "고결성 가치관 경험", 1번

**제35과: 현명한 선택**

리처드 지 스코트, "지식을 얻고 그것을 현명하게 사용할 힘을 얻음", *리아호나*, 2002년 8월호, 12쪽. 테너 부대관장의 인용문과 함께 두 젊은이에게 관한 이야기의 활용을 고려한다.

개인 발전 기록부, "선택과 책임 가치관 경험", 1번과 2번

니파이이서 2:26~27;  
모사이야서 4:30; 힐라맨서 14:30~31 참조.

**제36과: 정직**

켄틴 엘 쿡, "당신은 성도입니까?", *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95쪽. 진실로 정직한 사람을 정의하면서 세 가지 자기 평가 질문을 활용한다.

디 렉스 게렛, "행운을 발견함", *리아호나*, 2003년 9월호, 8쪽. 공과를 결론 시에 이 이야기를 들려준다.

**제37과: 올바른 생활을 통해 순결을 지킴**

제임스 이 파우스트, "하나님의 의로운 딸들이 지닐 미덕",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108쪽. 순결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토론하면서 이 기사에 있는 열 가지 미덕 중 몇 가지를 포함시킨다.

개인 발전 기록부, "고결성 가치관 활동", 다섯 번째 항목

**제38과: 신체의 건강**

보이드 케이 패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85쪽. 우리 육신을 돌보는 것의 축복에 관해 토론하면서 패커 회장의 축복사의 축복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개인 발전 기록부, "지식 가치관 활동", 세 번째 항목

**제39과: 질병을 예방함**

해롤드 지 힐렘, "육신을 위하지 않는 것은", *성도의 벗*, 1996년 6월호, 26쪽. 공과 시작 시에 이 기사에 있는 치과 의사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콜린 윌러리, "난 아무에게도 피해 주지 않아", *리아호나*, 2000년 3월호, 40쪽. 좋은 건강 습관의 유익에 관해 토론할 때 이 이야기를 활용한다.

고린도전서 3:16~17 참조.

**제40과: 자기 절제**

제임스 이 파우스트, "속사함을 강건하게 함", *리아호나*, 2003년 2월호, 2쪽. 자기 절제의 열쇠로서 이 기사에 있는 다섯 가지 제언을

활용한다.

개인 발전 기록부, "신성한 성품 가치관 경험", 3번과 7번

**제41과: 낙천적인 태도**

조 제이 크리스티슨, "미소지어야 할 이유", 성도의 벗, 1998년 9월호, 28쪽. 공과를 결론짓기 위해 반원들에게 "미소 명부"를 만들 것을 격려한다.

존 비 덕슨, "삶이 고될지라도", 리아호나, 2002년 5월호, 28쪽. 은영에 관한 이야기를 보충하기 위해 이 기사의 처음에 있는 이야기를 활용한다.

"내 영혼이 햇빛을 받아", 찬송가, 153장

모사이야서 2:41; 24:13~15 참조.

**제42과: 감사하는 마음**

델린 에이치 옥스, "범사에 감사하라",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95쪽. 감사의 느낌을 표현하는 방법을 토론하면서 이 기사에 있는 제언들을 참고한다.

후안 카를로스 로드리게스, "너무나 필요했던 비", 리아호나, 2003년 6월호, 40쪽. 공과에 있는 이야기를 보충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활용한다.

**제43과: 여가 선용**

조셉 비 워스린, "인생의 여정에서 배운 교훈들", 리아호나, 2001년 5월호, 35쪽. 여가 시간 활용의 균형에 관해 토론할 때 이 기사에 있는 제언을 활용한다.

교리와 성약 58:27; 88:118, 124 참조.

**제44과: 재능을 발전시킴**

로널드 에이 래스벤드, "달란트의 비유", 리아호나, 2003년 8월호, 34쪽. 비유에 관해 토론하면서 이 기사에 있는 제언들을 활용한다.

마리사 디 톰슨과 재나 닐슨, "재능을 발견하고 발전시킴", 리아호나, 1999년 5월호, 40쪽. 이 기사에 있는 제언들 몇 가지를 공과에 포함시킨다.

개인 발전 기록부, "지식 가치관 경험", 2번

**제45과: 예술 활동 참여**

새나 가즈나비, "한 음 한 음씩", 리아호나, 2003년 9월호, 18쪽. 문화 예술에 참여하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하기 위해 이 기사를 활용한다.

개인 발전 기록부, "개인적인 가치 가치관 경험", 4번; "지식 가치관

경험", 6번

교리와 성약 25:12; 88:78~80 참조.

**제46과: 재정적 책임**

마빈 제이 애쉬튼, "가족 재정 지침", 리아호나, 2000년 4월호, 42쪽. 자립에 관해 토론하기 위해 이 기사에 있는 열 가지 방법 중 몇 가지를 활용한다.

"검소하게 생활하고 십일조와 헌금을 냄으로써 준비합시다", 리아호나, 2003년 12월호, 25쪽. 공과를 보충하기 위해 인용문 또는 성구 가운데 몇 가지의 활용을 고려한다.

개인 발전 기록부, "선택과 책임 가치관 경험", 7번

**제47과: 환경을 향상시킴**

토마스 에스 몬슨, "외설물-치명적인 매개체", 리아호나, 2001년 11월호, 2쪽. 나무좀이 어떻게 느릅나무를 파괴하는지를 들려주고, 그것을 불건전한 환경에 있는 것과 비교한다.

애나 베이트먼, "다 좋은데 ... 그 한 부분만 제외하면", 리아호나, 1999년 6월호, 22쪽. 불건전한 환경을 극복하는 것에 관해 토론하면서 이 기사에 있는 이야기의 활용을 고려한다.

개인 발전 기록부, "신성한 성품 가치관 경험", 3번

모로나이서 7:14~19; 교리와 성약 45:31~32; 88:119 참조.

**제48과: 지도자의 의사 전달 기술**

브래드 윌콕스, "청소년들이 소속감을 느끼도록 도와줌", 리아호나, 1999년 6월호, 42쪽. 공과에서 사랑에 관한 부분을 토론하기 위해 이 기사에 있는 열 가지 제언 가운데 몇 가지를 선택한다.

"십대가 십대를 인도함", 리아호나, 2003년 1월호, 24쪽. 지도력의 특성에 관해 토론할 때 이 기사에 있는 제언들 몇 가지를 포함시킨다.

"주께서 날 보내시기 심히 원하시는 곳은", 찬송가, 146장, 2절

**제49과: 장애인에 존중하고 격려함**

피터 비 가드너, "말 이상의 것", 리아호나, 2002년 2월호, 28쪽. 결론의 일부로서 이 기사를 활용한다.

개인 발전 기록부, "개인적인 가치 가치관 경험", 3번 ■

#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

## 주일학교



다니엘 케이 주드  
제1보좌



에이 로저 메릴  
회장



윌리엄 디 오스왈드  
제2보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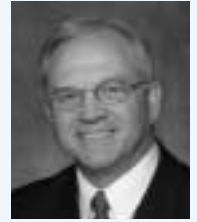
## 청남



단 알 버게스  
제1보좌



찰스 더블류 달퀴스트 이세  
회장



마이클 에이 네이더  
제2보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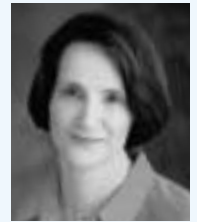
## 상호부조회



캐서린 에이치 휴스  
제1보좌



보니 디 파킨  
회장



앤 시 핑그리  
제2보좌

## 청녀



줄리 비 벅  
제1보좌



수잔 더블류 테너  
회장



일레인 에스 돌튼  
제2보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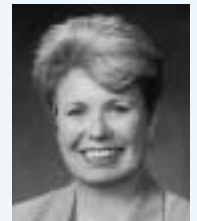
## 초등회



시드니 에스 레이놀즈  
제1보좌



콜린 케이 멘러브  
회장



게일 엠 클레그  
제2보좌



컨퍼런스 센터에 모인 회원들이 연차 대회 토요일 오후 모임에서 교회 지도자들을 지지하고 있다.

## 보조 조직 회장단 변경: 연차 대회 관람자 수 증가

**본** 부 주일학교 및 청남 회장단은 더 이상 칠십인 정원회 회원 중에서 부름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제 174차 연차대회 토요일 오후 모임에서 발표되었다. (지지와 해임된 사람들의 명단은 24쪽을 참조한다. 신임 회장단에 대한 신상 정보는 다음 쪽에 있는 약력을 참

조한다.) 1979년 10월 이래로, 주일학교 및 청남 회장단은 전임 칠십인 정원회 회원으로 봉사하는 총관리 역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새로운 보조 조직 지도자들은 총관리 역원이 아니며, 자신들의 직장에서 계속해서 일하면서 보조 조직 회장단 직책에서 시간제로 봉

사하게 된다. 기타 변경 사항에는 존 에이치 그로버그 장로가 칠십인 회장단에 부름 받은 것이다. 해임된 테니스 비 노인슈안터 장로는 2004년 8월 15일에 동유럽 지역의 회장으로 봉사하게 된다. 그 외에 35명의 새로운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이 부름을 받고

### 대회 말씀, 온라인 접속 가능

**교** 회의 174차 연차 대회 말씀 원고는 현재 혹은 곧 [www.lds.org](http://www.lds.org) 에서 다음 언어로 볼 수 있다.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핀란드어, 불어, 독일어, 인도네시아어,

이탈리아어, 노르웨이어, 포르투갈어, 서반어, 스웨덴어 및 타갈로그어. 대회의 네 모임에 대한 비디오 및 오디오 파일은 영어와 서반어로 온라인에서 접속할 수 있

다. 모임에 대한 오디오 파일은 추가로 35개국어로 준비될 것이다. 구체적인 언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lds.org](http://www.lds.org) 를 방문하여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세계 지도를 클릭하면 된다.

11명이 해임되었다.

연차 대회에서 다섯 차례 모임을 갖는 동안 컨퍼런스 센터와 템플 스퀘어에는 100,000명 이상의 회원이 모였다. 또한 수백만 명이 텔레비전, 위성, 라디오 및 인터넷 방송을 통해 교회 지도자들의 말씀을 경청했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개회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제 거대한 국제적인 가족입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의 모습과 말씀이 95%에 달하는 교회 회원에게 전해지는 것은 기이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거의 천이백만 명에 이르는 회원 가운데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 대회 모임은 66개 국어로 통역되었으며, 거기에는 최초로 아랍어와 소수의 미코로네시아어가 포함되었다. ■

### 신권 회복 행사 준비 완료

제175차 신권 회복 기념 방송이 2004년 5월 16일 일요일, MDT(산지 일광 절약 시간) 오후 6시에 컨퍼런스 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 행사는 66개국어로 80개국에 방송된다. 12세 이상의 모든 형제는 참석할 수 있는 소속 스테이크 센터에 참석해야 한다.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인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와드 및 지부에서는 2004년 5월 16일에서 6월 13일 사이에 특별 성찬식 모임을 갖고 회복을 기념하도록 격려했다. ■

## 마조리 페이 힝클리 자매 92세를 일기로 별세

**마**조리 페이 힝클리 자매는 67년 동안 남편인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과 함께 세계 전역을 여행했다. 2004년 4월 6일, 그녀는 지상에서의 여정을 마쳤다. 힝클리 자매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 싸인 채, 고령으로 인해 이 세상에서 다음 세상으로 조용히 떠났다. 1911년 11월 23일에 출생한 그녀는 향년 92세이다.

사랑하는 예언자의 사랑하는 아내인 힝클리 자매는 역대 어느 대관장의 부인보다도 교회 회원들에게 더 잘 알려져 있었다. 부분적으로는 급속한 교회 회원수의

성장(회원수는 힝클리 대관장이 대관장단에 부름 받은 이래로 거의 세 배나 증가했다)과 먼 지역까지 남편과 함께 자주 여행하고 힝클리 대관장이 감리하는 모임에서 말씀을 했다.

힝클리 자매는 자신의 인생 여정에서의 놀라움을 종종 다음과 같이 농담으로 표현했다. “저처럼 훌륭한 여인이 어떻게 이런 궁지에 빠졌을까요?” 별세하기 몇 개월 전 교회 잡지와와의 인터뷰에서 힝클리 자매는 이렇게 말했다.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았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훌륭한 날들이었습니다.” 따뜻한 마음과 빠른 재



마조리 페이 힝클리 2004년 4월 6일 별세

치로 잘 알려진 그녀는 교회 잡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생에서 웃을 수 없다면, 우리는 어려움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힝클리 대관장 부부와 함께,” 리아호나, 2003년 10월호, 32~37 참조) 그리고 장례식에서 그녀는 “사랑의 화신”으로 칭송 받았다.

그녀가 많은 사람들의 삶에 감동을 준 증거로, 고인과의 마지막 대면 모임에 수천 명이 참석했으며, 어떤 사람들은 바람 부는 봄날, 줄을 선 채 밖에서 세 시간 이상을 기다리기도 했다. 4월 10일에 있었던 장례식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참석했으며 수만의 사람들이 텔레비전과 위성 방송을 통해 장례식을 지켜봤다.

“힝클리 자매님은 여러 왕들 및 여왕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분은 어린 아이들을 사랑 하셨습니다.”라고 대관장단 제1보좌인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과 말할 수 있는 힝클리 자매의 능력에 관해 말했다. “그 분의 인격에는 결함이 없었습니다 ... 주님처럼 힝클리 자매님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자매님은 훌륭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 분의 신앙, 결의 및 헌신을 따름으로써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라고 대관장단 제2보좌인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은 말했다.

장례식을 하는 동안 힝클리 부부의 다섯 자녀들, 케슬린, 리차드, 버지니아, 클라크, 제인은 힝클리 자매의 말씀을 인용했으며 어머니에게 감사를 표했다. 클라크 힝클리는 결혼한 지 60년이 지난 후에 힝클리 대관장이 아내에게 보낸 편지를 읽었다. “여보, ... 당신을 알고 지낸 지 오랜 시간이 지났으며 ... 우리 관계는 내가 기대한 대로 되었소 ... 이제 우리는 함께 늙어가고 있소 ... 언젠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게 되면 눈물을 흘릴 것이지만, 영원한 동반자로 다시 만나리라는 조용하고 분명한 확신도 있을 것이요.”

그 날까지, 힝클리 대관장은 힘차게 성장하는 교회 지도자로 남아 있을 것이다. “우리는 대관장님께서 계속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관장님을 사랑하고 지지합니다. 우리는 대관장님을 위해 기도합니다.”라고 파우스트 부대관장은 말했다.

전 본부 상호보조회 회장단 일원이었으며 힝클리 대관장의 전기 작가인 셰리 엘 듀 자매는 천이백만의 회원이 함께한다 하더라도 힝클리 자매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각자 힝클리 대관장이 계속해서 일을 수행할 힘을 얻도록 기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회원 모두가 예언자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조금 더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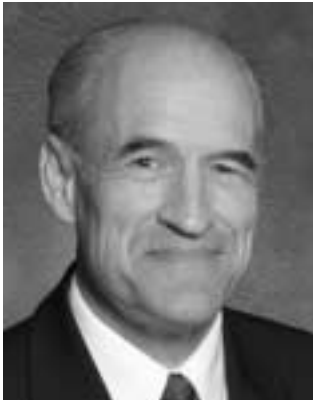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태버태클로 들어가는 힝클리 자매의 관을 따르고 있다.



## 에이 로저 메릴

본부 주일학교 회장



**에**리얼 로저 메릴 형제는 젊은 선교사 시절에 “사람들에게 정확한 원리를 가르쳐서 그들이 스스로를 다스리게 하십시오”라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지도력의 철학을 처음 배웠다. “그것은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라고 메릴 형제는 말한다. 그것은 지난 40년 동안 그의 개인 생활과 직장에서도, 교육, 학업, 그리고 지도력의 핵심적인 주제가 되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즉 좋은 일과 나쁜 일들은 지도자들의 영향에서 비롯됩니다. 구세주와 그분의 의로운 영향력은 인간 영혼의 싸움에서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원리와 선택의 힘에 관한 가르침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들입니다.”라고 메릴 형제는 말한다. 메릴 형제는 이 개념이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실현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는 가정이 가르치고 배우며 이끌어 줄 가장 훌륭한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훌륭한 가정은 훌륭한 사회를

만들고, 훌륭한 사회는 훌륭한 가정을 양성합니다. 또한 성공적인 가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부모가 행사하는 지도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 생활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경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라고 메릴 형제는 말한다.

그는 그의 아내인 레베카가 좋은 모범이라고 지적한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훌륭한 아내가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신앙과 서로에 대한 사랑, 그리고 주님과 가족에 대한 사랑 가운데서 하나가 됩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메릴 형제는 59세로 1945년 5월 2일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에리얼 카든과 에디스 호슬리 메릴 사이에 태어났다. 그는 캘리포니아 주 카멜에서 성장했고 텍사스 선교부에서 봉사했으며 브리감 영 대학교를 졸업했다. 그는 지도력 훈련 회사의 선임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메릴 형제는 1967년 6월 7일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레베카 립피와 결혼했고, 일곱 자녀와 열여섯 명의 손자 손녀를 두고 있다. ■

## 다니엘 케이 주드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 제1보좌



**다**니엘 케이 주드 형제의 인생은 종교와 학문적 훈련의 독특한 조화를 이루어 왔다. 그는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선교부에서 선교사로 봉사한 다음 남 유타 대학교에서 동물학 전공으로 학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가정 과학 석사 학위와 상담심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그 기간 동안 교회 교육 기구에서 세미나리 및 종교 교육원 교사로도 일했다.

“저는 전문가로서, 또는 감독이나 스테이크장으로서 가족들과 상담할 때, 복음이 얼마나 우리의 치유에 도움이 되는지를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말일성도들이 주일학교에서 예언자들과 경전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올 때 받을 수 있는 힘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주드 형제는 1956년 9월 17일 유타 주 카납에서 리로이 피와 필리스 판위스 주드의 네 자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그는 남 유타

대학교에서 미래의 아내 케이 시그밀러를 만났다. 그들은 유타 세인트 조지 성전에서 결혼하여 지금은 자녀 넷을 두고 있으며, 구세주를 개인 및 가정 생활의 중심으로 삼고 있다.

“구원은 우리 자신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분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기초로 할 때, 영구적으로 잘못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라고 주드 형제는 말한다.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으로 부름 받을 때 유타 주 오렘 캐년 스테이크의 스테이크장과 브리감 영 대학교 고대 경전학과 학과장으로 봉사하던 47세의 주드 형제는 종교와 학술적인 면에서 쌓은 경험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계속 활용하기를 바란다.

“주일학교에 대한 저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의 희생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니파이 이서 32장 3절에 나오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지킴] ...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가 행하여야 할 바를 모두 전하여 주실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

## 윌리엄 디 오스왈드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 제2보좌



**윌**리엄 던칸 오스왈드 형제는 “경전을 공부하면서 보낸 시간”이 그의 삶에 강하고 선한 영향을 미쳐왔다고 말한다.

그는 네 번이나 봉사했던 복음 교리반 교사로서의 부름을 교회에서 받은 부름 중에서 가장 즐거웠던 것으로 생각한다. 복음 교육과 교회 봉사에 대한 그의 사랑 덕분에 그는 7월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선교부의 선교부장으로서의 봉사를 마치면 이 부름을 수행하게 되었다.

오스왈드 형제는 1970년에 본부 주일학교 임원회에서 봉사했으며, 그 후 현재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인 러셀 엠 넬슨 장로가 본부 주일학교 회장이었을 때 그의 제1보좌로 봉사했다.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이라는 새로운 부름을 받은 오스왈드 형제는 25년 전에 자신이 시작했던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기회에 대해 기뻐한다.

그 사이에 오스왈드 형제는 감독으로서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

관장 내외가 참석하는 와드를 관리하는 특권을 가졌는데, 그는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배운 “훌륭한 교육의 장”이었다고 설명한다.

“그 분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었는데에 대해 제가 받은 감동은 평생 잊지 못할 훌륭한 경험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이고 표현하는 그분의 능력은 저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경험 때문에 저는 제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과 감사를 더 표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스왈드 형제는 68세로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태어났으며, 유타 대학교에서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 선교사업을 했으며, 1961년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마비스 모리스와 결혼하여 여섯 자녀를 두고 있다. ■

## 찰스 더블류 달퀴스트 이세

본부 청남 회장



**찰**스 윈스턴 달퀴스트 이세 형제는 그의 간증이 “세미나리에 가고 교회 부름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이 주님이 명하신 일을 단지 행함으로써 조금씩 조금씩” 발전했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이 본부 청남 회장으로 봉사하는 동안 청소년들이 비슷한 경험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 “저는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 뿐 아니라 왜 이 곳에 왔으며, 구원의 계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이해하는 청남 세대를 견고히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달퀴스트 형제는 청소년들이 충실하다면 자신과 같은 방법으로 축복 받을 것이라고 믿는다. 또한 그는 우리가 사악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청소년들이 필요하며, 저는 우리의 청소년들이 역사상 가장 훌륭한 세대라고 믿습니다.”라고 말한다.

달퀴스트 형제는 교회의 청남들과 함께 일한 경험이 있다. 소년

단 실버 비버 상 수상자인 그는 전 생애동안 소년단과 인연을 맺어왔고, 와드 청남 회장으로 봉사해왔다. 그가 수행했던 다른 교회 부름은 독일 함부르크 선교부 선교부장, 스위스 선교부 전임 선교사, 스테이크장, 스테이크장단 보좌, 고등 평의원 등이다. 달퀴스트 형제는 변호사이고 지역 봉사에 활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달퀴스트 형제는 56세로 유타주 프로보에서 시 윈스턴과 압톤 아흐란더 달퀴스트 사이에서 태어났고, 아이다호 주 보이스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 그는 선교사업 후 1969년 6월 2일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젤라 비 달리와 결혼했다. 그들은 현재 유타주 샌디에 살고 있으며 슬하에 다섯 자녀와 일곱 명의 손자 손녀를 두고 있다.

“저는 제 고등학교때 여자 친구와 결혼했는데, 우리는 보이스에 있는 같은 와드의 회원이었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지휘자였고 그녀는 주일학교 반주자였습니다. 우리는 그 때부터 조화를 이루어 왔습니다.”라고 달퀴스트 형제는 말한다. ■

## 딘 알 버게스

본부 청남 회장단 제1보좌



“저의 연약한 간증이 처음 시험 받은 것은 제가 농구를 해야 할지 선교 사업을 가야 할지 결정해야 했던 때입니다.”라고 딘 레이드 버게스 형제는 말한다. 그는 대학교 1학년 때 남 유타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고 농구를 했다.

1965년에는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었고, 징집 때문에 모든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봉사할 기회를 갖지는 못했다. 그러나 버게스 형제는 선택할 기회가 있었다. “많이 기도하고 금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이 진정한 특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봉사하기 위해 휴학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브라질 선교부에서 봉사하는 동안 회복된 복음에 대한 버게스 형제의 간증은 더욱 굳건하게 되었다.

귀환 후 그는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으며 1970년에 졸업했다. 얼마 후 그는 BYU 학생 와드에서 어네트 크리스천슨을 만났다. “그녀는 상호 부조회 회장이고 저는 장로 정

원회 회장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치 있는 일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항상 열심히 봉사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그들은 데이트하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 1973년 12월 27일 유타 프로보 성전에서 결혼했으며, 슬하에 유타 주 샌디에 살고 있는 다섯 자녀를 두고 있다.

버게스 형제는 57세로 1946년 5월 24일 유타주 알파인에서 레이드와 에텔 킹 버게스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가족이 운영하는 상점과 20에이커나 되는 농장에서 일하면서 성장했다. 그의 부모들은 가족과 노동의 가치, 그리고 버게스 형제 자신이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노력해 왔던 것과 똑같은 복음 원리를 그에게 가르쳤다.

버게스 형제는 1997년 자신이 선교부장으로 봉사했던 브라질 벨로 호리존테 동 선교부에서 귀환했다. 그가 봉사한 다른 교회 부름은 스테이크장단 보좌, 스테이크 청남 회장, 감독, 고등 평의원 등으로 24년 이상 봉사한 그의 모든 부름은 청남과 관련된 것이다. ■

## 마이클 에이 네이더

본부 청남 회장단 제2보좌



자신이 잃어 버린 아버지의 골프 공을 찾던 일 이 마이클 안톤 네이더 형제의 신앙의 발전에 관한 최초의 추억이다.

아이다호 주 티히라는 조그만 농촌에서 성장할 때, 네이더 형제는 차고에서 아버지의 골프 클럽을 몰래 가져다가 말 농장 쪽으로 모든 골프 공들을 날렸다. “높이 자란 잔디밭에서 그 공들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지 몰랐습니다. 저는 긴급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다시 돌아가서 저는 하나만 제외하고 모든 공을 찾았습니다. 또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결코 잊지 못할 교훈을 얻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네이더 형제는 오늘날에도 주님께서 그 공들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실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제가 배우고 성장함에 따라, 주님은 저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하십니다. 저는 주님이 그분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데 더 많은 지혜와 신앙을 사용하도록 저를 가르쳐

오셨다고 느낍니다.”

네이더 형제는 그의 어머니로부터, 그리고 티히의 작은 집회에서 영의 영향력을 느끼는 것에 대해 배웠다. “저는 어머니께서 종종 영에 감동되시는 모습을 교회에 앉아서 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제가 구세주에 대한 간증을 들으면서 뭔가 특별한 것을 느끼고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네이더 형제는 55세로 아이다호 주 포카텔로에서 에이치 보이드와 도나 네이더 사이에 육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다. 그는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수학하여 법과 대학을 졸업했다. 그는 대서양 연안 중앙 선교부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다. 그와 그의 부인 로즈메리 커티스는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했으며, 슬하에 여덟 자녀와 여섯 명의 손자손녀를 두고 있다. 그들은 유타 주 샌디에 살고 있으며, 그 곳에서 자영업으로 건축 자재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남 선교부장단, 스테이크장, 스테이크 청남 회장, 감독, 와드 선교 책임자, 그리고 소년단 지도자로 봉사했다. ■



가나 청소년들이 가나 아크라 성전 헌납에 앞서 있을 예언자를 위한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 세계 전역에서 복음을 축하함

아담 시 올슨, 교회 잡지

**노**래와 춤에서부터 웅변과 연극에 이르기까지, 문화적 예술은 오랫동안 교회 역사에서 한 부분을 차지해왔다. 합창, 무용, 연극 및 기타 문화 예술 행사는 회원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나타내는 독특한 방법이 된다.

교회 지도자들은 마음에 그러한 목적을 품고, 세계 전역에 있는 스테이크, 지방부, 와드, 및 지방에 문화 예술 활동을 계획하고 참여하여, 교회의 미래를 위한 문화 예술의 한 부분을 만들도록 격려했다.

대관장단은 세계 전역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이렇게 썼다. “저희는 지역 지도자들에게 특히 청소년들 간에 친구들을 사귄 수 있는 기회와 유대감을 주는 스테이크 및 복합 스테이크 행사와 활동들을 개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런 행사로는 음악, 춤, 연극, 연설, 운동, 또는 시각 예술 등이 있습니다.”

적절한 연극 및 뮤지컬에 대한 요청이 증가할 것을 기대하면서, 교회 음악 및 문화 예술 분과는 대본, 낭독 극장, 오라토리오 및 기타 문화 예술 작품을 접수한

다.(출품 안내를 포함하여, 자세한 내용은 7월호 리아호나에 게재될 것이다.)

문화 예술 활동에 대한 격려의 일환으로, 교회는 성전 헌납과 연계하여 크고 작은 문화 예술 축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첫번째 행사는 가나 아크라 성전 헌납에 앞서 1월에 있었다. 비슷한 행사가 알래스카 앵커리지,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거행되었다. 덴마크 코펜하겐과 뉴욕시에 있는 성도들은 각각 5월 23일과 6월 13일로 계획되어 있는 자체 축하 행사의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 가나에 비치는 햇빛

가나에서는 특별 축하의 일환으로, 2,000명에 달하는 청소년들이 지역 체육관을 채우고 뜨거운



회원들은 공연에서 브라질의 과거 장면을 묘사했다.

태양 아래 아프리카에서는 최초로 갖는 교회의 최대 청소년 활동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

서아프리카의 민간 설화와 춤을 근거로 하여, 축하의 줄거리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모든 것들을 찾아 다닌 크와쿠 아난시의 이야기로 꾸며졌다. 각 스테이크와 지방부에서는 노래와 춤을 추면서 그에게 용기, 사랑, 혹은 가족과 같은 훌륭한 것들을 주었다. 그러나 아난시가 가나 아크라 성전을 보았을 때, 그 아름다움은 그가 수집한 모든 훌륭한 것들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 알래스카에서의 쇼

알래스카에 있는 성도들은 2월 6일에 있었던 문화 축하 행사의 일환으로 신약의 그림자라는 제목의 뮤지컬을 준비했다. 600명의 출연자가 등장하는 이 공연은 알래스카 원주민, 정착민 및 초기 물몬 개척자들의 문화적인 유산을 묘사했다.

그 작품은 알래스카 원주민의 활기찬 결혼 무용과 300명의 초등학교 합창단이 부르는 노래와 극중에 포함된 여러 다른 노래들로 흥미를 자아내고 있다. 한 겨울에 진행되는 행사는 지역 고등학교 실내에서 개최되었다.



알래스카의 교회 회원들이 알래스카 앵커리지 성전 재헌납을 위한 축하 행사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

### 비속에서 열린 브라질 상파울루 성전 재헌납 모임

8,000명 이상의 지역 성도들과 1,200명의 선교사들이 지난 2월 21일에 있었던 브라질 상파울루 성전 재헌납 축하를 위해 노래하고 춤추는 동안, 60,000명의 회원들이 파카엠부 체육관을 가득 채우고, 그 외 수 천 명의 성도들은 나라 전역에서 위성을 통해 그 광경을 시청했다.

계속해서 비가 내렸지만 전통 복장을 한 무용수들, 60개의 스테이크에서 모인 1,200명의 합창단, 그리고 동물, 축구 선수 및 다른 인형 모양을 한 대형 소품들의 공연을 지켜보는 관중들을 해산시키지 못했다.

한 시간 반 동안의 공연은 4개월 간의 준비와 기획, 안전, 청소, 및 의료 지원 등을 포함하여 수백 명의 자원 봉사자들을 필요로 하였다. ■